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사학위논문

# 제주도 심방의 멩두 연구

- 기원, 전승, 의례를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강 소 전

2012년 8월

# 제주도 심방의 멥두 연구

- 기원, 전승, 의례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허 남 춘

강 소 전

이 논문을 문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 년 8 월

강소전의 문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 성 윤	
위 원	김 전 선	
위 원	이 용 범	
위 원	현 승 환	
위 원	허 남 춘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2 년 8 월

A Study on *Simbang* Shaman's Tools, *Mengdu*, on Jeju Island

—Focused on the Origin, Hereditary Transmission, and Ritual Exorcisms—

So-Jeon Kang

(Supervised by professor Nam-Chun He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Doctor of Literature

2012.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Interdisciplinary Postgraduate Program in Koreanolog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제1장 서론 .....	1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	1
2. 선행연구 검토 .....	5
3. 연구방법 .....	11
제2장 멥두의 구성과 기원 .....	14
1. 멥두의 구성 .....	14
1) 신칼 .....	14
2) 산판 .....	17
3) 요령 .....	20
2. 멥두의 기원 .....	22
1) 역사적 기원 .....	22
2) 신화적 기원 .....	28
제3장 멥두의 유형과 전승양상 .....	44
1. 멥두의 유형 .....	44
1) 물린멥두 .....	44
2) ㅈ·작멥두 .....	47
3) 봉근멥두 .....	50
4) 체절멥두 .....	53
5) 분향멥두 .....	55
2. 멥두의 유형과 심방의 입무 .....	57
1) 멥두와 신병 .....	58
2) 멥두와 세습 .....	64
3. 멥두의 전승양상 .....	69
1) 멥두 물림 .....	69
2) 멥두 관리 .....	88
4. 멥두 전승과 심방의 무업활동 .....	102
1) 멥두 전승의 목적과 무업활동 .....	102

2) 멥두 전승의 효과와 무업활동 .....	106
3) 멥두 전승의 실제와 무업활동 .....	110
제4장 멥두 관련 의례의 전개양상 .....	121
1. 멥두고사 .....	121
1) 멥두고사의 진행 .....	121
2) 멥두의 제작과 멥두고사 .....	125
2. 당주제 .....	130
1) 당주제의 진행 .....	130
2) 멥두의 좌정과 당주제 .....	135
3. 신굿 .....	139
1) 신굿의 진행 .....	139
2) 멥두의 신성과 신굿 .....	146
4. 공시풀이 .....	152
1) 공시풀이의 진행 .....	152
2) 멥두의 역사와 공시풀이 .....	157
제5장 제주도 심방의 멥두가 지닌 의의 .....	160
1. 심방의 탄생과 심방공동체의 형성 .....	160
1) 심방의 탄생 .....	160
2) 심방공동체의 형성 .....	163
2. 제주도 무속의 역사성 확인과 다원적 전승양상 증명 .....	169
1) 제주도 무속의 역사성 확인 .....	169
2) 제주도 무속의 다원적 전승양상 증명 .....	173
제6장 결론 .....	178
참고문헌 .....	183
Abstract .....	188

## <사진 차례>

[사진 2-1] 신칼 전체 .....	17
[사진 2-2] 신칼 부분 .....	17
[사진 2-3] 산판 .....	19
[사진 2-4] 천문 .....	19
[사진 2-5] 상잔 .....	20
[사진 2-6] 산대 .....	20
[사진 2-7] 요령 .....	21

## <표 차례>

[표 2-1] 초공본풀이 채록 현황 .....	30
[표 2-2] 초공본풀이에 나타난 삼형제의 이름 .....	32
[표 5-1] 초공본풀이의 신화공동체 .....	166

## <그림 차례>

[그림 3-1] 김윤수 심방의 친가 가계 .....	114
[그림 3-2] 김윤수 심방의 외가 가계 .....	116
[그림 3-3] 이용옥 심방의 외가 가계 .....	119
[그림 4-1] 멩두 제작과정 .....	124
[그림 4-2] 가문공사와 삼시왕군문 점괘 양상 .....	128
[그림 4-3] 당주제의 양상 .....	131
[그림 4-4] 삼시왕맞이와 고분멩두의 양상 .....	148
[그림 5-1] 심방의 탄생 과정 .....	161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제주도 심방의 멧두에 대하여 기원, 전승, 의례를 중심으로 종합적 실상을 밝힌 것이다. 멧두는 심방의 무업조상이자 핵심무구이다. 멧두가 제주도 심방과 무속을 해명하는 근본 요소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착안하고, 멧두를 중심으로 일관되게 논의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다. 조상과 무구, 심방의 입무와 성무, 신화적 내력, 역사적 내력 등 멧두가 지니는 여러 측면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양상을 파악하는 것을 중시하였다. 그 결과 멧두에 대한 착안과 증명이 단순한 작업이 아니고 심방을 둘러싼 여러 측면을 하나로 귀결시키는 핵심적인 고리가 된다는 점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었다.

이 논문은 제주도 심방의 멧두에 대하여 구성과 기원, 유형과 전승양상, 관련 의례의 전개양상, 멧두의 의의 등의 순서로 살펴보았다. 논문 전개를 위하여 먼저 멧두가 신칼, 산판(천문, 상잔, 산대), 요령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각각의 요소가 가지는 의미, 기능, 역할 등의 전체적인 개관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멧두의 역사적 기원은 최소한 조선 전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신칼이나 요령이 한국 무속의 무구와 유사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멧두는 고대 무구의 자취를 갖춘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만큼 한국 무속과 관련성도 드러내 주었다. 한편 멧두의 신화적 기원은 초공본풀이를 바탕으로 멧두 명칭, 멧두 제작, 멧두 전승으로 나누어 살폈다. 그 결과 신명(神名)과 무구명(巫具名)의 상호 관련성, 현실에서 본메 놓는 법의 유래, 유정승따님아기 내력담의 존재 이유 등이 새롭게 조명되었다고 생각한다.

멧두의 유형은 심방이 멧두를 마련하는 양상에 따라 물린멧두, ㅈ·작멧두, 봉근멧두, 제절멧두, 본향멧두라고 하여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멧두의 유형 가운데는 전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물린멧두가 가장 이상적이고 보편적이다. 멧두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멧두를 유형별로 검토하니 심방의 입무양상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마련되었다. 심방의 입무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명과 세습이 멧두와 일정한 관련을 보이고 있었다. 심방은



멥두로 인하여 입무하기도 하고, 입무하기 위하여 멥두를 마련하기 때문이다. 심방 대부분 신병을 앓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아무래도 봉근멥두와 제절멥두 같은 유형에서는 신병과 큰 관련을 보였다. 본향멥두 유형은 특히 심방의 세습 입무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멥두 물림은 멥두의 유형별로 나누어 살폈다. 실제 멥두 물림에는 멥두의 여러 유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전승양상의 면모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대표적인 유형을 중심으로 살폈다. 이 가운데 물린멥두의 물림이 가장 이상적인 유형이다. ㅈ·작 멥두, 봉근멥두, 제절멥두는 결국 이를 얻은 심방에 의하여 물린멥두로 전환되어 멥두 물림의 역사를 이어간다. 본향멥두는 속성상 물린멥두의 물림으로 나타난다. 멥두의 물림은 개방적인 양상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당시 상황에서 적절한 멥두를 물려주고 받는 것이다. 멥두 물림에는 당사자들의 일정한 합의가 따른다. 멥두 물림은 단순히 무구를 전승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진 행위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멥두 관리는 심방이 멥두를 잘 모시고 나중에 다시 전승을 대비하는 행위이다. 멥두는 심방이 평소에 당주에 모셔 보관한다. 심방이 당주를 고향에 마련하는 것은 제주에서 조상신을 모시는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멥두 역시 심방의 조상신이기 때문이다. 멥두 관리에는 멥두 합침, 멥두 보수, 멥두 기증 등의 측면도 있다. 멥두는 당주에 그대로 모셔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대상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무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파손된 멥두를 보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밖에도 복수의 멥두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멥두를 합치는 행위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공공기관과 같은 데에 멥두를 기증하는 행위는 달라진 시대상황을 심방집단이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이다.

멥두의 전승이 궁극적으로 심방의 무업활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피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멥두는 분명한 전승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전승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니 이를 뚜렷이 드러냄으로써 멥두 전승이 엄연한 사회적 행위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멥두를 전승하는 목적은 무업조상을 모시고 핵심무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심방의 자격을 갖추는 행위이기도 하다. 멥두를 전승하여 얻는 효과로 심방의 경제기반 마련과 멥두 내력에 따른 심방의 권위 확보를 들었다. 이는 심방의 무업활동 기반을 다지는 행위이기도 하다. 이밖에 심방 가계의 멥두 전승양상을 가능한 대로 재구성하고 제시하여 멥두 전승의 실제 양상을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한편 멥두와 관련한 의례의 전개양상을 살펴 조상, 무구, 심방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멥두의 의미와 역할이 두드러지는 대표적인 의례로 멥두고사, 당주제, 신굿, 공시풀이를 택하여 그 진행양상을 우선 검토하고 의미를 찾으려고 하였다. 그 결과 멥두의 제작과 멥두고사, 멥두의 좌정과 당주제, 멥두의 신성과 신굿, 멥두의 역사와 공시풀이 등이 서로 각별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여러 의례 가운데 특히 신굿과 공시풀이의 중요성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신굿은 멥두의 신성을 바탕으로 심방을 공인하는 절차이다. 신의 길을 바르게 하고 심방의 무업활동을 인증하기 때문이다. 신굿의 제차 가운데서도 당주맞이(삼시왕맞이)와 고분질침(시왕고분연질)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조상의 신체인 멥두를 이용하여 어인타인을 찍음으로써 심방은 입무의 허가를 얻는다. 고분질침에서는 고분멥두를 통하여 굿법의 준엄함과 심방으로서 자세를 끊임없이 자각하게 된다. 또한 공시풀이는 조상의 내력을 기억하고 복원하는 절차이다. 공시풀이는 멥두의 전승과정에서 각인된 실제 개인 심방 조상영혼들의 역사이자 제주도 심방공동체의 역사이기도 하다.

멥두와 관련한 의례에서 심방은 멥두를 통하여 조상과 무구의 신성과 영력을 얻고 무업활동을 학습하며 심방공동체의 내력을 공유한다. 그리고 보면 멥두의 기원과 전승, 의례의 다양한 측면은 심방에게 멥두가 어떻게 조상과 무구로서 역할을 하는지 다각도로 밝혀주는 통로가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멥두의 의의로 심방의 탄생과 심방공동체의 형성, 제주도 무속의 역사성 확인과 다원적 전승양상 증명이라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멥두는 심방의 무업활동 전반을 관통하는 요소이니 한 사람을 심방으로 거듭나게 한다. 심방들은 누구나 멥두를 공유하기 때문에 심방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다. 한편 심방의 명칭을 중심으로 살핀 결과 심방의 역사성도 깊고 한국 무속과 관련성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심방의 무업활동에 있어서 멥두 전승의 의미를 속성, 물림, 체계의 차원에서 찾아보았다. 그 결과 멥두 속성의 전승은 지식전승, 멥두 물림의 전승은 기반전승, 체계의 전승은 신앙전승이라고 파악할 수 있었다. 멥두의 다원적 전승은 멥두의 역사성과 사회성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다.

# 제1장 서론

##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이 논문은 제주도 심방의 멩두에 대하여 다룬다. 제주도 무속에서 멩두는 심방의 무업조상(巫業祖上)이자 신칼, 산판(천문·상잔·산대), 요령으로 구성된 무구(巫具)이다. 심방이라면 누구나 멩두를 조상으로 모시고, 무속의례에서 이를 무구로서 사용한다. 조상의 신체(神體)가 무구인 셈이니, 조상을 모신다는 것은 무구를 소유하는 일이다. 따라서 멩두는 심방에게 가장 근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무속신앙이 무당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현상인 점을 생각하면 심방의 멩두는 제주도 무속을 이해하는 핵심요소이자 출발점이기도 하다.

제주도 무속에서 심방의 멩두가 지닌 중요성에 견주어 그동안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가장 큰 문제는 멩두에 착안하여 밀도 있게 진행한 연구 자체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존에 간행된 무속지(巫俗誌)는 멩두가 심방의 조상이자 무구라는 측면에 대하여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그 의미와 기능에 대해 단순하고 평면적인 보고를 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게다가 무속지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된 선행연구에서는 멩두의 의미를 심방의 입무와 성무의례라는 제한된 관점에서 다루는데 그치고 말았다. 심방을 언급하면서 멩두를 보조적으로 다루는 한계를 보였다.

멩두가 지닌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멩두의 여러 측면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멩두 자체를 중심 연구대상으로 하여 멩두의 기원, 유형과 전승양상, 관련 의례 등을 세밀하게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멩두가 심방의 조상이자 무구라는 두 가지 속성이 가지는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만 한다. 나아가 한 개인 심방을 넘어 심방공동체까지 아우르는 멩두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멩두의 중요성 가운데 가장 핵심은 심방의 조상이라는 점이다. 이는 이미 선행연구를

통하여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멥두가 어떤 조상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 조상의 범위, 구성, 역할 등에 대한 고찰이 여러 각도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초공본풀이에서 말하는 조상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데 그쳤다. 멥두에 내재한 무업조상의 양상을 정밀하게 파악하여 멥두가 지닌 조상의 속성이 무엇인지 찾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멥두에 내재한 조상은 여러 층위의 관념으로 나타난다. 멥두의 기원을 말하는 초공본풀이에는 이른바 자지멥왕아기씨, 삼형제, 유정승따님아기, 너사무너도령 등 여러 신격이 등장한다. 이들은 멥두의 신화적 조상들이다. 삼형제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하여 멥두를 제작하여 곁을 한 뒤 결국 삼시왕으로 들어선다. 어머니인 자지멥왕아기씨와 너사무너도령은 어주에 삼녹거리 서강베포탕 신전집에서 멥두를 지킨다. 유정승따님아기는 최초의 심방이다. 그런가 하면 조상에는 옛 선생이라고 하여 실제 심방의 조상영혼도 포함된다. 신화적 조상에 견주면 이들은 현실의 역사를 살며 멥두를 전승하고 굿법을 전수한 사회적 존재이기도 하다. 옛 선생들은 역사적 조상이라 할 만하다.

멥두에는 신화적 조상과 역사적 조상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곧 멥두가 지닌 조상의 속성이 단순하지 않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멥두의 신화적 조상에 대한 검토는 비교적 진행되어 왔지만 역사적 조상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하였다. 멥두 조상의 속성은 이 두 가지 조상의 성격과 역할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믿는다. 멥두를 전승하는 무속사회의 현실적 사정을 검토하면 조상이 지니는 맥락도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한편 멥두가 심방이 소유하는 무구라는 점도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기존 연구에서도 멥두가 지닌 무구의 기능에 대하여 이미 다룬 바 있다. 무구로써 멥두의 형태, 의미, 사용법, 무점법 등의 기본적인 사항이 밝혀졌다. 한국 무속의 무구와 연관되는 점에 대해서도 일부 검토가 이루어져 멥두가 단순히 제주의 지역적 산물이 아님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제주도 멥두는 조상의 신체이기 때문에 멥두가 지닌 무구의 속성은 조상과 관련하여 파악해야만 한다. 멥두가 지닌 무구의 속성이 조상의 속성과 어떤 관련을 가지며, 현실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 지는 체계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다.

멥두가 지닌 무구의 속성은 기능과 더불어 전승양상까지 폭넓게 다루어야 더욱 온전하게 파악할 수 있다. 멥두는 심방공동체에서 지속적으로 물질전승 된다. 멥두는 조상이니 이를 후손에게 물려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멥두 전승의 역사가 길고

많은 수의 멩두들이 전승되다 보니 전승양상에는 어떤 일정한 유형들이 생겨났다. 기존 멩두의 전승이 지속적으로 행해진 유형도 있고, 그에 견주어 전승이 끊긴 멩두의 유형도 찾을 수 있다. 멩두를 심방이 스스로 새로 만들어 마련하는 경우도 있고, 마을의 신당과 관련하여 지연(地緣)을 매개로 전승되는 유형도 있다. 멩두 전승이 매우 다양한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해야 멩두를 입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

게다가 멩두의 전승은 단순히 물질전승에 그치지 않는다. 멩두의 전승과정은 이를 사용하였던 심방의 무업활동 역사와 깊은 관련을 맺는다. 어떤 이는 우연히 멩두를 얻으면서 심방이 되기도 한다. 단순한 무구의 전승이 아니라 신직(神職)의 계승인 셈이다. 대개의 심방은 입무하면서 멩두를 마련한다. 이때 멩두 물림은 혈연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타인관계를 포함하는 개방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멩두 물림은 무업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방향으로 행해지는 것이 보편적이다. 멩두 물림의 사례에 따라 단골판과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멩두가 지닌 무구의 속성은 멩두의 전승과 심방 무업활동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시도에서 더욱 드러날 수 있다. 심방에게 멩두라는 무구의 전승이 왜 중요한 지 구체적으로 말해야 한다.

멩두가 지닌 조상과 무구라는 두 가지 속성은 의례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된다. 원칙적으로 심방이 모든 의례마다 멩두를 사용하니 제주도 무속에 멩두와 연관되지 않는 의례는 없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멩두와 심방의 무업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의례가 몇 있어 마땅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멩두를 제작하고 조상으로 모시는 과정 혹은 심방의 입무와 성무 등과 관련한 의례들이다. 멩두는 무업조상 그 자체이자 조상의 의사를 전달하고 심방의 무업활동을 공인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심방의 입무의례를 중심으로 다루었지만, 이제는 범위는 넓혀 멩두와 관련한 의례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는지 다양한 차원에서 살펴야 한다.

이 논문은 조상과 무구라는 두 가지 속성을 중심으로 제주도 심방의 멩두에 대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주변적으로 단순하게 다루어지던 멩두를 전면에 내세워 연구관점을 새롭게 전환하고자 한다. 멩두라는 물질의 전승과 더불어 심방의 무업전승도 함께 이루어지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이는 물질의 역사가 곧 심방의 역사임을 증명하는 작업이다. 이를 통하여 한 개인 심방을 넘어 심방공동체의 차원까지 아울러 설명할 수 있는 탐구이기도 하다.

이 논문은 그동안 심방의 멩두에 착안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한 연구가 없었으므로 멩두의 중요성이 두드러지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선행조사와 연구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멩두를 중심으로 일관되게 논의를 전개하여 심방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단서로 삼고자 한다. 나아가 멩두가 제주도 무속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 요소임을 밝히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검토

제주도 심방의 멥두 자체를 직접적인 연구대상으로 삼은 선행연구는 매우 드물다. 대부분 심방을 다루면서 멥두를 보조적으로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말았다. 또는 한국 무속의 무구를 검토하며 지역적 사례로 멥두를 살펴 건주는 정도였다. 심방에 대한 입체적인 연구도 꾸준히 축적되지 못하였지만 멥두에 대한 검토는 그보다 더욱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심방에 대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면서 멥두를 언급한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제주도의 심방에 대해서 처음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시기는 일제강점기이다. 손진태는 1927년에 『조선상고문화의 연구 : 조선고대의 종교학적·토속학적 연구』에서 심방의 명칭과 샤먼적 특성에 대해 간단한 언급을 시도하였다.<sup>1)</sup> 시베리아 샤머니즘을 연구한 차플리카(M. A. Czaplicka) 등의 영향으로 가족적 샤먼과 직업적 샤먼이라는 범주를 통하여 심방을 다루었다. 그는 심방을 직업적 샤먼의 범주에 놓고 주로 함경도 등 북부 변방지역과의 고찰을 통하여 이들 지역의 양상에 외민족(外民族)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추측하였다. 손진태의 시도는 단편적이지만 심방에 대해 가장 처음 이루어진 연구결과라 할 만하다. 다만 제주도 심방이 소지하는 멥두에 대해서는 특별한 검토를 하지 못하였다.

심방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일본인 학자들이 시작하였다.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은 조선총독부 촉탁으로서 일제강점기 일본의 행정력을 동원하여 전국의 민간신앙과 의례를 조사하고 그 실태를 정리하였다. 이 가운데 1932년에 발간한 『朝鮮의巫覡』은 이른바 한국의 무당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해 놓은 결과물이라고 하겠다.<sup>2)</sup> 무격의 분포, 호칭, 성무동기와 과정, 무행신사(巫行神事), 무도(巫禱)의 의식(儀式), 무격의 수요, 무격의 영향, 무구(巫具)와 무경(巫經)으로 구성되었다.

1) 손진태 저/최광식 역, 『조선상고문화의 연구 : 조선고대의 종교학적·토속학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물관, 2002. 이 책은 ‘남창 손진태선생 유고집 1’이라는 형태로 고려대학교 박물관에서 출간한 것이다. 머리말을 보면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유고를 알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예전 『東光』 잡지에 일부만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에 건주어 유고는 일본어로 내용 전체가 남아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 책은 1927년에 『東光』에 연재되었던 내용의 원본으로 여겨진다.

2) 村山智順, 『朝鮮의巫覡』, 朝鮮總督府, 1932. 1972년에 學文閣에서 영인하여 발행하였다.

여기서 무라야마는 제주도 무격의 명칭, 무조신화인 초공본풀이, 무구인 멩두와 신칼, 요령, 울쇠를 다루었다. 무라야마는 제주도 심방을 두고 ‘神房(Shin pang, 변한 형태로는 尋訪)’이라는 표기를 처음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순하지만 무조신화와 무구까지 나뉠대로 고루 언급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무라야마는 여러 면에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본격적인 연구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멩두에 대해서도 단순한 정보를 언급하는 정도에 그쳤다.

곧이어 아카마쓰 지쵸(赤松智城)와 아키바 다카시(秋葉隆)가 1937~1938년에 함께 펴낸 『朝鮮巫俗의 研究』(上/下)에서 한걸음 나아간 연구가 나타난다.<sup>3)</sup> 상권은 자료집이고 하권은 연구서이다. 이 저작에서 심방과 관련한 연구는 사실상 아키바가 주도하고 있다. 아키바는 무조전설, 무의 호칭과 종류, 입무과정, 무장(巫裝)과 무구(巫具), 무의 가족생활과 사회생활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특히 지역을 답사하고 서귀포에 거주하던 남무 박봉춘을 제보자로 삼아 자료를 수집하였다. 아키바는 당시 일본인 학자 가운데 제주도 무속에 대하여 가장 폭넓게 연구한 학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4)</sup> 다만 심방에 대한 논의 자체는 깊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제주도 멩두에 대해서도 기초적인 서술을 하였을 뿐이다.

한편 해방 뒤에는 한국인 학자들의 연구가 이어졌다. 먼저 석주명은 1947년에 『濟州島方言集』을 펴냈다.<sup>5)</sup> 그는 여기서 심방이라는 어휘를 수록하고 무당이라고 표준어를 달았다. 또한 수필을 통하여 심방의 의미를 정리하고 무라야마의 해석에 의문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석주명은 심방이라는 단어에 관심을 보였으나 어휘집이라는 성격상 본격 연구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멩두에 대한 언급은 없다.

심방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사실상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50년대 후반부터 진성기와 장주근, 현용준이 현장 접근을 시도하여 1960년대를 거치며 꾸준히 탐색하였고 1970년대에 접어들며 본격적인 보고 자료와 연구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들 세 연구자는 제주 무속 연구의 선구자라 할 수 있다. 특히 제

3) 赤松智城·秋葉隆 지음/沈雨晟 옮김, 『朝鮮巫俗의 研究』(上/下), 동문선, 1991.

4) 심방에 대한 아키바의 연구는 1931년에 발표한 「조선의 무칭巫稱에 관하여」(종교연구 신新 제8권)에서 심방의 호칭에 대해 고민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 논문은 발표 시기를 보면 무라야마의 『朝鮮の巫覡』보다 앞선다. 그러나 아키바의 연구결과는 『朝鮮 巫俗의 研究』에서 최종적으로 다듬어진 것이고, 또 이 저작에서 나뉠대로 심방의 종합적인 면모를 밝히고자 했기 때문에 무라야마의 연구보다 나중의 연구결과물로 간주한다.

5) 石宙明, 『濟州島方言集』, 제주문화, 2008.



주 출신의 연구자인 현용준과 진성기의 연구자료는 매우 소중하다. 제주어(濟州語)와 제주의 풍속은 다른 지역 연구자가 이해하기 매우 어렵고 단시일에 접근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역 출신 연구자의 등장은 여러모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진성기는 1950년대부터 현장조사에 몰두하여 이미 1960년대에 『南國의 巫俗』 과 『南國의 巫歌』 를 출간하였다.<sup>6)</sup> 특히 그는 제주 전역의 심방들을 두루 만나면서 무가 채록에 열중하였고, 당시 경신회(敬信會)의 심방 명단을 입수하여 『南國의 巫歌』 재판본에 실어 놓았다. 진성기는 『南國의 巫俗』 에서 심방의 명칭 등에 대해 다소 언급하기는 하였다. 하지만 사실 전체적으로는 심방 자체에 대한 연구보다는 본풀이의 수집 등 제주 무속과 관련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로가 크다. 맹두에 대해서는 점법(占法)을 소개하는 정도이다.

장주근은 1960~1970년대에 행한 자신의 제주도 무속 연구를 2001년에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라고 하여 다시 정리하여 놓았다.<sup>7)</sup> 그는 이 책의 첫 장에서 제주도의 심방을 다루고 있다. 심방의 명칭과 종류, 통계, 입무와 계승, 단골관계와 경제생활, 무구와 무복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깊은 수준에 이르지 않는 않지만 현장조사를 통하여 실상에 보다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을 나타내었다. 맹두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정보를 서술하였다. 다만 「제주도 심방의 3명두」 라는 글에서는 맹두를 대상으로 삼아 그 용도와 초공본풀이를 검토하고, 나아가 청동지기(靑銅儀器)와 단군신화의 천부인(天符印)과 연관한 해석을 시도하였다.<sup>8)</sup>

현용준은 제주 심방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자라고 할 수 있다. 1950년대 후반부터 제주 무속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1960~1970년대에 꾸준히 조사보고와 연구발표를 하여 드디어 1980년대에 『濟州島巫俗資料事典』 과 『濟州島 巫俗 研究』 등의 중요한 저작을 발간하기에 이르렀다.<sup>9)</sup> 현용준이야말로 제주 무속 연구의 토대를 다져 후학에게 좋은 길잡이 역할이 되어 주었다.

현용준은 심방과 맹두에 대하여 비로소 구체적이며 종합적으로 연구를 시도한 학자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심방과 맹두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도 두루 다루었다. 『濟州島 巫

6) 『南國의 巫俗』 은 1966년에 유인판으로 나왔다가 1993년에 『濟州島巫俗論考 : 南國의 巫俗』 으로 다시 발행되었다. 『南國의 巫歌』 역시 1968년에 유인판으로 나온 뒤 1991년에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으로 다시 발행되었다.

7)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8) 장주근, 「제주도 심방의 3명두」, 『한국의 향토신앙』, 을유문화사, 1998.

9) 玄容駿, 『濟州島巫俗資料事典』, 新丘文化社, 1980.; 玄容駿, 『濟州島 巫俗 研究』, 集文堂, 1986.

俗 研究』의 내용 가운데 제1장의 심방의 직능, 제2장 성무과정, 제6장 무장과 무구가 특히 소중하다. 여기에 『제주도 신긔』의 사진자료와 해설은 심방의 입무의례와 멩두를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준다.<sup>10)</sup>

현용준은 심방과 멩두의 전체적인 면모에 대해 가장 구체적으로 다룬 첫 연구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용준은 멩두 자체에 대해서 입체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특히 멩두의 유형이나 전승양상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한 점이 있다. 제주도 무속 연구의 선구자로서 전반적인 사항을 탐구하느라 미처 입체적으로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이 글은 선학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멩두에 집중하여 그 연구성과를 검토하고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을 메우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1980년대 후반에는 최길성의 심방 연구, 이수자의 무속과 신화연구가 더해졌다. 최길성은 오끼나와의 노로(神女)와 유타(コタ), 제주도의 심방과 점쟁이의 관계를 고찰하며 세습무와 강신무의 대립과 조화를 살폈다.<sup>11)</sup> 최길성의 연구는 비교연구로서 시사하는 바가 있으나 심방 자체에 대한 본격 연구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점쟁이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다소 앞서나간 측면이 있다. 이수자는 큰곳에서 무조신의 의례인 초공제와 초공본풀이에 나오는 무조신들의 성격을 중심으로 살폈다.<sup>12)</sup> 이수자는 큰곳의 방대한 자료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여 의미는 있으나, 역시 다양한 현장자료의 부족과 심방 자체에 대한 자료가 갖추어지지 않아서 깊은 논의를 전개하지는 못하였다. 이들의 글에서 역시 멩두 자체에 대한 연구는 시도되지 않았다.

1990년대에 들어서 강지희가 심방의 특성을 입무의례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sup>13)</sup> 강지희는 제주도 심방의 특징과 입무의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심방이나 멩두 모두 특별히 연구의 진척을 보이지는 못하였다.

문무병은 제주 출신의 연구자로서 무조신화와 신긔를 견주어 고찰하였다.<sup>14)</sup> 그는 멩두물림과 초공본풀이, 그리고 신긔가 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관련 제차를 살피며 신긔의 원리를 더듬었다. 현용준의 연구 이후로 무조신화와 신긔에 대해 주목한

10) 현용준·이남덕/글, 김수남/사진, 『제주도 신긔』, 열화당, 1989.

11) 최길성, 「제주도 심방에 대하여」, 『濟州島研究』 6집, 濟州島研究會, 1989.

12) 이수자, 「제주도 무속과 신화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13) 강지희, 「제주도 신방(神房)의 특성에 관한 연구 : 입무의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14) 문무병, 「제주도 무조신화(巫祖神話)와 신긔」, 『비교문화연구』 제5호,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1999.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며 논문에 소개된 자료는 참고할 만하다. 더욱이 문무병은 연구 논문뿐만 아니라 제주도 굿의 전사 자료집을 지속적으로 출간하여 연구 자료의 폭을 넓혔다. 하지만 심방에게 멩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거듭 확인하는데 그치고, 멩두 자체를 입체적으로 다루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한편 2000년대부터는 앞선 시기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심방에 대해 보다 심층적이고 미시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시기의 연구결과물 가운데 우선 김현선의 지속적인 연구를 주목해야 마땅하다.<sup>15)</sup> 그는 심방과 관련한 무조신화, 무구, 신굿 등 많은 분야에 걸쳐서 현장조사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의 연구는 매우 방대할 뿐만 아니라 자료도 비교적 충실하기 때문에 앞으로 심방뿐만 아니라 제주도 무속 연구를 확대하여 진행할 때 아주 유용하다. 김현선의 연구 가운데 특히 참고할 만한 부분은 삼멩두의 전승적 연구와 더불어 멩두와 일정한 관련성을 보이는 황해도 무구의 사례를 연구한 결과이다. 하지만 김현선도 아직 멩두의 유형이나 전승양상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못하였다.

문봉순은 심방의 입무의례를 연구하였다.<sup>16)</sup> 그는 먼저 초공본풀이의 구조를 분석한 뒤, 초공본풀이와 신굿의 관계를 살펴 심방의 입무의례 특징을 파악하였다. 초공본풀이와 신굿의 관계는 앞서 현용준이 단초를 놓고 문무병과 김현선이 다루어 연구의 발판을 마련한 주제이다. 문봉순은 선학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심방의 입무의례를 살피는 과정에서 멩두가 심방에게 중요한 요소임을 거듭 확인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강소진은 공시풀이와 심방 관련 조상신본풀이에 대해 연구하였다.<sup>17)</sup> 공시풀이는 무업 조상들을 대접하고 멩두의 내력과 심방의 생애를 풀어내는 제차를 말한다. 공시풀이는 멩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매우 중요한 제차이기도 하다. 공시풀이는 중요성에 견주어

15) 김현선, 「제주도 ‘초공본풀이’의 영웅신화적 면모 : 구조분석, 입무의례, 신화적 성격 규명을 중심으로」, 『세계의 영웅신화』, 동방미디어, 2002. ; 김현선, 「제주도 巫具 ‘삼멩두’와 ‘울쇠’의 전승적 연구」, 『생활문화연구』 6집, 국립민속박물관, 2002. ; 김현선, 「제주도와 유구의 무조신화 비교연구」, 『민속학연구』 10집, 국립민속박물관, 2002. ; 김현선, 「제주도 무구 ‘울쇠’의 성격과 의의」, 『민속학연구』 12집, 국립민속박물관, 2003. ; 김현선, 「무속과 정치 : 쇠걸림, 쇠내림, 사제계승권을 중심으로 해서」, 『比較民俗學』 26집, 比較民俗學會, 2004. ; 김현선, 「제주도와 충승의 내림굿과 본풀이 비교연구」, 『比較民俗學』 35집, 比較民俗學會, 2008. ; 김현선, 「제주도 굿의 구조와 원리」, 『한국무속학』 제14집, 한국무속학회, 2007.

16) 문봉순, 「심방의 입무의례 연구 : <초공본풀이>와 신굿의 관계를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17) 강소진, 「제주도 굿의 ‘공시풀이’ 고찰 : 이용옥 심방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제14집, 한국무속학회, 2007. ; 강소진, 「심방 관련 조상신본풀이의 형성과 전승」, 『耽羅文化』 36호,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2010.

그동안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한 면이 있었는데, 이를 중심에 두고 살핀 첫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심방과 관련한 조상신본풀이를 가려내어 그 형성과 전승 양상을 살핀 것도 그동안 기존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한 내용에 주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개의 글 모두 본격적인 논의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언급하는 수준에 그쳤다.

한편 연구논문이 아니라 보고서 형태이지만 강정식과 강소전이 국립문화재연구소와 함께 심방의 무구에 대해서 정리한 자료가 있다.<sup>18)</sup> 이 자료는 심방의 멥두에 대해 비교적 자세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즉 모두 여섯 명의 심방 사례를 조사하여 멥두의 실측(實測), 기능(機能), 내력(來歷)과 당주(堂主)까지 두루 아울러 보고하였다. 현용준의 초창기 연구 뒤로 멥두의 구체적인 실태에 대하여 보고한 거의 유일한 자료라고 하겠다. 이 논문에서도 이 보고서를 유용하게 참고하였다.

이상으로 심방을 중심으로 하여 멥두와 연관되는 선행연구결과를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결국 심방에게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멥두에 대한 연구가 의외로 별로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멥두 자체에 집중하여 전체적인 양상을 꼼꼼하고 입체적으로 다룬 선행연구가 사실상 거의 없다는 말이다. 심방과 관련한 요소를 다루며 부분적으로 멥두를 언급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는 멥두가 심방의 무업조상이자 핵심무구인 점을 생각하면 매우 아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심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멥두에 대한 고찰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심방과 멥두의 상호관계를 밝히는 것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멥두는 심방 연구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논문은 멥두에 대한 연구가 시급함을 절실히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

18) 국립문화재연구소,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巫具 : 전라남도·전라북도·제주도』, 민속원, 2008.

### 3. 연구방법

제주도 무속의 역사는 매우 깊고 또한 다양한 문화가 서로 켜켜이 쌓여서 형성된 양상을 보인다. 멩두 역시 오랜 시간 제주도 무속의 전통과 맥락 속에 함께 녹아 있어 그 진면목을 알아내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멩두는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산재한 자료들의 흔적을 좇고 맞추어서 재구성을 해야 한다. 연구방법 역시 멩두라는 연구대상을 고려하여 택하지 않을 수 없다.

멩두 연구를 위해서 우선 택해야 할 방법은 문헌조사이다. 멩두는 제주도 무속의 무구이기 때문에 제주도 무속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문헌자료에서 관련된 단서를 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멩두에 대해 기록한 문헌을 먼저 살필 필요가 있다. 문헌조사의 대상은 조선시대의 문헌에서 시작하여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간적으로 분포가 넓다.

조선시대의 문헌은 유학자의 시선으로 제주도의 무속신앙의 양상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오래전의 소중한 기록이면서도 한쪽으로 치우친 시선이라는 장단점이 뚜렷하다. 조선시대 문헌에서 멩두의 역사성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일제강점기에 기록된 문헌은 체계적인 자료정리와 제시가 처음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주도 멩두를 포함하여 전국의 무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정리하였다는 점도 중요하다. 다만 식민지 현실에 기반을 둔 작업임을 감안한다면 유의해서 받아들여야 할 점도 많다.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는 이전 시기에 견주어 보다 과학적이고 폭넓은 자료정리가 이루어졌다. 멩두의 의미와 역할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정보가 보고되었고, 멩두와 관련한 무속의 여러 양상에 대한 기록도 함께 이루어졌다. 멩두에 대한 문헌조사는 통시적·공시적 연구를 모두 가능하게 하는 바탕이 된다.

다양한 문헌을 찾아 멩두에 대한 1차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목적이나 기대만큼 성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기존 문헌에서 이를 간과하여 놓쳤거나 다룬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못하고 소홀히 다루었을 수도 있다. 사실 멩두에 대한 자료수집 자체가 분명 쉬운 일은 아니다. 자료수집에 곤란이 있으니 연구를 시작하기도 어렵다. 다양한

문헌에서 가능한 대로 자료를 수집하되 문헌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은 현장에서 얻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문헌조사와 함께 현장조사 방법을 병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멥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현장이란 무속의례의 현장을 말한다. 심방은 무속의례를 의뢰 받으면 조상인 멥두를 모시고 가기 때문이다. 무속의례는 일반 단골집의 곳과 비념, 마을과 생업공동체 차원의 곳과 비념, 심방 자신의 신곳과 당주체를 두루 포괄한다. 매우 다양하고 넓은 범위의 현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멥두의 다양한 양상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의례 현장을 고루 다니는 수고를 피할 수 없다. 심방 자신과 심방 집단, 심방과 단골 사이에서 미세하게 드러나는 다양성을 포착하고 깨닫기 위해서다. 현장조사 방법은 특히 공시적 연구의 바탕이 된다.

멥두 연구를 위해서는 심방과 면담하여 조사하는 것도 포함한다. 면담은 심방과 날짜를 잡고 정식으로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과 현장에서 필요할 경우 수시로 벌어지는 조사를 모두 아우른다. 면담조사는 심방으로부터 멥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이 크다. 멥두의 마련과정과 관리양상, 멥두의 내력 등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고 깊은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면담조사는 심방의 생애, 입무 양상, 무업활동의 전개 등에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심방의 집에 모시는 당주를 상세히 관찰할 수 있는 기회도 면담조사에서 충분히 가능한 점이다.

위의 연구방법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제2장 멥두의 구성과 기원, 제3장 멥두의 유형과 전승양상, 제4장 멥두 관련 의례의 전개양상, 제5장 제주도 심방의 멥두가 지닌 의의로 구성하고자 한다. 논의를 진행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다.

제2장에서는 멥두의 구성과 기원을 다룬다. 멥두의 구성에서는 신칼, 산판, 요령이라는 구성요소 각각의 형태, 의미, 기능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멥두의 구성에 대한 서술은 이 글에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한 바탕이 된다. 한편 멥두의 기원에서는 멥두의 역사적 기원과 신화적 기원을 함께 살피고자 한다. 멥두에 대한 문헌기록을 검토하여 멥두의 역사성을 밝히고 한국 무속의 무구와 관련되는 역사적 기원을 파악한다. 신화적 기원으로는 초공본풀이를 다각도로 살펴 멥두 명칭의 기원, 멥두 제작의 기원, 멥두 전승의 기원으로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초공본풀이의 서사를 멥두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해석하기로 한다.

제3장에서는 멥두의 유형과 전승양상을 검토한다. 여기서는 멥두를 유형별로 구분하

고 실제적인 전승양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먼저 멥두의 유형에서는 심방이 멥두를 얻는 과정을 기준으로 하여 물린멥두, ㅈ·작멥두, 봉근멥두, 제절멥두, 본향멥두로 나누어 검토한다. 이어 멥두의 유형과 심방의 입무에 대하여 다룬다. 멥두의 유형에 따라 신병 혹은 세습과 어떤 관련을 보이는지 주목하여 검토한다. 그런 뒤에 멥두의 전승양상을 멥두 물림과 멥두 관리로 나누어 다루고자 한다. 멥두 물림에서는 멥두의 유형별로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한다. 멥두 물림이 행해진 뒤 멥두를 관리하는 양상까지 살펴 멥두의 전체적인 전승양상에 대하여 폭넓게 살피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멥두 전승과 심방 무업활동의 관계를 목적과 효과로 나누어 파악한다. 더불어 대표적인 심방 가계에서 행해진 멥두 전승의 실제 사례를 가능한 대로 제시하여 멥두의 전승과 무업활동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멥두의 유형과 전승양상을 다루기 위해서 적절한 범위 안에서 사례를 제시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제4장에서는 멥두 관련 의례의 전개양상을 다룬다. 멥두와 관련하여 대표적이고 중요한 의례로 멥두고사, 당주제, 신굿, 공시풀이라는 네 종류의 의례를 제시하여 멥두와 의례의 관계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각각의 멥두 관련 의례가 진행되는 양상을 먼저 언급하고 해당 의례가 멥두와 관련하여 가지는 의미를 파악한다. 멥두고사는 멥두의 제작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한다. 당주제는 멥두의 좌정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한다. 신굿은 멥두의 신성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한다. 공시풀이는 멥두의 역사라는 측면에서 검토한다. 다양한 멥두 의례의 양상을 살펴 조상, 무구, 심방이라는 삼각관계의 의미를 파악한다.

제5장에서는 제주도 심방의 멥두가 지닌 의의를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멥두가 지닌 의의는 역사적, 신앙적, 전승적 차원에서 다양하게 찾을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멥두의 핵심적 의의로서 두 가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멥두는 한 사람을 심방으로 탄생하게 하고, 심방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게 만든다. 이어 멥두는 심방의 역사와 더불어 제주도 무속의 역사성을 확인하게 하고, 무속이 다원적으로 전승하였다는 점을 드러낸다. 심방 집단이 멥두를 공유하는 현상과 멥두의 역사적·사회적 기능을 바탕으로 의의를 찾기로 한다.

제6장에서는 논문에서 지속적으로 다룬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정리하여 결론으로 제시한다. 더불어 이 논문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사항을 말하고, 멥두에 대한 향후 연구 과제를 고민해보고자 한다.

## 제2장 멩두의 구성과 기원

### 1. 멩두의 구성

멩두는 신칼, 산판(천문, 상잔, 산대), 요령을 모두 포함하여 일컫는 명칭이다. 달리 ‘삼멩두’, ‘일월삼멩두’라고 부르기도 한다. 삼멩두라는 명칭은 신명(神名)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멩두가 신칼, 산판, 요령이라는 세 가지 무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멩두를 구성하는 신칼, 산판, 요령은 하나의 조합을 이룬다. 이를 ‘멩두 한 벌’이라고 인식한다. 멩두는 세 무구가 조합을 이룰 때 비로소 온전한 구성을 갖추게 된다. 멩두의 구성 요소에 대한 정보는 초공본풀이에 드러난다.

멩두에 대한 종합적 논의를 시작하기 위하여 멩두의 구성요소부터 살필 필요가 있다. 멩두의 구성 요소인 신칼, 산판, 요령의 구체적인 형태와 쓰임새가 어떠한 지를 살펴 이 글을 전개하기 위한 논의의 바탕으로 삼는다. 멩두의 구성 요소에 관해서 기존에 현용준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고한 자료가 있다.<sup>19)</sup> 두 자료를 참고하고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여기서 다시 정리한다.

#### 1) 신칼

신칼은 ‘멩두칼’, ‘멩도칼’, ‘멩뒤칼’로도 부른다. 신칼은 두 개의 칼로 구성된다([사진 2-1], [사진 2-2] 참조). 신칼은 세부적으로는 다시 ‘신칼’과 ‘신칼치메’로 나눌 수 있다.

19) 玄容駿의 『濟州島 巫俗 研究』와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巫具 : 전라남도·전라북도·제주도』이다.



전자의 신칼이 좁은 의미에서 신칼인 셈이다. 아래에서 신칼의 형태를 설명할 때에는 전자의 신칼을 가리킨다.

신칼은 칼날과 자루로 나뉜다. 신칼 자체는 대개 20~22cm 내외의 길이로 만들어진다. 이 가운데 칼날은 약 11~13cm, 자루는 9~10cm 내외의 길이이다. 칼날에는 어떤 특별한 무늬가 새겨져 있는 경우가 많으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칼날의 너비는 1.5~2cm 정도이다. 너비가 일정한 경우도 있으나, 손잡이인 자루 쪽으로 갈수록 미세하게 조금 넓어지기도 한다. 자루에는 파배기처럼 뒤틀린 모양의 나선형 주름이 있다. 자루의 두께는 0.5~0.7cm 정도이다. 신칼은 낫쇠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쓰는 것이다. 신칼이 부러지거나 파손되었을 때는 대장간에서 다시 제작한다.

신칼치메는 한지를 가위로 일정한 간격으로 잘라 만든다. 신칼치메는 신칼 자루의 끝에 둥그런 구멍을 뚫어 쇠고리를 연결한 뒤 줄을 걸어 달아맨다. 줄에다 신칼치메의 윗부분을 모두 모아 묶어 매는데, 이때 그 줄로 매듭을 세 개 만든다. 줄로 묶어 맨 매듭 부분은 4~7cm 내외이다. 매듭의 아래로 신칼치메를 풍성하게 하여 늘어뜨린다. 신칼치메 자체의 길이는 55~60cm 정도이다. 신칼과 신칼치메를 이어주는 이음새 부분의 길이를 제외하면 신칼의 전체 길이는 약 80cm 정도가 된다. 굿이 끝나 멩두를 ‘안체포’에 담을 때에는 신칼치메로 신칼을 둘둘 말아서 넣는다. 신칼치메가 신칼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는 것이다.

신칼치메는 종이를 잘라 달아매는 것이니 매번 새로 만들어 사용한다. 신칼치메는 굿을 할 때마다 갈아준다. 굿하는 장소에 도착하면 소미들이 각종 ‘기메’나 지전(紙錢) 등을 우선 만드는데 이때 신칼치메도 함께 교체한다. 보통 큰심방을 보좌하는 ‘안체포소미’가 신칼치메를 새 것으로 갈아준다.<sup>20)</sup> 굿의 규모가 커서 기간이 길어지면 중간에 다시 만들어 갈아매기도 한다. 큰굿일 경우 보통 ‘시왕맞이’ 할 때 다시 갈아준다. 큰굿이 아니더라도 만약 신칼치메가 많이 헐어져서 너저분해지면 갈아주기도 한다. 용도가 다른 신칼치메는 소미가 지전 몇 장과 함께 제장 밖으로 들고나가 태운다.

---

20) 굿판에 함께 가는 소미 가운데 ‘안체포소미’ 또는 ‘안챗소미’라고 불리는 이가 있다. ‘안체포’는 심방이 무구인 멩두를 넣어 다니는 자루를 말한다. 큰심방은 굿을 맡으면 자신의 당주에서 멩두를 꺼내어 안체포에 담고 굿판에 간다. 안체포소미는 이렇게 안체포를 맡는다는 뜻으로, 말하자면 굿판에서 큰심방을 챙겨주는 이다. 안체포소미는 큰심방과 가까운 이들이 맡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부가 심방일 경우 부인이 맡거나, 스승심방이라면 가까운 제자가 맡는다. 굿판에서는 안체포소미가 큰심방 멩두 가운데 신칼의 신칼치메를 새로 갈아주며, 굿이 끝나면 멩두를 다시 안체포에 담고 무복을 정리하여 주는 등 뒷정리를 해준다.

신칼은 사용하는 양상이 복합적이다. 가장 기본적인 쓰임새는 무점구(巫占具)이다. 굿을 하면서 신의 뜻을 묻고 그 결과를 판단하는 데에 쓴다. 이를 ‘신칼점’이라고 한다. 신칼점은 심방이 신칼치메를 모아 잡은 뒤 신칼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친다. 이때 두 개의 칼날의 방향과 모양을 보아 해석한다. 신칼점의 점괘는 여섯 개이다. ‘ㄴ·단즈·부ㄷ·리’, ‘웬즈·부ㄷ·리’, ‘등진ㄷ·리’, ‘애산ㄷ·리’, ‘칼선ㄷ·리’, ‘작도ㄷ·리’를 말한다. 점괘의 명칭에 방향과 모양이 그대로 드러나 있으며, 모두 ‘ㄷ·리’라고 부르는 공통점이 있다.

신칼은 굿을 진행할 때 여러 제차에서 무구로써 두루 쓰이기도 한다. 일단 심방이 연물 반주에 맞추어 춤을 출 때도 신칼을 사용한다. 곧 가무(歌舞)의 도구인데 ‘초감제’라면 청신(請神)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맞이굿의 ‘질침’ 같은 제차에서는 신칼도 도구의 하나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시왕질침’에서 등진ㄷ·리나 애산ㄷ·리 등을 놓는다고 하며 사용한다. 특히 ‘초공맞이’나 ‘당주맞이’에서 초공본풀이의 내용을 재연할 때는 연극적 소도구라고 할 만하다. 마을의 본향신을 청할 때는 심방이 감상기와 함께 신칼을 들고 화살을 쏘는 시늉을 하는데, 이는 본향신의 위엄을 드러내는 상징이기도 하다. ‘나까시리 놀림’과 같은 순서에서는 시루떡에 신칼을 꽂은 뒤 나중에 신칼로 시루떡 윗부분을 조금 파내어 삼천군병을 대접하기도 한다. 한편 ‘푸다시’에서는 사귀(邪鬼)를 물리치는 구축(驅逐)의 도구이기도 하다.

신칼의 유래는 초공본풀이에 전한다. 초공본풀이에서는 신칼을 일러 ‘시왕대번지’라고 한다. 시왕대번지의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으나 초공본풀이에서 신칼의 쓰임새를 생각하면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뜻에서 시왕에 따른 큰 칼이라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듯하다. 삼형제가 자신들의 과거급제를 방해하고 어머니인 자지멩왕아기씨에게 위해(危害)를 가한 양반 삼천선비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신칼을 마련하기 때문이다. 신칼은 ‘신칼선생 시왕대번지’라고 부른다.

신칼의 생김새도 초공본풀이의 내용에 따라 해석한다. 심방들은 신칼의 칼날과 칼자루의 생김새 하나하나에 초공본풀이의 서사를 반영하여 이해한다. 자지멩왕아기씨의 입신과 고난, 삼형제의 과거시험 여정 등의 서사가 곳곳에 두루 반영된다. 신칼치메도 예외는 아니다. 신칼치메는 자지멩왕아기씨가 입은 치마라고 생각한다. 또한 신칼치메는 자지멩왕아기씨가 남편을 찾아가는 길에 ‘인정’으로 사용한 것이기도 하다. 열두 폭 치마를 한 폭씩 찢으며 인정을 걸었던 사연이 신칼치메에 담겨 있다고 여긴다.

신칼점의 점괘에도 역시 초공본풀이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특히 자지멩왕아기씨의

내용이 신칼점의 근간을 이룬다. 자지멩왕아기씨가 황금산 주점선생에 의해 뜻하지 않은 임신을 하고 부모로부터 엄한 질책을 받아 집에서 쫓겨나 길을 떠나는 대목과 많은 관련이 있다. 신칼점도 자지멩왕아기씨의 고난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사진 2-1] 신칼 전체



[사진 2-2] 신칼 부분



## 2) 산판

산판(算盤)은 천문(天文), 상잔(算盞), 산대(算臺)를 모두 합하여 일컫는 명칭이다. 산판은 세 무구의 조합이다([사진 2-3] 참조). 산대에 천문과 상잔을 담아둔다. 모두 놋쇠로 만든다.

천문은 엽전 모양으로 생긴 무구이다([사진 2-4] 참조). 두 개가 한 쌍을 이룬다. 대개 가운데에 둥그렇거나 또는 네모 형태로 조그마한 구멍이 뚫려 있다. 구멍이 없는 천문도 있기는 하다. 천문의 크기는 보통 지름이 5~6cm, 두께는 0.2~0.3cm 정도이다. 천문의 앞면에는 뚫린 구멍 주위의 상하좌우에 2~4개의 한자가 음각 또는 양각으로 새겨져 있다. 표기는 ‘천지문(天地門)’, ‘천문일월(天門日月)’, ‘천지일월(天地日月)’, ‘천대문(天大門)’, ‘천문(天門)’ 등으로 다양하다. 뒷면에는 아무런 모양이 없이 매끈하다.

상잔은 작은 술잔 모양으로 생긴 무구이다([사진 2-5] 참조). 역시 두 개가 한 쌍이다. 상잔의 밑바닥 모양은 약간 둥그런 것도 있고 상대적으로 각이 지게 만든 것도 있

다. 크기는 윗지름이 4~5cm, 밑지름이 3~4cm, 높이가 1~2cm, 두께는 0.2~0.3cm 정도이다. 상잔에는 특별한 무늬가 없다.

산대는 천문과 상잔을 담은 잔대(盞臺) 모양의 그릇이다([사진 2-6] 참조). 크기는 윗지름과 밑지름, 높이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윗지름은 10~12cm로 거의 비슷한데, 밑지름은 5~10cm 정도로 편차가 있으며, 높이도 1.5~3cm로 다소 차이가 있다. 따라서 산대는 약간 깊이 있게 움푹하게 생긴 것도 있고, 비교적 납작한 모양의 것도 있다.

산판의 유래도 역시 초공본풀이에 나온다. 삼형제가 아버지를 찾아가 어머니를 살릴 방도를 묻고 곳을 하여 어머니를 구해내는 대목에 나타난다. 산판의 형태나 쓰임새 모두 초공본풀이의 서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천문은 아버지가 삼형제에게 내어주는 무구이다. 아버지가 어떻게 찾아왔느냐고 묻자 삼형제는 하늘과 땅을 보면서 왔고 물으면서 왔다고 대답한다. 천문은 초공본풀이를 통하여 천지(天地)의 이치를 알게 해 주는 신성한 무구로 인정되는 셈이다. 특히 천문은 초공본풀이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유정승따님아기가 얻는 육간제비와 상통하는 면이 있다. 천문이나 육간제비 모두 엽전과 같은 모양의 무구이면서 해당 존재를 결국 심방으로 만드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천문은 ‘천문선생 덕환이’라고 부른다.

상잔은 어머니가 주는 무구라는 특징이 있다. 상잔은 흔히 ‘모욕상잔’이라는 별칭으로 부른다. ‘모욕’은 ‘목욕(沐浴)’이니 곧 어머니가 삼형제를 낳아 목욕을 시키던 그릇이라는 뜻이다. 아버지가 준다는 천문과 짝을 이루어 상잔을 인식하고 있다. 상잔도 ‘상잔선생 덕진이’라고 부른다. 상잔의 신화적 의미는 천문과 함께 형성되었다.

산판의 쓰임새도 신칼처럼 복합적이다. 가장 중요한 쓰임새는 역시 무점구이다. 심방이 앉아서 천문과 상잔이 담긴 산대를 들고 바닥에 내리치고는 천문과 상잔이 바로 되거나 엮어진 모양을 보고 점괘를 판단한다. 이를 ‘산판점’이라고 한다. 산판점은 천문과 상잔의 조합을 따져 모두 아홉 가지의 점괘로 해석한다. ‘가문공사(웨상잔막음)’, ‘양도막음’, ‘질산’과 그 밖의 여섯 가지 ‘군문’ 점괘를 말한다. 산판점은 신칼점과 병행하여 행해진다.

그런데 제차에 따라 일반적인 산판점과 다른 모양새로 점을 치는 경우도 있다. ‘공시풀이’라는 제차가 끝나면 ‘고리동반 품’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때에도 천문과 상잔을 함께 사용해서 점을 친다. 심방이 체(보통 설췌체를 이용)에 방울떡, 천문, 상잔을 놓고 이리저리 흔들다가 본주 부인의 치마 위로 던져 놓아 점을 친다. 산판점이기는 하지만

산대를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제주도 특정 지역 잠수곳의 ‘용올림곳’이라는 제차에서는 심방이 입에서 천문과 상잔을 내뿜어 점을 치며 점괘도 노적, 청룡, 흑룡, 백룡이라 하여 네 가지의 조합으로 구분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sup>21)</sup> 점괘의 종류와 해석하는 방법도 일반적인 산판점과 차이가 있다.

산판 가운데 천문과 상잔은 각각 독립적인 무점구로 사용하기도 한다. 독립적으로 사용할 때는 각각 ‘천문점’, ‘상잔점’이라고 한다. 산대는 천문과 상잔을 담고 내리쳐 점을 치기 때문에 간접적인 무점구라고는 할 수 있다.

천문점은 초감제의 ‘군문열림’에서 심방이 선 채로 천문만을 들어서 신자리 위로 높이 내던져 바닥에 떨어진 모양을 보거나, ‘성주풀이’나 ‘요왕질침’을 할 때 천문을 물그릇에 떨어뜨려 보는 경우를 말한다. 상잔점은 ‘삼공본풀이’와 ‘삼공맞이(전상놀이)’와 관련한 산받음이다. 가문장아가가 거지잔치를 벌이며 맹인 부모를 만나는 대목에서 개안(開眼)하는 것과 연동하여 점을 친다.

산판은 무점구 외에도 곳의 제차에 따라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기도 한다. 초공맞이나 당주맞이에서 신칼처럼 초공본풀이의 서사를 재연하는 연극적 소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자지맹왕아가씨가 부모에게 인사를 하기 위하여 화장을 하는 행동을 재연할 때 소품처럼 사용한다. 또한 당주맞이의 ‘어인타인(御印打印)’ 제차에서는 신입무의 입무 허가를 상징하는 무구로 사용한다. 한편 단골이 장차 곳을 하기로 다짐하는 ‘뽕지알데김’이라는 비념에서는 산판을 이용하여 약속을 인증하는 도구로 삼는다. 산판 가운데 상잔은 신을 청하는 제차인 초감제의 ‘신청괘’에서 쌀그릇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사진 2-3] 산판



[사진 2-4] 천문



21) 강소진, 「제주도 잠수곳 연구 :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 동김녕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93쪽.

[사진 2-5] 상잔



[사진 2-6] 산대



### 3) 요령

요령(搖鈴)은 ‘요랑’이라고도 부른다. 심방이 손에 들고 흔드는 종 모양의 무구이다 ([사진 2-7] 참조). 세분하면 좁은 의미의 ‘요령’과 ‘요령치메’로 이루어져 있다. 요령은 놋쇠로 만든 것이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지만, 요령치메는 천으로 달아매는 것이니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새로 만들어서 갈아준다.

놋쇠로 만든 요령은 둥근 잔 모양의 종과 그 안에 종을 때리는 막대 모양의 추로 되어 있다. 추는 흡사 진자(振子)와 같은 역할을 한다. 종의 상단은 보통 직경 6~7cm, 깊이는 4~5cm 내외이다. 추는 길이가 5~6cm, 두께가 0.5cm 정도이다. 종의 밑바닥에 작은 구멍을 뚫어 고리를 걸고 여기에 추를 달아맨다.

요령치메는 요령에 달아맨 여러 가지 색깔의 천을 말하는 것으로, 추와 연결된 고리의 바깥쪽으로 늘어뜨린다. 길이는 55~65cm, 치메의 개수는 5~7개 내외이다. 요령치메를 합한 요령의 전체 길이는 65~75cm 정도이다. 요령치메는 때가 묻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때때로 갈아주는데 일반적으로 당주제일을 택하여 갈거나 다른 심방집에 곳을 하러 가는 경우에 바꾼다.

요령은 멩두 일체를 마련할 때 함께 갖춘다. 보통은 멩두를 새로 만들거나 물려받을 때 함께 장만하지만, 나중에라도 사정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교체할 수 있다. 신칼이나 산판에 견주면 마련하는 경로나 재장만하는 과정이 까다롭지 않다. 심지어 불교용품점에서 구입한다손 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요령도 초공본풀이에 유래가 전한다. 본풀이에서는 ‘천안낙훼금정옥술밭’이라는 별칭으로 부른다. 천안낙훼금정옥술밭은 하늘과 땅을 울려 자지멩왕아기씨를 굳게 가둔 살장의 문을 연다는 데서 주술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여겨진다. 요령은 ‘요령선생 홍글저대’라고도 부른다. 요령이 방울처럼 흔들어 소리를 내기 때문에 붙은 이름인 듯하다.

요령의 쓰임새도 다양하다. 우선 요령은 심방이 손에 잡고 흔들어 소리를 내어 사용하니 무악기(巫樂器)와 같은 쓰임새가 엿보인다. 신칼이나 산판의 주요 기능이 무점구인데 견주어 다른 점이다. 요령은 청신(請神)하는 기능이 있다고 한다. 초공본풀이에서 요령은 자지멩왕아기씨가 갇힌 문을 여는 무구였던 것처럼 굿에서도 요령은 문을 여는 것과 관련이 있다. 심방이 춤을 출 때 요령을 흔들며 사용한다.

요령은 굿의 여러 제차에서도 두루 쓰인다. ‘연유담음’이나 ‘액맥이’ 등 제차에 따라서는 말명을 할 때 요령을 흔들며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본풀이는 일반적으로 장구 반주를 하면서 구송하는 것이지만 ‘사만이본풀이’나 ‘조상신본풀이’ 등을 할 때는 요령을 사용한다. 초공본풀이를 할 때도 자지멩왕아기씨가 갇힌 문을 여는 대목에서는 공깃상의 요령을 집어 들어 소리를 울린다. 질침을 할 때는 ‘홍마음홍걸레’라고 하여 도구로 사용한다. 한편 큰대에 달아매기도 한다. 군문열림 때는 무점구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사진 2-7] 요령



## 2. 멥두의 기원

멥두의 기원은 역사적 측면과 신화적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멥두는 물질전승 하는 무구이니 역사적 기원이 있게 마련이다. 또한 멥두는 구비전승 하는 무구이니 신화적 기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멥두의 역사적 기원과 신화적 기원에 대하여 두루 다루어야 멥두의 의미가 더욱 분명해 질 수 있다.

멥두의 역사적 기원에 대해서 그동안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한 경향이 있다. 멥두의 구성 요소 가운데 한국 무속의 무구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것에 대하여 단편적인 서술을 한 정도였고 구체적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현 시점에서 멥두에 대하여 얻을 수 있는 역사자료가 많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멥두의 역사성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 안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멥두의 신화적 기원을 말하는 초공본풀이는 중요한 서사무가이다. 멥두는 명확한 신화적 전거를 가진 무구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소중하다. 따라서 초공본풀이의 서사를 중심으로 하여 멥두의 신화적 기원에 대한 검토는 비교적 꾸준히 이루어졌다. 하지만 초공본풀이에서 말하는 신화적 기원이 현실 세계의 멥두 전승을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부족하였다고 여겨진다. 즉 멥두의 물질전승과 구비전승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1) 역사적 기원

멥두의 역사적 기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멥두에 대한 문헌기록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제주도 무속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록한 조선시대 문헌 가운데 멥두와 관련한 기록을 찾아 그 양상을 살펴본다. 그리고 멥두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한국 무속의 무구와 어떤 관련을 보이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멩두의 문헌기록 검토

제주는 예로부터 무속신앙이 성행한 곳으로 알려졌다. 제주의 무속신앙 양상에 대해서는 조선시대의 문헌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제주에 들어온 관리나 유배인들은 자신들이 관찰한 제주의 무속신앙 양상에 대하여 저서나 지리서 등을 간간이 남겨 놓았다. 당시 유학자들의 기록은 제주의 무속신앙 풍속이 매우 그릇되고 음사(淫祀)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중심으로 적고 있다.

한편 이들이 남겨놓은 문헌에서 멩두와 관련한 대목도 다소나마 찾을 수 있다. 무속의례가 행해지는 모습을 묘사하거나 통치 시책으로 행한 행위를 기록하는 부분에서 멩두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멩두의 역사적 기원을 살펴보기 위하여 제주도 무속에서 멩두와 관련한 옛 문헌기록부터 검토하기로 한다.

이건의 『濟州風土記』는 1630년대의 자료이다. 『濟州風土記』에서 당시 심방들이 사용하던 무구에 대한 구체적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건은 굿하는 광경을 보며 “심방들이 배교(杯皎)를 던지며 길흉을 말한다(擲杯皎而言吉凶).”라고 기록하였다.<sup>22)</sup>

이 기록에 나타난 배교(杯皎)는 그 형상으로 미루어 상잔과 천문을 이르는 말일 것이다. ‘배(杯)’는 술이나 음료수를 따르는 잔을 뜻하니 상잔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교(皎)’는 옥이나 조가비로 만든 것으로 길흉을 점치는 것이니 천문을 가리키는 기록임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이건의 기록을 바탕으로 하면 천문과 상잔은 최소 400년의 역사를 지닌 셈이다. 게다가 그 형태나 사용법도 현재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형상도 1704년에 『南宦博物』이라는 문헌을 남겼다. 이 문헌에는 “무격배의 신옷과 신쇠 일체를 다 불태웠다(巫覡輩神衣神鐵一並燒盡).”라는 기록이 있다.<sup>23)</sup> 이형상이 제주도의 무속을 타파하는 정책을 실시하면서 스스로 하였던 행동을 적은 것이다.

신옷(神衣)은 무복(巫服)을 이르는 것이고, 신쇠(神鐵)는 쇠로 만든 무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자세한 언급은 아니지만 쇠로 만든 제주도의 무구를 언급하는 기록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건의 『濟州風土記』와는 약 70년 정도 시차가 있는데, 따지자면 배

22) 李健, 「濟州風土記」, 『耽羅文獻集』, 濟州道 教育委員會, 1976, 199쪽.

23) 이형상 지음/이상규·오창명 역주, 『남환박물』, 푸른역사, 119쪽. 본문의 원문은 韓國精神文化研究院, 『耽羅巡歷圖·南宦博物』, 1980,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15쪽에서 인용.

교가 쇠로 만든 것임을 미루어 알 수 있다. 멩두가 쇠로 만들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기록인 셈이다.

변경봉은 18세기 후반 제주도 대정(大靜) 출신의 도학자인데 한때 자신이 크게 아팠을 때 비록 양반의 집안이지만 무당을 청하여 여러 차례 굿을 하였다는 경험을 문집에 남겼다. 즉 “자야가 되었을 때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높였고 귀신을 내쫓을 때에는 명도(明刀)로 사지를 어지럽게 찌르니 털과 머리카락이 모두 곤두섰다(子夜瞋目高聲比逐鬼魅以明刀亂刺肢體則毛髮盡豎).”는 내용이다.<sup>24)</sup>

변경봉의 기록에서 명도(明刀)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황을 살펴보면 변경봉의 병곳에서 푸다시와 같은 제차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명도는 곧 신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 명도라는 표현이 당시 심방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변경봉이 나름대로 받아 적은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혹은 변경봉이 보편적인 용어의 하나로 스스로 적은 것인 지도 알 수 없다. 아무튼 변경봉의 기록에서 신칼의 존재와 쓰임새를 확인할 수 있다는 소득이 있다. 더불어 이를 명도라고 한다는 정황도 엿볼 수 있다.

옛 문헌을 참고하면 제주도에서 최소한 17세기 초반에 무구로써 천문, 상잔, 신칼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멩두가 있었다는 말이다. 배교와 쇠로 기록되었지만 멩두임에는 틀림없다. 18세기 후반에 들어서 명도라는 신칼에 대한 기록을 통하여 멩두라는 명칭의 단서도 찾을 수 있다. 문헌기록을 바탕으로 하면 멩두 전승의 역사가 최소한 400년 정도는 되는 셈이다.

## (2) 멩두의 역사적 기원

멩두 역사가 최소한 400년 정도나 되었다면 나름대로 그 역사가 오랜 무구라고 할 수 있다. 이건의 『濟州風土記』보다 100년 정도 앞선 김정익의 『濟州風土錄』이나 중종(中宗) 대의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당시 제주 무속의 풍속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비록 멩두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당시에 멩두라는 무구는 존재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멩두의 역사는 더 깊어질 수 있다. 따라서 멩두의 역사적 기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24) 허남춘 외, 『통정대부 사헌부 장령 변경봉 문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54쪽, 336쪽, 482쪽 참고.

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형상은 쇠라고 하여 멩두가 쇠로 만든 무구임을 말하였다. 멩두가 금속류의 무구라는 점은 멩두의 내력을 말하는 초공본풀이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초공본풀이의 문맥에서도 역사적 기원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으니 마땅히 살펴보아야 한다.

초공본풀이에서 천문과 상잔을 두고 ‘남천문’, ‘남상잔’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남—’이 붙는 것은 천문과 상잔이 애초에는 나무로 만든 것이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나무로 된 것이었으나 나중에 쇠로 다시 제작하였다는 것이다. 그 양상이 비교적 잘 드러난 초공본풀이를 인용하여 살펴보자.

이제~, 어머니를 만나난

남천문에 남상잔은, 아버지가 내어준 거난, 아무리 생각허여도 우리가 이거 굿 헐 뎌, 남천문으로 남상잔으로 헤엿주만은, 이루후제 전대전손 만대유전, 이거 유래전득을 시기쟁 허민, 이제랑~, 췌동녕을 허여단

동이와당(東海——) 췌철이 아덜 불러단

아끈 모레 한 몰레 일어 놓안

그걸 본뎌 놓안 진 게, 멧 번을 지어도, 아니 뷌어 가는구나에—.

고운 얼굴 고운 본메 아니난다.

아버지가, 산돏(山猪) 잡앙 옥항더레

축원(祝願)을 올리난

옥항에서 전정녹이가 검은 옷을 입언 느려완

아끈 모레 일러간다 한 모레 일어간다.

아끈 불미 한 불미에

허연 남천문을, 본메를 놓아내

진 것이

고운 얼굴 나온다.

남상잔도 고운 얼굴 메치 나온다.<sup>25)</sup>

초공본풀이의 삼형제는 멩두를 마련하고 굿을 한 뒤 어머니와 만날 수 있었다. 그런데 멩두를 다시 쇠로 제작하는 과정이 나온다. 원래는 나무로 만든 천문과 상잔이었으나 대대로 전승하려 하니 쇠로 다시 만든다는 내용이다. 멩두 제작에 필요한 쇠는 ‘췌동녕’을 하여 얻었다. 처음에는 동쪽 바다 췌철이 아들을 불러 만들게 했는데 고운 모양이 나지 않아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자 하늘옥황에 축원을 드려 결국 전정녹이가 내

25)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이용옥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9, 152쪽.

려와 멩두 제작을 맡아 멩두를 곱게 만들어 내었다는 이야기다.

초공본풀이는 멩두의 전승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하여 쇠로 제작하였다고 전한다. 실제로도 심방들이 멩두를 오랫동안 전승할 수 있었던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놋쇠로 만든 무구였기 때문이다. 금속 재질로 인하여 파손되거나 변형이 생길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설사 전승이 끊긴다고 하여도 얼마든지 다음 세대를 기다릴 수 있다.

멩두가 오래 전부터 형성된 무구라면 그 과정에서 한국 본토의 무속과 어떤 교류를 하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멩두가 제주도 무속의 토착적 무구인지 혹은 한국 무속과 일정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무구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본토의 무속에서 유사한 형태와 쓰임새를 가지는 무구와 견주어보는 것도 필요하다.

제주도 멩두에서 신칼은 한국 본토의 ‘대신칼’과 견줄 수 있다. 그 형태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신칼이나 신칼치메의 모양이 서로 비슷하다. 최진아에 의하면 대신칼은 서울·경기(부정칼/대신칼), 황해도(대신칼), 호남(신칼, 신칼(꽃술)), 동해안(수부칼) 등으로 불리며 주로 부정을 제거하고 축귀(逐鬼)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한다.<sup>26)</sup> 이처럼 대신칼은 한국 본토의 검류(劍類) 무구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칼이다. 전국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각 지역별로 명칭이나 생김새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인 형태는 유사한 편이다.

다만 이들에 견주어 제주도의 신칼은 형태는 비슷하지만 쓰임새는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신칼의 핵심적인 쓰임새는 무점구이다. 물론 신칼의 쓰임새에 구축(驅逐)과 같은 용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신칼은 곳에서 여러 가지 소도구로 다양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 쓰임새가 다양한 편이다. 제주도 신칼과 한국 본토 신칼의 쓰임새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형태적인 면을 생각한다면 제주도 신칼은 한국의 무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재료의 속성도 같고 전승양상도 유사하다.

한편 산판에서 천문도 한국 무속의 무구와 일정한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사실 제주도 무속에서 천문의 의미가 어떤 지는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현용준은 천문에 대해 ‘天門’이라고 쓰고 있는 것이 보이지만, ‘하늘의 돈’이라는 신성한 의미를 생각할 때 ‘天文’에서 유래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sup>27)</sup>

천문은 그 형태로 보면 엽전과 비슷하다. 둥그런 모양에 대부분 가운데 구멍이 뚫려

26) 최진아, 「무속의 물질문화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100~103쪽.

27) 玄容駿, 앞의 책, 428쪽.

있고 일정한 글자가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하늘의 돈이라는 성격도 엽전과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엽전은 한국 무속에서 대표적인 점구 가운데 하나이니 천문과 상통하는 점이 있다. 한국 무속의 무구 가운데 천문과 명확하게 대응하는 것을 쉽사리 발견할 수 없지만 엽전과 충분히 견줄 수는 있다. 김현선은 초공본풀이에서 유정승따님아가가 얻은 ‘육간재비’는 엽전이며 이 육간재비로부터 천문이 유래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sup>28)</sup>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설명이라고 여겨진다.

제주도 무속에서 천문은 상잔과 함께 짝을 이룬다. 천문의 역사적 기원은 상잔과 견주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상잔은 한국 무속에서 대응하는 무구를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상잔은 제주도의 고유한 무구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아니면 다른 문화권의 무구가 제주도에 영향을 끼친 것일 수도 있다. 말하자면 천문이 한국 무속의 엽전과 연관된 무구라고 한다면 천문은 제주도에 전파된 무구일 가능성이 있다. 상잔은 토착적 무구이거나 다른 문화권과 관련한 무구일 가능성이 있다. 결국 산판은 각각 다른 경로에서 형성된 천문과 상잔의 조합인 셈이다. 천문과 상잔이 각각 부모로부터 유래하였다는 내용에 어떤 함의가 있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요령이다. 요령은 제주도에서만 사용하는 무구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국 무속에서 경쇠나 정주와 같은 종류(鐘類)의 무구와 연관이 깊다.<sup>29)</sup> 그 형태나 쓰임새에 차이가 있지만 같은 부류의 무구인 것을 알 수 있다. 종류의 무구 가운데 요령과 동일하게 대응하는 무구가 특정되지는 않지만 요령 역시 한국 무속과 따로 생각하기는 힘들다. 나아가 종류의 무구는 방울류의 무구와도 연결된다.

제주도 멩두의 구성 요소 가운데 신칼과 요령은 한국 무속의 무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산판인 경우 한국 무구와 관련성이 다소 모호하지만 멩두의 구성요소 가운데 두 가지인 신칼과 요령은 한국 무속에서 보편적인 무구인 칼, 방울과 대단히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멩두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단서는 한국 무속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무속의 무구는 고대적 원형을 간직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이른바 거울, 칼, 방울이라는 무구의 역사적 기원은 단군신화의 천부인(天符印)과 청동의 기(靑銅儀器)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제주도 멩두에서도 신칼과 요령은 이러한 한국

28) 김현선, 「제주도 巫具 ‘삼멩두’와 ‘울쇠’의 전승적 연구」, 121쪽.

29) 최진아, 앞의 논문, 34~35쪽, 98~100쪽.

무구의 기원과 맞닿아 있다는 점이 검토된 바 있다.<sup>30)</sup>

특히 장주근과 이두현은 동북아시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단군신화의 천부인(天符印) 세 개와 일본 천손하강신화(天孫下降神話)의 삼종신기(三種神器)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 유사성에 주목하였다. 천부인이 거울과 칼에 방울 혹은 북이나 관(冠)인데 건주어 삼종신기는 거울, 칼, 곡옥(曲玉)임을 들어 매우 유사한 구성을 보이고 있음을 거듭 확인하였다. 더불어 출토유물인 팔두령(八頭鈴), 다뉴세문경(多鈕細文鏡), 청동검(靑銅劍) 등이 신성의기(神聖儀器)인 점을 살펴 한국 무구의 고대적 기원을 검토하였다. 무당이 사용하는 무구인 거울, 칼, 방울의 역사적 기원이 드러난 셈이다. 이들은 이러한 연구에서 제주도의 멩두 가운데 신칼과 요령 역시 역사가 매우 깊고 고대적 자취를 가진 무구인 점도 언급하였다.

제주도 멩두는 직접적인 문헌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조선 전기 당시에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으나 실상 역사적 기원은 조선 전기보다 훨씬 오래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멩두에 대해 언급한 문헌자료의 역사적 시점은 일정한 한계가 있으나, 한국 무구의 기원 속에서 바라보면 한국 고대 무속신앙의 형성 시점과 연결되는 매우 고형(古形)의 무구인 것이다.

## 2) 신화적 기원

멩두는 초공본풀이라는 전거(典據)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공본풀이에서 멩두의 신화적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초공본풀이는 멩두의 신화적 기원을 설명함으로써 멩두가 신성한 무구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초공본풀이의 서사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멩두의 명칭, 멩두의 제작, 멩두의 전승과 관련하여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멩두의 신화적 기원은 현실 세계에서 심방들이 멩두를 물질전승 하는 풍속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0)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 李杜鉉, 「내림무당의 쇠구슬」, 『韓國巫俗과 演戲』,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장주근, 「제주도 심방의 3멩두」, 『한국의 향토신앙』, 을유문화사, 1998.; 양중승, 「무당 귀물(鬼物) 연구: 『삼국유사』의 삼부인(三符印)과 무당의 거울·칼·방울을 중심으로」, 『생활문화연구』 2집, 국립민속박물관, 2001.

### (1) 초공본풀이 채록 현황

맹두의 신화적 기원을 밝히기 위하여 먼저 초공본풀이를 검토해야 한다. 현재까지 채록되어 공개된 초공본풀이는 모두 13편이다. 이를 채록된 시기를 기준으로 제시하면 아래의 [표 2-1]과 같다. 채록된 시기가 특정되지 않아 불분명한 자료일 경우 해당 자료가 조사된 시기를 참고하였다. 한편 채록 당시의 구연상황은 자연스런 현장자료와 인위적인 재연자료로 나눌 수 있다. 구연상황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자료들도 더러 있다. 구연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자료는 현장자료인 경우 ‘의례’로, 인위적인 상황에서 채록한 경우 ‘재연’으로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아홉 명의 심방이 초공본풀이를 구연한 자료가 공개되어 있는 셈이다.

박봉춘의 자료는 가장 이른 시기에 채록되었다. 무라야마와 아키바가 함께 제주도 여행을 하면서 서귀포에서 얻은 것이다. 무라야마는 ‘初公緣起’라 하여 정리하였고, 아키바는 ‘초공본풀리(初公本解)’라는 이름으로 수록하였다. 물론 내용은 같다. 박봉춘의 자료는 현지인의 도움을 받기는 하였으나 일본인 학자들의 조사였기 때문에 과연 정확하게 채록 및 전사가 되었는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다.

김명윤과 김병효의 자료는 진성기가 채록한 것으로 박봉춘의 자료에 견주어 약 30년 정도 시차가 있다. 김명윤은 당시 제주도 서귀읍 호근리의 남무였고, 김병효는 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의 여무였다. 당시 둘 다 70대의 나이였는데 다만 거주 지역은 차이가 있다.

안사인의 자료는 현용준이 정리하였다. 처음 『濟州島巫俗資料事典』에 수록하였고 나중에 동일 자료를 『제주도 무가』로 다시 정리하여 출간하였으니 이들은 하나의 본풀이다. 안사인은 제주시내에서 출생하고 주로 활동하였다. 제주 무속 연구의 기초를 닦는데 많은 기여를 한 중요 제보자였다. 나중에 제주시 건입동 칠머리당의 영등굿이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나름대로 심방 사회의 구심점 역할도 하였다.

고대중의 자료는 장주근이 정리하였다. 고대중은 당시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면 송당리와 세화리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남무였다. 특히 제주 신당의 뿌리라고 일컬어지는 송당본향당을 맡던 심방이었다. 송당리 고씨 집안은 대를 이은 심방 집안이었다.

[표 2-1] 초공본풀이 채록 현황

구연 심방 (성별)	채록시기	자료 출처 (쪽수)	발행처 (발간년도)	채록자	구연 상황
박봉춘 (남)	1931	朝鮮の巫覡 (504~517쪽)	학문각 (1972)	村山智順	-
박봉춘 (남)	1931	朝鮮巫俗의 研究(上) (242~258쪽)	동문선 (1991)	赤松智城 秋葉隆	-
김명윤 (남)	1956 ~1963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53~63쪽)	민속원 (1991)	진성기	-
김병효 (여)	1956 ~1963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63~70쪽)	민속원 (1991)	진성기	-
안사인 (남)	1959 ~1967	濟州島巫俗資料事典 (142~177쪽)	신구문화사 (1980)	현용준	-
안사인 (남)	1959 ~1967	제주도 무가 (40~81쪽)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2)	현용준 현승환	-
고대중 (남)	1962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92~113쪽)	역락 (2001)	장주근	-
문정봉 (여)	1982	風俗巫音(上) (65~146쪽)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4)	문창헌	재연
양창보 (남)	1986	제주큰굿 (131~165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10)	제주 전통문화 연구소	의례
이중춘 (남)	1994	제주도큰굿자료 (200~240쪽)	제주도, 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01)	제주 전통문화 연구소	의례
이중춘 (남)	1998	제주도 무속신화 : 열두본풀이자료집 (113~149쪽)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문무병	재연
이용옥 (여)	2008	이용옥 심방 본풀이 (97~165쪽)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9)	제주대학교 한국학 협동과정	재연
양창보 (남)	2010	양창보 심방 본풀이 (91~132쪽)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허남춘 외	재연

문정봉의 자료는 이두식 한자와 한글을 병기한 것이다. 문정봉은 제주도 서남부에서 활동하던 여무였고, 문창헌은 그와 9촌 숙질(叔姪) 사이로 한학에 밝은 이였다. 『風俗巫音』은 작성과정과 간행시기에 시비가 있는 자료이다.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에서



1994년에 『風俗巫音』을 영인하여 발간하였는데 이때 현용준이 해제를 통하여 해당 자료의 작성과정과 간행시기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여기서는 현용준의 해제에 따라 문정봉의 자료가 생산된 시기를 1982년으로 보고자 한다. 『風俗巫音』은 신뢰성에 중대한 의문이 있으나 문정봉이 구술한 내용 자체는 나름대로 소중하다고 보아 이 글에서는 함께 다루기로 한다.

양창보의 자료는 2편이다. 1986년에 실제 현장에서 채록한 것과 2010년에 인위적으로 재연하여 구연한 것이 있다. 이 가운데 1986년의 자료는 실제 심방집의 초신질을 바르게 하는 신긋에서 행한 것이라 소중하다고 할 만하다. 현재까지 심방이 되고자 처음으로 하는 신긋에서 채록한 것으로는 유일한 자료이다. 양창보는 제주도 서북부 출신이지만 도내 곳곳을 두루 다니며 굿을 보고 행한 이로 손꼽히는 큰심방이다.

이중춘의 자료도 2편이다. 1994년에 실제 현장에서 얻은 자료와 1998년에 인위적으로 재연한 것이 있다. 1994년 자료는 중당클 규모로 벌어진 심방집의 신긋에서 행한 것이다. 이중춘은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에서 출생하여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외가가 심방 집안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무형문화재인 ‘영감놀이’와 ‘제주큰굿’을 맡았던 큰심방이었다.

이용옥의 자료는 인위적인 상황에서 구연한 것이다. 이용옥은 제주시 조천읍에서 출생하였고, 제주시내와 조천읍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주굿에 두루 능숙하고 활발히 활동하는 여무이다.

현재까지 채록된 초공본풀이는 제주도 동남부를 제외하고 비교적 고루 채록된 것으로 나타난다.<sup>31)</sup> 시기적으로는 박봉춘, 김명운, 김병효가 비슷한 연배인 것으로 추정된다. 고대중, 문정봉, 안사인, 이중춘, 양창보를 그 다음 연배로 묶을 수 있다. 이용옥은 가장 후세대이다. 물론 구체적인 입무와 활동시기가 심방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연배가 비슷하다고 해서 동시대의 무업양상을 동일하게 나타내리라는 가정은 약하지만 그래도 시간적으로 동일 범주로 묶을 수는 있으리라 본다.

제주 서북부와 서남부의 자료는 선대 심방들을 대상으로 비교적 이른 시기에 한 차례 채록된 것이다. 이에 견주어 제주시내와 동북부의 자료는 연배를 달리 하며 꾸준히 채록된 셈이다. 제주 서부 지역에서 특히 전통적인 심방이 점차 사라지고 무속신앙의

31) 양창보 심방의 경우 출생지와 입무 초기 상황을 따라 서북부로 표기하였지만 도내를 두루두루 다녔던 이어서 사실 어느 한 지역으로 특정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다.

양상이 악화되고 있는 사정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제주시내와 동북부 지역은 그나마 다른 지역에 견주어 심방과 무속신앙이 아직은 활발한 편이어서 자료가 풍부해질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제주 동남부 지역은 아직까지 출간된 자료는 없으나 현장 조사에 따라 초공본풀이를 채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후의 연구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 (2) 멩두 명칭의 기원

신명(神名)으로서 멩두의 신화적 기원은 무업조상인 삼형제이다. 황금산 주점선생이 자지멩왕아기씨의 상가마를 끌어내리자 아기씨는 임신을 하게 되고 집에서 쫓겨나 결국 남편을 찾아가서 삼형제를 낳는다. 삼형제는 9월 초여드레(8일), 열여드레(18일), 스무여드레(28일)에 각각 탄생한다. 수태과정이 신이한 일이었으니 탄생과정 역시 범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하문(下門)을 보지 못하였기에 삼형제는 이를 피하여 좌우 겨드랑이와 오목가슴을 헤치며 태어나는 것이다. 탄생한 뒤에도 어릴 때부터 능력이 출중하여 장차 비범한 존재가 될 것임을 암시한다.

삼형제의 이름이 각각의 본풀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래의 [표 2-2]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표 2-2] 초공본풀이에 나타난 삼형제의 이름

심방	큰아덜	셋아덜	족은아덜
박봉춘	초공이	이공이	삼공이
김명운	본멩이	이멩이	살아살쭈 삼멩이
김병효	본멩이	신멩이	살아살축 산멩이
안사인	본멩두	신멩두	살아살축 삼멩두
고대중	본멩두	신멩두	사라서쪽 삼멩두
문정봉	본멩이	신멩이	사레살죽삼멩이
양창보	본멩두/본멩두	신멩두/신멩두	사레살축 삼멩두 /살아살축 삼멩두
이중춘	본멩두	신멩두	살아살축 삼멩두
이용옥	본멩두	신멩두	살아살축삼멩두

무조 삼형제를 칭하는 이름을 모아보니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박봉춘의 초공본풀이에 나타난 신명이 독특하다. 초공이, 이공이, 삼공이라 하였는데 다른 이들의 본풀이에 나타난 신명과 많이 다르다. 초공, 이공, 삼공은 제주 무속에서 서로 다른 신격으로 등장하며 각각의 맛이곳으로 형상화되는 존재들이기에 더욱 그렇다. 이공은 이공본풀이와 관련되고, 삼공은 삼공본풀이라는 고유의 본풀이와 연결된다.

둘째, ‘—맹이(명이)’와 ‘—명두(맹두)’의 차이점이다. 공교롭게도 ‘—맹이(명이)’는 제주 서남부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던 심방들이 구술한 신명이다. 제주 서북부와 동북부에 서 활동하는 심방들은 ‘—명두(맹두)’라는 일치를 보였다.

셋째, ‘본—’, ‘신—’, ‘살아살축—’이라는 말은 공통적인 용어라 할 수 있다. ‘—맹이(명이)’라고 칭하는 서쪽 지역의 김병효와 문정봉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위의 3가지 사항을 고려하면 결국 무업조상의 신명은 본맹이(본명이)/본맹두(본명두), 신맹이(신명이)/신맹두(신명두), 살아살축 삼맹이(삼명이)/살아살축 삼맹두(삼명두)임이 드러난다. 기존에 무업조상의 신명으로 널리 알려진 맹두는 제주 서북부와 동북부 지역의 전승에서 유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만 김명윤의 초공본풀이에 맹도(맹두)의 용례가 있다.<sup>32)</sup> 그러나 이는 신명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칼로 추정되는 무구를 표현하는 대목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맹두라는 용어는 과연 신명으로서 분명한 성격과 위상을 보이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에 채록된 초공본풀이를 참고하면 신명이 다소 통일되지 못한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초공본풀이가 심방에게 가장 중요한 본풀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박봉춘이 제보한 신명까지 더하면 의외로 맹두가 신명의 원래적 용어라고 특정하기 곤란한 면도 있다.

신명으로서 맹두는 ‘—맹이(명이)’와 ‘—명두(맹두)’로 나타난다. 현용준은 ‘—맹이(명이)’가 전승과정에서 와음(訛音)으로 생각된다는 견해를 밝혔다.<sup>33)</sup> 그런데 심방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맹두라고 해서 과연 ‘—맹이(명이)’를 와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는 의문이다.

32) <허영, 백물래를 일업시민/ 백철이 된다/ 백철을 또시 일업시민/ 정철이 된다/ 그 쇠를 ㄹ저당/ 정맹두 정대장 신 디 강/ 대양 맹글곡 맹돌 맹글라/ 맹돌 맹글민/ 등맹이로 마주 간 등진시름/ 놀론 스민, 앞이 꺾이 쇠곡/ 흥펜으론 가민 즈부드리난/ 좋은 거고/ 칼이 마주 스민/ 군문 칼싼드리 되영 나쁘다./ 이걸 들러 ㄹ정 느네 어멍/ 열두스촌/ 중문에 간 간쳐시메 살려오라.> 秦聖麒, 『제주도무가 본풀이사전』, 민속苑, 1991, 61쪽. 인용문의 / 표시는 행 나눔을 줄이기 위하여 필자가 삽입하였다.

33)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39쪽.

여기서 ‘—맹이(명이)’ 유형과 ‘초공이, 이공이, 삼공이’의 신명이 제주 서남부 지역 심방들의 제보였다는 사실을 주목해 본다.<sup>34)</sup> 반면에 ‘—명두(맹두)’ 유형은 제주 서북부와 동북부 지역으로 말하자면 ‘목안’(제주목 관내) 심방들이 제보한 것이다. 그렇다면 1930년대에서 1960년대의 채록시기를 거치도록 무업조상의 신명이 어느 하나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가정에 이른다. 이는 비슷한 양상의 신명이 혼재하였고 각각 전승되었다는 말이기도 하다. 요컨대 현재 보편적으로 알려진 맹두라는 신명은 제주 목안 심방들의 세력 확대에 의하여 형성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신명의 형성과정에 대한 의문점은 무구명과도 연결된다. 사실 제주도 무속에서 신칼, 산판(천문과 상잔), 요령은 맹두라는 하나의 호칭으로 수렴되고 있지만, 정작 초공본풀이에는 이들 세 종류의 무구를 통칭하여 맹두라고 분명하게 확정하거나 특화하는 신화적 전거가 부족하다.

세 종류의 무구가 초공본풀이에서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초공본풀이에서 팔자를 그르쳐 심방이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무구는 천문이다. 천문에 새겨진 글자의 의미를 중시하여 하늘과 땅 등의 이치를 살피는 곳의 성격과 심방의 역할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견주면 신칼은 초공본풀이에서 삼형제가 양반에게 원수를 갚는 도구로써 의미가 더욱 강조된다. 신칼은 삼형제의 욕망을 해결하는 도구이다. 상잔이나 요령은 부수적으로 다루어지는 편이다. 즉 세 종류 무구의 신화적 비중이 각각 다르다.

그렇다면 세 종류의 무구는 어떤 과정을 거쳐 신명과 같은 맹두라는 이름을 얻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이들을 맹두라고 통칭하여 부르는 것은 무업조상 삼형제의 표상으로서 그 주력(呪力)을 발휘하는 무구이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그 상징성에 견주어 초공본풀이에서 이들을 맹두의 구성 요소라고 묶어주는 화소가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무업조상 삼형제와 무구 셋이 각각 대응하는 것도 아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신칼을 일러 특히 맹두칼이라고 하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신명으로서 맹두와 무구명으로서 맹두가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물론 물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맹두라는 말 자체가 칼을 뜻하기도 하니 맹두칼은 이중 표현인 셈이다.

맹두칼은 본풀이의 신화적 문맥을 따르면 양반에게 복수를 하는 무업조상 ‘맹두’의

34) 물론 박봉춘의 경우 일본인 학자의 조사여서 본풀이 채록과정에 과연 문제가 없었는지 의문이지만, 당시 한인 조력자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자료 자체는 인정하기로 한다.

‘칼’이다. 우연인지는 모르나 신명으로서 ‘—맹이(명이)’ 사용 심방은 본풀이에서 신칼과 관련하여 “○○잡는 칼은 ○○ 단~”이라는 식의 언급이 없고, ‘—명두(명두)’ 사용 심방은 신칼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언급이 있는 것을 살필 수 있다. 명두라는 신명을 사용하는 심방들의 본풀이에서 삼형제의 신칼로 원수 갚기가 유난히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삼형제의 이름인 명두도 신칼이 강조되면서 신명으로까지 확장된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초공본풀이에서는 삼형제의 이름 짓기와 관련하여 특별한 언급이 없다. 어머니 자지멩왕아기씨가 태어날 때 계절과 연관성을 드러내며 ‘이 산 줄이 번고 저 산 줄이 번어 왕대월석 금하늘 노가단풍 자지멩왕아기씨’라 한 점과는 다른 차이점이다. 삼형제는 탄생과정이 신이할 뿐 이름에 대한 신화적 해석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삼형제의 이름 가운데 유심히 보아야 할 것은 살아살축 삼명두이다. 삼형제가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를 찾아가 심방이 되어 고통을 하게 될 때 본명두는 초감제, 신명두는 초신맞이, 살아살축 삼명두는 시왕맞이를 맡는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작은아들이 하는 시왕맞이다. 초감제와 초신맞이가 전체적인 영신의례(迎神儀禮)인 점에 견주어 시왕맞이는 시왕을 청해 벌이는 기원의례(祈願儀禮)이기 때문이다.

신명의 신화적 의미는 살아살축 삼명두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살아살축’이라는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정도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심방이 되는 소명과도 깊은 관련을 보인다. 심방은 사람의 생사(生死)에서 촉발한 문제로 기원을 하는 존재이다. 삼형제 특히 살아살축 삼명두는 시왕맞이를 하여 깊은 궁에 갇힌 어머니를 살렸다. 유정승따님아기도 죽을 위기에 처한 부잣집 딸아기를 살려낸다. 심방이 된 것이 사람의 생사와 관련하여 중대한 일을 해낼 수 있다고 하는 인식이 엿보인다.

신칼, 산판, 요령을 명두라고 통칭하여 부르게 된 데에는 그 가운데 신칼의 의미가 보다 강조되면서 생긴 현상이 아닌가 여겨진다. 신칼은 한국 무속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무구이다. 제주도 역시 한국 무속의 영향 속에서 초공본풀이가 애초에 제시한 천문보다는 신칼을 더 우위에서 다룬 것일 수 있다. 그러니 무구명으로서 명두는 신칼에서 비롯되어 산판과 요령까지 아우르는 명칭이 되었다고 가정할 여지가 있다.

### (3) 멥두 제작의 기원

초공본풀이에서 멥두 제작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초공본풀이의 서사 가운데 무업조상 삼형제의 일대기는 무구의 관점에서 보면 멥두 제작의 기원과 연결된다. 삼형제가 자신들의 과거급제 때문에 어머니가 양반 삼천선비에 의하여 깊은 궁에 갇히자 어머니를 살리기 위한 곳을 하고자 멥두를 제작하기 때문이다.

멥두 제작의 기원은 ‘본메를 놓는 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본메’는 본(本)을 말한다. 멥두를 제작할 때에는 적절한 본보기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는 인식을 보여준다. 본메를 놓는 행위는 멥두의 근원을 신성하게 만들어준다. 멥두가 아무런 전거도 없는 평범한 사물이 아니라는 뜻이다.

최초의 멥두 제작에 쓰인 본메는 삼형제의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비롯하였다. 삼형제가 아버지인 황금산 주접선생과 어머니인 자지멥왕아기씨로부터 출생하였으니 부모를 본메로 삼아 멥두를 제작하는 일은 당연한 이치이다. 초공본풀이의 내용을 따르면 아버지는 천문의 본메이고, 어머니는 상잔의 본메이다.<sup>35)</sup> 따라서 천문과 상잔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체(神體)와 다름없는 셈이다. 초공본풀이의 여러 각편에서도 이러한 내용은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다만 천문과 상잔에 견주어 신칼과 요령은 특정한 본메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신칼과 요령이 천문이나 상잔과는 다른 경로로 만들어졌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신칼과 요령의 본메에 대하여 다른 심방이 구송한 초공본풀이에서도 뚜렷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단서는 멥두의 제작 원리를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본다. 멥두의 본메는 멥두의 제작 원리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본메에 내재한 의미는 곧 멥두의 형태나 쓰임새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초공본풀이의 서사에 의하면 상잔의 유래는 갓 태어난 삼형제를 목욕시키려고 어머니가 내어준 것이라고 한다.<sup>36)</sup> 상잔을 목욕그릇이라고 인식한 것인데, 이는 술잔과 같은 모양이어서 형성된 관념인 것으로 여겨진다. 상잔이 목욕그릇이라면 이는 자지멥왕

35) <흙물래를 일어가난/ 백물래가 되어/ 백물래를 일어가난/ 정철이 되어/ 정대장 불러다가/ 하늘천제 아망본메/ 천문을 지어 놓고/ 어멍본메 배옥상잔 지어놓고/ 시왕대번지/ 외우 시번/ 누다 시번/ 대번지 지영/ 하늘굴은 신공깃상 받아보라/ 그게 낫나> 秦聖麒, 앞의 책, 70쪽. 인용문의 / 표시는 행 나눔을 줄이고자 필자가 삽입하였다.

36) <어머님 애스 가십 허우뜰어 솟아나, 초사흘 당헌니 모욕상잔(沐浴床盞) 내어놓고 몸 모욕을 시키니 어머님이 내어준 상잔이 꿩네다.> 玄容駿, 『濟州島巫俗資料事典』, 162~163쪽.

아기씨가 삼형제를 키운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 삼형제의 출생, 육아, 성장과정을 담은 무구인 셈이다.

천문은 삼형제가 성장한 뒤 과거 급제하여 공명을 이루는 것을 실패하고 어머니를 살리기 위하여 난관을 헤쳐 나갈 때 아버지를 만나서 마련한다. 천문은 하늘과 땅의 이치를 알게 하는 도구이다.<sup>37)</sup> 그러니 천문에는 하늘과 땅 등을 새겼다. 천문은 황금산 주접선생이 삼형제를 도운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삼형제의 문제해결 능력을 담은 무구인 셈이다.

상잔과 천문의 제작 원리는 본메인 부모의 서사에서 유추할 수 있다. 상잔과 천문을 짝을 이루는 무구이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짝을 이루는 것과 같다. 그러니 상잔과 천문을 함께 조합하여 산받음을 하는 것이다. 상잔과 천문을 함께 모아 담을 산대를 마련하고 이를 산판이라 통칭하여 점을 친다.

한편 초공본풀이에서 본메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무구인 신칼과 요령을 살펴보자. 초공본풀이에서 보편적으로 신칼은 아들 삼형제가 양반 삼천선비에게 원수를 갚기 위하여 마련하는 무구이다. 신칼은 삼형제의 과거급제를 방해하고 어머니를 깊은 궁에 가둔 양반 삼천선비에 대하여 복수를 하는 목적으로 제시된다. 초공본풀이에서 상잔이나 천문처럼 신칼 자체의 본메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데 심방사회에서 신칼의 형태에는 자지맹왕아기씨와 삼형제의 서사가 투영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신칼 칼날과 치메의 구체적인 형태 하나하나가 자지맹왕아기씨와 삼형제의 일대기를 설명한다고 여긴다. 이는 삼형제가 어머니와 관련한 문제로 신칼을 가지고 삼천선비에게 복수를 하게 된 과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삼형제의 과거급제로 인하여 삼천선비가 어머니를 해치고 결국 삼형제는 어머니를 살린 뒤 삼천선비에게 원수를 갚기 때문이다. 요컨대 신칼은 어머니와 아들의 결연을 드러낸다. 신칼의 점괘는 삼형제를 잉태한 어머니의 서사를 반영하였다. 결과적으로 신칼의 본메를 따진다면 어머니와 삼형제인 셈이다.

요령도 초공본풀이에서 본메와 제작 과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드러나지 않는 무

37) <황금산 도단땅을 찾아가니 아바님이 말을 하네/ 『어명국을 찾아가랴 흥민 전승 팔줄(前生八字를) 그르쳐서 어명국을 찾으리라.』 / 『어서 걸랑 그림소서.』 / 『설운 아기덜 체암의 날 훑아올 때 질(第一) 문저 무스걸 보았느냐?』 / 『하늘을 보고 왔수다.』 / 하늘천제(天字) 마련하고/ 『두번쨌 무스걸 보았느냐?』 / 『땅을 보고 왔수다.』 / 따짓제(地字)를 마련하고/ 『섯쨌번엔 무스걸 보았느냐?』 / 『올레문(門)을 보고 왔수다.』 / 올레문 재(門字) 마련하여 천지문(天地文) 아방(父)주던 개천문(開天門)을 마련하고> 玄容駿, 위의 책, 170~171쪽. 인용문의 / 표시는 행 나눔을 줄이고자 필자가 삽입하였다.

구이다. 요령은 황금산 주접선생이 자지멩왕아기씨가 직접 주는 권제를 받기 위하여 살장을 열고 시주 뒤에 다시 살장을 잠글 때 언급된다. 요령은 황금산 주접선생과 자지멩왕아기씨를 연결하는 무구이다. 장차 삼형제를 잉태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초공본풀이의 서사 전체를 관통하는 특징은 그다지 보여주지 않는다. 요령의 본메라 할 만한 것을 찾기 힘들다.

초공본풀이에서 신칼과 요령의 본메를 특정하지 않은 것은 이들 무구가 한국 본토에서 들어왔기 때문일 수도 있다. 신칼과 요령은 한국 무속에서 대표적인 무구들이다. 그만큼 보편적인 무구이다. 이에 견주어 상잔과 천문은 한국 무속에서 직접적으로 대응할 만한 무구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상잔과 천문은 제주도 무속의 특수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초공본풀이에서 본메를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천문은 엽전과 상관성이 엇보이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천문을 제주도 무속만의 고유한 무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제주도 무속의 특수성을 가지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 (4) 멩두 전승의 기원

초공본풀이는 멩두 전승의 기원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다. 삼형제가 유정승따님아기에 게 멩두를 전승하기 때문이다. 초공본풀이의 서사 가운데 최초의 심방 유정승따님아기의 입무담(入巫談)은 무구의 관점에서 보면 멩두의 전승 기원인 셈이다.

유정승따님아기는 멩두 전승의 기원을 파악하는데 핵심적 인물이다. 유정승따님아기 입무담이 ‘임정국대감/김진국부인+자지멩왕아기씨+삼형제’의 서사와 결합하는 양상이나 자체의 서사구조를 면밀히 파악하면 멩두 전승의 기원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유정승따님아기 입무담과 ‘임정국대감/김진국부인+자지멩왕아기씨+삼형제’ 서사의 결합양상이다. 기존에 채록한 초공본풀이를 살펴보면 유정승따님아기는 멩두의 전승과 밀접한 관련을 보이지만 결합양상을 따지면 다소 의문점이 있다.

제보자 아홉 명의 심방 가운데 박봉춘이나 김병효가 제보한 초공본풀이에는 유정승따님아기 입무담 자체가 없다. 채록이나 전승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기 힘들지만, 제보자의 단순한 실수이거나 지식부족이라고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유정승따님아기는 최초의 심방이라고 인식되는 존재로 심방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증시하기 때문이다.



유정승따님아기에 대한 내용이 체보되지 않았다는 것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일본인 학자가 채록한 박봉춘은 채록 당시의 사정을 자세히 알 길이 없으니 논외로 하더라도, 진성기가 채록한 김병효의 초공본풀이에도 유정승따님아기가 드러나지 않은 점은 의문이다. 역시 진성기가 채록한 김명윤의 초공본풀이에는 유정승따님아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유정승따님아기 내용이 두루 전승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존재양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궁금점을 불러일으킨다. 초공본풀이 서사단계에 유정승따님아기가 본래부터 함께 있었는지 의문을 가질 만하다. 만약 초공본풀이의 서사에서 유정승따님아기의 내용이 이질적인 요소라면 이들은 어떻게 결합할 수 있었는지 해명이 필요하다.

둘째, 유정승따님아기 입무담의 서사구조는 크게 ‘신병(神病)의 발현→굿을 하게 되는 계기→무구의 습득→심방 되기’로 이루어졌다. 삼형제의 영웅적 일대기와는 다른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유정승따님아기는 일곱 살에 (삼베중, 삼형제, 육간대사 등에 의해 육간제비를 얻고는) 안병(眼病 즉 神病)이 들어 일흔일곱 살이 되도록 안병을 반복하다가 결국 ‘팔자를 그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침 동네에 부잣집 딸이 죽어가므로 딸을 살리기 위한 굿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막상 무구가 없어 굿을 못하게 되자 삼형제의 어머니를 찾아가서 자격을 인정받고 무구 일체를 물려받는다. 굿을 하여 부잣집 딸을 살린 뒤에 최초의 심방이 되고 후대에 굿법을 전수하였다.

유정승따님아기 입무담의 서사구조가 제주도에서 이른바 조상신본풀이라고 불리는 유형 가운데 심방과 관련한 조상신본풀이의 서사구조와 매우 비슷하다는 점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sup>38)</sup>

현재까지 심방과 관련하여 채록된 조상신본풀이는 여럿 있다. 이 가운데 유정승따님아기 이야기와 서사구조가 유사한 것을 찾으면 예촌 양씨아미 본풀이, 안카름 현씨일월당 본풀이, 우렁이 김씨조상 본풀이 등 세 개의 본풀이를 들 수 있다.<sup>39)</sup> 개별 본풀이마

38) 심방과 관련한 조상신본풀이의 양상에 대해서는 강소전의 「심방 관련 조상신본풀이의 형성과 전승 (『耽羅文化』 36호,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2010)」을 참고할 수 있다.

39) 세 본풀이의 채록 현황은 아래의 표에 제시한다. 자료의 출처 문헌은 줄여서 표기하기로 한다. 현용준의 『濟州島巫俗資料事典』은 『사전』, 진성기의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은 『무가』, 김현산·현용준·강정식의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는 『연구』, 허남춘 외의 『양창보 심방 본풀이』는 『양창보』, 남제주군·제주대학교박물관의 『南濟州郡의 文化遺蹟』은 『남군』,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다 조금 달리 진행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신병(神病)의 발현→굿을 하게 되는 계기→무구의 습득→심방 되기’라는 서사구조에서 주목할 만한 일치점이 드러난다.

예촌 양씨아미 본풀이에서 양씨아미는 어렸을 때부터 신병을 앓는다. 우연한 기회에 마을의 큰굿을 벌이는 집에 찾아가 공깃상의 떡을 먹고 심방이 양씨아미의 맺힌 가슴을 풀어주니 절로 춤을 추게 되었다. 이에 자신이 심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점사에도 능하였다. 그런 가운데 예촌 양씨 맥의 독자(獨子)의 병을 계기로 신굿을 하게 되었는데 막상 무구가 없었다. 이에 양씨아미의 오빠는 무구를 구해주러 육지로 나갔다가 그만 풍파에 휩쓸려 사망하여 버렸다. 크게 상심한 양씨아미 역시 바다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고 말았다.

안카름 현씨일월 본풀이의 현씨일월도 어릴 때에 육간제비를 습득하여 신병을 앓았다. 이로 인해 열다섯이 넘으니 큰심방이 될 자질을 보였고 결국 팔자를 그르쳐야 함을 인식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무구를 구하러 육지에 나간 오빠가 사망하자 이를 서러위하며 오빠를 따라 죽고 말았다.

우렁이 김씨조상 본풀이에서 김씨조상은 처가에 세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돌 밑에서 무구인 멩두를 발견하였으나 이를 모시지 않아 신병이 났다. 이에 어쩔 수 없이 병곳

의 『白鹿語文』(5집)은 『백록』,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韓國口碑文學大系 : 9-3』는 『대계』로 줄여서 표기한다.

조상신본풀이	조상신 (신앙 집안)	제보자 (채록일시)	구연 상황	자료 출처 (쪽수)
예촌 양씨아미 본풀이	양씨아미 (南元面 禮村 梁氏宅 祖上)	안사인 심방 (1959~1967)	-	『사전』 (838~843)
안카름 현씨일월당 본풀이	현씨일월 (城山邑 新川里 玄氏宅 祖上)	고옥순 심방 (1956~1963)	-	『무가』 (446)
		신명근 심방 (1956~1963)	-	『무가』 (446~447)
		정두삼 심방 (1956~1963)	-	『무가』 (447~448)
		홍매화 심방 (1956~1963)	-	『무가』 (448)
		고산옥 심방 (1988)	의례	『백록』 (355~359)
		신명숙 (1981. 11. 22)	재연	『대계』 (1217~1221)
		신명숙 (1981. 12. 13)	의례	『대계』 (1221~1227)
우렁이 김씨조상 본풀이	김씨 하르바님 (濟州市 外都洞 金氏宅 祖上)	양창보 심방 (2003. 2. 6)	재연	『연구』 (346~352)
		양창보 심방 (2010. 1. 15)	재연	『양창보』 (347~353)

을 하였는데 맹두를 모셔야 한다는 결과를 얻는다. 김씨조상은 결국 맹두를 모셨고 스스로 굿을 하는 계기를 통하여 심방이 되었다.

예촌 양씨아미 본풀이와 안카름 현씨일월 본풀이는 사실 무구의 습득 과정에서 실패하여 심방이 되지 못한다는 내용이기도 하다. 신병을 앓고 굿을 하는 계기까지는 일치하지만 후반부의 서사는 유정승따님아기와 다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무구를 습득하여 심방이 되고자 하였다는 점은 일치한다. 우렁이 김씨조상 본풀이는 무구의 습득 자체가 신병의 발현을 유발하는 계기가 되어 유정승따님아기와 서사의 순서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구조 자체는 같다.

한편 조상신본풀이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당신본풀이 가운데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와 신산리 본향당본풀이에서도 유정승따님아기의 서사구조와 유사한 사례를 만날 수 있다. 비록 당신본풀이라는 유형에서 발견하게 되지만 심방과 관련한 서사만을 따로 떼어 생각한다면 사실 조상신본풀이와 같은 사례라 할 수 있다.<sup>40)</sup>

온평리와 신산리의 본향당 본풀이에 등장하는 ‘당뎨심방’ 문씨영감은 일곱 살이 나도록 걷지도 못하였는데 시월 초하루에 바다로 들어가 사라졌다가 시월 초이레에 삼맹뒤(일월삼성제)를 들고 나와 심방이 되어 당을 매었고 죽은 뒤에는 본향당에서 함께 모신다는 이야기다.<sup>41)</sup> 문씨영감은 신병을 앓고 무구를 습득하여 심방이 되었고 당굿을 맡는다는 서사구조를 보인다. 서사의 진행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무구를 습득하고 심방이 된다는 본질은 같다.

이상으로 유정승따님아기 입무담의 결합양상과 서사구조를 살펴보았다. 유정승따님아기 입무담은 ‘임정국대감/김진국부인+자지맹왕아기씨+삼형제’의 서사와 하나의 연속적인 이야기로 이어지지 않는다. 결합양상에 지역적 차이와 일관되지 못한 경향이 있고, 서사구조에서는 제주도의 조상신본풀이 유형과 매우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40) 앞서 언급한 예촌 양씨아미 본풀이와 안카름 현씨일월 본풀이 역시 조상신본풀이자 당신본풀이다. 특정 집안에는 조상이지만 그 영험으로 인하여 당신앙으로 확대되어 마을에는 본향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41) <죽은 부인은 신디렛빌레 고장남뱃 오라 좌정허여 이신디 누게 허나 먹으라 씨라 아니허난 문씨영감(文氏令監) 안티 풍문조화(風雲造化)를 주나네 문씨영감이 훗일곱살(單七歲) 나도록 걷도 기도 못허 연 구덕에서만 실다네 만국(萬穀) 시월(十月) 초하룻날(初一日) 개암용머리로 호련이 돌아나 바당(海)에 들어가니, 훗단 훗단 못춧아 기냥 내여부단 시월(十月) 초일렛날(初七日)은 밤도 일렛(七日) 낮도 일렛 물에 살단 혼착 손엔 유리잔(琉璃盞) 혼착 손엔 유리데(琉璃臺) 삼맹뒤를 웨어야진 열룬이(溫坪里) 바당(海) 황노알로 솟아나 문씨영감이 그영신내를 허여 단골이 웨었던 죽으니 보름 우로 들어사 앞원 삼천뎨매 뒤엔 일만초깃발> 玄容駿, 앞의 책, 689쪽. 진성기의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454쪽에도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임정국대감/김진국부인+자지맹왕아기씨+삼형제’의 서사는 이른바 제주도 전역에 보편적인 서사로 전승되는 일반신본풀이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견주어 유정승따님아기 입무담은 결합양상에 지역적 편차를 보이는데다 심방 관련 일부 조상신본풀이의 서사구조와 유사하기 때문에 전자의 일반신본풀이 유형에 견주어 조상신본풀이 유형의 속성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반신본풀이와 조상신본풀이 유형이라는 두 본풀이의 결합은 왜 이루어졌는지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의 무속에서는 심방마다 각각 자신만의 맹두를 장만하지 않고 대대로 전승하여 사용하는 것을 당연시한다. 기존에 다른 심방이 사용하던 맹두를 그대로 물려받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사정이 여의치 않거나 개인적 형편이 있다면 기존 맹두를 본으로 삼아 새로운 맹두를 제작하는데 본이 있으므로 이것 역시 전승되는 셈이다. 따라서 왜 맹두를 각각 장만하지 않고 대대로 전승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첫째, 개별적인 무구의 마련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무구제작에는 다량의 뚝쇠가 필요한데 전통사회에서는 개인의 힘만으로 이를 조달하기 쉽지 않았다. 일반적인 가정에서 뚝쇠는 주로 제기(祭器)에 해당되니 소중하고 귀한 물건이었다. 따라서 심방이 무구를 장만하려면 마을 단골들이 조금씩 뚝쇠를 보태주어야만 하였다. 이른바 ‘췌동녕’을 통하여 뚝쇠를 조달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방식도 한 마을의 호수(戶數)가 넉넉해야 수월한 일이다. 한 마을에 심방 여럿이 거주하는 경우도 있어 단골에게 뚝쇠를 얻는 것이 마냥 쉽지는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게다가 일제강점기의 뚝쇠 공출에 따른 물자부족과 ‘제주 4·3’의 참화로 인한 인구의 감소 등도 현실적 어려움을 가중하였다고 본다.

둘째, 무구인 맹두의 영력(靈力)을 중시하였고 이를 전승함으로써 심방의 권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어떠한 본도 없는 맹두는 그다지 신뢰받지 못하였다. 오랜 대수(代數)에 걸쳐 전승된 맹두이거나 주위에 이름을 날리던 큰심방이 사용하던 맹두는 더 소중하게 인식하였다. 맹두는 기본적으로 무점구이기 때문에 단골들의 운수를 보여주는 ‘산받음’의 영험이 중시되었다. 따라서 스스로 아무 근본도 없이 제작하는 것을 피하고 선배 심방들이 사용하던 맹두를 전승하는 것을 택하였다.

이렇게 심방들이 개인적으로 무구를 장만하지 않고 대대로 전승하였던 것은 현실적 어려움과 무구의 영력을 중시하였기 때문이었다. 현실세계에서 무구의 전승은 일상적으로 빈번히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일상적 전승은 초공본풀이에서 유정승따님아기의

무구 전승을 근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인식하였다. 겉으로 드러난 무구의 전승은 비록 일상적 행위이지만, 속에는 신성한 의미부여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초공본풀이에서 일반신본풀이 유형과 조상신본풀이 유형이라는 두 종류의 본풀이가 결합한 이유는 현실세계에서 행해지는 무구의 전승을 정당화하고, 실질적으로 물질 전승하는 무구에 신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무구를 전승하는 일종의 교범(教範)이나 혹은 전범(典範)이 필요하였던 셈이다. 심방이라면 누구나 유정승따님아가기 마련한 방식으로 무구를 전승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신본풀이 유형의 형성논리를 신성(神聖)이라고 한다면 무구가 조상(祖上)이므로 함부로 처리할 수 없고 마땅히 전승되는 것이다. 조상신본풀이 유형의 형성논리를 현실(現實)이라고 한다면 무구가 전승(傳承)되므로 조상으로 모시는 것이다. 두 갈래의 형성논리가 두 종류의 본풀이를 팽팽하게 맞붙게 하여 결합을 이루어냈다고도 볼 수 있다.

초공본풀이에서 일반신본풀이와 조상신본풀이 유형이라는 본풀이의 결합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조상신본풀이는 역사시대의 산물이다. 현재 채록된 조상신본풀이는 대개 조선시대에 역사적으로 존재하였던 이들의 이야기로 알려져 있다. 조상신본풀이의 역사도 나름대로 유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어느 시점에선가 초공본풀이가 형성될 당시에 멩두의 전승과 관련하여 조상신본풀이 유형의 유정승따님아가기 내용이 결합하였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한다.

## 제3장 멥두의 유형과 전승양상

### 1. 멥두의 유형

멥두의 구성과 기원을 살폈으니 다음 단계로는 제주도 무속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전승되는 멥두의 구체적인 모습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멥두는 심방과 심방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전승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대개의 멥두는 비교적 끊임없이 전승을 이어간다. 하지만 어떤 멥두는 나뉠의 사정에 의하여 전승이 끊어진다. 그러다가 새로운 심방 후보자를 만나 다시 전승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멥두가 탄생할 수도 있다.

멥두가 오랜 세월동안 전승되다 보니 전체적으로 어떤 일정한 유형을 발견할 수 있다. 심방으로 나서는 이가 입무(入巫)를 위하여 멥두를 마련하는 과정을 기준으로 삼아 멥두의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모든 멥두는 후계자에게 전승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멥두를 얻는 과정을 기준으로 한다면 물린멥두, ㅈ·작 멥두, 봉근멥두, 제절멥두, 본향멥두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유형들은 제주도 무속사회에서 심방들이 실제로 그렇다고 인식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 1) 물린멥두

물린멥두는 기존에 다른 심방이 사용하던 멥두를 그대로 전승한 것을 말한다. 원래 소유자였던 심방이 무업을 그만두거나 사망하여 멥두를 후계자에게 물려주는 상황이 일반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한 심방에게 멥두가 여럿 있어 그 가운데 하나를

다른 이에게 물려줄 수도 있다.

물린맹두에서 주목할 점은 맹두를 물린 내력이다. 맹두의 내력은 지속적으로 물린 대수(代數)에 드러난다. 맹두의 대수는 그만큼 맹두가 전승되어 온 자취라고 할 수 있다. 맹두가 한 심방에게 물려질 때마다 대수가 증가한다. 예를 들어 맹두가 모두 10명의 심방을 거쳤다면 그 맹두는 10대를 거쳐 물린 맹두이다. 일반적으로 세대(世代)의 의미를 가진 대수와는 다르다.

심방이 가계(家繼)에서 무업을 전승하는 대수와 맹두의 대수는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맹두의 대수가 길다고 반드시 오래된 맹두이고, 대수가 짧다고 근래에 제작된 맹두라고 단정할 수 없다. 비교적 짧은 시기 안에 여러 명의 심방을 거쳤다면 맹두의 대수가 길어질 수 있고, 물려받은 심방마다 오랫동안 사용하고 난 뒤 다른 이에게 넘겼다면 오래 전에 제작한 맹두라도 대수가 짧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린맹두는 대를 거듭하면서 나름의 내력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만큼 맹두의 이동경로가 중요하다. 맹두의 이동경로는 지역적 범위와 심방의 계보에서 드러난다. 구체적인 이동경로가 올바르게 전승되는 사례일수록 물린맹두의 내력을 선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소중하다. 물린맹두의 내력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구체적인 보기로서 아래에 이중춘 심방의 맹두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중춘 심방의 물린맹두 내력>

- ①신촌 금물당 짐씨 → ②역개 낙수통정 문씨영감 → ③도련도련 금거울 저안물 조철박 → ④원당오름 붉은작지 가미우관 이어름 → ⑤열분이 그동애 맹오얏은 맹오부인 → ⑥도련 모사름 박씨할오바님 → ⑦질친뱃 박씨할오바님 → ⑧쇠죽은뱃 짐씨할오바님 → ⑨월정 빙갱이 박씨하르바님 → ⑩골막 개우물 잔나올색 지리대천문 → ⑪증고조대 큰할오바님 → ⑫셋할오바님 → ⑬죽은할오바님 → ⑭선질머리 외진할오바님 → ⑮논뱃거리 외진할오바님 → ⑯통거리 짐씨할오바님 → ⑰손당 널할머니 → ⑱외진할마님 → ⑲신장님 → ⑳고씨할마님 → ㉑짐녕 큰삼춘 → ㉒짐녕 큰누님 → ㉓어머님 → ㉔이모님 → ㉕이중춘<sup>42)</sup>

이중춘 심방의 맹두는 제주 지역에서 가장 오래 전승된 맹두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물린맹두의 내력이 무려 25대에 걸쳐 이루어졌다. 모두 25명의 심방이 그 맹두를 사용하였다는 말이며 그만큼 역사도 깊다.

42) 김현선, 「제주도 ‘초공본풀이’의 영웅신화적 면모 : 구조 분석, 입무 의례, 신화적 성격 규명을 중심으로」, 269쪽. 김현선의 논문에 수록된 자료에 25대에 걸친 계보가 빠짐없이 있어 이 자료를 인용하기로 한다.

물린멥두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단 지역이 분명하게 드러난 곳을 중심으로 지역적 범위를 살펴보자. 해당 번호 뒤의 [ ]에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재 행정구역명을 병기하였다.

멥두의 지역적 이동경로는 ①신촌[제주시 조천읍 신촌리]→②역개[제주시 조천읍 신흥리]→③도련[제주시 도련동]→④원당오름[제주시 삼양동]→⑤열룬이 그동애[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와 신산리]→⑥도련[제주시 도련동]→(중략)→⑨월정[제주시 구좌읍 월정리]→⑩골막[제주시 구좌읍 동북리]→(중략)→⑰손당[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중략)→⑳짐녕[제주시 구좌읍 짐녕리]→㉑짐녕[제주시 구좌읍 짐녕리]이다. ㉑대에 어머님에게 이어졌는데 이때부터는 행원[제주시 구좌읍 행원리]에 해당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면 이중춘의 멥두는 처음에는 제주시 조천읍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던 것이었다. 제주시의 도련동과 삼양동도 조천읍과 인접한 지역이다. ⑤대에 이르러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나 갑자기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으로 잠시 이동하였다가 ⑥대에 다시 초반에 활동하던 지역인 도련으로 돌아왔다. 그런 뒤에 ⑨대부터는 제주시 구좌읍 지역으로 이동하여 줄곧 구좌읍 지역에서 전승된 것을 알 수 있다. 멥두가 이중춘의 고향인 행원리에 전승된 것은 ㉑대에 들어서서 이루어진 일이다. 정리하자면 이중춘의 멥두는 제주시 조천읍 일대에서 전승되다가 후대에 구좌읍으로 이동하여 총 25대에 걸쳐 물린 멥두인 셈이다.

물린멥두의 이동경로 가운데 심방의 계보도 역시 살펴보기로 한다. 자세한 심방의 내막은 알 수 없으나 멥두 내력에 드러난 심방의 호칭에서 추정해 본다. ①~⑩대까지 멥두를 전승한 심방들은 이중춘과 혈연관계로 보이지 않는다. ⑪대에 이르러 비로소 가족관계의 호칭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때부터 혈연관계에서 전승이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증고조대에서 무업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외가로 세습되었다. 따라서 타인관계와 혈연관계의 심방 계보가 공존하는 셈이다. 정확히 어느 시기에 멥두가 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25대에 걸쳐 멥두를 물린 내력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어 물린멥두의 실상에 대해 참고하기에 유용하다.

이중춘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물린멥두의 특징은 멥두의 내력을 바탕으로 하여 멥두가 물려진 지역적 범위와 심방의 계보가 드러난다는 점이다. 이는 거꾸로 하면 물린멥두에서 멥두의 이동경로를 파악해야 한다는 말이다. 지역적 범위와 더불어 심방의 계보를 면밀히 추적해야 한다는 뜻이다. 물린멥두의 내력은 2대부터 이중춘의 사례처럼



20대 이상 넘을 수도 있다.

물린멥두의 전승과정에는 일정한 금전적 대가가 함께 이루어진다. 이전 소유자 심방이 무업을 그만두거나 사망한 경우에 일정한 재산과 함께 멥두를 후계자에게 물려준다. 이전 심방과 교류하던 단골들도 후계자에게 승계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멥두를 물려받는 이는 대개 물려준 심방과 평소 가깝게 지내는 심방일 경우가 많다. 후계자 심방은 일정한 재산을 함께 받는 대신에 멥두에 대한 의례를 지속적으로 지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된다.

물린멥두는 멥두의 유형 가운데 가장 흔하고 보편적이다. 모든 멥두는 심방 사이에서 서로 물려주고 물려받는 것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자연히 멥두의 유형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수밖에 없다.

## 2) 자·작멥두

즈작멥두는 말 그대로 자작(自作)하여 만든 멥두를 말한다. 물린멥두가 기존에 사용하던 멥두를 다른 이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것에 견주어, 즈작멥두는 심방이 무업에 나서면서 스스로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 물질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새 멥두의 탄생인 셈이다. 즈작멥두에는 두 종류가 있다. 제작과정에서 ‘본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점이 기준이다.

첫째, ‘본메 잇인 자·작멥두’는 다른 심방이 사용하는 멥두를 본(本)으로 삼아 그대로 복제하여 만든 멥두이다. 본메로 놓은 멥두는 ‘원멥두’라고 한다. 새로 제작한 멥두는 원멥두의 복제와 같으니 두 개의 멥두는 사실상 동일한 멥두이다. 자연히 원멥두의 내력이 새로 만든 멥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심방들은 자·작멥두를 마련할 때에 본메를 두는 것을 이상적으로 여긴다.

둘째, ‘본메 엇인 자·작멥두’는 본을 두지 않고 만든 멥두이다. 기존의 멥두에 전혀 의지하지 않고 그야말로 스스로 새롭게 만드는 경우이다. 자·작멥두의 대체적인 양상에 견주면 본메를 두지 않고 만드는 자·작멥두는 드물게 벌어지는 일이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어떠한 본메도 없이 스스로 멥두를 짓기도 한다. 본메 엇인 즈작멥두는 당연히

맹두내력이 없다. 본인 당대에 새롭게 마련한 것이기 때문이다. 본인이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비로소 맹두의 내력이 생기는 셈이다.

본메 잇인 ㅈ·작맹두에서는 왜 본메를 두고 제작하며, 이때 어떤 맹두를 원맹두로 삼는가 하는 점이 관심사항이 된다. 본메 잇인 ㅈ·작맹두라면 본메를 두지 않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고 물을 수 있다. 아래의 사례를 살펴 ㅈ·작맹두의 양상에 대하여 구체적인 파악을 시도해보기로 한다.

<사례 1>

김윤수는 자신의 집 당주에 맹두 2벌을 모시고 있다. 즉 김윤수의 수양어머니인 고군찬 심방의 사후(死後)에 물려받은 맹두와 그것을 본메 놓고 김윤수가 29세에 새로 만든 자신의 맹두이다. 고군찬 심방은 처음에 내팻골 고씨 선생(고임생 심방)의 맹두를 본메로 놓아 자신의 것을 만들었다. 그런데 4·3사건 이전 경연가 경찰에서 맹두 중에 신칼을 가져가 버리자, 나중에 일본에서 ‘이깁이 어멍’으로 불리던 안씨 심방(조천리 출신)의 신칼을 본메 놓고 다시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고군찬의 맹두 중 신칼은 처음에는 고임생 심방의 것을 본메 놓았었지만, 나중에 다시 만들 때는 이깁이 어멍이라는 안씨 심방의 본메가 쓰인 것이다. 따라서 고군찬의 맹두내력에는 고임생을 비롯해 안씨 심방까지 함께 나열된다. 그리고 고군찬의 맹두는 김윤수 심방이 29세에 맹두를 만들 때 다시 본메로 쓰였다.<sup>43)</sup>

<사례 2>

제주시 건입동 거주 이씨(여) 심방의 친정으로 여섯 번째 작은아버지 이씨(남)는 일본으로 건너간 뒤 심방이 되었고 거기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고 한다. 작은아버지 이씨가 사용하던 맹두는 본메 없이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특별한 조상 내력이 없다. 이씨가 모신 맹두는 작은아버지의 맹두를 본메 놓아서 자작한 것이다.<sup>44)</sup>

<사례 1>에서는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본메를 두고 ㅈ·작맹두를 만들고 있다. 각각의 ㅈ·작맹두 제작과정에서 드러나는 의미를 살펴보자.

첫 번째 ㅈ·작맹두 제작은 고군찬이 고임생의 맹두를 본메 만든 것이다. 고임생은 당시 제주도내에서 가장 큰심방이라고 여겨지는 심방 가운데 하나였다. 도행수[都行首]로 제주시내 중심인 관덕정(觀德亭)에서 입춘굿을 하였던 이였다. 고군찬은 이런 유명한 큰심방의 맹두를 원맹두로 삼아 ㅈ·작맹두를 만들었다. 본메 잇인 ㅈ·작맹두는 원맹두의 내력이 그대로 전승되니 고군찬의 맹두 역시 큰심방의 맹두와 같은 내력을 얻은 셈이

43)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384쪽.

44) 제주시 건입동 거주 이씨(여) 심방 제보(2011년 10월 13일 /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정공철 심방 신굿 현장에서 면담조사).

다. 본메를 두는 이유는 이러한 현실 사회의 무업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ㅈ·작멩두 제작은 신칼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혼란한 시대상황으로 경찰에게 신칼을 압수당하자 할 수 없이 안씨 심방의 신칼을 본으로 삼고 다시 신칼을 제작하였다. 그러다보니 신칼과 산판의 본메가 각각 달라져버렸다. 본메를 서로 달리 하여 제작하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칼의 내력에 고임생과 더불어 안씨 심방의 내력이 추가되는 것을 생각하면 신칼의 본메는 이중적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ㅈ·작멩두 제작은 고군찬이 수양아들로 삼은 김윤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김윤수는 본격적인 무업활동을 위하여 수양어머니의 멩두를 원멩두로 삼았다. 김윤수가 나중에 고군찬의 멩두와 단골판을 물려받을 이였기 때문에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한편 <사례 2>에서는 이씨의 작은아버지가 본메를 놓지 않고 ㅈ·작멩두를 만든 내용이 언급된다. 심방 사회에서는 본메 없이 만든 멩두에 대해 탐탁지 않게 생각하곤 한다. 내력이 없는 멩두는 무업활동에 별다른 이점을 주지 않을뿐더러, 대개 본메가 없는 조상은 산받음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본메 엮인 ㅈ·작멩두는 제주도 무속사회에서 예외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도 불구하고 심방 집안에서 태어난 작은아버지가 왜 본메를 두지 않았는지 궁금한 일이다. 정확히 알기는 힘들지만 일본으로 건너간 뒤 무업활동을 한 것이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 다른 본메 엮인 ㅈ·작멩두 사례를 참고하면 주위에서 특별히 멩두를 물릴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 형편이 주요하게 작용하는 면도 있기 때문이다.<sup>45)</sup> 거기에 해당 심방이 지닌 고유한 성격도 큰 작용을 한다.<sup>46)</sup>

<사례 2>에서 더욱 주목할 점은 이씨(여)가 작은아버지의 본메 엮인 ㅈ·작멩두를 본메로 놓아 역시 ㅈ·작멩두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씨는 친가와 외가 모두 심방 집안이였다. 친족 내에서 충분히 내력 있는 원멩두를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아버지의 본메 엮인 ㅈ·작멩두를 택하여 자신의 멩두를 만들었다. 원인은 이씨와 작은아버지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이씨는 제주도 외에도 일본에서 무업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심

45) 서귀포시 성산읍 거주 안씨(남) 심방은 본메 엮인 ㅈ·작멩두를 모신다. 심방 집안이 아니었고 멩두를 특별히 물려받을 데도 없었다. 36세경에 제주시 양씨대장에게 가서 만들었다. 췌동녕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제주시 삼도동 거주 강씨(여)의 남편인 한씨도 30대 초반에 심방이 되었는데 멩두 조상이 없어서 자기대로 췌동녕을 해서 멩두를 지었다고 한다.

46) 제주시 조천읍 거주 이용욱 심방의 친정아버지인 이문홍은 혼인한 뒤 심방이 되었다. 남의 조상을 빌어다가 본메를 놓지 않겠다고 해서, 자기대로 췌물을 녹여서 본을 만들어 가면서 멩두를 만들었다고 한다.

방이다. 작은아버지가 이미 기반을 다져 놓았기에 그 인연으로 단골 확보도 수월하였고 활동에 무리가 없었다. 요컨대 일본에서는 작은아버지의 조카라는 사실이 무업활동을 용이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작은아버지의 멧두를 원멧두로 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비록 본메 엇인 ㅈ·작멧두라 할 지라도 일본 내의 단골판을 확보한 멧두이기 때문이다.

ㅈ·작멧두에서 주목할 점은 본메를 두고 제작하는 여부이다. ㅈ·작멧두에서 본메를 두고 제작하는 이유는 기존 멧두의 내력을 얻는 목적 외에 멧두의 경제적 영향력을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멧두에 따른 단골판을 염두에 두는 것이다. 이것은 곧 본메로 쓰는 원멧두를 선택할 때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본메를 두지 않고 만든 ㅈ·작멧두의 경우 심방 개인의 성격이 크게 작용하기도 하겠지만, 여기에 경제적 영향력을 따지기에 적절한 원멧두가 주위에 없는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본메로 쓰는 원멧두는 멧두의 내력과 경제적 영향력이라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가족이나 타인의 것을 구분하지 않는다. 멧두를 자작하여 만들고자 할 당시에 적절하게 여겨지는 심방의 멧두를 빌어서 만든다. 물론 원멧두의 소유자도 아무에게나 멧두를 빌려주지는 않는다. ㅈ·작멧두의 본메는 두 심방 사이에 무업활동 양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ㅈ·작멧두는 새로운 멧두의 탄생이지만 멧두를 제작한 심방이 무업을 그만두면서 후계자에게 물려주면 곧 물린멧두로 전환된다. 본메 엇인 ㅈ·작멧두는 기존 멧두내력에 자작하여 만든 멧두의 내력이 추가되어 전승된다. 본메 엇인 ㅈ·작멧두는 자작하여 만든 그 내력부터 시작하는 셈이다.

멧두의 제작은 초공본풀이를 바탕으로 한 행위이기도 하다. 삼형제가 멧두를 만들면서 동일한 과정의 전범을 미리 보였기 때문이다. 삼형제는 본메를 두고 최초로 멧두를 만들었고 이 과정에 신령한 대장장이의 역할도 있었다. 후대의 현실 세계 심방들은 기본적으로 멧두물림을 통하지만, 멧두를 제작해야 할 경우에는 삼형제가 했던 법에 의해서 수행하는 셈이다.

### 3) 봉근멧두

봉근멥두는 우연하게 습득한 멥두를 말한다. ‘봉그다’는 ‘줍다’라는 뜻의 제주어이다. 평범한 사람이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밭을 갈다가 우연히 멥두를 발견하여 줍는다. 물질을 하던 해녀가 바닷물 아래에서 뜻하지 않게 얻기도 한다. 또는 길을 지나가다가 돌 밑에서 찾거나, 나뭇가지에 걸린 것을 발견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집안 깊숙이 숨겨 보관해 두었던 것을 후손이 새삼스럽게 다시 찾기도 한다.

발견자가 우연하게 얻은 멥두이기 때문에 봉근멥두라고 한다면, 이전 소유자 처지에서 유기(遺棄)한 멥두라고 할 수 있다. 멥두의 이전 소유자가 적절하게 물릴 만한 후계자를 찾지 못하여 땅에 묻거나 유기한 멥두이기 때문이다. 보통 멥두를 물릴 후계자를 찾지 못하면 이전 소유자의 묘소에 함께 묻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적절한 장소를 택하여 의도적으로 유기하기도 한다. 아래의 제보를 참고해 보자.

<제주시 애월읍 거주 고씨(여) 심방 제보>

심방일을 그만두며 멥두를 처리할 때 어떤 사람은 전대에 곱게 잘 싸서 돈과 쌀도 넣어서 올레나 거리에 갖다 두거나 나무에 걸쳐두거나 산이나 냇가에 두기도 한다. 다른 사람이 발견하여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다. 어떤 경우는 일부러 다른 심방이 사는 집 올레 어귀의 담에 가져다두는 경우도 있었다.<sup>47)</sup>

위의 제보를 살펴보면 이전 소유자가 적절하게 멥두를 물릴 만한 후계자를 찾지 못할 경우 의도적으로 멥두를 유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심방이 습득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방법으로 행동하는 경우이다. 거리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뜻하는 ‘올레’나 거리에 가져다 두거나, 나뭇가지에 걸쳐두거나, 냇가에 놓아둔다는 여러 양상이 멥두를 우연하게 습득하는 이들의 양상과 일치한다. 시간이 흘러 이전 소유자와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뜻하지 않게 발견하여 멥두가 비로소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이때 멥두를 전대에 잘 싸면서 돈과 쌀을 함께 넣었다는 것은 멥두를 물려주는 일반적인 양상을 어떻게든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멥두 조상 자체만 덩그러니 물리지는 않기 때문이다. 새로 얻게 될 이에게 조금이라도 조상을 모시는 것에 대한 사례를 한 셈이다.

47) 제주시 애월읍 거주 고씨(여) 심방 제보(2011년 10월 12일 / 자택에서 면담조사).

한편 무업에 종사하는 다른 심방의 울담에 멧두를 가져다 두는 것은 동일한 생업에 종사하는 이이기에 한결 처리가 수월할 듯 여겨서 하는 행동이다. 심방이라면 갑작스럽게 생긴 멧두라 할지라도 함부로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바탕이다. 혹여 멧두가 낱요하기 쓰일 수도 있다는 전망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봉근멧두에서 주목할 점은 새로운 소유자가 될 사람이 유기된 멧두를 얻는 과정에서 특별한 신기를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환청(幻聽)을 듣거나 현몽(現夢) 등의 신이한 현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들은 멧두를 우연하게 습득하는 계기를 통하여 무업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만약 무업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름시름 앓다가 생을 마감하는 일도 생긴다. 아무튼 새로운 소유자는 봉근멧두를 조상으로 삼고 활동하다가 무업을 마치면서 다른 심방에게 멧두를 물린다. 이때부터 봉근멧두는 물린멧두가 되는 것이다.

봉근멧두는 우연히 습득한 멧두이므로 새로운 소유자가 그 조상내력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조상내력을 알 수 없으니 최초로 발견하던 당시의 정황을 참고하여 조상내력으로 삼는다. 이를테면 발견한 장소를 중심으로 하여 “~밭(밭)/가름(동네)/물 알(물아래)/상가지(높은 가지)에서 솟아난 ~ 대선생님.” 하는 식으로 언급한다. 어쩌다가 다른 심방에게서 해당 멧두 조상의 내력을 전해들을 수 있다면 다행으로 여긴다.

한편 봉근멧두 유형에는 ‘육간제비’도 포함할 수 있다. 육간제비는 엽전이거나 또는 엽전 모양의 무구이다. 보통 여섯 개로 이루어져 있어 육간제비라고 한다. 돈처럼 여겨 ‘돈제비’, 뒷면이 거울처럼 생겨 ‘거울제비’라고도 한다. 엽전 모양의 점구를 일러 왜간제비라고 부르는지는 알 수 없다.

한반도의 무속에서 엽전은 대표적인 점구(占具)이다. 사람마다 엽전의 개수가 달라 많으면 십여 개가 넘기도 하며, 엽전을 습득하면서 무업에 들어서는 계기를 마련하거나 물려받기도 하니 내력이 있는 무구이기도 하다.<sup>48)</sup>

멧두는 신칼과 산판, 요령을 말한다. 그러나 심방에 따라서는 멧두 외에도 육간제비를 조상으로 모시는 경우가 있다. 어떤 심방은 육간제비를 우연히 습득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나중에 무업에 들어서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이런 경우에 자신의 육간제비는

48) 金泰坤 외, 『한국의 점복』, 民俗苑, 1995. ; 국립문화재연구소,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巫具 : 서 울시·경기도·강원도』, 민속원, 2005. ; 국립문화재연구소,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巫具 : 충청도』, 민속원, 2005. ; 최진아, 앞의 논문 참고.

맹두를 모시는 당주에 함께 놓아 모신다. 한편 어떤 이는 육간제비를 우연히 습득하였지만 무업에 들어서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여 신병을 앓게 되는 경우도 있다.

초공본풀이에는 유정승따님아기가 육간제비를 얻어 안맹(眼盲)을 하고 결국 심방이 되는 대목이 있다. 육간제비가 제주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맹두는 아니지만 초공본풀이를 생각하면 제주도 무속에서도 그 의미가 남다르다. 육간제비를 우연히 습득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여기서는 봉근맹두의 한 갈래로 다루기로 한다.

#### 4) 제절맹두

제절맹두는 심방 묘소의 상석 앞 계절(階節)에 묻은 맹두를 말한다. ‘제절’은 계절(階節)의 제주어 발음이다. 심방이 죽으면서 맹두를 물려줄 만한 적절한 후계자를 두지 못하였을 때는 자기 무덤의 계절에 맹두를 묻는다.

제절맹두에서 주목할 점은 새로운 심방 후보자가 나타나 이를 캐내어 활용한다는 데에 있다. 이때 심방 후보자가 어떤 특별한 신기(神氣)를 발휘하여 제절맹두를 찾아내는 경우가 있다. 혹은 제절맹두의 이전 소유자였던 조상영혼이 자손에게 의탁하여 찾아내게 한다고도 여긴다. 아래의 사설을 참고해보자.

야 이부모 인간 산때엔 조은 전성을 그르친 텅기난  
내 인간 살당 하직을 해불건  
조상도 내 제절 앞드래 팡 물어불건  
이루후제랑 어느 고침이나 양침이 조상  
모음에 든 자손이 있건  
그 신령을 자·손에 의탁을 허영  
심방내왕 거닐이왕상 험센 허고 영허당49)

맹두를 물릴 만한 후계자를 두지 못하고 하직한 심방은 맹두를 자기 무덤의 계절에 묻는다. 그러나 어느 때가 되어 자손 가운데 마음에 드는 이가 있으면 그 자손에 의탁

49) 제주특별자치도·제주전통문화연구소, 『제주큰굿』, 제주특별자치도·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10, 248쪽.

하고 심방을 만들어 무업을 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한편으로는 멥두를 마련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주위를 수소문하여 제절멥두를 얻기도 한다. 이미 사망한 심방의 멥두가 묘소의 계절에 묻혀 있다는 정보는 그래도 비교적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멥두를 의도적으로 습득할 때는 보통 ‘제절멥두’를 택하게 되는 것이다. 아래의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 3>

우도 연평에 당 매던 박씨 조상이라는 멥두가 12년 동안 진토에 묻혀서 있었는데, 어느 날 시흥리 할머니에게 수양딸로 들어서겠다고 한 정의(旌義) 출신의 심방이 그 조상을 파서 가져왔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시흥리 할머니 자신도 멥두를 파러 함께 가기는 갔지만, 자신은 대강의 위치만 이야기해 주고 물러나 있었고 그 정의 심방이 조상을 팠다고 한다.<sup>50)</sup>

제주도 동남부 지역을 일컫는 정의(旌義) 지역 출신의 심방이 진토에 묻혀 있던 박씨 조상이라는 멥두를 파내어 자신의 멥두로 삼았다는 내용이다. 신기에 이끌려서 멥두를 파낸 것은 아니었지만 역시 제절멥두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제절멥두의 경우 이전에 소유했던 심방은 죽었지만 그 멥두 조상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하는 인식을 기초로 한다. 사망 당시 후계자가 없어 물려주지 못하자 무덤의 계절에 묻어 다음 소유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나중에 비로소 후계자를 만나면 묻혀 있던 조상은 다시 세상에 나오며 즉시 물린멥두로 전환된다.

제절멥두와 봉근멥두는 서로 견주어 살펴볼 수 있다. 심방 후보자가 무구 습득 과정에서 어떤 신기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둘은 유사하다. 그러나 제절멥두는 신기에 의하든 의도적인 것이든 심방 후보자가 직접 케어내서 멥두를 취하지만, 봉근멥두는 우연히 멥두를 발견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점이 있다. 또한 제절멥두는 이전 소유자의 무덤에 묻는다는 점에서 장소도 특정되어 있고 멥두의 내력도 구체적이다. 봉근멥두가 이전 소유자와 연관된 내력을 알기 힘들고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거리나 나뭇가지, 냇가 등 다양한 곳에서 유기되어 있는 멥두를 줍는 것인데 견주어 다른 점이다.

제절멥두와 관련하여 더욱 특기할 점은 황해도 무속에서 구업이를 떠오는 행위와 견줄 수 있다는 것이다.<sup>51)</sup> 지리적으로 떨어진 황해도와 제주도의 무속에 유사성이 발견

50) 국립문화재연구소,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巫具 : 전라남도·전라북도·제주도』, 426쪽.

51) 황해도 무속의 구업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 李杜鉉, 앞의 책, 11~14쪽.; 양중승, 앞의 논문, 28~29쪽.; 최진아, 앞의 논문, 122~134쪽.



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황해도 무속의 구업이는 강신무가 몸주신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제주도의 심방은 세습무로 일단 분류하고 있지만 사실 강신무와 세습무의 특성이 서로 혼합되어 있다. 제주도에서는 제절멩두를 취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어떤 특정한 무업조상이 심방의 몸주신으로 자리 잡는 것은 아니다. 제절멩두 역시 일반적인 멩두 조상과 같은 역할을 한다. 제절멩두와 구업이의 차이점이라고 여겨진다.

## 5) 본향멩두

본향멩두는 한 마을의 본향당을 맡는 ‘메인심방’에게만 전승되는 멩두이다. 전임 메인심방이 후임에게 본향당을 물려주면서 멩두도 함께 넘겨준다. 멩두는 곧 본향당 메인심방의 상징이다. 아래의 사례를 살펴보자.

### <사례 4>

구좌읍 하도리 본향당을 맡았던 송씨 할망 심방이 양씨 심방을 수양딸로 삼았다. 나중에 본향당을 물려주면서 본향멩두도 함께 전승하였다. 양씨는 또 자신의 딸인 고순안에게 본향당과 본향멩두를 물려주었다.<sup>52)</sup>

위의 <사례 4>에서 하도리의 본향당과 본향멩두는 송씨 할망→양씨→고순안에게로 전승되었다. 고순안에게는 이미 외가로부터 물려받은 멩두가 있었다. 그러나 송씨 할망에게서 받은 멩두는 본향멩두이므로 고순안이 이미 소유한 멩두와는 서로 유형이 다른 것이다. 본향멩두는 마을 단골판의 의례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주도 무속에서 메인심방은 주민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본향당을 중심으로 마을의 당을 관리하고 각 당들의 의례를 도맡는다. 따라서 주민들의 무속의례는 메인심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메인심방 역시 단골들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

52) (사)제주학연구소, 『제주학』 제4호, 1999, 164~169쪽. ; 2006년 7월 27일, 2006년 7월 31일 / 고순안 심방 자택에서 면담조사. ; 2011년 7월 2일~7월 6일 / 서순실 심방택 큰곳에서 고순안 심방과 면담조사.

다. 다른 심방이 메인심방의 권리를 침해하면 반발하기에 이른다. 단골 처지에서는 자신들과 동고동락하며 신앙생활과 애로점을 맡아 살피는 존재라는 면에서 여느 심방보다는 각별하다고 할 수 있다. 메인심방은 대개 한 가문에서 대대로 세습하여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

본향멩두에서 주목할 점은 한 마을의 단골판이라는 지연(地緣)을 매개로 한 멩두라는 것이다. 다른 멩두의 유형들이 심방을 중심으로 전승되는 것에 견주어 독특한 점이다. 본향멩두를 물려받는다는 것은 본향당을 중심으로 하는 일정한 단골판을 넘겨받는다는 뜻이다. 본향멩두 역시 물린멩두라고 할 수 있으나 일정한 지역적 범위가 있으니 일반적인 물린멩두와는 다소 차원이 다른 점이 있다.

메인심방이 사용하는 멩두는 오랜 시간동안 단골들의 신앙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마련이다. 그만큼 단골들은 메인심방의 멩두를 특별하게 생각한다. 메인심방은 본향멩두의 내력을 바탕으로 더욱 확실히 단골판을 단단하게 할 수 있다. 본향멩두는 독립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멩두라고 할 수 있다.

## 2. 멩두의 유형과 심방의 입무

제주도 무속에서 멩두와 심방의 입무가 어떤 관련을 가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심방의 입무는 멩두를 마련해야 하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거꾸로 멩두를 습득함으로써 심방이 되는 경우도 있다. 심방의 입무과정에 멩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기존에 심방의 입무양상을 보고한 현용준은 세습, 멩두습득, 병(病), 심방과 결혼, 생활수단이라는 5가지 측면에서 다룬 바 있다.<sup>53)</sup> 그런데 이러한 구분은 서로 교집합을 이루는 부분이 많아 심방의 입무 양상을 뚜렷이 알기 어렵다. 세습이면서도 멩두를 습득할 수 있고 신병을 앓기도 한다. 세습 가문끼리 혼인은 종종 벌어지는 일이다. 여러 사항이 서로 관련을 맺는 경우가 많아 보다 분명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입무 양상에 핵심적 기준을 마련하여 다시 논의해야 한다.

심방의 입무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 생애를 정리해야 한다. 물론 심방의 생애에 대한 정보를 얻는 일은 쉽지 않다. 한 개인으로서는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하는 고통스러운 결단에 대한 기억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시절 무속을 대책 없이 미신이라고 간주하여 탄압하던 영향이 아직 남아 있어 선뜻 말을 시작하기 어렵다. 생애를 제보하는 일에 대해 불편해 할 수도 있고 본인과 주위 사람들을 생각하여 존재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보과정에서 스스로 자신의 생애를 미화하거나 거꾸로 폄하할 수도 있다.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심방의 생애를 가능한 대로 정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기존에 조사 보고된 것을 적극 활용하고, 새롭게 조사하여 더한 자료도 있다.

심방의 생애 자료를 모으고 확인한 결과 입무 과정에서 멩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멩두는 무업조상이자 핵심무구이니 심방의 입무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하물며 멩두는 세습과 신병 등의 여러 입무양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 심방의 입무를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도

53) 玄容駿, 『濟州島 巫俗 研究』, 88~110쪽. 장주근도 세습무, 장기 병환, 무력과 혼인, 경제적 동기로 구분하여 현용준과 거의 비슷하다.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21~24쪽.

구이기도 하다. 멩두의 성격이 명확하니 이를 기준으로 심방의 입무 양상을 설명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멩두를 심방의 입무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아 논의해보고자 한다. 앞서 살핀 멩두의 유형을 바탕으로 심방의 입무를 파악하고자 한다.

## 1) 멩두와 신병

심방의 생애자료를 검토해보면 제주도 무속에서 어떤 한 개인이 심방이 되는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신병(神病)의 체험이다. 신병은 팔자를 그르치는 일을 결국 소명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니 심방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원인이다. 신병은 심방 대부분이 앓는 과정을 거치니 심방이 되는 가장 흔한 원인이기도 하다. 신병은 무업을 그만두었을 때 재발하여 고통을 겪고 다시 굿판으로 돌아오게 만드니 심방으로 사는 가장 지속적인 원인이다.

신병은 대개 특별히 구체적인 의학적 소견 없이 몸이 쇠약해지고 이상행동까지 유발한다. 신체쇠약, 안맹(眼盲), 환청(幻聽), 광인화(狂人化), 신력(神力) 혹은 신기(神氣)의 발생, 굿판 참가 혹은 굿을 하고 싶은 욕망 등 그 증상은 다양하다. 평범한 사람이 이러한 증상을 시름시름 앓다가 나중에 점을 치고는 팔자를 그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신병을 앓고 곧바로 심방이 되기로 결심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대개 점을 쳐서 무업을 해야 한다는 결과를 얻는다. 결국 심방이 되기로 결정하고는 일정한 수련기간을 거쳐 멩두를 마련하기에 이른다.

그렇다면 멩두의 유형과 신병은 어떤 관련성을 보이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멩두의 유형에 따라 신병의 발병 원인과 시기, 대처하는 양상이 다를 수 있다. 또한 신병이 입무의 결정적인 원인인지 보조적인 원인인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병을 앓은 뒤 무업에 들어서기 위하여 멩두를 처음 마련할 때는 일반적으로 주위 심방들을 통하여 물린멩두를 마련한다. 친족이나 심방 동료에게서 얻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린멩두는 그 자체로는 신병과 관련하여 해당 심방과 특정한 인연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멩두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멩두가 섭외되어 심방 후보자가 이를 취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물린멩두를 얻을 때 여러 가지 기준을 참고하지만 물린멩두 자

체가 신병의 발병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지는 않는다. 물린멧두는 신병을 앓고 난 뒤에 얻기 때문이다.

물린멧두를 얻을 사정이 여의치 않은 심방 후보자는 나름대로 스스로 ㅈ·작멧두를 마련한다. ㅈ·작멧두 유형도 신병과 관련해서는 물린멧두 유형과 동일한 맥락을 보인다. 물린멧두를 얻지 못한 사정이 있어서 자작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ㅈ·작멧두 유형도 신병과 구체적인 연관을 드러내지 않는다.

물린멧두와 ㅈ·작멧두 유형은 신병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입무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입무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들 멧두 유형이 신병과 어떤 상관성이 있다거나 입무의 결정적인 계기라고 할 만한 특정한 입무담(入巫談)은 거의 생산되지 못하였다. 입무의 결과이니 물린멧두와 ㅈ·작멧두의 특정한 내력에 대한 일정한 정보 정도가 형성된다.

멧두와 신병의 관계가 보다 뚜렷이 드러나는 경우는 멧두를 얻는 과정에서 신병이 발생하는 사례이다. 어떤 사람이 신기가 발현하여 멧두를 찾거나 멧두를 얻은 뒤부터 갑자기 알 수 없는 병을 앓는다. 무구의 습득 과정에서 신병이 발생하고 입무의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병을 앓고 난 뒤 입무를 위하여 무구를 마련하는 것과는 반대 순서이다. 멧두와 신병이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관련을 맺는 사례는 이른바 봉근멧두와 제절멧두의 유형에 해당한다.

먼저 봉근멧두의 사례에서 신병을 앓고 입무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우연하게 멧두를 습득하는 것을 계기로 신병을 경험하고 입무하는 사례는 크게 멧두와 육간제비의 사례로 나눌 수 있다. 육간제비는 제주도 곳에서 사용되는 무구는 아니지만 우연히 습득하는 대상으로 종종 등장한다. 봉근멧두의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다.

#### <사례 5>

셋하르방이 30세 넘어서 겪은 일이다. 말을 타고 길을 가다가 요령소리가 나 소리 나는 곳을 찾아보니 나뭇가지에 전대가 걸려 있었다. 그냥 넘어갔다가 다른 날에 그 근처에 오게 되니 역시 요령소리가 났다. 찾아보니 역시 전대가 걸려 있었고 그 안에 멧두가 들어 있었다. 그 전대를 집에 가져다 두었다. 그 때부터 시름시름 앓았다. 그러다가 심방일을 하기 시작했다.<sup>54)</sup>

54) (사)제주학연구소, 앞의 책, 165쪽.

<사례 6>

조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의 뒤를 이어 농업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조천면 교래리에서 밭을 갈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갑자기 춤을 추고 싶은 기분이 일어났다. 놀아버리면 일이 진척되지 않을 것이므로 꼭 참고 계속 밭을 갈고 있더니, 신칼이 흙 속에서 빠져 나왔다. 그 순간 교래리 저쪽에서 굿하는 악기 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려오고 춤추고 싶은 심정을 누를 길이 없었다. 그는 쟁기를 내던지고 악기 소리가 울리는 곳으로 달려갔다. 분명히 악기 소리가 났다고 생각되는 곳에는 굿하는 것은 안 보이고, 굴이 있었다. 굴 속을 살펴보았더니, 거리엔 ‘상잔(算蠶)’과 ‘천문’이 구르고 있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주워서 돌아왔다. 신칼을 줍고 상잔과 천문을 주웠으니, 멥두는 한 벌을 갖춘 셈이다. 그 후, 그는 갑자기 몸이 아프고, 정신이상자처럼 되어 갔다. 점을 쳐보니, 주운 ‘조상’을 모셔야 병이 낫겠다고 하므로 그 멥두를 모시고 심방이 되었다.<sup>55)</sup>

<사례 5>에서는 누군가가 나뭇가지에 유기한 멥두를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하게 찾은 신병을 앓아 심방이 되었다는 이야기다. 해당 장소를 지나갈 때 매번 요령소리가 났다는 대목이 있는데, 멥두가 나뭇가지에 걸려 있으니 흔들리며 소리가 날 법도 하다. 하지만 이는 한편으로는 신기로 요령소리를 들은 셈이기도 하다.

<사례 6>에서는 밭을 갈다가 우연히 멥두를 발견하고 신병을 체험한 뒤 심방이 되었다는 내용이다. 여기서는 신기의 발현이 더욱 두드러진다. 갑자기 춤을 추고 싶은 기분이 들고 무악기의 소리가 환청으로 들린 것이다. 멥두도 신칼을 먼저 찾자 바로 이어 환청에 이끌려 상잔과 천문을 찾아서 한 벌을 고루 갖춘 셈이다. 그 뒤부터 신병을 앓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심방이 되는 과정에서 점을 쳤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멥두를 얻었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없이 심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점(問占)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한편 봉근멥두의 한 갈래로 포함시킨 육간제비의 사례를 살펴보자. 어떤 심방들은 육간제비를 줍고 무업에 들어서기도 한다. 아래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사례 7>

제주시 건입동 거주 이씨(여) 심방은 18세경부터 몸이 아팠다고 한다. 30세 되던 해에 남편을 만난 뒤 얼마 없어 현몽을 하게 되었는데, 큰어머니네 집에 가서 육간제비를 찾아 가져와서 소명을 받으라는 내용이었다. 그는 이를 의아하게 여겨 즉시 남편과 함께 큰어머니 집을 찾아가 켓문을 열라고 하였다. 큰어머니는 조카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랐지만 켓문을 열어 뒤져보니 붉은 주머니에 담긴 육간제비가 정말 있었다. 큰어머니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래서 사정을 짐작해보니 집안의 여섯째 아들이 심방이 되기 전 제주에서 지낼 때에 제주시 남

55) 玄容駿, 앞의 책, 102~103쪽.

문통에 살던 용한 점쟁이 정씨 할머니를 평소 어머니처럼 잘 대접하였던 일이 생각났다. 정씨 할머니가 그 아들에게 육간제비를 주었고 당시 그 아들은 심방이 아니었으니 그 육간제비를 큰형수에게 알리지 않고 궤에 두었던 것 같았다. 아무튼 현몽을 계기로 그는 육간제비를 가지고 돌아왔다.<sup>56)</sup>

<사례 8>

이용옥은 아홉 살 되던 해에 무구(巫具)의 하나인 ‘간제비’를 줌게 된다. 아홉 살 되던 해의 음력 1월 3일에 이모부가 이용옥에게 술을 받아오라고 해서 함덕 거리를 걷다가 간제비를 주운 것이다. 당시 눈이 많이 왔는데 길을 걷다가 어떤 주머니를 발견하고 그것을 주워서 속옷 안에 숨겼다고 한다. 그런데 나중에 이모인 김국화가 이를 잡아준다고 속옷을 벗기는 바람에 간제비 숨긴 것을 들켰다. 이모는 간제비를 발견하고는 가지고 가 버렸고, 그 후에 이용옥은 학교도 안 가고 정신집중이 잘 되지 않았다. 그러자 집안에서 이를 걱정하였고, 이용옥은 간제비를 다시 자신에게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였다. 간제비가 다시 돌아오자 이용옥은 그것으로 점을 쳤는데 사람들이 아주 잘 맞히더라고 했다. 일례로 함덕 비석거리에서 해녀들이 갓 잡은 해산물을 두고 이용옥에게 잘 팔 수 있는지 물으면 가타부타 그 여부를 대답해주곤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용옥이 결혼한 후 간제비를 두고 왔는데, 남편인 김윤수의 꿈에 어떤 할머니가 나타나 자신을 박접한다고 하며 이를 나무랐다고 한다. 그래서 그 간제비를 약 25살 경에 다시 가져왔다.<sup>57)</sup>

<사례 7>에서 이씨는 신의 현몽을 통하여 집안에 감추어진 육간제비를 찾고 모셨다. <사례 8>에서 이용옥은 길을 걷다가 우연히 육간제비를 줌지만 모시지 못하고 있었는데 역시 현몽을 통하여 육간제비를 다시 찾아와 모셨다. 사례의 이씨는 친가와 외가가 모두 심방 집안이었고, 이용옥은 외가가 심방 집안이었다. 심방 집안의 후손에 특정한 조상신이 출현하여 무구를 모실 것을 요구한 것이 흥미롭다.

일반적인 봉근맹두에 견주면 육간제비의 경우는 구체적인 조상신이 출현하여 모실 것을 요구한다. 육간제비는 신기 혹은 신병의 체험과 분명 관련이 있다. 하지만 육간제비 자체가 제주도 무속에서 사용하는 무구는 아니기에 심방의 입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역할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신기 혹은 신병의 발현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봉근맹두로 인하여 입무하는 사례는 과거에도 많이 있었던 것 같다. 제주도에 구비전승되는 조상신본풀이에서도 봉근맹두 유형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우렁이 김씨조상본풀이와 현씨일월본풀이를 들 수 있다.<sup>58)</sup> 전자는 맹두를 후자는 육간

56) 제주시 건입동 거주 이씨(여) 심방 체보.

57)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앞의 책, 56~57쪽. ; 2006년 11월 16일, 2009년 11월 4일 / 이용옥 심방 자택에서 면담조사.

58) 우렁이김씨조상본풀이는 김현선·현용준·강정식,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

제비를 주웠다. 그 가운데 우렁이 김씨조상본풀이를 살펴보면 김씨하르바님은 길을 지나가다가 돌 밑에서 우연히 멥두를 주운 뒤 신병이 났다. 나중에 멥두를 모시고 큰심방으로 활동하였다.

봉근멥두의 사례이지만 입무를 거부하여 목숨을 잃었다는 이도 찾을 수 있다. 아래의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 9>

시고모가 열다섯에 장을 담기 위해 짚물을 길러 월정리 석은빌레에 갔는데, 다른 사람에게 는 보이지 않았지만 시고모 눈에 염전이 보였다. 시고모는 그것을 주워서 집에 숨겼다. 나중에 엿장수가 넘어가는 기회에 그것으로 엿을 사먹었다고 한다. 그 뒤에 시고모가 아파 죽어 가니 큰곳을 하였다. 시고모가 심방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나왔지만, 시고모는 거부하다가 큰 곳 후 일주일만인가 열다섯 나이로 죽었다.<sup>59)</sup>

<사례 10>

육지 물질 가난, 물 알에서 아니 나오라 가난 아무 것이 죽엇덴 허단보난, 물 알에 내려간, 저싱 갖다온 몸이 돼어지어~, 육간제비 돈제비, 거울제비 가전 올랑 오란, 그걸 가정 전싱 그리쳐 불어시민 아니 아프당 죽을 쥘, 아이고 이것도 사람 허는 거리엔 해연, 간제비 봉근 건, 땅 속더래 물어부난, 남대 육대 즈죽대 몰라~<sup>60)</sup>

두 사례 모두 육간제비를 주운 뒤 신병을 앓았지만 무업을 거부하였다. 대개 멥두를 얻고 신병을 앓다가 점을 쳐서 팔자를 그려쳐야 한다는 결과를 얻으면 심방이 되는 것을 소명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간혹 무업을 거부하면 병이 더욱 악화되고 종내는 죽음에 이른다.

봉근멥두 유형에서는 평범한 사람이 우연히 멥두를 얻는 과정에서 신기 혹은 신병이 발생한다. 봉근멥두 자체가 신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봉근멥두는 ‘신기 발현→멥두 찾기→신병 체험→(점치기)→심방되기’의 과정을 거치니 결국 입무의 원인이기도 하다.

한편 제절멥두와 신병의 관계를 알아보기로 한다. 제절멥두를 취하는 과정은 신기에 의하여 발굴하는 것과 무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발굴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전자가 신병과 밀접한 관련을 보인다. 물론 후자 역시 심방 후보자가

연구소, 2006, 346~348쪽을 참고. 현씨일월본풀이는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白鹿語文』 5집,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1988, 355~356쪽을 참고.  
59) 제주도 삼도동 거주 강씨(여) 심방(2007년 6월 9일, 2009년 3월 28일 / 자택에서 면담조사).  
60) 강정식·강소전·송정희, 『동북 정병춘택 시왕맞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261쪽.



신병을 앓을 수는 있으나 신병 자체가 제절멥두를 얻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제절멥두의 본래적인 의미는 심방이었던 조상영혼이 후손에게 의탁하여 계절에 묻힌 멥두를 찾게 하는 것이다. 본래적 의미를 생각하면 제절멥두는 신병과 매우 밀접한 멥두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처럼 심방 후보자가 신기에 이끌려 무덤의 계절에 묻힌 제절멥두를 취한 구체적인 사례는 아직 보고된 적이 없다. 하지만 제절멥두와 유사한 사례는 한 차례 보고된 바 있다. 제절멥두는 무덤처럼 특정한 장소를 인지하여 무구를 얻는 방식이다. 이처럼 해당 사례도 심방 후보자가 신기에 의하여 특정 장소를 지목하여 멥두를 캐내었다. 무덤의 계절에서 발굴한 것은 아니지만 제절멥두에 포함하여 다룰 만하다. 봉근멥두 유형처럼 불특정한 장소에서 우연히 발견하는 것과는 다른 맥락일 수밖에 없다. 아래의 사례를 살펴본다.

<사례 11>

6대 조모는 본래 심방이 아니었다. 보통의 농부의 처였다. 몇 살 때인지는 확실히 모르나, 어느 해 콜레라가 유행하여 마을 사람들이 무수히 쓰러져 갔다. 그녀도 다른 사람처럼 콜레라에 걸려 숨을 거두었다. 마을 사람들이 병의 전염을 두려워하여 가까이 하지 않으므로 정식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자식들은 옆 밭에 ‘토롱(假葬)’을 했다. 토롱이란 지면을 조금 파거나 혹은 그대로 지면 위에 시체를 놓고, 그 위에 푸른 소나무 가지를 덮어서 동물의 피해를 막는 임시 葬法이다. 1주일 후의 일이다. 이 밭에 가 보았더니 假葬한 묘 속에서 신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이 아닌가. 아들들이 급히 소나무 가지를 치우고 보니 어머니가 살아있는 것이다. 어머니는 “나를 업어서 서쪽으로 가라”고 한다. 아들이 업어서 어머니 지시대로 가니, ‘바굽지오름(岳)’ 중턱에 가서 어떤 큰 돌을 파내라고 한다. 돌을 파 보았더니 거기에 멥두가 있었다. 그것을 주워서 돌아오는 도중, 애월면 하귀리에 오니, 또 길 옆의 한 지점을 파라고 했다. 파 보았더니 ‘울쇄’(巫樂器의 일종)가 나왔다. 그것을 주워 와서 6대 조모는 심방이 되었는데, 모든 것을 잘 알아맞추는 큰심방이 되었다. 그로부터 자손들에게 세습하여 내려오고 있다.<sup>61)</sup>

위의 <사례 11>에서 6대 조모는 평범한 사람이었으나 전염병에 걸려 죽다 살아난 뒤에 갑자기 특정한 장소를 지목하여 멥두를 찾아내는 신기를 보였다. 오름 중턱에서 돌 밑을 파내어 멥두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길가에서는 ‘울쇄’라는 무구까지 찾았다. 6대 조모는 무구를 찾고 난 뒤에 심방이 되었고 자손들에게 세습되고 있다는 것이다.

61) 玄容駿, 앞의 책, 103쪽.

위와 같이 제절맹두의 경우에도 맹두 그 자체가 신기 혹은 신병의 발생 원인이 되고 있다. 봉근맹두의 유형과 견주면 맹두를 찾는 과정이 더욱 극적이고 소명에 의한 행위의 측면이 강하다. 제절맹두로 인하여 심방이 되는 수순을 밟으니 결국 맹두는 입무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봉근맹두와 제절맹두 유형은 신병과 직접적인 연관을 보이고 입무의 강력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더욱이 봉근맹두와 제절맹두의 사례에서는 맹두의 발견자가 당대에 심방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다. 해당 집안에서는 맹두의 습득으로 인하여 무업이 시작되고 후손에게 전승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맹두의 유형에서는 맹두와 관련한 특정한 입무담이 형성되곤 한다. 이 입무담은 매우 신이하고 소명의식이 분명하다. 해당 집안에 무업이 시작된 것을 설명하는 강력한 장치이기 때문이다. 물린맹두와 ㅈ·작맹두가 입무의 결과로서 특정한 입무담을 그다지 생산하지 못한 것에 견주면 두드러진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 2) 맹두와 세습

제주도 무속에서 심방의 입무 과정에 세습적인 측면도 분명히 나타난다. 제주도 무속의 전반적인 양상을 살펴보면 세습은 크게 두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첫째는 한 심방 집안에서 대대로 이어지는 세습이다. 이는 심방 개인을 중심으로 한 세습이다. 둘째는 한 마을의 신당을 전속으로 맡아 대대로 이어지는 세습이다. 심방뿐만 아니라 마을 단 골판이라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세습이다.

그렇다면 맹두가 이런 세습 현상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맹두가 무업의 세습에 따르는 부가적인 산물일 뿐인지, 아니면 맹두가 세습의 과정에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 무구인지 마땅히 살필 필요가 있다. 또한 맹두의 유형과 세습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맹두가 세습 과정에서 심방의 입무를 어떻게 이끄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한 심방 집안의 세습과 맹두의 관련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무업을 세습한 심방 집안끼리 혼인은 종종 벌어지는 일이고, 부모 자식 간에 무업을 전승하는 일도 많다.

심방 집안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무업을 보고 익히면 아무래도 무업을 이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더군다나 사회적 천시(賤視)로 인하여 다양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없는 시대 분위기 속에서 직업적 선택은 제한받기 마련이었다. 심방 집안에서 세습으로 입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 셈이다.

하지만 심방 집안이라 하여 무작정 세습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후손이 심방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대개 세습 집안이라 하더라도 후손이 신병을 앓는다든가 별이는 일마다 실패한다거나 경제적으로 곤란하거나 하는 등 생활의 여러 어려움을 겪고 난 뒤 비로소 심방이 되는 운명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한 심방 집안에서 세습은 해당자의 결단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멩두가 심방 집안의 자손을 입무로 이끄는 사례도 있으니 한번 살펴보자.

<사례 12>

그의 집안 친할머니가 김해 김씨로 큰심방이었다고 한다. 생전의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그렇게 들었다고 한다. 그 외에는 무업과 관련한 조상이 없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아파서 죽어가는 데 낮에 약간 선잠이 들었을 때였다. 이명걸이를 한 할머니가 위아래로 흰 옷을 입고 우도 친정집 울담을 빙빙 돌면서 “이거 할망본이여. 잘 들으라.”고 자기한테 말하면서 노래 부르고 하는데, 몸은 안 보이고 팔만 보이면서 할머니가 그에게 산판을 주었다고 한다. 눈을 번쩍 뜨니 아무 것도 없었던 일도 있었다.<sup>62)</sup>

<사례 13>

갑자기 가운이 기울어져 朴씨가 5살 때에 아버지가 사망하고, 7살 때에 조부가 세상을 떴다. 조부가 사망한 해에 어머니 양씨는 재혼하여 함경도 청진으로 가 버리고, 3형제는 앞으로 살아갈 길이 실로 암담하게 되었다. 이때 큰형이 조천면 조천리 巫系 집안의 정씨 딸과 결혼하여 살게 되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朴씨는 7살 때에 이 정씨 집안의 鄭A부인한테 양자의 형식 비슷하게 들어가 살게 되었다. 鄭A부인은 심방의 딸로 巫系 집안의 김씨와 결혼하여 무업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사망하여 자식이 없으므로 7살 난 朴씨를 데려다 길러서 무업을 계승시키려 한 것이다. 朴씨는 양모 鄭A의 집에서 자라고, 양모가 굿하러 다닐 적마다 따라가 심부름을 하면서 巫儀의 기술을 습득하여 능숙해졌다. 그래서 양모 鄭A부인의 멩두를 물려받아 入巫했다.<sup>63)</sup>

<사례 12>에서는 비록 꿈이지만 친할머니 김씨로 추정되는 심방 영혼이 나타나 자손에게 멩두(산판)를 건네주었다. 그렇지 않아도 해당 자손은 신병을 앓는 와중에도 무업

62)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423쪽.

63) 玄容駿, 앞의 책, 96~97쪽.

에 들어서기를 꺼려하고 있었다. 혈연관계의 조상 영혼이 나타나 멩두를 주었다는 것은 자신의 무업을 세습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나중에 해당 자손은 결국 심방으로 나서게 되었는데 이때의 경험이 입무를 이끈 요인으로 작용한 셈이다.

<사례 13>에서 ㉠은 집안이 기율자 7세에 심방 집안인 鄭A부인한테 양자로 들어간다. 鄭A부인은 자식을 두지 못하였기 때문에 ㉠을 길러 무업을 계승시키고자 하였다. 鄭A부인 처지에서는 누군가 후계자가 되어 자신과 자신의 멩두를 모셔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즉 자신의 사후의례(死後儀禮)와 멩두 조상에 대한 의례가 행해지기를 바랐다고 할 수 있다. ㉠의 처지에서도 어릴 때부터 양모를 따라 무업을 익혔으니 무업을 생업으로 받아들인 셈이다. 鄭A부인의 멩두는 ㉠의 입무를 이끄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심방 집안의 후손들이 세습으로 입무하는 과정에서 멩두의 역할도 중요하다. 위의 사례들처럼 멩두가 입무를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심방 집안에서 멩두를 물려받아 입무했다는 것은 곧 가업의 계승이다. 집안 자체가 특정한 생업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기도 하다. 멩두라는 상징을 통하여 해당 집안의 심방 내력과 유·무형의 무업 유산들을 전수한다.

심방 집안의 무업 세습이라고 하여 반드시 대대로 전승되는 물린멩두의 유형만 있지는 않다. 이들이 멩두를 얻는 경로는 물린멩두, ㅈ·작멩두, 봉근멩두, 제절멩두 등으로 다양하다. 심방이 되기로 결정한 뒤 멩두를 마련한다면 물린멩두와 ㅈ·작멩두 유형이 될 것이다. 반면에 멩두를 얻는 과정으로 인하여 심방이 되기로 결정하였다면 봉근멩두와 제절멩두 유형으로 멩두를 마련하게 된다. 이 가운데 세습 집안일 경우 아무래도 물린멩두의 비중이 보다 크고 일부 ㅈ·작멩두가 뒤를 따른다. 봉근멩두와 제절멩두도 일부 있을 수 있으나 미미하다고 파악된다.

둘째, 한 마을의 신당을 중심으로 하는 세습의 양상을 살펴보자. 마을마다 본향당을 중심으로 신당을 전속으로 맡은 메인심방이 있게 마련이다. 메인심방은 보통 대대로 특정 가문에서 맡아서 지냈다고 한다. 물론 그렇지 않은 마을도 있다. 마을마다 메인심방의 지위는 대대로 세습되는 것이어서 그 계보가 형성되기에 이른다. 전임 메인심방이 그만두거나 사망하면 적절한 기준을 두고 기존에 활동하는 심방 가운데 신임 메인심방을 선정한다.

문제는 새로운 메인심방을 구하기 어려울 때에 발생한다. 주위에 메인심방을 맡아줄 적당한 심방이 없을 경우 마을 단골들은 난처한 처지에 빠진다. 본향멩두도 처리해야

할뿐만 아니라 당곳과 같은 공동체 의례의 집행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메인심방을 공식으로 둘 수 없으니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래의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 14>

제보자의 가문은 온통 무업에 종사해 온 세습무 집안이다. 41세에야 무업을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이 마을의 신당을 지켜오던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부터이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해녀작업을 하며 살아왔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이 마을의 신당을 지킬 무당이 없어서 대신 당을 맡게 되면서 무업을 계승하게 된 것이다.<sup>64)</sup>

위의 <사례 14>는 세습무 집안의 딸이 메인심방이던 어머니가 사망하자 어쩔 수 없이 대신 메인심방을 맡으면서 입무하였다는 내용이다. 딸은 원래 세습무 집안이었지만 해녀로서 물질을 하며 평범하게 살았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망으로 메인심방이 공식이 되자 마을의 신당을 그냥 둘 수 없어 입무한 것이다.

인용한 문면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사실 이 과정에서 단골들과 합의가 있었을 것이다. 본향맹두의 처리 문제도 있을뿐더러 단골관이라는 경제적 수단도 결코 가벼이 넘길 사안이 아니다. 심방 처지에서 단골관의 확보에 따른 경제적 수입은 매우 중요하다. 단골 처지에서는 본향맹두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 자신들과 마을의 내력을 잘 아는 이가 메인심방을 맡으면 더욱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한 마을 신당의 세습은 본향맹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위의 사례처럼 본향맹두는 신당의 세습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무구이다. 또한 경우에 따라 평범한 사람을 심방으로 입무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다른 맹두의 유형에서는 한 심방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결단하여 입무한다. 이에 견주면 본향맹두 유형에서는 심방으로 나서는 이와 단골들의 일정한 합의가 중요하다.

한편 본향맹두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특정 맹두를 신뢰하는 단골들의 요청으로 입무하는 사례도 있어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역시 한 마을을 중심으로 단골관을 형성한 사례이기 때문에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사례 15>

할아버지의 큰부인인 김씨 할머니가 죽자 그 맹두를 보자기에 써서 집안의 궤에 그냥 놓아 두었다. 그런데 할머니가 다니던 단골에서 할아버지 집에 찾아와서 곳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

64)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口碑文學大系』 9-3, 1983, 1216쪽.

다. 할아버지는 무업을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단골에게 다른 사람을 빌어서 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단골은 다른 사람을 빌어서 오더라도 꼭 그 조상을 모셔서 와야 한다고 말하였다. 할아버지가 할 수 없이 조상을 모셔서 단골집에 갖하러 갔고 그 뒤로 어떻게 하다 보니 무업을 배우게 되었다.<sup>65)</sup>

심방이었던 부인이 사망하자 멩두를 남편이 보관하고 있었는데 단골에서 찾아와 반드시 그 멩두를 사용하여 곳을 해 달라고 부탁하니 난감한 노릇이었다. 남편이 할 수 없이 나섰는데 그 뒤 어찌하다 보니 무업에 들어서게 된 사정이다.

단골판 주민들의 요청에 의하여 심방으로 입무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원래 무업과 무관한 이였는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기치 않게 심방으로 활동한 셈이다. 이 사례에서 단골들은 설사 남편에게 무업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가 보관하던 멩두의 영험을 중시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부인이 사용하던 멩두가 남편이 입무하도록 이끈 셈이다.

---

65) 제주시 삼도동 거주 강씨(여) 심방 제보.

### 3. 멩두의 전승양상

멩두가 제주도 무속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전승되는지 그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든 멩두는 심방사회에서 전승되는 것을 지향한다. 멩두의 전승양상이야말로 멩두의 현실적인 진면목을 알게 해준다.

멩두의 전승양상은 멩두 물림과 멩두 관리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멩두의 전승은 순환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 멩두를 물려받은 심방은 자신이 모시고 난 뒤에 다시 새로운 후계자에게 물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멩두를 관리하게 된다. 자신의 대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이에게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멩두의 물림과 멩두의 관리는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 1) 멩두 물림

멩두를 전승하는 것을 두고 ‘멩두 물림’이라고 한다. 멩두의 물림은 심방으로 나서서 무업을 시작하려 할 때 이루어진다. 멩두는 무업조상이니 마땅히 모시는 것이고, 핵심 무구이니 무업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멩두 물림은 신직(神職)의 계승이자 신성(神聖) 도구의 계승이다.

심방이 되는 사람은 누구나 무업활동을 위하여 멩두를 마련한다. 이때 멩두는 한 벌을 물려받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무업활동 도중이라도 심방에 따라 사정이 있으면 멩두의 전승이 재차 이루어질 수 있다. 자신의 멩두가 이미 있지만 사정에 의해서 집안이나 동료의 멩두를 추가로 물려받을 수 있다.

멩두 물림의 다양한 양상에 대하여 멩두의 유형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 멩두 물림은 멩두의 유형이 서로 얽혀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매우 많이 있어 어느 하나의 유형만으로 설명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 애로점이 있지만 전승양상의

다양성을 드러내고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맹두의 유형에 따라 두드러진 사례를 예로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

### (1) 물린맹두의 물림

물린맹두는 전승이 꾸준히 이루어진 맹두이다. 당연히 맹두 물림에서 가장 보편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린맹두의 전승은 혈연관계나 타인관계를 따지지 않는다. 혈연관계일 경우에 친가와 외가를 가리지 않는다. 타인관계일 경우에도 서로 수양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전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이에서도 전승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맹두를 전승할 당시 서로 가장 적절한 이를 택하는 것이 기준이다. 아래에서 사례를 살펴보자.

#### <사례 16>

강대원 심방의 맹두는 모두 세 벌이다. 강 심방은 맹두1을 ‘큰맹두’라고 한다. 큰맹두는 백조부 맹두이다. 백조부가 34세 되던 해 3월 15일에 만든 맹두라고 한다. 초신질 발물 때 이 맹두로 하였다. 부친이 굿을 하러 가지고 갔다가 신칼 하나가 다른 심방 신칼과 바뀌는 바람에 천문, 상잔과 함께 녹여 다시 만들었다. 맹두2는 ‘둘째 맹두’라고 한다. 둘째 맹두는 거문데기 고씨 심방이 만들어 쓰던 맹두이다. 이것을 조부가 물려받아 쓰다가 고모에게 물려주었는데 이것이 강 심방에게까지 내려온 것이다. 맹두3은 작은 어머니 맹두이다. 송씨—차씨—작은 어머니 양씨로 물려온 맹두인데 역시 강 심방이 물려받게 된 것이다. 큰곳에는 할아버지 맹두인 맹두1, 맹두2를 모두 가지고 다니고, 작은곳에는 작은 어머니 맹두인 맹두3만 가지고 다닌다.<sup>66)</sup>

위의 <사례 16>에서 등장한 맹두는 모두 세 벌이다. ①은 큰맹두로 백조부→아버지→강씨로 이어졌다. 백조부가 ㅈ·작맹두를 만든 뒤로 물린맹두로 전환되었다. ②는 둘째 맹두로 거문데기 고씨 심방→조부→고모→강씨로 이어졌다. 고씨 심방의 맹두도 ㅈ·작맹두였고 4대를 이어 물렸다. ③은 작은 어머니 맹두로 송씨→차씨→작은 어머니 양씨→강씨로 물려온 맹두이다. ①은 혈연관계에서만 전승되었고, ②와 ③은 타인에서 유래한 뒤 집안으로 들어와 혈연관계에서 계속 전승되었다.

심방 집안일 경우 아무래도 가족이나 친족과 같이 혈연관계에서 1차적으로 물린맹두가 전승될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처음부터 해당 집안에서 유래한 맹두에만 한정하지

66)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449~450쪽.



않는다. 집안에서 유래한 멧두 외에도 애초에 타인에게서 물려받은 멧두가 집안에서 계속 전승을 이어가는 경우도 많다.

또한 심방 집안에서 선대의 조상 여럿이 각각 멧두를 소유하였다가 나중에 마땅히 물릴 데가 없으면 특정한 후손이 이를 모두 물려받게 되어 여러 멧두를 모시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멧두는 기본적으로 한 벌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만 집안의 다른 멧두도 방치할 수 없어 보통 물려받게 된다. 따라서 후손 심방은 나름대로 기준을 두고 물려받은 복수의 멧두에 일종의 위계를 두어 관리한다. 더불어 곳판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멧두를 가져가는 것을 결정한다. 큰곳에는 모두 가져가고 작은곳에는 특정 멧두만을 가져간다고 하는 식이다.

심방 집안일 경우 후손에게 멧두를 물리고자 하지만 심방으로 나서는 후손이 없으면 할 수 없이 타인에게 물릴 수밖에 없다. 그러다가 후손이 뒤늦게 심방이 되면서 타인에게 갔던 멧두를 되찾아 오는 경우도 있다.

#### <사례 17>

제주시 연동 거주 강씨(여)는 39세에 남편이 사망한 뒤부터 무업을 시작하였다. 강씨의 아버지는 당대에 입무한 심방이었다. 아버지의 멧두는 이미 다른 이에게 주었던 상태였는데, 나중에 찾아와서 자신이 가지고 다닌다.<sup>67)</sup>

위의 <사례 17>에서 강씨는 뒤늦게 심방으로 나서는 바람에 아버지의 멧두를 곧바로 물려받지 못하였다. 나중에 아버지의 멧두를 찾아와서 자신이 모셨다. 이미 다른 이에게 가 있던 혈연관계의 멧두를 다시 찾아와서 사용하는 사례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강씨는 아버지가 메던 분향당을 이어받아 활동하였다.

심방 사이에서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수양관계를 맺어 가족으로 여기고 멧두를 물리기도 한다. 멧두를 마땅히 물릴 만한 데가 없으면 주위에 가까운 이 가운데 미리 적당한 이를 택하여 수양자를 삼는다. 아래의 사례를 살펴보자.

#### <사례 18>

신촌리에 사는 고군찬 심방을 수양어머니로 삼았다. 고군찬은 아이가 없었고 이후에라도 멧두를 물리기 위해서, 그를 수양아들로 맞아 들였다. 예전부터 고군찬 심방을 알았고 곳이

67) 제주시 연동 거주 강씨(여) 심방(2010년 2월 20일 / 구좌읍 동북리 분향당 신과세제에서 강소전 면담조사).

있으면 같이 다니고 했었는데, 그런 고군찬이 먼저 제의를 하자 그도 수락했다. 또한 수양어머니가 자기 보고 신촌에 와서 살라고 하며 집터를 사 주었기 때문에 27세부터는 신촌에 살게 되었다. 그래서 거기서 살면서 수양어머니와 같이 일을 따라 다녔다.<sup>68)</sup>

고군찬은 자식이 없어 김윤수를 수양아들로 삼았다. 고군찬은 나중에 김윤수에게 멩두를 물려주면서 일정한 재산과 함께 단골판까지 넘겨주었다. 부모(수양부모)는 일정한 재산과 단골판을 물려주고, 자식(수양자식)은 부모로부터 받은 멩두에 대한 일정한 의례를 지속적으로 행해야 한다.

심방이 멩두를 물려주는 과정에서 수양관계를 맺는 것은 이미 초공본풀이에서 전범(典範)을 보인 사항이다. 유정승따님아기는 자지명왕아기씨의 수양딸이 되어 멩두를 얻는다.<sup>69)</sup> 수양관계도 가족관계나 다름없으니 멩두는 곧 가족에게 물려준 셈이다. 따라서 부모(수양부모)는 일정한 재산과 단골판을 물려주고, 자식(수양자식)은 부모로부터 받은 멩두에 대한 일정한 의례를 지속적으로 행해야 한다.

한편 타인관계에서도 필요에 의하여 멩두를 물려주고 받는다. 멩두를 물려줄 데가 없어 무덤의 계절에 묻거나 유기해야 하는 것보다는 주위의 적당한 타인에게 멩두를 물려주는 것이 보다 낫기 때문이다. 심방 집안일 경우에도 심방으로 나서는 후손에게 집안 사정으로 인하여 당장 물려줄 만한 멩두가 없으면 타인이 쓰던 멩두를 물려받게 하곤 한다. 집안의 멩두 가운데 하나를 본메 놓아 ㅈ·작멩두를 만들기도 하지만 타인의 물린멩두를 그대로 전승하는 일이 더욱 보편적인 것으로 보인다. 물린멩두의 전승은 대개 스승이나 무업동료에게서 물려받는 경우가 많다. 아래의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 19>

양모 鄭A와 한 그룹이 되어 巫儀를 하러 다니던 男巫 허씨가 사망했다. 허씨는 朴I의 양모와 같이 朴I에게 巫義를 가르쳐 준 ‘선생’에 해당하는 심방이다. 이 허씨는 자식이 없었으므로 朴I에게 “밭 하나와 멩두를 물려줄 터이니, 내 죽은 후 굶게 하지 말아 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은 것이다. 그래서 朴I씨는 허씨의 멩두를 물려받아 멩두가 두 벌이 되었다.<sup>70)</sup>

68)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380쪽.

69) 초공본풀이에서 유정승따님아기가 수양관계를 맺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천기덕 삼만제기/ 그걸 흥영 직흥영 앗앙/ 스나이랑 오랏건 아들로 삼곡/ 예즈랑 오랏건/ 팔로 삼양 빌려줍서.> 秦聖麒, 앞의 책, 61쪽. 인용문의 / 표시는 행 나눔을 줄이기 위하여 필자가 삽입하였다. 또한 <유씨부인은 지긋시 듯고 고개를 조아려 자지명왕보고 어머니라고 불어습내다. 자지명왕은 안심하고 대사님에게 말을 하대 아덜 삼형제을 따라 옥황으로 올라가개습내다. 작뵤인사 난오어두고 유씨부인보고 하는 말이 구월 초팍일 열여드래 수무여드래 삼명이 괴일제사 잘 기나주소.>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風俗巫音(上)』,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94, 141~142쪽.

위의 <사례 19>에서 허씨는 자식이 없자 함께 활동하고 제자였던 박씨에게 받 하나와 함께 멩두를 물려준다. 멩두를 넘겨주며 금전적 대가를 지불한 것이다. 박씨가 멩두를 모시는 것은 일종의 허씨의 제사를 모시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자식을 두지 못한 수양부모인 경우 멩두를 수양자에게 물려주는 것은 곧 자신에 대한 의례를 엄두에 둔 행위와 같다고 이해할 수 있다.

타인관계에서 물린멩두가 전승되는 양상을 더 살펴보기로 한다. 보통 심방 집안일 경우에는 조상을 방치할 수 없어 후손이 여러 벌의 멩두를 물려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타인관계에서도 이처럼 여러 벌의 멩두를 물려받아 모시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 <사례 20>

양창보 심방이 물려받은 멩두는 모두 세 벌이다. 이 가운데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멩두1뿐이다. 멩두1은 200년 이상 물려온 것이다. 김녕 황씨 큰심방—임씨—이씨—한씨—양창보로 전해 내려왔다. 물려받은 지 30년쯤 되었다. 한씨 심방이 지니고 있다가 멩두가 하도 세서 스스로 이기지 못하게 되자 점을 쳐서 양창보 심방에게 물려주었다고 한다. ……(중략)…… 멩두3은 신흥2리 ‘여우내’ 신흥수의 멩두이다. 신흥수—남원 신킨년—양창보로 이어진다. 양창보 심방이 50세 즈음에 물려받았다.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쯤이다. 일본으로 가게 되자 애월읍 하귀리에 거주하는 누님에게 맡겼다.<sup>71)</sup>

위의 <사례 20>에서 멩두1은 김녕 황씨 큰심방→임씨→이씨→한씨→양창보로 물려왔다. 멩두1의 경우 한씨가 멩두의 영력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다른 심방에게 물려주었다는 내용이 흥미롭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례가 보편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것인지는 아직 정확히 확인하기 힘들다.

더구나 멩두1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전승하던 멩두인데 양창보에게로 넘어가면서 원래 활동하던 단골판을 떠나게 되어 버렸다. 양창보가 김녕 단골판과 함께 멩두를 맡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씨는 김녕리의 당을 맡은 메인심방이었다. 멩두1이 아무리 세다 해도 한씨가 김녕 단골판 자체는 유지한 채 김녕 단골판과 유사 깊은 멩두만을 넘긴 것도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멩두3의 경우에는 제주시 남원읍 신흥2리에서 유래한 멩두이다. 신흥수→신킨년→양

70) 玄容駁, 앞의 책, 97쪽.

71)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467쪽.

창보로 이어진다. 신금년은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와 의귀리의 당을 맡던 메인심방이었다.<sup>72)</sup> 멩두3의 경우에도 멩두만 물려졌을 뿐이지 단골판의 승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세한 사정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힘들지만 아무튼 양창보는 멩두1이나 멩두3의 경우 단골판의 승계와는 상관없이 멩두만 물려받은 셈이다.<sup>73)</sup> 또한 이들은 모두 서로 타인관계였다. 보통 멩두를 물릴 때에는 경제적 대가가 따르는 점을 생각하면 다소 예외적이다.

물린멩두는 중단 없이 계속 이어졌다는 점에서 소중하다. 멩두를 사장(死藏)하지 않고 어떤 경로를 택해서든 전승하고자 애쓴 심방사회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멩두는 무업조상이니 가능하면 후계자를 택하여 전승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족이나 친족, 혹은 타인이라 하여도 주위에 적절한 이를 택하여 멩두의 내력을 지속적으로 이어 갔다. 그런 만큼 물린멩두의 전승은 멩두의 다양한 전승양상 가운데서도 가장 보편적이고 원형적이다. 멩두의 생명력을 계속 이었다는 점에서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 (2) ㅈ·작멩두의 물림

ㅈ·작멩두는 본메 잇인 ㅈ·작멩두와 본메 엇인 ㅈ·작멩두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본메 잇인 ㅈ·작멩두는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새로 탄생한 멩두지만, 멩두 내력을 이어받기 때문에 단순히 신규 멩두라고 할 수 없다. 멩두를 제작한 심방이 무업을 그만두면서 물림이 시작되지만 내력으로는 이미 오래 전승하는 멩두가 된다. 본메 엇인 ㅈ·작멩두는 내력이 없는 새 멩두이니 멩두 제작자가 무업을 그만두면 그때부터 전승이 시작되는 것이다. 점차 대수(代數)가 더해질수록 본메 엇인 ㅈ·작멩두도 조상 있는 유서 깊은 멩두로 탈바꿈한다. ㅈ·작멩두를 물려주는 사례를 살펴보자.

### <사례 21>

제주시 애월읍 거주 고씨(여) 심방이 모시는 조상은 모두 두 벌이다. 시할아버지가 다른 이에게서 물려받아 사용하던 멩두와 시할아버지의 멩두를 본메 놓고 시어머니가 ㅈ·작한 멩두이

72) 南濟州郡·濟州大學校博物館, 『南濟州郡의 文化遺蹟』, 南濟州郡·濟州大學校博物館, 1996, 306쪽과 309쪽 참고.

73) 양창보 심방은 제주에서 큰심방으로 존경받는 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활동하기도 해서 막상 제주도 안에서 어떤 특정한 마을의 당을 맡은 적은 없었다. 위의 멩두 물림 과정에는 각각의 심방들이 양창보에게 멩두를 물려줄 당시의 사정에다 양창보 개인의 사정이 더해졌을 것이다.

다. 시집은 시할아버지 때부터 무업을 시작하였다. 시어머니는 시집을 온 뒤에 시할아버지의 무업을 이어받아 심방이 되었다. 고씨도 시집을 온 뒤로 심방이 되었다. 친정에는 무업을 한 이가 전혀 없었다.<sup>74)</sup>

<사례 22>

제주시 이도동 거주 홍씨(남) 심방의 멧두는 두 벌로 모두 아버지에게 물려받았다. 아버지가 애초에 모시던 조상은 외할아버지인 한림읍 강씨 심방이 사용하던 것으로 유래가 없는 ㅈ·작멧두였다. 다른 한 벌은 큰아버지가 모시고 있던 것으로 큰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아버지에게 넘겼던 것이다.<sup>75)</sup>

<사례 21>은 본메 잇인 ㅈ·작멧두의 경우이다. 고씨의 시어머니는 시할아버지의 멧두를 본메로 놓고 ㅈ·작멧두를 만들었다. 시어머니는 시집을 온 뒤에 시할아버지의 무업을 이어받아 심방이 되었으니 자연스럽게 시할아버지의 멧두를 본메로 삼은 것이다. 시어머니 처지에서는 무업활동을 함께 하고 단골관을 물려받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시할아버지 멧두는 물린멧두였는데 집안에서 무업이 이어지면서 새로 ㅈ·작멧두가 생긴 것이다.

고씨 역시 시집을 온 뒤로 심방이 되었고 시어머니를 따라 ㅈ·작멧두에 나섰다. 나중에 고씨는 시할아버지와 시어머니의 멧두를 모두 물려받았다. 시할아버지 멧두는 물린멧두로서 전승이 계속 이어졌다. 시어머니 멧두는 ㅈ·작멧두에서 물린멧두로 전환되어 전승되었다. 고씨의 친정도 심방 집안이 아니었고 무업을 이어받은 시집에서 자연스럽게 멧두의 전승이 이루어졌다.

<사례 22>는 본메 잇인 ㅈ·작멧두의 경우이다. 홍씨의 아버지는 외할아버지 강씨의 ㅈ·작멧두를 물려받았다. 즉 장인의 본메 잇인 ㅈ·작멧두를 물려받은 것이다. 홍씨의 친가는 무업을 하던 집안이었다. 아버지는 젊었을 때 교인이었지만 몸이 아프자 결국 심방이 되었다. 친가의 멧두가 아닌 처가의 멧두를 물려받은 이유를 자세히 알기 힘들지만, 장인과 사위의 무업활동이 서로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아무튼 강씨 장인의 본메 잇인 ㅈ·작멧두가 사위에게로 전승되어 물린멧두가 되었다. 이 멧두는 다시 홍씨에게로 이어져 모두 3대의 내력을 가지게 되었다.

ㅈ·작멧두의 물림에서 눈여겨 볼 점은 멧두 자체의 물질적인 전승과 멧두 내력의 전승이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멧두 자체의 물질적인 물림은 제작한 시점부

74) 제주시 애월읍 거주 고씨(여) 심방 제보.

75) 제주시 이도동 거주 홍씨(남) 심방 제보(2011년 10월 11일 / 자택에서 면담조사).

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ㅈ·작멩두의 내력은 물질적인 전승과 차원이 다르다. 본메를 두고 만든 ㅈ·작멩두는 원멩두의 내력을 바탕으로 하고 제작한 뒤의 내력이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전승과 차이가 난다. 반면에 본메 엇인 ㅈ·작멩두는 멩두의 내력과 물질적 전승이 서로 일치한다.

### (3) 봉근멩두의 물림

봉근멩두는 이전 소유자가 무업을 그만두면서 유기한 멩두이다. 나중에 이전 소유자와 특별한 연관이 없는 새로운 사람이 우연히 발견하여 습득한다. 멩두를 얻은 이가 심방으로 나서면 다시 전승이 이어지며 물림멩두로 전환된다. 봉근멩두의 일반적인 물림의 예를 살펴보자.

#### <사례 23>

강금춘씨의 친정은 정의현에서는 알아주는 유명한 무속인 집안이었다. 증조할아버지는 성산읍 수산리 출신의 소문난 수심방으로, 소로 밭을 갈다가 멩두(신칼)를 주워왔다고 한다. 밭을 갈던 평민이 무속인이 된다고 해서 친척들의 반대가 심했다. 그래서 동네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 남원읍 신흥리로 이주해 왔다. 증조할아버지의 무업은 딸에게 이어지고 다시 강금춘씨의 어머니에게 이어졌다.<sup>76)</sup>

위의 <사례 23>에서 증조할아버지는 밭을 갈다가 우연히 멩두를 습득한 것이 계기가 되어 심방이 되었다. 위의 봉근멩두는 증조할아버지→할머니→어머니→강금춘에게로 계속 전승되었다. 과거의 멩두 내력은 알 수 없으나 증조할아버지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4대를 물림 멩두가 되었다. 집안에서 계속 심방 후계자가 나왔으니 가족관계에서 대대로 물렸다. 봉근멩두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봉근멩두의 전승이 23대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례도 찾을 수 있다. 조상신본풀이인 우렁이 김씨조상본풀이에서 김씨 하르방은 처가(妻家)를 다녀오는 길에 우연히 들 밑에서 멩두를 줍고 신병을 앓는다. 김씨 하르방은 처음에는 심방이 되기를 거부하다가 나중에 자신의 운명임을 받아들이고 결국 심방으로 나섰다. 그 뒤 김씨 하르방의 봉근멩두가 23대나 전승되었다는 내용이다.

76)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의 가정신앙 : 제주도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184쪽.

<사례 24>

그 하르바님이 장손(長孫)이 지금, 종손(宗孫)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경 허여, 이 하르바님이 허여 멥두는 어디 갖는고 허니, 요거 시(市)에 서사라에 삽니다. 이태이라고 허는 심방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멥두를, 모신 멥뒤가 그 김씨 하르방 멥뒤가 글로 전승(傳乘)이 웨연, 지금까지도 모사서(모셔서) 큰곳을 헵니다. 영 허는 것이 그 하르방 손(孫)이 멥 대(代)가 내려왔느냐 허면은, 지금 이십 삼대(二十三代)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 그 멥두가 이십 삼대면은 멥년이 웰 겁니까. 적아도(적어도) 오백년(五百年)은 넘었주. 그런 멥두가 지금 혼 별이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sup>77)</sup>

멥두가 23대에 걸쳐 전승되었다면 모두 23명의 심방을 거쳤다는 말이다. 멥두를 유연하게 발견한 뒤의 양상은 물린멥두 유형과 전혀 다를 바 없다. 물론 멥두의 전승과정이나 심방들 사이의 혈연관계 등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해당 멥두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전승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소중하다.

다음은 봉근멥두가 ㅈ·작멥두 유형과 결합하여 전승하는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유연히 발견한 뒤 전승과정에서 멥두의 여러 가지 유형이 드러날 만큼 다양하게 분화하였다.

<사례 25>

서순실의 멥두는 어머니가 첫 신굿을 할 때 조천리의 정주병 심방이 가지고 다니던 멥두를 받아, 당시 서김녕 임씨 대장간에서 본메를 놓고 새로 만들었다. 멥두 조상은 ‘멥뒤 진밧가름 몰쿠실낭 상가지 솟아난 고씨 대선생님’이다. 그런데 ‘멥뒤 진밧가름’이 어디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다고 한다. 그는 어머니에게서 멥두를 물려받았다. 평소 어머니에게 일이 나면 같이 가서 굿을 했는데, 주위에서는 자신에게도 일이 나니까 조상을 마련하라고 권유했지만 멥두를 따로 만들지는 않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거나 굿을 못 했을 경우에 그 조상(멥두)을 자신이 모셔 오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신이 조상을 다시 만들면 2벌이 생겨버려 나중에도 복잡해질 것 같아, 끝까지 마련하지 않고 어머니하고 같이 다니면서 했다고 한다. 그래서 때로 정월처럼 하루에도 굿이 많이 나서 바쁠 경우에는 둘이 나뉘서 다녔다고 한다. 그런 경우에 어머니는 “너는 젊고 단골들도 네 말을 듣기 좋아하고 인정하니까, 네가 신칼을 가지고 가라. 나는 산판을 가지고 다니겠다.”고 하면서, 자신에게는 신칼을 건네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나중에 어머니가 아프면서 남편, 형제들과 의논한 후에 조상을 모셔오기로 결정했고, 2003년 7월에 자신의 집에 당주를 마련해 비로소 멥두를 모시기 시작했다.<sup>78)</sup>

77) 김현신·현용준·강정식, 앞의 책, 352쪽.

78) 국립문화재연구소,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巫具 : 전라남도·전라북도·제주도』, 409~410쪽.

현재 서순실 심방이 소유한 멧두의 흐름부터 일단 살펴보자. 멧두는 ①조천리 정주 병→②어머니→③서순실에게 이어졌다. 각 단계마다 멧두 물림의 양상이 다채롭게 나타나 흥미를 끌기에 충분하다.

①의 멧두는 본래 봉근멧두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멧두 조상의 유래가 ‘벵뒤 진밭가름 들쿠실낭 상가지 솟아난 고씨 대선생님’이기 때문이다. 서순실은 조상 내력에서 언급되는 ‘벵뒤 진밭가름’이 구체적으로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다고 한다. 제주도 마을의 옛 이름을 참고하여 유추한다면 ‘벵뒤’는 제주도 구좌읍 평대리(坪垜里)일 가능성이 있고, ‘진밭가름’은 평대리 내의 자연마을 가운데 하나인 중동(中洞)의 장전동(長田洞;진밭동네)일 가능성이 있다.<sup>79)</sup> 벵뒤 진밭가름이라는 곳의 口·르쿠실낭(떡구슬나무) 높은 가지에서 발견한 멧두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멧두를 언제 누가 습득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이지 못하지만, 아무튼 정주병이 소유한 멧두의 조상내력을 통해서는 봉근 멧두임이 분명하다.

②가 무업활동을 위하여 멧두가 필요하자 ①의 멧두를 원멧두로 삼아 ㅈ·작멧두를 만들었다. 따지자면 봉근멧두를 본메로 놓아 ㅈ·작멧두를 만든 셈이다. ②는 자신의 당대에 입무하였기 때문에 가까운 혈족에서 물린멧두를 얻을 만한 처지가 되지 못하였다. 마침 ①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①의 멧두 유래가 설사 봉근멧두였다 해도 개의치 않았다. ①은 나중에 ③의 두 번째 신긋을 맡아서 해줄 정도로 교류하던 사이였다. ②를 통하여 봉근멧두를 원멧두로 삼아 ㅈ·작멧두를 만들 수도 있다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②가 ③에게 멧두를 물려주는 과정을 짚어보자. ②에게 일이 생길 때는 ③이 함께 따라다니는 것이었으니 ②의 멧두를 사용하면 될 일이었다. 그러다가 점차 ③에게도 단골들의 의뢰가 직접 들어오니까 멧두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쯤 되면 ③은 ②의 멧두를 본메 놓고 ㅈ·작멧두를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물린멧두를 얻거나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③은 조상을 여러 벌 모시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여겨 ②의 멧두를 물려받으려고 기다리는 것을 택하였다. 그래서 일이 때로 겹칠 때에는 ②와 ③이 서로 멧두를 나누어 일을 하였다. ②가 산판을 가지고 ③이 신칼을 가졌다. 물론 비념 형태의 의례에서 멧두를 나누었을 것이다. 굿이라면 멧두를 한 벌로 사용해야지 나눌 수 없기 때문이다. 어찌 되었든 멧두가 동시에 필요할 경우 멧두를 신칼과 산판으

79) 오창명, 『제주도 마을 이름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222~224쪽 참고.



로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다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나중에 ②가 무업을 그만두고 나서야 ③은 멩두를 물려받았다. 결국 ①이 봉근멩두 유형이라면 ②는 봉근멩두를 본메 놓고 지은 ㅈ·작멩두였는데 ③으로 가면서는 ㅈ·작멩두가 물린멩두로 전환되었다.

한편 봉근멩두의 유형에서 멩두 내력을 살펴다 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심방이 각각 멩두를 전승하였는데 공교롭게도 두 멩두의 내력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아래의 두 사례를 견주어 살펴보기로 한다.

<사례 26>

제주시 건입동 거주 정씨(남)가 수양아버지인 강씨(제주시 애월읍 거주)에게서 물려받은 조상의 내력은 ‘구좌읍 상세화리 고좌수 머구낭 상가지로 줄이 벌던 김씨 대선생, 서도노미 고씨 할망, 정씨 하르방, 어림비 고씨 할망’이다. 서도노미 고씨 할망과 정씨 하르방은 서로 부부간으로 강씨의 장모와 장인이다.<sup>80)</sup>

<사례 27>

제주시 애월읍 거주 고씨(여)가 시할아버지(장씨)와 시어머니(이씨)를 거쳐 물려받은 멩두의 내력은 ‘구좌면 서화리 고좌수 침이 떡구실낭 상가지에서 솟아난 조상 강씨 할망, 문씨 하르방’이다. 시할아버지는 심방 집안이 아니라 당대에 입무하였고 멩두는 물려받은 것이다.<sup>81)</sup>

<사례 26>과 <사례 27>을 살펴보면 멩두 내력 가운데 한 가지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둘 다 봉근멩두였는데 그 봉근멩두를 습득하게 된 내력이 놀랍도록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①구좌읍(구좌면)—②상세화리(서화리)—③고좌수(고좌수 집)—④머구낭(떡구실낭)—⑤상가지(상가지)—⑥줄이 벌던(솟아난)’까지 정확히 일치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면 두 멩두의 근원 출처는 동일하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④의 단계에서 머구낭과 떡구실낭으로 수종(樹種)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동일한 출처로 이해할 수 있다.

봉근멩두를 얻게 된 근원 내력만 보자면 과거 어느 시기에 현재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細花里)의 고좌수라는 이의 집에 머귀나무(떡구슬나무)가 있었는데 그 높은 가지에 멩두가 유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중에 누군가가 이 멩두를 우연히 발견하였고 그 뒤로 이 봉근멩두가 전승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례 26>과 <사례 27>의 멩두는 어떻게 해서 동일한 출처에서 비롯되었

80) 제주시 건입동 거주 정씨(남) 심방 제보(2011년 10월 30일 / 자택에서 면담조사).

81) 제주시 애월읍 거주 고씨(여) 심방 제보.

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물론 <사례 26>과 <사례 27>의 상관성을 선불리 단언할 수는 없다. 멥두를 전승한 옛 선생들의 계보에서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계보는 전승되지만 각각의 내력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두 멥두의 근원이 일치하는 것이 흥미롭고 봉근멥두의 전승양상을 살필 수 있는 사례라 여겨 두 멥두의 상관성에 대하여 두 가지로 나누어 추정해 볼 수는 있겠다.

첫째, 두 멥두가 공교롭게도 습득 출처가 같을 뿐 전혀 다른 멥두라고 추정할 수 있다. 즉 시기를 달리 하여 같은 장소에 멥두가 여러 차례 유기되었고, 멥두를 우연히 습득한 이도 다른 사람이니 결과적으로 두 멥두의 상관성은 없다는 추정이다. 봉근멥두의 근원이 같다는 것만으로 두 멥두를 하나로 볼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일한 장소에서 멥두가 재차 유기되고 이를 또 다른 이가 거둬 발견하는 일이 제주도 무속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쉽게 말하기 어렵다. 더욱이 구좌읍에서 유래한 두 개의 다른 멥두가 우연하게도 멀리 떨어진 애월읍에서 동시에 함께 활동을 하였다는 것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둘째, 두 멥두는 사실 하나의 멥두에서 비롯되었고 다만 봉근멥두의 전승과정에서 어느 시점에나 두 개로 나누어져 전승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전승과정이 나누어진 이유로 아마 봉근멥두를 원멥두로 사용하여 ‘본메 잇인 ㅈ·작멥두’가 복제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두 멥두의 전승은 모두 제주시 애월읍이라는 동일한 지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 제주시 동부 지역의 봉근멥두가 어느 시점에 서부 지역으로 이동하였고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던 누군가가 이를 복제하여 두 갈래의 전승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일이다.

아무튼 <사례 26>의 봉근멥두는 주로 강씨의 가계를 통해서 모두 6대 동안 전승되었다. <사례 27>의 봉근멥두는 주로 장씨의 가계를 통해서 모두 5대 동안 전승되었다. 봉근멥두가 심방 후계자를 다시 만나 지속적으로 전승되는 양상 자체는 물린멥두 유형과 전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봉근멥두는 전승이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다는 점에서 소중하다. 이 과정은 유기멥두→봉근멥두→물린멥두로 이어지니 멥두의 다채로운 전승양상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멥두를 얻는 과정에서 신병 혹은 신기를 동반하니 제주도 무속에서 심방의 입문와도 밀접한 관련을 보인다. 봉근멥두는 멥두의 이전 내력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멥두를 물릴 때 과거의 내력은 사라지거나 아주 소략하고 새로운 멥두의 내력

이 이를 대신한다는 측면에서도 새롭다. 간혹 동일한 멥두 내력을 보이는 복수의 멥두 물림이 존재하기도 해서 그 전승과정에서 의문을 자아내기도 한다. 물림멥두나 ㅈ·작멥두의 전승양상보다 보이지 않는 이면이 많은 멥두의 물림이라고 할 수 있겠다.

#### (4) 제절멥두의 물림

제절멥두는 과거에 물림멥두로 계속 전승되다가 후대의 심방이 사망함으로써 무덤의 계절에 묻히는 바람에 전승이 끊긴 멥두이다. 제절멥두는 인연이 닿은 새로운 심방 후보자가 나타나서 발굴하면 다시 전승이 이루어진다. 아래의 사례에서 확인하기로 한다.

##### <사례 28>

양정순이 30대 중반에 곁을 하기 시작할 무렵에 조상인 멥두가 없자, 수양어머니인 시흥리 할머니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시흥리 할머니가 얘기하기를 우도 연평에 당 매던 박씨 조상이라는 멥두가 12년 동안 진토에 묻혀서 있었는데, 어느 날 시흥리 할머니에게 수양딸로 들어서겠다고 한 정의(旌義) 출신의 심방이 그 조상을 파서 가져왔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시흥리 할머니 자신도 멥두를 파러 함께 가기는 갔지만, 자신은 대강의 위치만 이야기해 주고 물러나 있었고 그 정의 심방이 조상을 봤다고 한다. 그런데 정의 심방에게 단골이 잘 안 생기자 그 멥두를 이리 저리 놔두고 다니게 되었고, 할 수 없이 신양리의 현차순 심방이 큰곳을 갈 때는 그 박씨 조상을 함께 가지고 가고, 작은곳을 갈 때는 자기 조상만 가지고 다니면서 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현차순이 죽으니까 사탕밭 할머니라고 한 사람이 그 조상을 가져갔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흥리 할머니는 양정순에게 그 사탕밭 할머니에게서 멥두를 가져다가 조상을 모시라고 했다. 사탕밭 할머니는 당시 곁은 하지 않고 아기비념 등을 주로 하던 삼승할망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가 사탕밭 할머니를 찾아가 멥두를 자신에게 달라고 부탁했고, 사탕밭 할머니가 그 당시는 화를 내더니 어느 날 양정순이 사는 집의 마루에다 두고 갔다고 한다. 그래서 양정순은 그 멥두를 씻고 닦아 잘 모셔서 이제껏 다니고 있다. 그런데 하루는 하도리 고복자 심방의 어머니가 조상인 멥두에 대한 사연을 얘기해 주었다고 한다. 박씨 조상은 제주도 화북 ‘개업머리 시내울새 상석걸리’라는 곳의 소문나던 조상이라는 것이다.<sup>82)</sup>

박씨 조상이라는 멥두는 물려줄 후계자가 없어 후손에 의해 땅에 묻힌 것으로 보인다. 마땅하게 물릴 만한 대상자를 찾지 못하면 무구를 묘소에 묻는 것은 일반적인 현

82)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426쪽.

상이었다. 주위 사람들은 대강의 사정을 알고 있기 마련이고 새로운 심방 후보자가 멩두가 필요하다며 나타나자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 멩두를 얻게 도와주었다.

제절멩두를 의도적으로 습득하는 경우가 제주 심방사회에서 얼마나 빈번하게 행해지는 것인지 자세히 알려진 바는 없다. 전체적인 멩두 전승양상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위와 같은 의도적인 제절멩두의 습득은 그 사례가 많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위의 박씨 조상의 제절멩두가 정의 출신 심방에 의해서 발굴되고 난 뒤 전승이 이루어진 경로가 매우 흥미롭다. ①우도 연평의 당 매던 박씨 조상→②정의(旌義) 출신의 심방→③신양리의 현차순 심방→④사탕밭 할머니→⑤양정순에게로 이어지는 매 단계마다 독특한 사정이 눈길을 끈다.

①의 멩두를 ②가 의도적으로 습득하였는데 ②에게 단골이 잘 늘지 않자 ②는 조상을 방치한다. 단골이 별로 없으니 멩두를 사용할 기회가 없게 되고 멩두를 잘 관리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②가 어렵게 멩두를 구하고도 단골문제로 조상을 방치하게 된 데에는 멩두를 얻음으로써 단골이 늘기를 바랐으나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심방사회에서는 심방과 멩두가 서로 잘 맞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멩두가 자신에게 ‘테운(타고난)’ 조상이면 무업활동이 원활하다고 믿는다. 멩두의 전승이 단골판을 확보하고 무업활동의 유지하기 위하여 행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런데 ③이 보기에는 ②가 조상을 방치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 오히려 자신이 ②를 대신하여 멩두를 관리하고자 노력하였다. ③은 멩두가 조상이므로 함부로 방치할 수 없다고 인식한 것이다. 작은곳을 맡을 때는 자신의 멩두를 가지고 가지만, 큰곳이 나면 박씨 조상을 함께 가지고 가서 곳판에서 멩두를 대접하였다. 멩두가 당주에만 머물러 있고 곳판에서 바람을 쐬지 못하면 좋지 못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③은 멩두가 신성(神聖)을 지닌 조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한 것이다.

③이 사망하자 ④가 멩두를 가져갔는데 ④는 삼승할망이므로 사실상 멩두를 온전히 사용할만한 처지가 되지 못하였다. 삼승할망은 아기의 출산을 돕거나 산육과 관련하여 간단한 비념을 하는 존재이다. ④는 굿은 하지 않고 아기비념을 주로 하는 이였으니 사실 멩두를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 ⑤가 ④를 찾아가 멩두를 달라고 하니 ④는 마지못하여 멩두를 내어준다. 삼승할망인 ④에게 멩두는 반드시 필요한 핵심무구가 아닌 썸이다.

결국 박씨 조상은 ⑤에게 이르러서야 제대로 전승될 수 있었다. ⑤는 친가에 할머니가 심방이었다고 들었지만 할머니의 멩두를 물려받지는 못하였다. 현몽과 신병 체험을 통하여 심방이 되기로 결심한 뒤 멩두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박씨 조상과 만나게 된 것이다. 제절멩두가 비로소 후계자를 만나 물린멩두로 안정적으로 전환되었다. ⑤는 그 뒤로 박씨 조상을 가지고 무업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한편 ⑤는 나중에 다른 이에게서 멩두의 내력을 전해 듣는다. 박씨 조상은 제주도 화북 ‘개엄머리 시내울새 상석걸리’라는 곳에서 유래하였고 우도에서 당을 맡은 이였다는 것이다. 이는 제절멩두였으니 어느 정도 가능한 일이었다.

위의 <사례 28>에서 멩두의 무업조상 성격에 대한 극명한 인식을 알 수 있다. 단골이 없는 무업조상은 의미가 없다고 여겨 방치하는 행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골이 생기지 않는 것이 멩두의 탓만은 아니지만 정의 심방의 처지에서는 단골이 생기지 않자 박씨 조상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것이다. 위의 사례에서 제절멩두의 습득은 무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단골이 없자 해당 무구를 관리하지 않았다. 멩두의 전승과 단골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신기를 동반한 제절멩두의 습득이었다면 이렇게 멩두를 방치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신이한 체험을 동반한 제절멩두의 습득은 위의 사례보다 더욱 멩두의 신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위의 사례에서도 어떤 심방은 자신의 멩두가 아니어도 해당 멩두를 정성껏 모시고자 하는 행동을 보였기 때문이다.

제절멩두는 사장되었던 멩두가 다시 생명력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역시 의의가 있다. 이전 소유자 처지에서 생각할 때 자신의 무덤 앞 계절에 멩두를 묻은 것은 멩두의 보관에 가까운 것이다. 자신과 관련 없는 불특정한 장소에 유기하지 않고 무덤의 계절에 묻었으니 해당 멩두의 내력까지 온전히 유지하려 노력한 셈이기 때문이다. 언젠가 후계자가 나타나 멩두를 발굴하여 다시 전승이 이어지길 기대한 행위이다.

제절멩두의 물림이 제주도 무속사회에서 얼마나 보편적인 일이었는지 정확히 알기는 힘들다. 제절멩두의 경우 후계자에게 일정한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심방 후보자가 이런 형태의 물림을 선호하였을지도 의문이다. 해당 심방 집안의 후손이 제절멩두를 얻었다면 또 모르되, 타인관계에서는 멩두로 인한 평판이나 단골판과 같은 후광효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 심방 후보자가 신병 혹은 신기로

인하여 제절맹두를 얻었다면 맹두의 후광이 없더라도 그 영험성으로 인하여 모실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수소문하여 얻었을 경우 제절맹두의 물림에 여러 부침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5) 본향맹두의 물림

본향맹두는 마을의 당을 맡은 메인심방에게만 전승되는 것이니 일단 다른 맹두 유형에 견주어 세 가지 차이점을 말할 수 있다. 첫째, 후계자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둘째, 후계자의 선정에 단골이 영향을 미친다. 셋째, 본향맹두는 본향당과 하나의 조합을 이루어 전승된다. 따라서 본향맹두의 물림은 다른 맹두의 유형과 달리 마을공동체의 집단적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제주도의 모든 본향당에서 이와 같은 맹두 물림이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알기는 어렵다. 본향당의 메인심방 계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드러나 있는 자료가 더러 있다. 하지만 본향맹두의 전승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기존의 보고 자료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맹두의 내력에 대하여 깊고 구체적인 탐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능한 대로 본향맹두의 전승 사례를 살펴보자.

##### <사례 29>

맹두2는 태흥리 단골들이 태흥리를 단골관으로 삼던 김씨 할망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강금춘 심방에게 맹두를 맡아달라고 하였다. 단골들이 김씨 할망의 양자와 함께 강금춘 심방을 찾아와 집과 집터를 주면서 맹두를 맡긴 것이다. 현재 사는 집도 김씨 할망이 살던 집이다.<sup>83)</sup>

##### <사례 30>

성산을 온평리의 본향당은 안씨(남) 심방이 맡고 있다. 안씨가 소유한 맹두 2벌 가운데 하나가 본향당으로 물려오는 맹두이다. 본향맹두는 평소에는 본향당 안의 켜 속에 보관하고 당의 제일에는 꺼내어 사용한다.<sup>84)</sup>

<사례 29>에서 단골관을 맡던 메인심방은 후계자를 정하지 못한 채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다. 갑자기 메인심방이 없어지자 마을의 신당을 관리하고 의례를 진행하는데

83)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478~479쪽.

84) 서귀포시 성산을 거주 안씨(남) 심방 계보(2011년 3월 16일~3월 17일 / 서귀포시 성산을 온평리 영등굿에서 면담조사).

문제점이 생겼다. 그래서 전임 메인심방의 양자와 단골들이 해당 마을에 거주하는 다른 심방을 찾아와 메인심방을 맡아줄 것을 부탁한 것이다. 전임 메인심방의 멩두와 재산 일부가 함께 건네졌다.

<사례 29>에서 단골들이 나서서 멩두 물림을 주선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심방 개인들끼리 일반적인 멩두 물림이라면 단골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일 필요가 없다. 그러나 본향멩두의 경우는 단골들과 밀접하게 연결되므로 단골들의 관심이 크지 않을 수 없다. 후임 메인심방을 선정하여 본향멩두를 전승한다면 마을 신당의 의례 역시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메인심방의 본향멩두 물림은 단골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는 점이다.

<사례 30>에서도 본향멩두의 전승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현직 메인심방이 말하는 메인심방의 계보는 최씨→한씨→송씨 동기간→현씨 아지망→김씨→본인이다. 따라서 본향멩두도 이 심방 계보를 따라서 전승되어 왔다. 현직 메인심방과 직전 메인심방의 관계는 남남이었다고 한다.

이 마을의 본향멩두는 심방의 당주에 놓지 않고 본향당 안의 나무케 속에 넣어서 보관한다.<sup>85)</sup> 당의 제일에는 꺼내어 사용하고 당곳이 끝나면 다시 케 속에 넣어둔다. 본향멩두이니 본향당에 보관하는 것이다. 심방에 따라 본향멩두를 물려받은 뒤에 자신의 멩두와 함께 당주에 모시고 있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 마을은 본향당에 멩두를 모시고 있어 특별하다.

그런데 최근에 현직 메인심방이 본향멩두를 마을의 다른 당을 나누어 맡은 심방(여)에게 잠시 물려주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심방에게 거의 물려준 것과 같이 되었다고 한다. 마을 내에서 함께 활동하는 심방의 편의를 봐 준 것이다. 해당 심방이 마을의 신당을 나누어 맡고 있으므로 본향멩두를 물려주다시피 한 것이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다. 메인심방을 이을 후계자인 셈이라고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최근에 본향멩두를 물려받은 심방은 무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당주에 멩두를 모시고 있다. 마을에서 본향당의 나무케에 본향멩두를 모시는 전통이 바뀐 셈이다.

85) 이 마을의 본향당에는 본향멩두뿐만 아니라 과거 메인심방이었다고 전하는 문씨영감의 무쇠갓과 바당도 전한다. 문씨영감은 이 마을 당신본풀이에도 나타나는데 바다로 들어가 무구를 들고 나왔다고 하는 존재이다. 문씨영감의 무쇠갓은 실제 크기의 갓이 아니라 모형 갓과 같은 모양이다. 메인심방의 무구가 본향당에 대대로 전승되는 주목할 만한 사례이다. 게다가 문씨영감 묘의 별초를 마을 메인심방이 맡는다.

한편 본향멧두가 마을 단골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향멧두는 대대로 특정한 마을에서 전승된 멧두이기 때문에 역사가 깊고 그만큼 단골들이 멧두를 인정하고 권위가 있다고 여긴다. 메인심방의 무업능력과 별개로 본향멧두는 단골들과 깊은 교류를 지속하였으니 이미 그 자체로 영험한 무구이다. 아래에서 서귀포시 하효동과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두 마을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서귀포시 하효동의 본향멧두에 대한 제보를 살펴본다.

<서귀포시 하효동의 본향멧두>

심방은 고씨였다. 지금도 고씨 심방 멧두로 굿을 한다. 멧두는 과거 심방이었던 고씨와 고씨 부인에서 고○○와 고○○의 부인까지 9대 내려왔다. 고○○의 부인은 남편이 죽은 뒤에 심방으로 나서 멧두를 물려받았다. 원래 남편을 따라 다니는 수준이었지만 나중에 멧두가 고○○의 부인을 가르쳤다.<sup>86)</sup>

고○○의 큰아버지인 고병선이 하효동의 메인심방으로 큰심방이었다. 고병선과 고병선 큰부인, 강태옥, 고○○, 고○○ 부인 등으로 멧두가 내려왔다. 하효에는 고병선의 멧두가 중요한 것이다.<sup>87)</sup>

서귀포시 하효동의 원로인 두 주민 모두 과거 메인심방을 맡았던 고씨 집안의 내력과 심방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잘 알고 있다. 특히 큰심방이었던 고병선 심방과 그의 멧두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지금도 어촌계 해녀굿 등 마을굿은 고씨 심방의 멧두로 한다.

그런데 처음에 인용한 제보에서 “멧두가 가르쳤다.”라고 한 대목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메인심방인 고○○의 부인이 뒤늦게 굿을 배워 심방으로 나섰는데 이에 단골들은 멧두가 가르쳤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고씨 큰심방 집안의 멧두이므로 새로 나선 심방을 가르치고 인도한다고 여긴다. 마을에서 오랫동안 자리 잡은 멧두이므로 영험성과 높은 권위를 가지게 되었다.

한편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의 경우를 살펴보자. 이에 대해서는 시흥본향당본풀이를 참고할 수 있다. 시흥리 메인심방에게 실제 발생했던 일화가 본향당본풀이 안에 삽입된 것으로 보인다.

86) 서귀포시 하효동 주민 김인창(여, 1922년생) 제보(2009년 1월 22일 / 어촌계탈의장에서 면담조사).  
87) 서귀포시 하효동 주민 허영홍(남, 1928년생) 제보(2009년 1월 22일 / 하효마을회관에서 면담조사).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의 본향멧두>

짐씨(金氏) 허천 부씨(夫氏) 허천 송씨(宋氏) 허천 두루웨 할망 부씨할망 예레ㄷ·ㄷㅅ·ㄷ(十八歲)에 이 당을 메고 전득(轉得)ㅎ·는디, ……(중략)…… 겹인(甲寅) 오월(五月) 열나을날(十四日), 옷넷기(新豊里) 한주 아ㄷ·ㄷ 종다리(終達里) 교·놉 완 가다가 당집의 불이 베지근허여 시난 들어 가 앓아 ㅎ·ㄷ 말 두 말 수작(酬酌)ㅎ·단 수작 말을 안들으니 돌아들어 웬긱둥 췌여박아 웬긱창(左鼓膜) 돌아져 ㄴ·단긱둥 췌여박아 ㄴ·단긱창(右鼓膜) 돌아져, 발로 등(背) 가심(胸) 두르차 할망이 죽읍데다. 곡식(穀食)이멍 이복(衣服)이멍 멧두멍 다 짚어 놓고 불 캉 죽엇쟁 ㅎ·젠 헛불로 그시려 가심(胸)에 몬독불 살라두고 ㄷ·ㄷ아나 불고, 뒷날(翌日)은 부씨상단꺠(夫氏上丹骨)에서 ㅅ·ㅇ기(菜菔)ㅎ·레 오랏단 『할망, ㅅ·ㅇ기 앓당 먹읍서』 / ㅎ·ㄴ두번을 불러도 데답(對答)이 었이니 피라곡절(必有曲折) 이상ㅎ·다. 문을 열고 보니 천지 낙매(天地落命) 췌여 죽었구나./ 장훈지를 불려서/ 『부췌할망 죽어시니 상단꺠(上丹骨)에 거레(去來)ㅎ·라. 선씨(玄氏) 상단꺠에 거레ㅎ·라.』 / 선씨상단꺠에 거레ㅎ·니/ 『느가 당하니니 할망 원쉬(怨讐)를 가프라.』 그 날부며 장광(長廣) ㅅ·백리주(四百里周)에 멧기는디, ㅎ·를은 짐씨(金氏) 하신층 신디 오라/ 『문점(問占)ㅎ·레 왔노라.』 / 『어서 기영ㅎ·ㅅ서.』 / ㅎ·멍 내놓는 걸 보난 부씨(夫氏)할망 멧두라/ 『이 멧두가 어디서 난 멧두냐.』 / 『한주아ㄷ·ㄷ신디 샏수다.』 / 『버치지 말라.』 / 천문(天門) ㅎ·나 상잔(床蠶) ㅎ·나 앓다 단 선씨(玄氏) 상단꺠에 바찌니, 선씨 상단꺠이 한주아ㄷ·ㄷ 심어단 귀양정배(定配) 보내고 할마님 원시(怨讐)를 가폼데다.<sup>88)</sup>

부씨할망이라는 메인심방이 어느 날 신흥리 출신의 한주 아들이라는 이에게 봉변을 당하여 죽었다. 한주 아들은 부씨할망의 멧두를 가지고 도망가 버렸다. 단골들은 죽은 메인심방을 발견하고 멧두가 사라진 것을 알고는 멧두를 찾고 메인심방의 복수를 하고자 하였다. 두루 수소문 한 끝에 결국 멧두를 찾고 원수를 갚았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보인다. 도둑맞은 메인심방의 멧두를 단골들이 합심하여 찾는다는 점이다. 마을 메인심방의 멧두는 비단 심방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마을 단골들이 신앙적으로 함께 공유한다는 것이다. 본풀이에는 부씨할망의 멧두가 본향멧두인지 명확한 언급은 없으나, 본풀이의 맥락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본향멧두일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마을 단골들의 신앙생활과 밀접한 멧두는 마을 차원에서 관심을 갖는 중요한 무구이다.

본향멧두의 물림은 다른 멧두 유형의 물림에 견주어 제한적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후계자의 선정 범위나 단골의 관여, 본향당과의 조합이라는 측면이 함께 연동하

88) 玄容駿, 『濟州島巫俗資料事典』, 683~685쪽. 인용문의 / 표시는 행 나눔을 줄이기 위하여 필자가 삽입하였다. 시흥리본향당본풀이는 내용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양창보 심방 본풀이』(허남춘 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392~395쪽)에도 수록되어 있다.

여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전 소유자가 본향멥두를 특정 후계자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일이 아니다. 또한 특정인이 본향멥두의 후계자를 자처한다고 해서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도 아니다. 본향멥두만의 전형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메인심방으로 들어서는 이는 본향멥두로 인하여 여러 벌의 멥두를 모실 수도 있다. 해당자가 무업활동을 시작하면서 이미 멥두를 마련한 상태에서 나중에 특정 마을의 본향당을 맡아 본향멥두를 얻었다면 복수의 멥두를 모시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대대로 당을 맡은 집안의 후손이라면 자신의 멥두가 곧 본향멥두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은 자신의 멥두와 본향멥두를 이중적으로 소유하게 된다. 제주도 무속사회에서 심방은 한 벌의 멥두를 모시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본향멥두의 물림은 이러한 오랜 원칙에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전승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 2) 멥두 관리

심방은 멥두 물림을 통하여 얻은 멥두를 무업을 지속하는 기간 동안 조상으로 잘 모셔야 한다. 멥두는 단순한 무구가 아니기 때문에 심방이 그저 간수하는 정도로만 그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멥두를 일상에서나 의례에서나 잘 보관할 장치가 필요하기 마련이다. 또한 멥두가 무구이다 보니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물질적 훼손이 생기므로 그에 따라 적절한 보수도 해주어야 한다. 멥두의 보관을 넘어서서 관리까지 관심을 두어야 자신의 무업활동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무업을 그만두면 나중에 후계자에게 물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심방은 대개 하나의 멥두를 물려받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복수의 멥두를 모실 수도 있다. 멥두가 여러 벌이라 하여 이를 모시고 보관하는 것에 별다른 차이점은 없다. 하지만 멥두 각각의 내력과 전승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심방이 보관하고 관리하는 데에 일정한 기준이 있을 수 있다. 때로는 멥두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관리하는데 애를 먹을 수도 있다. 나중에 멥두를 물려줄 때에도 근심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심방이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도 있다.

심방이 멩두를 전승하였다는 행위는 멩두를 보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까지 이를 수밖에 없다. 이는 다음 후계자에게 전승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멩두를 관리하는 양상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 (1) 멩두 보관

멩두는 평소 심방 자신의 집안에 마련한 당주에 모신다. 멩두를 소유한 심방이라면 누구나 당주를 설립하였다. 심방이 되면서는 “당주를 무은다.”고 하고, 무업을 하직할 때는 “당주를 지운다.”고 하여 당주는 심방의 일생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심방에게는 일종의 개인 신당(神堂)으로 신성한 공간인 셈이다.

그런데 심방이 멩두를 안치하는 당주를 왜 신성한 공간으로 인식하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당주라는 특정한 장소를 마련하여 멩두를 보관하는 데에는 마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멩두의 유래를 말하는 초공본풀이에서 해답의 단서를 찾아보기로 한다. 아래의 인용을 살펴보자.

어명국(母)을 살려단 어주에 삼녹거리 탕즈남 유즈남(柚子木) 벌목(伐木)을 비여다 위 높고 가지 높아 천아대궐(天下大闕) 무어놓고 일천기덕(一千器德) 삼만제기(三萬祭器) 연당 우으로 우올려 너사메너도령 연당 알(下)로 「일천기덕을 직하라」 하여두고 어머니은 천아대궐을 직하여 동이와당 췌처리 아들 불러단 계상잔 계천문 천양낙화 백물래(白砂)로 본매 놓아 일월 삼멩두를 지어 연당 우으로 우올리고 일월(日月)이 희롱하는 시왕대반지를 마련허연 양반의 원술(怨讐) 가프젠 삼시왕(三十王)으로 올라간다. …… (중략) …… 전새남을 흐젠 흐난 일천기덕(一千器德)이 었어져 삼시왕(三十王)에 신원(伸冤)허연 천아대궐(天下大闕) 금법당(金法堂)에 「일천기덕 삼만제기(三萬祭器) 내여줍서」 허였더니 불도땅에 들어가 물멩지 전대(明緋戰帶)로 목을 걸러 대추남이저올로 저올리니 유정승따님아기 백근(百斤)이 차왔구나. 일천기덕 삼만제기 궁전궁납을 내여주니<sup>89)</sup>

초공본풀이 후반부에는 삼형제가 당주집을 지어 어머니와 너사무너도령으로 하여금 ‘일천기덕 삼만제기’라고 하는 무구 일체를 지키도록 하는 내용이 나온다. 더 나아가 무구를 마련하러 유정승따님아기가 찾아오니 당주집에서 멩두를 중심으로 하는 무구의 전승이 이루어진다. 당주의 신성함은 이 대목과 깊은 관련이 있다.

삼형제 자체는 저승 삼시왕으로 올라가지만, 삼형제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멩두는

89) 玄容駿, 위의 책, 173~175쪽.

당주에 남는다. 삼형제에 의하여 어머니와 너사무녀도령은 당주에 좌정하여 무구를 지키는 신이 되었다. 당주는 초공본풀이라는 신화적 전거를 바탕으로 신이 좌정하는 특별한 곳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주의 장식물을 보아도 드러난다. 기메의 하나인 ‘살장’과 ‘육고비’를 걸어놓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특히 육고비는 무업조상 삼형제와 무악기의 신인 너사무녀도령 삼형제의 결연을 뜻하는 종이무구이다.<sup>90)</sup> 당주는 초공본풀이의 의미를 재현하는 공간인 셈이다.

당주는 초공본풀이에 의하면 ‘어주에 삼녹거리 서강베포땅’에 존재한다. 이 곳은 이승과 저승의 사이에 있다고 여겨지는 장소이다. 삼형제는 이른바 중간계(中間界)라 할 수 있는 곳에 당주를 설립하여 무구를 보관한 것이다. 삼형제는 저승으로 가면 저승 삼시왕이며 이승으로 내리면 삼하늘 삼명두로 들어선다고 한다. 당주는 두 세계가 공존하는 특별한 장소로 여겨진다. 따라서 아무나 당주에 갈 수 없다. 무업과 관련한 특별한 사람만이 당주에 갈 수 있다. 당주는 평범한 이들과는 상관없는 공간이다. 심방은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존재이니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이인 셈이다. 살아살축 삼맹두라는 이름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심방의 존재양상을 유추할 수 있다.

맹두는 당주에 보관되며 또한 당주를 통하여 전승된다. 본풀이에서 유정승따님아기가 무구를 얻으러 찾아간 곳인 천하대궐은 곧 당주였다. 삼형제와 어머니인 자지맹왕아기씨, 너사무녀도령 등이 유정승따님아기와 처음 결연한 곳이 바로 당주이다. 이는 무업조상과 심방 후보자의 첫 대면이라고 할 수 있다. 유정승따님아기는 당주를 찾은 뒤 심방의 자격이 있는지 시험을 거쳐 결국 맹두를 포함한 무구 일체를 전승받을 수 있었다. 당주에서 맹두의 전승이 이루어졌다는 명확한 신화적 전거이다. 따라서 심방들은 당주에 맹두를 모시는 것을 마땅한 이치로 알고 신성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

현실에서 당주는 심방집 안에 모신다. 예전에는 당주를 ‘고팡’에 모셨다. 고팡은 제주의 민가에서 곡식을 저장하는 곳이다. 고팡의 한쪽 벽면에 선반을 달아 당주를 모셨다. 또는 나무로 ‘당주궐’을 만들어 그 안에 맹두를 모시기도 한다. 이렇게 당주를 모신 곳을 ‘당춧방’이라고 불렀다. 일반 민가에서는 고팡이 곡식저장고에 그치지만, 심방 집에서는 곡식저장고이자 신당으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90) 육고비는 제주 무속에서 사용하는 종이무구인 ‘기메’의 하나이다. 초공본풀이의 삼형제와 너사무녀도령 삼형제가 의형제를 맺어 모두 육형제가 되었음을 상징한다. 종이를 각각 접어 6개를 만들고 대나무 가지에 걸어 놓았다. 접은 종이마다 동심결이라고 부르는 매듭을 묶었다. 강소진, 「제주도 곳의 무구 ‘기메’에 대한 고찰」, 『한국무속학』 13집, 한국무속학회, 2006, 118~119쪽 참고.

심방들이 당주를 왜 고팡에 설립하였는지 궁금하다. 우선 이를 이해하기 위한 단서를 제주도에 전승하는 조상신본풀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참고할 조상신본풀이는 현씨일월본풀이와 원당할망본풀이이다. 두 본풀이는 심방과 관련한 조상신본풀이라는 특성이 있다. 아래의 인용을 참고하자.

<현씨일월본풀이>

안칠성광 동서 곁에 ㄹ치 앓앙 고리칠셀 올려그네, 메 하나 두 그릇씩 농곡 썸 하나 농곡, 감 두 개 노아건 안칠성 동서 곁으로 제사 때랑 우리적선 흥·곡.91)

<원당할망본풀이>

야속하고 원통하면/ 양반광 곁이/ 기일제스 스멩질을/ 받아먹을 수 엇노라/ 안으로 안칠성으로/ 위하여 도라.”/ 흥난/ 안칠성으로 우양흥곡/ 밧칠성으로 나누어/ 성손 외손 동니 친근에/ 밧이 벌곡 줄이 벌던/ 조상이우다.92)

현씨일월본풀이의 내용을 보면 단골들에게 자신을 위한 제물을 안칠성 옆에 함께 올리라고 하였다. 현씨일월이 조상신으로 좌정한 곳은 안칠성이 있는 고팡이었다. 현씨일월은 안칠성과 서로 동서(同壻) 사이라고 여기며 기일제사 때에 함께 모시라고 말하는 것이다.

원당할망본풀이에서도 원당할망은 양반과 함께 기일제사와 명절을 받아먹지 않겠다며 안칠성으로 위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곧이어 밧칠성이 언급되어 마치 제주도 무속의 칠성신앙(안칠성, 밧칠성)처럼 여겨지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 안칠성은 제주의 ‘안칠성/밧칠성’ 신앙이라기보다는, 제장(祭場)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93)

현씨일월과 원당할망이라는 두 조상신이 좌정하고 기일제사와 명절 등의 의례를 위하여 제물을 올리는 곳은 다름 아닌 고팡이다. 현용준은 조상신은 상설적인 제장이 없이 필요한 때에 집에서 곳을 하여 청해 위하는 집안이 있는가 하면, 울타리 안의 뒷꼐 또는 집 안의 고팡(庫房:곡물을 보관하는 방)에 상설적으로 모시는 집안도 있는데, 전승을 종합해 보면 후자가 본래적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언급하였다.94)

91)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白鹿語文』 5집, 358쪽 참고.  
 92) 秦聖麒, 앞의 책, 694~695쪽. 인용문의 / 표시는 행 나눔을 줄이기 위하여 필자가 삽입하였다.  
 93) 강소진, 「심방 관련 조상신본풀이의 형성과 전승」, 160쪽.  
 94) 玄容駿, 『濟州島 巫俗 研究』, 166쪽.

이를 참고하면 제주에서 조상신을 특정한 장소에 모실 때는 바로 고팡을 이용하였다는 말이 된다. 심방의 무업조상인 멥두도 따지고 보면 조상신이다. 멥두를 일러 ‘일월삼멥두’라 하는 것도 조상신의 면모를 나타내는 것이다. 멥두라는 조상은 무구라는 물질로 표상되니 무구를 둘만한 상설적인 공간이 필요하다.

조상신을 상징하는 특정한 물질을 고팡에 두고 모시는 사례는 일반적이다. 이용옥이 구연한 이씨불도할마님본풀이에서도 이씨 할마님이 오합상자(烏合箱子)를 안고팡에 두고 불도조상을 모시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sup>95)</sup> 따라서 멥두 조상을 고팡에 모시는 것은 제주도 무속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다. 고팡에 선반을 설치하거나 나무대를 이용하여 이른바 당주라는 공간을 설치한 것이다. 무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 가지고 오는 재미(齋米)를 고팡에 두는 현실적 편리성도 있겠다.

한편 근래 들어서는 민가의 형태가 양옥(洋屋) 구조로 점차 변화하면서 예전에 고팡에서 당주를 모시던 모습은 많이 사라졌다. 대신 집안의 한 방을 택하여 장롱이나 장식장 등을 놓거나 벽장이나 붙박이장을 만들어 그곳을 당주로 삼는다. 장롱이나 장식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가구점에서 파는 일반적인 형태의 것을 사다가 쓴다. 장롱이나 장식장은 2단 혹은 3단 구조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랍도 있기 때문에 무구를 구분하여 놓기 편하다. 여닫이문이 달려 있어 문을 닫으면 외부에서 당주임을 쉽게 알아차리기 힘들다. 벽장에 당주를 설립하였을 경우에는 그 앞으로 가리개를 설치하기도 한다. 당주의 위치나 방향에 특별한 기준을 두지는 않는다.<sup>96)</sup>

## (2) 멥두 관리

95) <아이고 할마님은 안고팡에/ 오합상지(烏合箱子) 책갑(冊匣)을 모산/ 에~ 불도(佛道)를 모시난/ 할마님은 아덜 눈칠 보아간다/ 아덜은 어멍 눈치만 보는 것이/ 그때엔 할마님 아멩해도 아니 웹직허난/ 고팡더래 놀려 들언/ 오합상지 불도를 안안 오난.> 인용문의 / 표시는 행 나눔을 줄이기 위하여 필자가 삽입하였다.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앞의 책, 443~444쪽.

96) 근래 들어 심방들이 현대식으로 마련한 당주에서 멥두를 비롯한 각종 무구를 놓는 양상을 보면, 가장 중심이 되는 위쪽 선반에 핵심무구인 멥두를 놓는다. 멥두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무구의 하나인 ‘바랑’도 함께 놓는다. 그 외에 ‘육간제비’ 같이 심방이 개인적으로 모시는 다른 조상이 있으면 그것도 함께 모신다. 멥두 주위에는 촛대를 놓아 항상 초를 켤 수 있게 한다. 또 향로와 향, 술잔, 쌀그릇, 실, 과일 등도 놓는다. 당주의 아래쪽 선반에는 보통 무악기인 연물을 놓는다. 이밖에 곳에 쓰이는 각종 무구 등도 놓는다. 갓이나 무복, 한지, 각종 ‘드리’로 사용되는 천 등이다. 만약 서랍이 있으면 적절히 분배하여 넣어둔다.

### ① 멩두 합침

멩두를 합친다는 것은 여러 벌의 멩두를 녹여 쇠를 섞는다는 말이다. 여러 벌의 멩두는 각각 그 전승되는 내력이 따로 있을 터이다. 그런데 이런 개별적인 양상에 개의치 않고 쇠를 녹여 서로 다른 내력의 멩두를 합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궁금하다. 아래에서 멩두를 합친 사례를 살펴보고 논의를 이어간다.

#### <사례 31>

어머니는 물려받은 멩두가 많았다. 선홀에서 심방일 할 때 만들어 쓰던 것이 1벌이고, 외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3벌(1벌은 외할아버지 것, 1벌은 외할머니인 김씨할망 멩두. 신칼은 1벌 뿐)이다. 또 하도리 송씨할망(37세~67세까지 심방 일함. 세화리 문씨 집안에 시집갔다가 무병을 앓아 심방이 됨.)으로부터도 멩두 3벌을 물려받았다. 그 가운데 송씨 할망이 모시던 1벌은 ‘시(市)레 잡혀 불고’(지서에서 압수해가버리고) 물동산 최씨선생 멩두 포함 2벌이 남았다. 어느 해(33세 때 신질을 ‘발루고’, 신질을 ‘발루기’ 전에 멩두를 지어 왔다. 당을 전수한 31세부터 신질을 발룬 33세 사이가 된다.) 9월엔가 고심방이, 멩두가 너무 많아 자손들에게 짐이 될 듯하여, 외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멩두 1벌은 그냥 두고, 나머지 모두를 동과양 황씨대장 불미에 가지고 가서 한데 녹이어 1개로 만들었다.<sup>97)</sup>

위의 <사례 31>에 등장한 멩두를 멩두의 유형별로 따져 한번 정리해보자. 첫째, 물린멩두는 외가로부터 물려받은 세 벌이다. 둘째, 본향멩두는 마을 메인심방인 송씨할망으로부터 받은 두 벌(지서에 압수된 한 벌은 제외)이다. 셋째, ㅈ·작멩두는 어머니가 선홀에서 만든 것과 자신이 신곳을 하기 전에 스스로 만든 것을 합하여 두 벌이다. 결국 모두 일곱 개의 멩두를 소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나중에는 해당 심방이 멩두가 너무 많아 자손들에게 짐이 될 것이라고 여겨 멩두를 합치기에 이른 것이다. 결국 외가로 물린 외할아버지 멩두 한 벌은 그냥 두고, 나머지 멩두 모두를 한데 녹여 한 개로 만들었다.

위의 <사례 31>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 가지 질문이 필요하다. 첫째는 멩두를 이렇게 많이 물려받는 것이 과연 적절한 일인가 하는 질문이다. 둘째는 멩두를 합치는 이유와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다. 셋째는 멩두를 합친 뒤에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질문이다.

첫째, 위의 <사례 31>에서 해당 심방은 친가와 외가가 모두 심방 집안이다. 또한 특

97) (사)제주학연구소, 앞의 책, 166쪽.

정 마을의 신당을 맡은 메인심방이기도 하다. 내력이 있는 심방 집안인데다가 메인심방이기도 하니 자연히 멥두를 다수 물려받을 만한 조건이 갖추어진 셈이다. 물론 사정이 이렇다고 모든 심방이 다수의 멥두를 물려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심방에 따라서는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 불균형이 생기면 자신이 감당해야 할 경우도 생긴다. 하물며 무업활동을 위하여 ㅈ·작멥두까지 하였으니 멥두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심방들은 원칙적으로 멥두를 여러 벌 물려받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는다. 조상을 모셔두기만 하고 사용할 일이 별로 없으면 그 조상이 잘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굿관에서 멥두를 사용해야 그 조상도 신명이 나고 대접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중에 조상을 물려줄 때는 금전적 대가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히 멥두가 많아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근래 들어 전통적인 심방이 점점 사라지면서 멥두의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면서 멥두를 관리하는 애로점이 늘고 있기도 하다.

둘째, 위의 <사례 31>에서 멥두를 합친 이유는 멥두의 개수를 줄이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과감히 두 개로 정리하였다. 이때 멥두를 분류한 기준은 외할아버지 멥두였다. 해당 심방은 외가의 물린멥두 가운데서도 외할아버지의 멥두를 특히 중시하여 그냥 그대로 보존하였다. 하지만 나머지 멥두는 서로 이질적인 출처와 내력인데도 불구하고 모두 하나로 합쳤다. 예를 들어 외가로부터 물려받은 멥두 세 벌을 하나로 하여 합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 외할머니의 멥두는 오히려 본향멥두와 ㅈ·작멥두 등과 섞였다.

멥두를 합칠 때의 기준은 멥두가 전승되어 온 내력이나 심방의 인간·사회관계를 두루 고려하여 따진다. 아무 멥두나 합치나 것이 아니고 여러모로 순리에 맞는 멥두를 합치는 것이다. 그러니 가족관계의 멥두라 하여도 이혼관계이거나 처첩관계 등 곤란한 여러 사정이 있으면 대개 합치지 않는다. 또 멥두의 자체 성격도 고려한다. 예를 들어 ‘돛제[豚祭]’를 받는 멥두는 그렇지 않은 멥두와는 다를 수밖에 없으니 둘을 합치기는 힘들다. 이런 점을 바탕으로 심방마다 멥두를 합치는 기준은 다를 수 있다.

셋째, 위의 <사례 31>에서 일곱 개의 멥두가 두 개의 멥두로 줄어들었다. 외할아버지 멥두는 내력이나 속성이 원래대로 고유하게 유지되었으니 자연스럽게 외가에서 물려받은 멥두로 인식한다. 반면에 나머지 여섯 개 멥두들은 모두 하나가 되었는데 심방은 이 멥두를 본향멥두로 인식하고 있다. 본향멥두의 내력과 속성을 중시하였다는 말이다. 그러나 새로운 본향멥두에는 원칙적으로 쇠를 섞은 각각의 조상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서로 이질적인 조상들이 하나의 멧두에서 공존하고 있는 모양이다.

한편 멧두 합침과 관련하여 다른 흥미로운 사례가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멧두의 내력과 속성을 조정하기 위하여 멧두를 합친 사례이기 때문이다. 멧두 합침이 개수를 조정하는 목적 외에도 다양하게 행해지고 있는 양상을 알게 해준다. 아래의 사례를 검토해보기로 한다.

<사례 32>

제주시 삼도동 거주 강씨(여)의 멧두는 모두 두 벌이다. 하나는 큰할머니인 큰심방 김씨에게서 물려 큰아버지를 거쳐 내려온 멧두이고, 다른 하나는 남편인 한씨가 췌동녕을 해서 직접 만든 자작멧두이다. 그런데 큰아버지가 조상을 두 개 놓으면 서로 투기해서 싸움이 나고, 조상이 싸우면 부부가 싸운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의 생전에 동광양에 있는 황대장에게 가서 두 멧두를 하나로 녹여 섞은 쇠로 다시 두 벌을 만들었다. 김씨 할머니 멧두를 본메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김씨 할머니 멧두는 큰 조상이고, 남편 한씨의 멧두는 작은 조상이 된다. 큰 곳을 가면 두 개 모두 가져가고, 작은 비념 등에는 서로 교대하면서 한 개를 가져간다.<sup>98)</sup>

하나의 멧두는 집안에서 전승되는 내력 있는 물린멧두였고, 다른 하나의 멧두는 아무 내력도 없이 당대에 만든 자·작멧두였다. 해당 심방 집안에서는 두 개의 멧두가 존재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겼는지 이를 합치고자 하였다. 이유는 조상이 여럿 있으면 서로 투기하고 싸움이 나며 자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력이 다른 두 개의 멧두를 합쳐 쇠를 섞은 뒤 다시 두 개로 나누어 만들었다. 쇠가 서로 섞였으니 멧두의 내력도 섞인 것이라 여겼다. 두 멧두의 속성을 동일하게 만들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멧두를 합쳐 다시 만들 때에 집안의 물린멧두를 본메로 놓았다. 본메가 같으니 멧두는 더욱 내력으로나 형태로나 동일한 멧두가 된 셈이다. 또한 집안의 중심 멧두를 본메로 놓고 합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큰조상’과 ‘작은조상’이라고 하여 순리적으로 관계를 정립할 수 있었다.

위의 <사례 32>에서 조상이 여럿이면 서로 투기하고 이로 인하여 심방도 싸우게 된다고 하는 인식은 결국 멧두를 여럿 모시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비록 현실적인 이유로 멧두를 다시 두 개로 만들었으나 멧두 조상의 내력은 일원화하기를 원하였다. 여기에는 두 개의 멧두 사이에 내력의 불균형이 심하자 이를 해

98) 제주시 삼도동 거주 강씨(여) 심방 제보.

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 당대에 만든 ㅈ·작멩두에 집안의 물린멩두 내력을 심어준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 ② 멩두 보수

멩두를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신칼은 부러지거나 천문과 상잔은 깨어지기도 있다. 이들은 무점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바닥이 단단한 곳에서 던지거나 내리치면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손상을 입은 멩두를 계속 방치하면 심방이 무업활동을 하는데 불편할 수 밖에 없다. 멩두는 춤을 출 때도 사용하고 의례에서 소도구로 쓰이기도 하며, 특히 산막음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멩두를 계속 보수하면서 사용해야 한다. 멩두를 보수할 때에는 용접하거나 아예 새로 만들기도 하고 교체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먼저 멩두를 기술적으로 용접하거나 새로 만드는 방법부터 알아본다. 아래의 사례를 살펴보자.

### <사례 33>

멩두1(큰멩두)은 부친이 곳을 하러 가지고 갔다가 신칼 하나가 다른 심방 신칼과 바뀌는 바람에 천문, 상잔과 함께 녹여 다시 만들었다. 신칼3은 칼날과 손잡이 사이의 이른바 ‘신칼목’이 부러져 용접하여 붙인 흔적이 있다. 천문1은 15년 전쯤에 깨지는 바람에 상잔과 함께 다시 만든 것이다. 본래는 해와 달 모양 대신 큰 대자(大字), 열 개자(開字)가 양각되어 있었다고 한다. 상잔3은 바닥이 깨져서 붙인 흔적이 있다.<sup>99)</sup>

### <사례 34>

천문은 원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을 사용하다가 최근에 다시 장만하게 됐다. 오랫동안 곳을 하다 보니 깨져버려 특수용접으로 보수를 하면서 사용했는데, 또 깨어져 어쩔 수 없이 2006년 5월에 다시 만들었다. 천문은 물려받은 것이므로 기존의 천문에 쓰였던 쇠를 조금 섞고 그 본메를 떠서 새로 만들었는데 크기는 예전보다 조금 작아졌다. 천문 제작은 경기도 군포의 국립공예사에서 했다. 천문에는 하늘 천(天)과 문 문(門) 자가 새겨져 있으며, 가운데는 구멍이 뚫려 있다. 뒷면은 매끈하다. 그런데 예전에 쓰던 천문의 글자와 새로 만든 천문의 글자가 서로 좌우가 바뀐 상태이다.<sup>100)</sup>

### <사례 35>

박씨 조상 멩두를 30여년 이상 옛날 그대로 쓰다가 나중에 60대 후반에 삼양의 대장간에 서 다시 새로 본메를 놓아서 만들었다. 예전 박씨 조상 신칼의 칼날에는 ‘용틀임’이라고 하는

99)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449~451쪽과 460~461쪽에서 요약정리.

100) 국립문화재연구소, 위의 책, 417쪽.

무늬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현재 신칼에는 용틀임 무늬가 없다. 이는 신칼을 다시 만들 때 대장간 사람의 기술이 서툴러서 못 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그냥 무늬 없이 하도록 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천문도 원래 것에서 본메를 놓아 새로 만든 것이다. 상잔도 옛 것이 깨어져서 다시 만든 것이다.<sup>101)</sup>

<사례 36>

제주시 건입동 거주 정씨(남)는 수양아버지 격인 강씨(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거주)에게서 멩두(강씨 장인의 멩두)를 물려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멩두 가운데 신칼 하나가 부러지는 바람에 원래 쇠에 다른 쇠를 좀 섞어서 누님인 이씨의 조상을 본메 놓고 다시 만들었다.<sup>102)</sup>

<사례 33>의 멩두1은 굿판에서 신칼 하나가 바뀌는 바람에 신칼뿐만 아니라 천문과 상잔까지도 모두 바꾼 경우이다. 신칼과 천문, 상잔이라는 한 벌을 하나의 조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굿판에서 신칼이 다른 이의 것과 바뀌었다고 해서 멩두 전체를 새로 만들었다는 것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해당 심방과 만나 신칼을 다시 교환하면 될 터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자세한 사연은 알 수 없지만 해당 심방과 만나 신칼을 교환하는 것이 여의치 않자 새로 제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줄지에 신칼과 산판의 내력이나 전승과정이 서로 이질적으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를 한데 모아 쇠를 섞어 다시 제작하였고 비로소 멩두의 동질성을 갖출 수 있었다.

<사례 34>에서는 천문이 깨지자 계속 용접하며 사용하다가 결국 다시 제작하였다. 새로 만들 때에 기존에 쓰던 천문의 쇠를 조금 섞어서 만들었다. 비록 다시 제작하는 것이지만 기존의 쇠를 조금 섞었기 때문에 과거의 천문과 동일하게 된다. 또한 그래야 과거 천문이 지닌 조상의 내력과 영력(靈力)이 그대로 전해진다고 믿는다.

<사례 35>는 멩두를 오래 쓰다 보니 많이 닳고 깨져 새로 본메를 놓고 멩두 일체를 다시 장만한 것이다. <사례 35>의 멩두는 제절멩두였는데 새로 본메를 놓음으로써 그 형태는 달라졌다.

<사례 36>에서는 신칼이 부러지는 바람에 다시 만들었다. <사례 34>처럼 원래의 쇠를 조금 섞어 신칼의 내력과 영력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때 신칼을 다시 만들면서 다른 이의 멩두를 본메 놓았다는 점이다. 원래 강씨의 장인이 쓰던 멩두였지만 새로 제작하면서 자신과 밀접한 누님 멩두의 본메를 사용함으로써 형태가 변화하고 조상내

101) 국립문화재연구소, 위의 책, 427쪽과 435~436쪽에서 요약정리.

102) 제주시 건입동 정씨(남) 심방 제보.

력이 더 붙게 되었다.

한편 네 개의 사례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멍두를 새로 보수하는 과정에서 원래의 모양이 사라지거나 혹은 추가되거나, 크기가 변한다든가 모양이 바뀌는 일이 발생하였다. <사례 33>의 천문1은 글자가 없어진 대신에 해와 달이 추가되었다. <사례 34>의 천문은 크기가 작아지고 대장장이의 실수로 글자의 좌우가 바뀌었다. <사례 35>의 신칼에는 제작자의 기술 미숙으로 ‘용틀임’ 무늬가 자취를 감추었다. <사례 36>에 서는 다른 이의 본메를 놓았기 때문에 형태에 변화가 일어났다.

즉 단순히 용접하거나 때우는 수준이 아니라 새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대장간의 기술 수준이나 본메에 따라 본래의 모양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런 변형이 왔다 하더라도 심방들은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는 듯하다. 위의 세 개 사례의 해당 심방들은 모두 멍두의 모양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 크나큰 문제라고 탄식하거나 다시 보수하려는 행동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멍두의 글자, 무늬, 모양 등이 멍두에서 변할 수 없는 핵심요소는 아니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다.

멍두의 글자, 무늬, 모양 등이 사정에 따라 변형될 수도 있는 것이라면 초공본풀이에서 멍두의 형태와 관련하여 제시한 신화의 서사들은 어떤 의미인지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천문에 새겨진 글자는 초공본풀이에서 유래한 것이다. 황금산 주접선생이 자신을 찾아온 삼형제에게 어떻게 왔느냐고 묻자, 삼형제는 하늘과 땅을 보면서 왔고 물으면서 왔다고 하였다. 이런 신화적 서사가 그대로 천문에 글자로 새겨졌다. 따라서 천문에 새겨진 글자는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상징이다. 그런데 <사례 33>의 천문1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 글자가 없어지고 해와 달이 추가된 것이다.<sup>103)</sup>

또한 신칼의 형태에 깃들어 있다고 하는 초공본풀이의 내용을 생각해보자. 심방들은 신칼의 구체적인 모양마다 각각 초공본풀이의 서사를 투영함으로써 단순한 칼이 아니라 신성한 칼임을 드러내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에 이미 보고된 바 있다.<sup>104)</sup>

<사례 35>에서 신칼의 칼날에는 원래 용틀임이라는 무늬가 있었다. 신칼 칼날의 무늬와 관련하여 현용준의 보고에 의하면 뱀(만주에미)을 상징하며 삼형제가 서당의 아궁

103) 김만보 심방이 천문의 구멍은 달을 뜻하고, 나머지 부분 전체는 해를 뜻한다고 말하였다는 보고가 있다. 김현선, 「제주도 巫具 ‘삼멍두’와 ‘울쇠’의 전승적 연구」, 121쪽.

104) 玄容駿, 앞의 책, 423~424쪽.; 秦聖麒, 앞의 책, 774~775쪽.; 김현선, 위의 논문, 115~119쪽.;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488~489쪽.

이에 불을 뿜 때 갑자기 뱀이 나온 것에서 유래한다고 하였다.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보고에 의하면 역시 뱀이나 그 의미는 삼형제가 과거보러 가는 도중 배좌수 집을 나가는 데 삼도전거리에 청룡과 황룡이 길을 가로지른 것을 상징한다고 하였다. <사례 35>의 멥두를 소유한 양정순 심방의 해석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보고서에 덧붙여 서술되어 있는데, 삼형제가 배좌수의 꿈에 청룡, 황룡, 흑룡으로 현몽했던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한다.

신칼 형태의 의미를 보고한 자료를 참고하면 심방들마다 신칼의 형태와 초공본풀이의 서사에 대하여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 다르게 전승하고 있는 부분도 발견할 수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달라진다 하더라도 심방들은 신칼이 초공본풀이에 바탕을 두어 신성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한다.

멥두는 초공본풀이에서 신화적 기원을 찾을 수 있어서 더욱 특별하다고 여기는 무구이다. 당연히 멥두의 형태에도 신화적 상징이 담겨 있다. 그런데 멥두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가끔 이런 상징이 변형되거나 사라지는 경우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례의 멥두를 소유한 심방들은 아쉬움을 드러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는 않았다. 멥두 그 자체의 신성함과 내력을 보다 중시하며, 멥두의 표면적 형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수해야 할 사항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멥두를 교체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다만 멥두의 교체는 멥두의 보수와 관련하여 제한적인 의미로 서술하기로 한다. 신칼, 산판, 요령이라는 멥두 전체를 교체하는 것은 여기서 제외한다. 이것은 멥두를 보수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멥두 물림이나 멥두 제작 항목에서 다룰 만한 것이다. 여기서는 기존의 멥두 가운데 개별적인 무구의 교체에 대해서 서술한다.

멥두 가운데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보통 상잔과 요령이다. 상잔은 술잔 모양의 무구이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대체품을 구할 수 있다. 보통 단골집에 적당한 술잔이 있으면 달라고 청하여 상잔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요령도 종 모양의 무구로 비교적 단순한 형태이므로 단골집에서 얻거나 다른 심방에게서 얻기도 한다. 요령도 오래 쓰다 보면 종이 깨져 소리가 맑지 못하기 때문에 가끔 교체하는 대상이다. 교체하여 쓰지 않게 된 요령은 당주에 모셔둔다.

### ③ 멧두 기증

무업을 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보관을 목적으로 기증하는 것이다. 멧두를 물리는 이가 연로하거나 사망하는 등 무업을 그만두는 사정이 큰 원인이다. 주위에 마땅히 멧두를 물려받을 만한 이가 없는 사정도 고려한 결정이다. 과거에는 이런 사정일 경우에 대개 묘소에 함께 묻거나 적절한 장소를 택하여 유기(遺棄)하였다. 그러나 근래 들어 심방에 따라서 제절멧두나 유기를 피할 수 있는 형편이 될 수 있다면 단순 보관용으로라도 넘겨 관리해주기를 바라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아래 사례를 살펴보자.

#### <사례 37>

제주시 이도동 거주 신씨(여) 심방의 고향은 제주시 월평동으로, 성편(姓便)의 고씨 할머니가 월평의 본향당인 ‘다라콧당’을 매었던 심방이다. 신씨의 부모는 무업을 하지 않았다. 고씨 할머니의 멧두는 절에 맡겼다.<sup>105)</sup>

#### <사례 38>

멧두2는 기이한 인연으로 얻게 된 것이다. 25세에 눈이 멀어 심방이 되었는데 그 당시 어떤 할망 심방이 멧두포를 지어 다니다가 양창보 심방네 집에서 죽었다. 하는 수 없이 그 멧두를 물려 받았다. 이 멧두는 서울 모 대학의 교수가 가지고 갔다.<sup>106)</sup>

#### <사례 39>

이중춘 심방은 임종을 앞두고 가족과 제자인 서순실 심방에게 자신의 멧두를 박물관에 기증해 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이에 가족과 제자는 유언을 존중하여 하직긋을 마친 직후 국립민속박물관에 기증하였다.<sup>107)</sup>

<사례 37>에서는 멧두를 절에 맡겼다. 멧두는 조상이기 때문에 함부로 처리할 수 없어 인연이 닿은 절에 맡긴 것이다. 제주도에서는 무속과 불교 사이에 친연성이 높은 편인데 그런 습속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제절멧두를 만들거나 유기하는 것을 피하고자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모색한 것이다. 혹여나 인연이 닿은 심방 후보자가 생기면 다시 멧두를 취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사례 38>와 <사례 39>은 처리 방향이 비슷하다. 박물관에 멧두를 기증하는 방식은

105) 제주시 이도동 신씨(여) 심방 제보(2009년 9월 28일 / 제주철머리당영등굿보존회 사무실에서 면담 조사).

106)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467쪽.

107) 이중춘 심방은 2011년 5월에 사망하였고, 6월에 하직긋을 하였다. 하직긋에서 이중춘의 당주를 지우고 멧두는 곳이 끝난 직후 국립민속박물관으로 운송되었다.

근래 들어 심방들이 선호하는 형태이다. 과거에 견주어 전통적인 심방이 되고자 하는 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멥두를 함부로 방치하거나 유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사정만 허락한다면 박물관을 택하려고 한다. 박물관은 공공기관이니 곧 ‘나라의 기관’으로 가는 것이라 여겨 후탈이 없으리라 여긴다.

따라서 <사례 38>에서 양창보 심방은 어쩔 수 없이 멥두를 맡았으나 정상적인 멥두 물림은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에 대학교수의 방문이라는 적절한 기회가 오자 멥두를 내어주었다. 멥두의 처리가 애매하니 나름대로 공적인 기관에 보내려 한 것이다.

<사례 39>의 멥두는 이중춘의 것으로 25대나 전승되었다. 이중춘의 가족 가운데 무업을 하는 이도 없고, 주위에 멥두를 물려줄 만한 이도 없는 사정이라 박물관에 기증한 것이다. 박물관에서는 유서 깊은 멥두의 가치를 인정하고 연구와 전시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를 받아들였다.

<사례 39>에서 한 가지 짚을 점이 있다. 이중춘은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의 메인심방이었다. 사망 뒤에 마을 메인심방의 지위는 제자인 서순실에게 넘겨졌다. 이중춘과 그의 가족의 뜻도 있을뿐더러 마을 주민들도 평소 제자로 다니던 서순실이 당을 맡는 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중춘 집안은 행원리의 메인심방을 대대로 이으면서 멥두를 사용하였는데, 막상 서순실에게는 당만 전승하고 멥두는 박물관으로 가버린 셈이 되었다. 과거에는 멥두와 당이 함께 전승되었을 수 있었겠지만 달라진 시대환경으로 전승양상이 점점 바뀌고 있는 중이다.

멥두가 박물관으로 가면 사실 무구로서 역할은 끝나 버린다. 자료로서 효용을 가질 뿐 새로운 후계자를 만나는 일은 불가능하다. 박물관에 기증하는 일은 따지자면 곧 멥두의 폐기나 다름없는 셈이다. 박물관이 공공기관이자 연구기관이어서 멥두의 가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멥두의 폐기를 상쇄시키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적절한 후계자가 없으면 무덤의 계절에 묻거나 유기하였다. 이는 멥두 물림이 잠시 유보되었을 뿐이지 언젠가는 새로운 심방 후보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열어둔 행위이기도 하였다. 근래 들어 심방들은 후계자를 찾지 못하면 박물관에 기증하는 행위가 조상을 잘 모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역설적으로 멥두의 물림이 끝나는 멥두의 폐기와 다름이 없다.

#### 4. 멩두 전승과 심방의 무업활동

멩두의 유형을 파악하고 전승양상을 살펴보았다. 멩두는 심방이 입무하면서 마련하는 것이니, 멩두의 전승 역시 심방의 무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심방이 무업활동과 관련하여 멩두를 전승하는 목적은 무엇이며, 멩두를 전승한 효과는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 생긴다. 또한 멩두를 전승하는 행위와 무업활동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례를 통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1) 멩두 전승의 목적과 무업활동

심방은 무업조상을 모시고 핵심무구를 확보하기 위하여 멩두를 전승한다. 이는 다시 말하면 제주도 무속사회에서 심방을 인정하는 구비조건이기도 하다. 멩두라는 조상이 있어야 비로소 심방으로서 자격이 주어지고, 멩두라는 무구가 있어야 스스로 굿을 맡고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방으로 나서는 이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멩두를 마련하고자 노력한다. 멩두를 전승하는 목적이 무업조상을 계승하고 핵심무구를 확보하는 데에 있으니, 이러한 목적이 심방과 어떤 관련을 갖는 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1) 무업조상의 계승

심방은 무업조상을 모시기 위한 목적으로 멩두를 전승한다. 그렇다면 멩두에 내재하여 전승되는 무업조상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는 물음을 가지게 된다. 심방이 무업조상을 인식하는 체계가 어떠한 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굿판의 사설을 살펴보자.

시님 초공 임정국 상시당 하늘님은/ 성진 땅은 황금산(黃金山) 웨진 땅은 즉금산(赤金山)  
이 산 압 밭이 벌나/ 저 산 압 줄이 벌나/ 왕대월산 금하늘 노가단풍 즈지멩왕 애기씨/ [본주



가족 중 남자 한 명이 축원문 하나를 심방 앞으로 가져다 놓는다./ 원구월(一九月) 초오드렌(初八日) 본맹두 신구월(一九月) 열오드렌(十八日) 신맹두/ 상구월(一九月) 스무오드렌(二十八日) 살아살축 삼명두/ 저상은 삼시왕(三十王) 이성은 삼하늘/ 유정성(柳政丞) 딱님애기/ 너사무 삼형제(三兄弟) 거느리명 살려 읍서/ .....(중략)...../ [말] 성은 서씨 조케 신축생(辛丑生) 몸 받은 올 적인 연공시 갈 적이는 신공시라 합니다. [소리][장구 장단과 창조가 바뀐다.] 하늘 골른 연공시로 몸 받은 신공시로/ 삼시왕도 느립서 삼하늘도 느립서 유정성(柳政丞) 딱님애기 너사무 삼형제/ 느립서/ 몸 받은 일월조상도 신공시 느립서~/ 흐 안체 오랏수다 신이 성방(刑房) 몸 받은 조상도 신공시로 느립소서./ [말] 성은 조씨 동생 몸 받은 조상 성은 강씨 동생 몸 받은 조상 고씨 조케 [소리] 몸 받은 조상님네/ .....(중략)...../ 옛날 선성 곽곽선성(郭璞先生)/ 주옥선성(周易先生)/ 이승풍(李淳風)은 덕황 덕진~/ 느저나저 임춘춘경(立春春耕) 화산지옥/ 메구월일석/ 불러 읍던 [말] 어진 선성님네라근 하늘 골른 연공시레덜 다 [소리] 신수품서에—.<sup>108)</sup>

위의 사설은 신을 청하는 ‘신청례’ 제차에서 심방이 모시는 무업조상만을 가려 모은 것이다. 실제적으로 어떤 존재들을 청하는지 정리해 보자. ①임정국 상시당(임정국 대감, 김진국 부인), ②성진 땅은 황금산(황금산 주점선생), ③즈지맹왕 애기씨, ④본맹두, ⑤신맹두, ⑥살아살축 삼명두, ⑦유정성 딱님애기, ⑧너사무 삼형제, ⑨서씨 조케 신축생 몸 받은 일월조상, ⑩신이 성방 몸 받은 조상, ⑪조씨 동생 몸 받은 조상, ⑫강씨 동생 몸 받은 조상, ⑬고씨 조케 몸 받은 조상, ⑭옛날 선성~메구월일석 불러 읍던 어진 선성님이다.<sup>109)</sup>

①~⑧까지는 초공본풀이에 등장하는 신들이다. ①은 삼형제의 외조부모를 의미하고, ②는 삼형제의 아버지이고, ③은 삼형제의 어머니이고, ④~⑥은 무조(巫祖) 삼형제이다. ⑦는 최초의 심방이며, ⑧은 삼형제와 의형제를 맺은 무악기의 신이다. 심방은 초공본풀이의 신들을 가장 처음에 청하고 있다.

⑨~⑭까지는 심방들의 현실 세계 조상들로 ‘옛 선생’들이다. 여기서 청하는 옛 선생들의 범위는 일단 고향에 참여하는 심방들의 조상부터 시작한다. ⑨는 고향 맡은 수심

108) 강정식·강소진·송정희, 앞의 책, 146~147쪽, 160~161쪽. 인용한 제차의 내용은 이중춘 심방이 구송한 초상계·추물공연의 신청례 대목이다. 인용문의 / 표시는 필자가 행 나눔을 줄이기 위하여 삽입하였다.

109) 사설에는 무악기인 연물과 관련한 선생들도 청하지만 논의를 좁히기 위하여 여기서는 연물과 관련해서 서술하지 않는다. 이밖에도 사설에는 명뫼발(명뫼발)이라는 존재도 나온다. 명뫼발(명뫼발)은 제대로 된 심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를 가리킨다. 따라서 정식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숨어 다니면서나 고향을 하는 존재이다. 무업을 하되 심방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명뫼발은 무업조상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그저 뒤에 따라오는 존재로 격이 낮다고 인식한다. 하지만 명뫼발도 엄연히 현실 세계에 존재하였던 이들이었다. 조상으로 대접하지는 않지만 사설에는 언급하여 그 존재 자체는 되새긴다.

방과 관련한 조상이다. ⑩은 해당 제차를 맡아 진행하는 소미와 관련한 조상이다. ⑪~⑬은 ㄱ판에 함께 와서 일을 하는 동료 소미들과 관련된 조상이다. ㄱ판을 맡은 이들의 조상을 나열하고 난 뒤에는 ⑭와 같이 제주도 무속사회에서 무업을 했던 옛 심방 선생 조상들을 청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곽박(郭璞)이나 이순풍(李淳風)처럼 중국의 유명한 도가(道家)들도 불러진다. 과거 명성을 떨쳤던 이들도 포함하여 공식구(公式句)로 구송하는 것이다. 무업의 역사가 매우 깊고 방대하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이처럼 옛 선생에는 혈연관계의 심방 영혼뿐만 아니라 스승과 동료 등 무업을 하였던 타인관계의 심방 영혼들이 모두 포함된다.

심방들이 전승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멩두에 내재한 무업조상을 정리하자면 모두 3단계의 위계로 구성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곧 무조(巫祖)→최초의 심방→옛 선생의 위계이다. 무조는 삼시왕으로 좌정한 삼형제이다. ㄱ법을 창조한 신이다. 최초의 심방은 유정승따님아기이다. ㄱ법을 전승한 신이다. 옛 선생은 현실 세계에서 실제 무업을 하다가 사망한 선배심방들을 일컫는다. ㄱ법을 실행한 이들도이다. 물론 초공본풀이의 자지 멩왕아기씨나 너사무너도령 등도 있지만 무업의 창조, 전승, 실행이라는 조상으로서 신통(神統)을 생각하면 이처럼 정리할 수 있다. 무업조상들은 3단계의 위계로서 체계적으로 인식된다. 현실의 심방은 이런 무업조상이 멩두에 내재되어 있다고 여긴다. 따라서 멩두를 모시면 자연히 이들을 모시는 셈이다.

멩두가 무업조상의 표상이 된 것은 멩두의 전승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초공본풀이에 따르면 멩두는 무업조상의 이름이기도 하면서 무업을 창조하는데 사용한 무구이다. 멩두는 곧 무업조상이자 무구이며 둘은 함께 전승되는 것이다. 이런 멩두를 초공본풀이에서 유정승따님아기가 전승하여 전범(典範)을 보였다. 신화적 멩두 전승은 무구를 전승하는 행위가 곧 무업조상을 모시는 것이라고 말한다.

심방들은 현실 세계에서도 유정승따님아기가 하였던 방법대로 멩두를 전승하는 것으로 여긴다. 현실 세계에서도 무구의 전승이 곧 무업조상의 전승이다. 다만 현실적 멩두 전승에는 무업조상이 다양하다. 신화적 전승에서는 초공본풀이의 무업조상이 멩두와 함께 전승되었다면, 현실적 전승에는 여기에 옛 선생이라고 부르는 심방의 조상까지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과거의 심방들은 무업활동을 마치고 사망하면 옛 선생이라는 이름으로 현실 후배 심방의 조상으로 자리 잡는다. 과거의 심방들이 사용하던 무구를 전승함으로써 자연히 옛 선생이라는 무업조상까지 전승되는 것이다.

요컨대 초공본풀이에 등장하는 무업조상과 현실의 삶을 살았던 무업조상들은 모두 멩두라는 하나의 표상을 공유하고 있다. 표상을 공유한다는 것은 여러 위계에 걸친 무업조상을 일원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무업조상의 위계가 삼시왕, 최초의 심방 유정승따님아기, 옛 선생 등으로 구성되었지만 무업조상이라는 본질은 동일하다고 관념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멩두를 전승하는 목적은 여러 위계에 걸친 무업조상을 하나로 엮어 계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 핵심무구의 확보

멩두를 전승하는 목적은 멩두가 무업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무구이기 때문이다. 심방은 멩두가 있어야 굿을 직접 수주할 수 있다. 멩두를 확보한 뒤에야 비로소 자신의 조상을 모시고 독립적으로 굿을 수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굿은 굿을 의뢰받은 큰심방의 멩두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 단골집에서 할 때는 큰심방의 멩두만을 사용하고, 심방집에서 할 때는 큰심방과 본주심방의 멩두를 사용한다. 어떤 경우이든 굿을 수주한 큰심방의 멩두가 반드시 필요하다.

멩두를 확보하고 굿을 수주한다는 것은 단골이 드디어 생긴다는 의미와 같다. 실제 심방들의 사례를 보면 멩두 없이 소미로 굿판에 다니다가 자신에게도 단골들이 하나둘씩 생길 즈음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위하여 마련한 경우도 제법 있다. 본향멩두를 전승하였을 경우에는 특정한 마을의 단골로부터 굿을 수주할 수도 있다. 심방의 무업활동에 멩두라는 무구의 존재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핵심무구로서 멩두에 대한 신화적 전승은 초공본풀이이나, 사실 현실 세계의 물질적 전승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즉 물린멩두, ㅈ·작멩두, 봉근멩두, 제절멩두, 본향멩두 등이다. 멩두는 심방의 혈연적 계보를 통해서만 전승되는 것이 아니다. 혈연 계보를 비롯하여 비혈연 계보의 범주까지 다양한 경로를 아우르며 전승된다. 무업동료 사이에서 주로 일어나지만 간혹 유래를 알 수 없는 습득도 있다.

멩두의 물질적 전승은 여러 경로를 통한 물질의 이동(移動)과 순환(循環)이라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한 주체에서 다른 주체로 이동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주체에서 다른 주체로 갔다가 다시 본래의 주체에게로 돌아오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멩두라는 물질은 마련하는 과정이나 관리 방법에 따라 복제(複製)가 되거나 합체(合體)하기도 한

다. 즉 멩두 여럿이 하나가 되기도 하고, 하나가 여럿이 되기도 한다.

멩두의 전승이 현실 세계에서 사실상 다원적인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이들의 위상을 동일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전승되어도 그 위상에 문제가 없도록 초공본풀이를 통하여 모든 멩두는 무업조상으로부터 유래한 동일한 조상이라는 인식을 형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멩두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조상이므로 현실 세계의 다원적 유통은 논리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여기에 멩두가 다원적으로 유통될 때마다 해당 멩두에 옛 선생들의 내력을 거듭 추가하고 때때로 권위까지 형성시킨다. 멩두의 내력을 중시하고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다원적 경로의 번잡함을 영험성으로 만회하는 장치이다. 멩두를 전승하는 목적은 핵심무구로서 반드시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다원적 경로에서 파생한 멩두의 내력과 권위를 얻기 위한 것이다.

## 2) 멩두 전승의 효과와 무업활동

멩두를 전승하면 얻는 효과가 있어 심방의 무업활동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기도 한다. 멩두를 전승할 때는 일반적으로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거나 단골판을 승계시키기도 한다. 이는 심방이 경제기반을 마련하는 바탕이다. 또한 멩두는 일정한 내력을 가지고 있어 심방이 굶판에서 권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멩두를 전승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업활동 자체를 전승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 (1) 심방의 경제기반 마련

심방은 멩두를 전승하면서 나름대로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 점이 멩두 전승의 가장 두드러진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멩두의 유형 가운데 물린멩두와 분향멩두를 전승할 때 보편적으로 일어난다. 물론 ㅈ·작멩두도 사정에 따라 가능하다. 다만 봉근멩두나 제절멩두는 물려주는 주체가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으니 이들 멩두를 전승할 때는 경제적 효과를 직접적으로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물린멩두와 분향멩두 유

형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효과라 할 수 있다.

맹두를 전승할 때는 물려주는 이와 물려받는 이가 서로 전승행위를 인정한 상태에서 어떤 일정한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한다. 맹두의 전승은 단순히 무구 하나를 인수인계하는 것이 아니다. 맹두가 무업활동의 기반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맹두를 물려주는 심방은 가능하면 후계자로서 적절한 상대를 고르려 한다. 자신과 가깝게 지내고 마음이 잘 통하며 심방으로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이를 택하려 한다. 반드시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개의치 않는다.

후계자를 신중히 선택하는 이유는 맹두가 조상이니까 맹두를 잘 모실만한 이에게 주려고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왕이면 곳을 잘 수주하여 활발하게 활동할 만한 이에게 주려고 한다. 만약 물려받을 이가 곳을 잘 수주하지 못한다면 맹두를 곳판에서 사용할 일이 별로 없게 되고 이는 맹두 조상이 잘 대접받지 못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전 소유자 자신도 맹두의 내력에 옛 선생으로 추가되기 때문에 무업활동이 활발할수록 자신도 무업조상으로 잘 대접받을 수 있다.

심방에 따라서는 맹두를 물려주면서 사후에 자신에 대한 조상의례를 행해주기를 바랄 수도 있다. 물론 맹두의 후계자가 직계비속의 남성이면 자연히 조상의례가 뒤따른다. 그러나 혈연관계라 하더라도 사정이 있거나 자식이 없다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면 맹두의 후계자에게 이를 부탁할 수도 있다. 맹두를 물려주는 심방 처지에서는 맹두의 전승과 자신에 대한 조상의례가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

사정이 이러하니 맹두를 물려주는 심방은 맹두와 함께 어느 정도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원칙이다. 맹두는 조상이므로 조상을 모시는 비용을 건네는 것이다. 구체적인 금전의 범위는 저마다 형편에 따라 다르다. 밭이나 집을 함께 물려주거나 일정한 액수의 현금을 주거나 하는 방식이다. 후손에게 사후 조상의례를 기대하며 재산을 물려주는 행위와 동일한 맥락이다. 또한 일정한 범위의 단골도 후계자에게 승계한다. 단골은 심방의 무업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다. 하물며 본향맹두를 전승할 때는 일정한 지역의 단골판이 맹두와 함께 전승된다.

맹두를 물려받는 심방 처지에서는 맹두를 전승하면서 경제적 기반을 다지는 효과가 생긴다고 할 수 있다. 맹두에 대한 조상의례와 더불어 원활한 무업활동을 위하여 경제적 기반이 충실하고 단단한 맹두를 선호하는 행위는 당연한 일이다. 달리 말하면 맹두를 마련해야 하는 심방은 경제적 기반이 충실한 맹두의 전승을 선호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봉근맹두나 제절맹두 유형은 경제적 기반 확보라는 효과를 보기 힘들어 아마도 심방들이 선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봉근맹두나 제절맹두는 신직의 계승이 두드러진 유형인데, 다만 경제적 기반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을 것이다.

## (2) 맹두 내력에 따른 심방의 권위 확보

맹두 전승의 효과는 전승한 해당 맹두의 내력에서도 생길 수 있다. 자신이 소유한 맹두가 나름대로 유서 깊은 맹두라면 무업활동을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맹두는 무업조상이므로 유서 깊은 맹두는 곧 그 조상이 그렇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단골들 역시 교류하는 심방의 맹두 내력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으므로 유서 깊은 맹두에 대한 경외감도 분명 있는 것이 사실이다. 모든 맹두는 조상이므로 중히 여기는데, 맹두의 내력이 깊을수록 그만큼 여러모로 대접을 받는 셈이다.

맹두의 내력은 맹두의 전승과정에서 형성된다. 맹두에 따라 특별한 사연이 덧붙여지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유래를 알기 힘든 맹두들도 분명 있다. 맹두를 우연히 습득한 경우 해당 맹두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를 수 있는데 이런 사실 자체가 맹두의 내력을 이룬다. 설사 본메를 두지 않고 만든 자·작맹두라 할지라도 맹두의 내력이 없다는 자체가 맹두의 내력이다. 따라서 모든 맹두는 저마다 내력을 갖추고 있다.

맹두는 심방이 소유하는 것이나 맹두의 내력은 심방과 단골이 함께 공유한다. 심방과 단골이 함께 맹두의 내력을 알고 공유한다는 것은 그만큼 무업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과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뜻이다. 무업조상인 맹두의 내력을 통하여 무업활동의 신뢰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유서 깊은 맹두의 내력은 곧 맹두의 권위로 이어진다. 이런 맹두의 권위를 단골집단이 두루 인정한다면 심방의 무업활동은 한층 굳건해질 수 있다.

맹두의 권위는 대개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된다. 내력도 있고 맹두 물림의 대수도 나름대로 길고, 더구나 큰심방이 사용하였다거나 단골들이 인정하는 등의 요소가 두루 결합하여 완성되는 것이다. 사실 맹두물림이 오랫동안 이루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력도 풍부해지게 마련이다. 입춘굿을 할 만큼 큰심방이 사용하던 유서 깊은 맹두는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이리저리 떠돌지는 않을 확률이 높다. 메인심방의 본향맹

두 물림은 단골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는 점이다. 여러 요소들이 함께 작용하여 멥두의 권위는 높아진다.

멥두의 권위는 결국 멥두의 영험성을 믿는 신앙심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멥두의 영험성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것은 산받음이라고 할 수 있다. 멥두의 쓰임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점구로서 점을 치는 일이기 때문이다. 심방과 단골 모두 멥두를 가지고 점을 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긴다. 심방은 무속의례의 모든 진행과정마다 지속적으로 점을 치면서 해당 의례의 목적을 달성하고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단골은 멥두의 점괘를 통하여 소원하는 사항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알 수 있다. 굿을 진행하는데 멥두의 점사(占辭)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이다.

제주도 무속에서 산받음은 꼭 멥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멥두의 산받음은 곧 무업조상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본질적이다. 심방은 자신이 소유한 멥두의 성질을 잘 파악하여 산을 받아야 한다. 멥두를 거듭 사용하다 보면 멥두의 성질을 알 수 있다고 한다. 무구다보니 자연 길도 들게 마련이다. 심방들은 멥두마다 고유한 성질이 있다고 여기므로 이런 멥두의 성질을 잘 알고 산을 받아야 한다.

심방은 멥두가 주는 산을 해석하는 이다. 곧 ‘산질’이 좋은가 나쁜가를 판별하는 것이다. 그런데 멥두로 산을 받을 때 그 모양과 조합을 바탕으로 하고 심방의 순간적인 느낌과 판단을 더하여 해석한다. 심방의 머리에 순간적으로 스치는 것을 딱히 무엇이라 규정지어 말하기는 어렵다. 오랜 무업활동과 산받음의 경험이 축적되어 나타난 느낌일 수도 있고, 신기(神氣)와 비슷한 작용일 수도 있다. 대개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지만 아무래도 신기가 있는 심방일 경우에는 후자의 느낌이 더 클 수도 있다. 심방의 사설 가운데 “조상님아, 머리뺨에 은동첩서.”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무업조상이 심방의 머리속에 함께 하여 심방이 순간적으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말이다.

멥두의 산받음은 심방의 무업활동에 매우 중요하다. 굿을 하는 심방이나 굿을 의뢰한 본주단골 혹은 본주심방 모두 관심을 갖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멥두의 산받음을 실수나 착오 없이 매끄럽게 이끌어 내는 것도 심방이 무업활동을 전개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것이 곧 심방 능력의 하나로 평가되기도 한다.

멥두를 이용한 산받음은 단골이 알고자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묻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단골의 신상(身上), 집안문제, 생업활동, 혼인이나 사업과 같은 미래예측 등의 여러 사항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산받음을 한다. 만약 좋지

않은 점괘가 나오면 만족할 만한 점괘가 나올 때까지 이를 반복한다. 만약 산받음이 계속 좋지 않게 나오거나 불길하다면 단골에게 인정(돈)을 더 걸어 좋은 점괘가 나오도록 기원한다.

### 3) 멧두 전승의 실제와 무업활동

멧두의 전승과 심방의 무업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제 사례를 통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업을 오랫동안 대물림한 심방 가게를 택하여 멧두의 전승 경로를 우선 살펴보고 개별 전승과정의 양상을 서술하여 멧두의 전승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발판으로 삼고자한다. 다만 심방 가게의 멧두 전승 사례를 파악하는데 일정한 한계도 있다. 우선 선대 조상들의 멧두 전승과 관련한 내력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기억하기 힘들다는 점이 있다. 또한 해당 집안에 존재하였던 모든 멧두의 행방을 추적하는 것도 어렵다. 현재 시점에서 일단 기억을 더듬어 복원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례를 제시하고 살펴보기로 한다.

멧두의 실제적인 전승과 무업활동의 양상에 대한 사례로서 김윤수와 이용옥의 가게를 제시하고자 한다. 김윤수와 이용옥은 부부 사이로 둘 다 무업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김윤수는 현재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인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의 기능보유자이다. 이용옥은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의 전수자이다. 둘은 제주시 건입동의 본향당인 칠머리당과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의 본향당을 맡은 메인심방이기도 하다. 어려서부터 나섰기 때문에 무업경력이 많고, 제주도 굿을 두루 익혀서 무업능력 또한 매우 뛰어난 이들이다.

김윤수와 이용옥은 모두 심방 집안에서 출생하였다. 이들의 가게는 제주도 심방 사회에서 나름대로 무업내력이 깊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김윤수의 경우에 자신을 포함하여 친가는 4대째 무업을 이었으며, 외가는 3대를 이었다. 이용옥도 외가로 3대째 무업을 전승하였고, 외조모의 가게 역시 제주도 심방 사회에서 잘 알려진 집안이었다. 두 집안의 가게를 모두 아우르면 심방만 50명이 넘는다. 이들의 가게를 사례로 하여 멧두 전승의 실제와 심방의 무업활동을 가능한 대로 파악해보기로 한다.<sup>110)</sup>



(1) 김윤수 심방 가계의 멩두 전승과 무업활동

김윤수 심방의 친가 가계에 나타나는 실제 멩두의 전승과정과 무업활동의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친가에서 전승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멩두는 모두 여섯 사례이다. 멩두 여섯 별의 전승경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김윤수 심방의 친가 가계는 [그림 3-1]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멩두1 : ①김정호→②김신천→③김찬옥→④김윤보→⑤김씨→⑥김찬옥→⑦대학교수 기증  
→⑧보존회 사무실 당주(증조부 불휘공 조상)
- 멩두2 : ①정의고을 김씨할망→②김천년→③문옥선→④제주민속박물관 기증
- 멩두3 : ①김만년/부인 정씨→②김윤보
- 멩두4 : ①선홍 갑택이 심방→②김백년→③김순복→④김윤조→⑤김윤보
- 멩두5 : ①장모 한옥녀→②김윤보
- 멩두6 : ①수양모 고군찬→②김윤수(본메 잇인 자·작멩두)  
①수양모 고군찬→③이용옥(물린멩두)

멩두1의 전승 경로는 ①김정호→②김신천→③김찬옥→④김윤보→⑤김씨→⑥김찬옥→⑦대학교수 기증→⑧보존회 사무실 당주이다. 멩두1은 ‘증조부 불휘공 조상’이라고 부른다. 김윤수의 친가에서 증조부가 무업을 시작하였으니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멩두라고 할 수 있다.

김윤수의 친가는 증조부 ①부터 무업을 시작하였다. 선대 조상의 묘를 쓸 때 택한 장지(葬地)로 인하여 심방 자손이 나온다는 내력이 전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증조부가 무업을 시작하였다. ①이 멩두를 얻은 내력은 알지 못한다. ①은 아들을 둘 두었는데 차남이 심방이 되자 나중에 ②에게 멩두를 물려주었다. ②는 자녀 가운데 유일하게 심방으로 나선 딸인 ③에게 멩두를 물려주었다. ③은 ④에게 멩두를 물려주었다. 자신의 집안에는 무업을 이을 후손이 없었다. ④는 ②의 손녀 가운데 하나인 ⑤가 나중에 무업을 하려고 하자 멩두를 넘겨주었다. ⑤는 막상 무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어렵게 되자 다시 ⑥에게 멩두를 넘겼다. ③과 ⑥은 동일인인데 ②의 자식 가운데 유일하게 무업을

110) 현 시점과 제보자를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제시한다. 나중에 지속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구체적으로 미세한 양상을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례로 든 가계에서 무업을 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정보나 무업과 관련 없는 가계 정보는 최대한 감추거나 생략하고자 한다. 따라서 온전한 가계도를 작성하는 데 애로점이 있다는 점을 밝힌다. 김윤수와 이용옥 심방 가계에 대한 면담은 2011년 12월 29일에 자택에서 이루어졌다.

하니 결국 맹두의 최종적인 처리 책임을 진 셈이다. 그래서 나중에 적절한 기회가 오자 ⑦에게 기증하였다. 하지만 맹두1이 김씨 가문 무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맹두여서 결국 기증하였던 것을 다시 찾아 ⑧에서 보관하게 된다.

맹두1은 전형적인 물림맹두의 유형이며, 혈연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전승되었다. 다만 맹두가 ⑤에게 있을 때 당시 너무 낡아서 묵은 쇠와 새 쇠를 섞어 다시 만들었다고 한다. 물림맹두이지만 한 번 ㅈ·작맹두로 변신하였고, 그 뒤 다시 물림맹두가 되었다.

맹두1은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조상이지만 막상 ②의 후손이 무업을 본격적으로 잇지 못하자 후계자를 찾지 못하고 기증하는 데까지 이르기도 하였다. 결국 나중에 다시 찾아와서 모시지만 맹두1을 후계자에게 물려주어 무업활동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맹두2의 전승 경로는 ①정의고을 김씨할망→②김천년→③문옥선→④제주민속박물관 기증이다. 증조부 김정호의 장남은 무업을 하지 않았지만 그 자식 대에 이르러 오히려 무업을 활발히 잇게 되었다. 그런데 증조부의 차남 김신천이 장수(長壽)하며 무업을 하다 보니 ②는 맹두를 다른 이에게서 얻었다. 증조부의 맹두가 나중에 ②에게 가는 게 집안에서는 나름대로 순리였다. 하지만 ②는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 ①정의고을 김씨 할망이라는 이의 맹두를 물려받았다. ②는 나중에 작은부인 ③에게 맹두를 물려주었다. ③은 ②에게 심방 후손이 없자 ④에게 기증하였다.

맹두2는 타인에게서 물림맹두를 얻은 뒤 가족에게 물려주다가 후계자가 없자 박물관에 기증한 사례이다. ②는 집안에 전승되는 맹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인에게서 맹두를 물려받았다. 집안에 전승되는 김정호의 맹두를 본메로 놓고 ㅈ·작맹두를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타인의 물림맹두를 얻은 것이다. 제주도 심방 사회에서는 물림맹두를 얻는 것이 보편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맹두3의 전승 경로는 ①김만년/부인 정씨→②김윤보이다. ①에서 김만년은 맹두가 없었으나 부인 정씨가 맹두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공유하며 사용하였다. 김만년은 무업을 본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심방 노릇을 하는 정도였기에 부인의 맹두를 공유한 것이다. 부인 정씨는 자식이 없자 수양아들처럼 여긴 ②에게 일정한 대가와 함께 맹두를 물려주었다. ②는 부인 정씨에 대한 사후 조상의례를 맡아주었다.

맹두4의 전승 경로는 ①선홍 갑택이 심방→②김백년→③김순복→④김윤조→⑤김윤보이다. ②도 역시 김신천이 장수하며 무업을 계속 하니 스스로 선홍 갑택이 심방이라는 이에게서 맹두를 물려받았다. ②는 나중에 부인인 ③에게 넘겨지고, ③은 차남인 ④

에게 다시 넘겼다. ④는 젊어서 사망하였고 멩두는 다시 ⑤에게로 물려주게 되었다.

멩두4도 타인에게서 물린멩두를 얻은 뒤 가족에게 물려주었다. ②도 역시 김정호의 멩두를 본메로 놓아 ㅈ·작멩두를 만들지 않았다. 멩두2의 김천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였다. 그리고 보면 이들은 나름대로 독자적인 무업활동을 전개한 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②의 장남은 결과적으로 집안의 멩두 2벌을 전승하였다.

멩두5의 전승 경로는 ①장모 한옥녀→②김윤보이다. ①은 제주도 구좌읍 김녕리의 메인심방이었다. 무업을 잇는 자식이 없자 사위인 ②에게 멩두를 물려주었다. 멩두 5까지 더하면 ②는 모두 3벌의 멩두를 전승한 것이다. 그런데 멩두5의 ①은 사위에게 메인심방의 지위는 물론 단골판까지 넘겨주었다. 이는 ②의 무업활동에 중요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멩두6의 전승 경로는 ①수양모 고군찬→②김윤수(본메 잇인 ㅈ·작멩두)로 전승되는 것과, ①수양모 고군찬→③이용옥(물린멩두)으로 전승되는 것으로 모두 두 별이다. ②는 처음에 김천년의 작은부인인 문옥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문옥선은 장차 김천년의 멩두를 ②에게 물려주려 하였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①과 ②가 비교적 일찍 수양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다. ①은 자식이 없자 ②를 양자로 삼고 서로 도우며 무업활동을 하였다. ②가 29세에 단골로부터 첫 곳을 의뢰받자 ①은 자신이 모아둔 쇠로 ㅈ·작멩두를 만들어주었다. 물론 자신의 멩두를 본메로 놓았다. ①은 자신도 활발하게 무업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②에게 ㅈ·작멩두를 지어준 것이다. ①이 사망하고 난 뒤에 ①의 멩두는 ③에게 전승되었다. ①은 양자로 삼은 ②에게 멩두를 물려주면서 재산과 메인심방의 지위, 단골판까지 모두 물려주었다. 결과적으로 ①은 멩두를 물려주면서 ②의 무업활동 기반을 확고히 닦아준 셈이다.



다음은 김윤수 심방의 외가 가계에 나타나는 실제 멍두의 전승과정과 무업활동의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외가에서 전승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멍두는 모두 두 사례이다. 멍두 두 별의 전승경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김윤수 심방의 외가 가계는 [그림 3-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멍두1 : ①홍씨/부인 안씨→②홍명관→③홍옥순→④강씨→⑤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사무실  
(홍씨 웨진조상 멍두)

멍두2 : ①홍명화/양금석(2벌)→②제주교육박물관  
(벨방 고희장따남아기 멍두, 김녕 고씨할망 멍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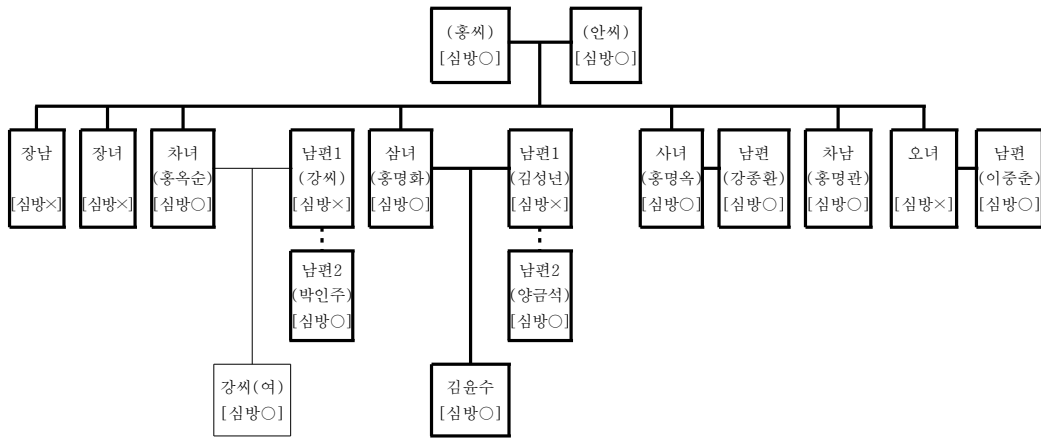
멍두1의 전승 경로는 ①홍씨/부인 안씨→②홍명관→③홍옥순→④강씨→⑤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사무실이다. 멍두1은 외가에서 가장 중요한 멍두로 ‘홍씨 웨진조상 멍두’라고 부른다.

①은 김윤수의 외조부모이다. 외조부모는 멍두를 공유하여 사용하였다. 외조부모의 멍두는 선대 조상이 받을 갈다가 우연히 주운 멍두로 봉근멍두 유형에 해당한다. ①은 장남이 심방이 아니었기 때문에 차남인 ②에게 멍두를 물려주었다. 한편 ②는 미처 혼인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기 때문에 멍두는 다시 ③에게 넘어갔다. ③은 다시 딸인 ④에게 멍두를 물려주었다. 딸은 메인심방의 지위와 단골판도 함께 물려받았다. 그런데 ④는 멍두를 더 이상 모시지 못하고 ⑤에 보관하였다. ④에게는 친가로 물려받은 멍두와 남편의 ㅈ·작멍두까지 이미 두 별의 조상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이다.

멍두1은 봉근멍두로 출발하여 물린멍두로 집안에서 전승되었다. 최종적으로는 멍두를 적절하게 물릴 만한 후계자가 없으니 보존회사무실에서 보관하기에 이르렀다. 외가에서 가장 중요한 멍두이지만 결국 지속적인 전승을 하지는 못하였다.

멍두2의 전승 경로는 ①홍명화/양금석(2벌)→②제주교육박물관이다. 이 두 멍두는 ‘벨방 고희장따남아기 멍두’와 ‘김녕 고씨할망 멍두’라고 한다. ①의 홍명화는 본격적으로 굿을 하는 심방은 아니고 심방 노릇을 하는 정도였다. 둘째 남편인 양금석이 심방이었으므로 그의 멍두를 공유하며 사용하였다. 양금석은 김윤수에게 무업을 가르친 심방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멍두를 물릴 적절한 후계자가 없자 멍두를 ②에 기증한다. 멍두2를 홍씨 집안의 멍두로 보기는 어렵지만 홍명화의 무업과 관련 있으므로 여기서 함께 다룬다.

[그림 3-2] 김윤수 심방의 외가 가계



김윤수 심방 가계의 실제 멍두 전승과정과 무업활동 양상을 살펴보면 친가와 외가 모두 무업을 처음으로 시작할 때 모시고 사용하였던 멍두의 전승은 사실상 끊긴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친가의 ‘증조부 불휘공 조상 멍두’와 외가의 ‘홍씨 웨진조상 멍두’이다. 물론 두 멍두 모두 보존회 사무실에 마련한 당주에 모시고 있기는 하다.

친가와 외가 모두 대를 이은 심방 집안이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적절한 후계자를 찾지 못하였다. 집안의 심방 자손들은 저마다 자신의 실제적인 무업활동과 인연이 닿은 멍두를 전승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실 여러 벌의 조상을 모시는 것이 권장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선대의 조상을 추가로 모시지 않았다. 문화재 정책으로 인하여 보존회 사무실이라는 나름의 공공장소가 생기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안으로 삼은 것을 알 수 있다.

멍두의 전승은 물려주는 이와 물려받는 이의 상호 무업활동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적이다. 단순히 같은 집안이라고 하여 마땅히 전승한다거나, 타인관계라고 하여 전승을 기피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멍두의 전승은 상호 무업활동의 교류와 친밀도, 경제적 기반 등의 여러 양상을 우선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대를 이은 심방 집안이라 하더라도 가계 안에서 폐쇄적인 전승을 하지 않고 타인관계까지 넓혀 개방적인 전승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친가와 외가 모두 3~4대에 걸친 심방 집안이었지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후대에 무업을 이을 만한 자손은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집안에 현존

하는 여러 별의 멍두를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점이 당면한 문제로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멍두도 여러 별 박물관과 같은 공공기관에 기증하였다. 앞으로도 멍두를 물릴 만한 적당한 후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대부분 공공기관에 기증하려고 생각중이다. 멍두를 기증하면 무업에서 쓰임새는 끝난다. 사정이 이러하니 과거와 같은 멍두 물림은 더 이상 만나기 어렵다. 멍두 물림을 할 상대를 고르고 일정한 경제적 대가를 하는 등의 모습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 (2) 이용옥 심방 가게의 멍두 전승과 무업활동

이용옥 심방의 외가 가게에 나타나는 실제 멍두의 전승과정과 무업활동의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외가에서 전승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멍두는 모두 네 사례이다. 멍두 네 별의 전승경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이용옥 심방의 외가 가게는 [그림 3-3]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멍두1 : ①함덕 김충근 심방→②김성용/정인→③김만보→④이순여→⑤김연희(예정)  
 멍두2 : ①김두병→②김성용→③김만보→④김순아  
 멍두3 : ①하천미 현씨일월조상→②김국화→③김연희  
 멍두4 : ①정인화→②정두삼→③김윤조→④김만보→⑤제주도(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멍두1의 전승 경로는 ①함덕 김충근 심방→②김성용/정인→③김만보→④이순여→⑤김연희(예정)이다. 멍두1은 이용옥의 외조부모인 김성용과 정인이 모시던 멍두로 외가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역사가 깊다.<sup>111)</sup> ②는 ①에게서 멍두를 물려받고 집안의 무업을 시작하였다. ②의 멍두는 ③에게로 넘어갔다. ①은 평소 ③을 많이 아껴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나중에 자신의 멍두를 물려주고자 하였다고 한다. ③의 멍두는 부인인 ④에게로 넘겨지고, 장차 딸인 ⑤에게로 물려줄 예정이라고 한다. 멍두1은 타인의 물린멍두를 얻은 뒤 집안에서 지속적으로 전승되었다.

멍두2의 전승 경로는 ①김두병→②김성용→③김만보→④김순아이다. ①은 아버지 김성용의 멍두와 상관없이 스스로 멍두를 마련하였다. ①은 ‘정의 넷끼물 동산 최씨 선생

111) 이용옥의 외조부는 김성용이다. 필자가 기존에 발표하였던 논문에 외조부 이름이 김성윤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를 바로잡는다. 강소전, 「제주도 곳의 ‘공시풀이’ 고찰 : 이용옥 심방의 사례를 중심으로」, 147쪽.

양씨 선생'의 멧두를 본메로 삼아 ㄱ·작멧두를 만들었다. ①이 병으로 일찍 사망하자 ②가 아들인 ①의 멧두를 모시고 다녔다. 나중에 ②도 사망하자 멧두는 ③에게 물려주었다. ③은 일본에 가게 되니 ④에게 다시 멧두를 물려주었다. ㄱ·작멧두가 물린멧두 유형으로 전환되었다. 한편 ①의 부인 고씨의 멧두 역시 나중에 ④에게 전승되었다.

멧두2에서 ①은 아버지인 ②가 소유한 멧두를 본메로 놓아 ㄱ·작멧두를 만들지 않고, 타인의 멧두를 본메로 놓고 ㄱ·작멧두를 만들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김윤수 친가 가계의 김천년과 김백년이 집안 멧두에 연연하지 않고 스스로 멧두를 마련한 것과 같은 현상이다. 한편 ①의 사망 뒤에 ②가 멧두를 모신 것은 ④가 원래 심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④는 혼인하고 남편이 사망한 뒤에 무업에 들어섰다. 그러다 보니 ①의 멧두가 다른 사람들을 거치다가 ④에게로 온 것이다. 멧두2는 이른바 ‘데 냉기는 멧두’였다고 한다.<sup>1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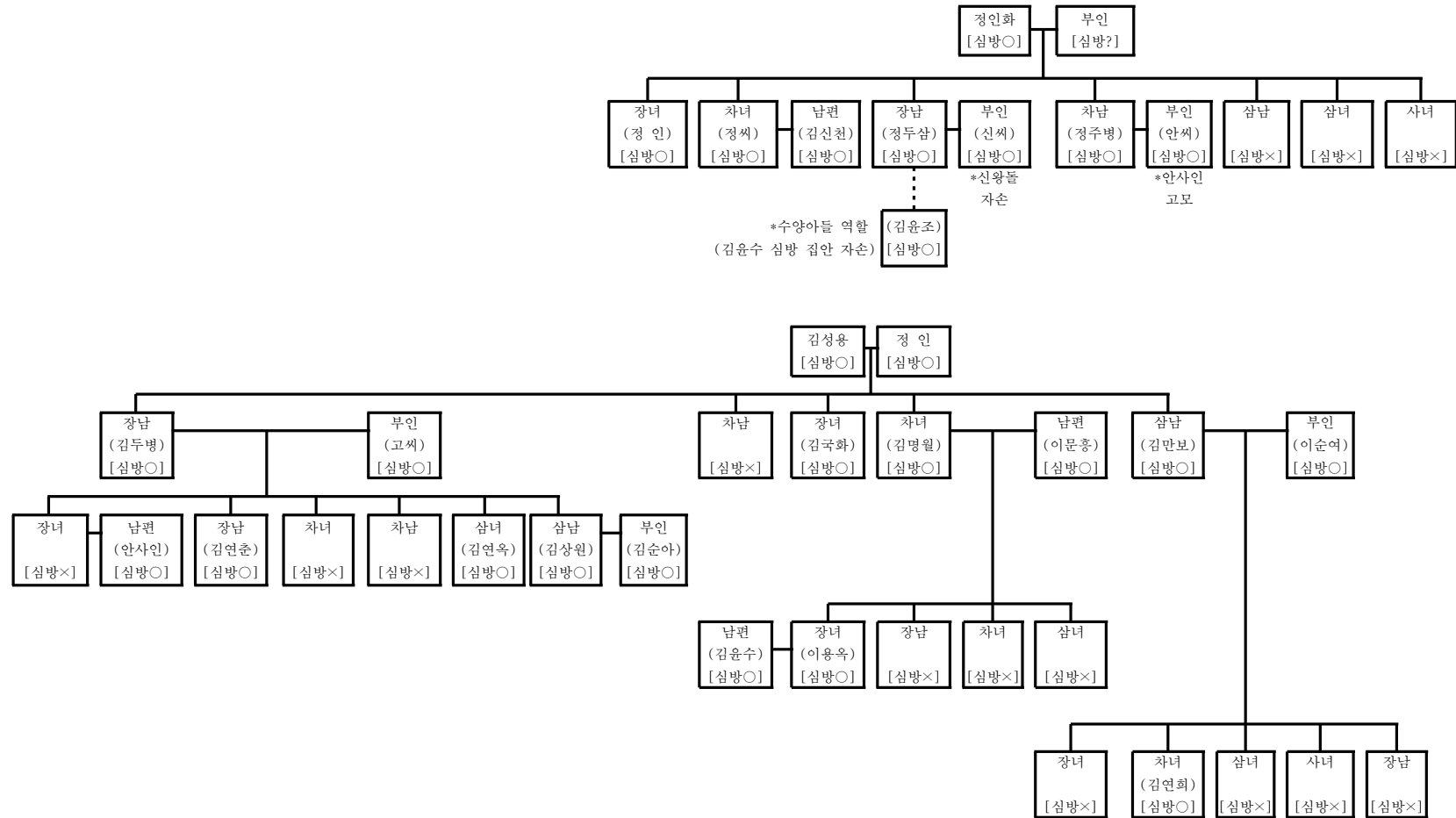
멧두3의 전승 경로는 ①하천미 현씨일월조상→②김국화→③김연희이다. ②도 역시 멧두를 스스로 마련하였다. ①의 하천미는 ‘알내기’라고 하는데 옛 정의 지역이다. 멧두2의 조상내력과 같은 지역인 것으로 보인다. ②는 자식이 없어서 멧두를 ③에게 물려주었다. 물린멧두 유형이다.

멧두4의 전승 경로는 ①정인화→②정두삼→③김윤조→④김만보→⑤제주도(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이다. 멧두4는 이용옥의 외조모인 정인의 친정 집안에서 유래한 멧두이다. ①이 멧두를 마련한 유래는 알기 어렵다. ①은 장남인 ②에게 멧두를 물려주었다. ②는 김윤수 집안의 일원이었던 ③에게 멧두를 물려주었다. ③이 ②와 한 마을에 살며 수양아들처럼 지냈기 때문에 물려준 것이다. 그러다가 나중에 ④가 ③에게 가서 멧두를 찾아왔다. ④가 사망한 뒤에는 ⑤에게 기증하였다. 멧두4는 외조모 정인을 고리로 하여 두 집안에서 멧두가 전승된 사례이다.

112) ‘데 냉기는 멧두’는 큰곳에서 시왕맞이 본향할 때 심방이 신칼을 돌리다가 월덕기라는 큰대 위로 넘겨 던지는 멧두를 말한다. 대의 뒤에서 신자리를 향하여 던지니 밖에서 안으로 던지는 셈이다. 멧두로 ‘데를 냉기는’ 행위는 제주도 안에서도 주로 정의 지역에서 많이 한다고 한다. 명주로 만든 ‘명ㄷ·리’도 역시 대를 넘기곤 했다고 한다. 이상은 김윤수와 이용옥이 제보한 내용이다. ‘데 냉기는 멧두’에 대해서는 차후 자세한 조사를 한 뒤 다른 글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간략한 언급이 『제주학』 제4호((사)제주학연구소, 1999, 167쪽)에 있다.



[그림 3-3] 이용옥 심방의 외가 가계



이용옥 심방 가게의 실제 멩두 전승과정과 무업활동 양상을 살펴보면 김성용의 멩두에 기대지 않고 무업을 하는 자식들이 자신의 멩두를 스스로 알아서 마련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장남은 아버지의 멩두가 아니라 타인의 멩두를 본메로 놓고 ㅈ·작 멩두를 지었다. 장녀와 차녀 역시 마찬가지다. 심방 집안이어도 멩두를 개방적으로 전승한다는 것을 거듭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멩두의 전승과정에는 무업활동의 양상이 반영되어 있다. 김윤수 가게와 동일한 현상이다.

한편 멩두의 전승 경로에서 김만보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다. 김성용의 장남이 일찍 사망한데다가 차남은 심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김만보는 제주도에서 뛰어난 큰 심방 가운데 하나였다. 집안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멩두1, 멩두2, 멩두4의 전승경로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집안의 특정한 이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현상은 어느 심방 가게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심방 자손이 꾸준히 골고루 생긴다면 모를까, 사정이 그렇지 않다면 누군가는 멩두를 처리하고 또한 모셔야 하기 때문이다.

김윤수와 이용옥의 가게에서 살펴본 멩두의 전승은 대체적으로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족관계에는 혈연, 혼인, 수양관계 등이 모두 포함된다. 여기에 타인에게서 멩두를 얻은 사례에서는 제주도 정의(旌義) 지역과 관련된 인연이 눈에 띈다. 김윤수와 이용옥은 제주시내와 조천읍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가게였는데, 정의 지역은 이들의 중심 활동지와는 비교적 거리가 떨어진 곳이다. 정의 지역은 무업활동의 양상도 다소 다르게 전개되는 측면이 있어 특히 본향을 중시하는 곳이다. 자세한 사정은 알기 어렵지만 멩두에 따라서는 정의 지역과의 인연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김윤수와 이용옥의 가게는 사실 김윤수의 작은조부 김신천 대에서 서로 연결된다. 김신천의 큰부인이었던 정씨가 이용옥의 외조모 가게이기 때문이다. 정씨는 일찍 사망하였기 때문에 자식을 두지는 못하였다. 김윤수의 외가 가게에서도 구좌읍 하도리의 큰심방 강씨 집안, 구좌읍 동북리 박인주 심방, 구좌읍 행원리 이중춘 심방 등과도 연결된다. 이용옥의 가게에서도 제주시 건입동의 칠머리당을 매었던 안사인 심방 집안과도 연결된다. 말하자면 혼인관계를 통하여 제주도내에서 무업활동을 하는 다른 가게와 일정한 인연을 가지고 있는 양상도 아울러 엿볼 수 있다.

## 제4장 멥두 관련 의례의 전개양상

### 1. 멥두고사

멥두고사는 멥두의 제작과정과 함께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멥두고사의 의미가 멥두 제작과정의 각 단계마다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 때문이다. 멥두의 제작과정은 크게 쇠를 준비하고 대장간에서 실제 멥두를 제작하는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멥두고사는 대장간에서 멥두를 만드는 작업의 전후에 행해진다.

멥두고사는 심방이 하지 않고 대장장이가 지내는 것이다. 따라서 멥두고사 자체는 무속의례가 아니라 간단한 유교식(儒敎式) 고사의 형태를 보인다. 멥두와 관련한 의례가 모두 무속의례인 점에 견주어 멥두고사는 그 진행방식이 다르게 전개된다. 하지만 멥두고사는 조상으로 관념되는 무구를 제작하는 일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초공본풀이를 비롯하여 제주도 무속의 다양한 양상을 드러낸다. 여기서는 멥두고사의 진행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멥두의 제작에 관련하여 멥두고사의 의미를 찾아보기로 한다.

#### 1) 멥두고사의 진행

멥두를 제작할 때에는 멥두고사를 지내야 한다. 멥두고사는 멥두를 제작하는 과정의 하나로 행해진다. 따라서 멥두를 제작하는 전반적인 과정 속에서 멥두고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멥두의 제작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멥두 제작에 사용할 쇠를 준비하는 것으로, 이를 ‘쇠의 준비’라고 정리하기로 한다. 둘째는 준비한 쇠를 가지

고 대장간에서 실제 멥두를 만드는 것으로, 이를 ‘멥두 지움’이라고 정리해두기로 한다.

췌의 준비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멥두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심방 자신의 집안에 있는 놋쇠부터 모아야 한다. 자신이 모은 쇠만으로 멥두를 만들기에 양이 충분하면 그것으로 췌의 준비는 끝난다. 그러나 때로는 모은 쇠의 양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 쇠를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심방은 마을의 단골들에게 쇠를 부탁하게 된다. 이를 ‘췌동녕’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쇠를 동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용준이 이미 췌동녕에 대하여 보고한 바 있다.<sup>113)</sup>

췌동녕에서 주목할 점은 심방과 단골의 관계이다. 심방이 핵심무구를 장만하는 데에 단골들이 부조를 하는 셈이다. 단골관이 살아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췌동녕은 실상 자주 벌어지는 일은 아니다. 전통사회에서 심방은 원칙적으로 멥두를 물려받아 마련한다. 멥두 물림이 여의치 않을 경우 멥두를 만들게 되고 이때에도 물자가 모자랄 경우라야 췌동녕이 이루어진다. 췌동녕은 황해도 무속의 쇠걸림과 견줄 수 있다.

다음으로 ‘멥두 지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본다.<sup>114)</sup> 심방은 쇠가 준비되면 대장간에 가져가서 멥두 제작을 의뢰한다. 이때 ‘본메 잇인 ㅈ·작멥두’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본메 잇인 ㅈ·작멥두’를 만들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본메를 놓고 만들 것이라면 본으로 쓰일 원멥두도 함께 가져간다. 원멥두는 아무렇게나 빌려주는 것이 아니다. 원멥두를 소유한 심방이 상대방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원멥두를 빌린 심방은 해당 멥두의 내력을 파악하고 원멥두 자체의 점괘해석에 대하여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조상을 복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메 없이 멥두를 만들 생각이라면 원멥두는 필요하지 않다.

멥두 제작을 위하여 심방이 대장간을 찾아가는 날은 대개 택일(擇日)로 결정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심방에 따라서는 특정한 날을 택한다는 경우도 있다.<sup>115)</sup> 당주제일과 특별한 관련을 보이지는 않는다. 멥두 제작을 의뢰하는 날이 당주제일과 관련이 없다는 것은 심방사회 현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 심방이 입무한 뒤 단골이 생겨 곳을

113) 玄容駿, 앞의 책, 95쪽.

114) 멥두의 제작과정에 대해서는 민속학자 고광민이 제공한 자료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 고광민이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의 메인심방이었던 박인주 심방이 제보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자가 직접 조사한 것을 덧붙여 멥두의 제작과정을 설명하기로 한다.

115) 제주시 애월읍 거주 고씨(여) 심방은 술일(戌日, 개날)을 택한다고 제보하였다. 왜 술일을 택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아마도 ‘개상잔 개천문’이라고 하는 사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해 볼 수 있겠다.

의뢰받으면 자신의 멩두가 필요하다. 심방이 미처 멩두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면 단골과 약속한 날 이전에 멩두를 준비해야 한다. 당주제일에만 멩두를 제작할 수 있다면 매우 불편한 일인 셈이다. 마찬가지로 멩두의 보수도 때때로 벌어지는 일이므로 특정한 날로 고정하지 않고 택일하는 방식을 선호하였을 것이다.

멩두 제작을 전후하여 멩두고사를 지낸다. 멩두고사는 멩두 제작 전에 지내는 ‘앞고사’와 멩두를 제작하고 나서 지내는 ‘뒷고사’로 나뉜다. 심방의 의뢰를 받아 모두 대장간에서 대장장이가 지낸다. 이때 심방이 함께 배례하기도 한다.

멩두고사의 제물은 메, 떡, 쌀, 과일, 계란, 술 등이다. 그런데 제물을 준비할 때 돼지고기(돼지머리)를 쓰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돼지고기 제물은 멩두가 다닐 수 있는 곳판의 범위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즉 심방이 무업활동을 하는 단골의 범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고순안 심방은 멩두를 제작할 때 돼지고기를 준비하고 갔는데 함께 고사를 지내면 다음부터 고기를 가지고 다녀도 멩두 흥힘이 없고 자손들이 멩두를 가지고 다니기 쉽다고 여겼기 때문이다.<sup>116)</sup> 이중춘 심방도 멩두고사를 지낼 때 돼지고기를 올리면 돛제[豚祭]를 맡았을 때 멩두를 가져갈 수 있고, 만약 그때 돼지고기를 올리지 않는다면 돛제와 같은 의례에는 해당 멩두를 가져갈 수 없다고 믿었다.<sup>117)</sup>

멩두 앞고사를 지내는 양상을 살펴보자. 앞고사는 쇠를 녹이기 전에 하는 것이다. ‘불미[풀무]’ 앞에 제물을 차리고 대장장이와 해당 심방이 함께 참가하여 절을 한다. 고사 진행은 대개 대장이 맡아 알아서 한다고 한다. 이 앞고사는 멩두의 주조신(鑄造神)이라고 알려진 초공본풀이의 ‘전경록(정경녹)’과 대장간의 신에게 멩두가 곱게 잘 나오기를 바라며 지내는 것이라고 한다. 앞고사는 대장장이와 대장간의 신에게 드리는 고사인 셈이다. 앞고사가 끝나면 비로소 쇠를 녹여 멩두를 만든다.

멩두 제작이 끝나면 이번엔 뒷고사를 지낸다. 뒷고사로 먼저 멩두 조상을 목욕시킨다. 주형에서 금방 꺼낸 멩두를 물, 감주, 소주의 차례로 씻는 것이다. 멩두를 지은 뒤에는 향물로 목욕시키고 멩두치메(신칼치메)를 입힌다고도 한다.<sup>118)</sup> 그 다음으로는 멩두 조상의 넋을 들이는 ‘넋들임’도 한다. 넋들임도 대장이 직접 한다. 뒷고사는 갓 제

116) (사)제주학연구소, 앞의 책, 166쪽.

117) 제주도 구좌읍 거주 이중춘 심방 제보(2009년 9월 28일 / 자택에서 면담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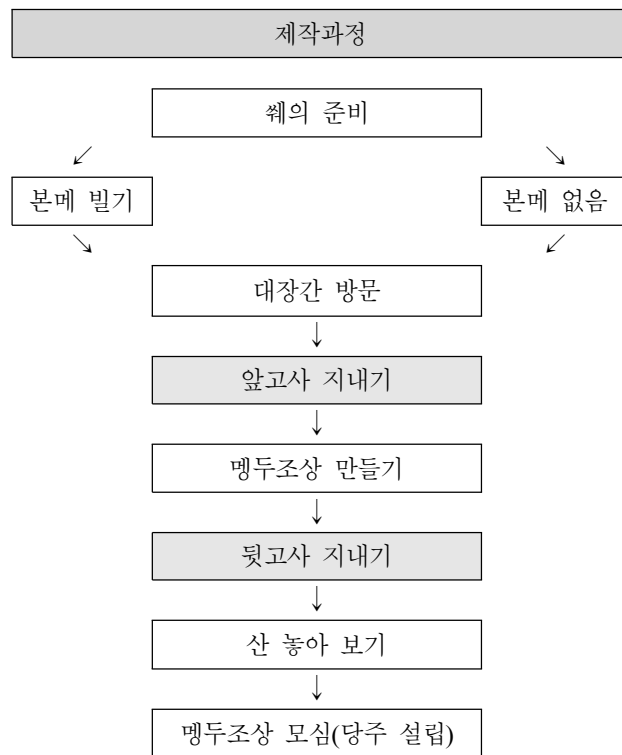
118) 오씨(남) 심방 초신질 신궁에서 확인(2010년 11월 28일 / 제주도 조천읍 소재 곳당).

작한 멥두에 대한 의례이다.

멥두 제작이 끝나면 첫 산(算)을 놓아볼 순서이다. 처음으로 하는 산받음인데 점괘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대장이 직접 신칼과 산판으로 산받음을 한다. 이때는 역시 산받음으로 해당 심방의 됃됨이도 알아본다. 앞으로 큰심방이 될 자질이 있는지 보는 것이다. 마지막에는 멥두를 집에 가져와 당주를 마련하여 모신다.

멥두고사를 비롯한 멥두의 제작과정을 정리하면 아래 [그림 4-1]과 같다. 멥두고사는 멥두 조상을 만드는 과정의 앞뒤에서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1] 멥두 제작과정



멥두고사는 멥두의 유형 가운데서는 ㅈ·작멥두에 해당하는 의례이다. 심방들은 대개 물린멥두의 유형으로 멥두를 마련한다. 물린멥두 유형에서는 나중에 멥두가 크게 파손 되었을 때 대장간을 찾아 멥두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멥두고사를 지내기도 한다. ㅈ·작멥두와 비슷한 경우로 멥두를 보수해야 하니 멥두고사를 한다. 그러나 멥두를 간단히 보수할 때는 멥두고사를 지내지 않는 것이 보편적이다.

## 2) 멩두의 제작과 멩두고사

초공본풀이는 멩두의 제작이 신성한 행위에서 비롯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삼형제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한 방도로 굿을 하기 위하여 멩두를 만들려고 하고, 이때 신이한 대장장이가 나타나 삼형제의 멩두를 제작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장장이는 ‘동이와당 쇠철이 아들’이다. 동이와당 쇠철이 아들은 동쪽 바다 쇠철이 아들이라는 말이다. 아래의 인용을 살펴보자.

「동이와당 쇠철이 아들을 불러라」 불러시고/ 동이와당 아끈모래 서이와당 한모래 걸어단/  
하늘천재 따지재 큰대재 물을문재 새기고/ 요령 신칼 맨들고<sup>119)</sup>

초공본풀이에는 일반적으로 동이와당 쇠철이 아들이 멩두를 제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쇠철이’라는 말에서 자연스럽게 대장장이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아들이라고 하였으니 대를 이은 대장장이인 셈이다.

이 쇠철이 아들이 동쪽 바다에서 왔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제주도 서사무가에서 동쪽 바다는 남다른 신화적 공간이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바 있다. 동이용궁따님이 기본풀이, 케네깃당본풀이, 삼성신화(三姓神話) 등 여러 종류의 본풀이에서 고루 나타나는 공간이다. 동쪽 바다는 주인공이 변환을 이루어내는 공간이기도 하고, 여러 물산(物産)이 제주로 도래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멩두를 제작하는 쇠철이 아들이 동쪽 바다에서 왔다는 점은 역시 새로운 물산의 도래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본풀이에 따라서는 ‘하늘옥황 전경록(혹은 정경록, 정명록, 전정록)’이라는 대장장이도 쇠철이 아들과 함께 거론된다. 아래 인용을 살펴보자.

백물래왓(白沙場)디 느려산다/ 하늘옥황 정명록이 느려보낸다/ 동의와당 쇠철이 아들 불러  
다/ 아끈(작은) 도간 한 도간/ 아끈 물래(沙) 한 물래/ 아끈 짓게 한 짓게로 무어간다.<sup>120)</sup>

동이와당(東海——) 쇠철이 아덜 불러단/ 아끈 모래 한 물래 일어 놓안/ 그걸 본뵈 놓안 진

119) 장주근, 앞의 책, 110쪽. 인용문의 / 표시는 행 나눔을 줄이기 위하여 필자가 표시하였다.

120) 제주도·제주전통문화연구소, 『제주도큰굿자료』, 제주도·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01, 233쪽. 인용문의 / 표시는 행 나눔을 줄이기 위하여 필자가 표시하였다.

게, 멧 번을 지어도, 아니 돼어 가는구나에—/ 고운 얼굴 고운 본메 아니난다./ 아버지가, 산  
돛(山猪) 잡앙 옥항더레/ 축원(祝願)을 올리난/ 옥항에서 전정녹이가 검은 옷을 입은 느려완/  
아끈 모레 일러간다 한 모레 일어간다./ 아끈 불미 한 불미에.<sup>121)</sup>

위의 인용을 살펴보면 하늘옥황 전경록은 동쪽 바다 쉼철이 아들과 함께 멧두를 제  
작하는 존재이다. 그런데 두 번째 인용문에서는 전경록과 쉼철이 아들이 경쟁관계이고  
그 가운데 전경록이 우세하여 결국 멧두를 만든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처음에는  
쉼철이 아들을 불러 멧두를 만들게 하였으나 멧두가 곱게 잘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러  
자 아버지인 황금산 주접선생이 산돼지를 잡아 옥황에 축원을 올렸고 이에 전경록이  
내려와 멧두를 만들기에 이르는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동쪽 바다 쉼철이 아들이 멧  
두 제작에 실패하자 옥황에서 내려온 전경록이 이를 대신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멧두  
제작을 위하여 대장간에서 산돼지를 잡아 멧두고사를 지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인용문  
은 멧두의 주조신과 멧두고사의 단서를 제공해준다.

첫째, 쉼철이 아들이 멧두 제작에 실패하고 결국 전경록이 멧두를 제작하였다는 점은  
전승과정에서 변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쪽 바다라는 공간보다 하늘옥황이라는  
공간이 우위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제주 서사무가의 양상을 참고한다면 동쪽 바다에서 유래한 쉼철이 아들이 본래적인  
요소인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동이용궁따님아기본풀이’와 ‘명진국따님아기본풀  
이’를 견주어 봐도 그렇다. 동쪽 바다에서 유래한 동이용궁따님아기가 해산(解産)에 실패  
하자 하늘옥황에서 내려온 명진국따님아기가 결국 산육(産育)을 맡는 삼승할망이 되  
는 사례와 유사하다. 멧두를 만드는 대장장이 신화에서도 같은 변이가 일어난 것으로  
생각된다. 하늘옥황이 멧두를 곱게 만들어낸다고 믿는 것이다. 이는 멧두의 신성(神聖)  
이 하늘로부터 유래하였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동쪽 바다를 대신할 새로  
운 문물 혹은 문명이 전래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멧두고사의 신화적 원형은 아버지가 산돼지를 잡아 하늘옥황에 축원을 올린 고  
사였다. 멧두고사로 인하여 전경록이 내려왔고 결국 멧두를 곱게 제작할 수 있었다. 따  
라서 멧두고사의 대상은 하늘과 전경록이다.

121)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앞의 책, 152쪽. 인용문의 / 표시는 행 나눔을 줄이기 위하여 필자가  
표시하였다.



초공본풀이에 나타나는 멧두고사의 원형은 실제 멧두고사의 앞고사와 동일한 의례이다. 앞고사는 멧두의 주조신이라고 인식하는 대장장이 전경록에게 멧두가 곱게 잘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지내는 의례이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대장간의 신들도 포함된다.<sup>122)</sup> 멧두 앞고사 역시 초공본풀이라는 신화적 전거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앞고사는 멧두를 제작하는 대장장이의 생업에 따른 의례이다. 쇠로 된 무구는 대장장이의 작업을 거쳐야 한다. 제주도에서 멧두를 제작하였던 대표적인 대장장이는 ‘동광양 황대장’과 ‘동광양 정대장’인 것으로 보인다. 많은 심방의 사설 속에 이들 대장간이 등장한다. 멧두의 내력을 말할 때에는 언제 어디서 멧두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하기 때문이다. 큰 대장간이 별로 없어서 제주시내였던 동광양의 이름난 대장간들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시간이 좀 흐르면서는 삼양(제주시 삼양동)이나 서김녕(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의 대장간 등도 이용하였다.

멧두 앞고사의 제물차림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돼지고기 제물과 멧두의 사용이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믿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sup>123)</sup> 심방들은 돼지고기를 올리지 않고 멧두고사를 하였다면 해당 멧두는 장차 돼지고기 제물과 관련 있는 의례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즉 멧두가 본래 돼지고기 제물을 받지 않았으므로 해당 의례와 맞지 않는다는 말이다. 반면에 심방들은 돼지고기를 올리고 멧두고사를 하였다면 돼지고기와 관련 있는 의례에도 가지고 다닐 수 있다고 여겼다. 멧두가 본래 돼지고기 제물을 받았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다. 멧두의 성격에 제물을 연결시켰다.

제주에서 어떤 특정한 단골판들은 돛제와 같이 돼지고기 제물이 중심이 되는 의례를 행한다. 따라서 이런 단골판에 출입하며 돼지고기 제물과 관련 있는 의례를 집행하는 심방들은 멧두고사를 할 때 자연스럽게 돼지고기를 올린다. 멧두고사에서 돼지고기 제물을 받은 멧두만이 해당 의례를 말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거꾸로 생각하면 이러한 인식은 그만큼 심방들이 자신이 출입하는 단골판을 배타적으로 관리하여 다른 심방들을 견제하였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른 심방이 자신의 단골판에서 의례를 말할 수 없도록 하는 여러 견제장치 가운데 하나였다고 볼 수

122) 제주에서 대장간의 신으로는 갈매하르방과 갈매할망이 있다. 갈매하르방과 갈매할망의 면모에 대해서는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새당의 본풀이를 참고할 수 있다. 秦聖麒, 앞의 책, 53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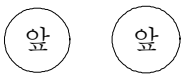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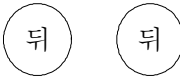




123) 초공본풀이에 언급된 멧두고사에는 산돼지를 잡아서 축원을 드렸다고 하였다. 이는 대장간에서 고사를 지낼 때 준비하는 보편적인 제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제주도의 ‘불미(풀무)’ 생업과 관련한 의례에서는 돼지고기를 제물로 올렸다.

있다. 멥두의 성격을 따지고 문제 삼아서 그 멥두를 소유한 심방의 활동범위까지도 제한한 셈이다. 멥두고사에서 돼지고기를 받지 못한 멥두가 어떻게 돼지고기 의례를 맡을 수 있는가 하는 나름의 논리를 만들어내었다. 이러한 기준을 지키지 않고 무시한다면 멥두의 흥협이 생긴다고 여겼다.

한편 멥두 뒷고사는 갓 만들어진 멥두를 다루는 방식과 관련된 의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뒷고사는 주형에서 꺼낸 멥두를 깨끗하게 씻는 데서 시작한다. 멥두를 잘 씻어서 부정을 없애는 것이다. 그런데 뒷고사에서 멥두의 넋을 들이는 ‘넋들임’을 하는 것이 흥미롭다. 멥두 제작과정에서 대장간의 뜨거운 열기를 감당해야 했던 멥두가 넋이 나갔다고 여기는 인식이다. 그래서 멥두의 넋을 찾아서 제자리에 들여 놓는다. 멥두가 조상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다. 뒷고사는 멥두를 사용하는 심방의 생업에 따른 의례이다. 뒷고사를 통하여 멥두는 조상이며 심방은 자손이라는 인식을 형성한다.

따라서 멥두를 제작하고 난 뒤에는 조상과 자손의 관계가 어떠한 지 알아보아야 한다. 조상과 자손의 관계는 산받음을 통하여 확인한다. 멥두를 제작한 뒤에는 첫 산받음을 하여 점괘가 나오는 모양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해석의 기준점을 마련한다. 이때는 일반적인 점괘해석법과 더불어 해당 멥두에 ‘타고난 점괘’도 알아보아야 한다. 즉 ‘가문공사(웨상잔막음)’라는 점괘가 멥두의 일반적인 점괘로 ‘타고나지 않은 점괘’라면, ‘삼시왕군문’이라는 점괘는 해당 멥두에 ‘타고난 괘’에 해당하는 셈이다. [그림 4-2]에서 가문공사와 삼시왕군문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그림 4-2] 가문공사와 삼시왕군문 점괘 양상

가문공사(웨상잔막음)	삼시왕군문(양창보 심방)	삼시왕군문(김윤수 심방)
천문 	천문 	천문 
상잔 	상잔 	상잔 

위의 [그림 4-2]에서 가문공사는 어느 심방이나 공통으로 해석하는 일반적인 점괘이다. 이에 견주어 삼시왕군문은 심방에 따라 천문과 상간의 조합이 다를 수 있다. 삼시왕군문은 멍두를 만들고 나서 가장 처음에 하는 산받음의 결과이다. 심방들은 첫 산받음에서 나온 이 삼시왕군문을 가문공사와 같은 점괘라고 여긴다.

심방은 자신이 만든 멍두의 산받음 점괘를 정확하게 인식해야만 한다. 해당 멍두의 특징을 잘 이해해야 한다. 단골로부터 곳을 의뢰받았을 경우에는 큰심방의 멍두로 곳을 하기 때문에 소미들도 역시 해당 멍두의 특징을 잘 숙지해야 한다. 곳을 함께 다니는 동료들은 서로 소유한 멍두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만 한다.

멍두를 제작한 뒤 처음으로 산받음을 할 때에는 해당 심방의 자질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훌륭하고 뛰어난 큰심방이 될 수 있는지 자신의 조상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이는 거꾸로 멍두에게 큰심방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이기도 하다. 심방과 멍두가 인연이 잘 맞아 무업활동이 번창하기를 바라는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 2. 당주제

맹두를 일상적으로 모시는 곳을 당주라고 한다. 당주에 모신 맹두를 위한 의례가 당주제이다. 당주제는 초공본풀이의 삼형제가 태어난 날에 하는데 특히 28일의 제일이 중심이다. 당주제는 심방이 무업활동을 하는 내내 지속된다. 당주제는 과거에 크게 지냈다고 하지만 현재는 매우 간단히 지내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당주제는 맹두 조상에 대한 의례로써 심방의 생업과 관련한 것이다. 하지만 신앙민인 단골과도 관련이 깊다. 따지고 보면 당주제는 원칙적으로 심방 개인의 의례인데 단골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여기서는 당주제의 진행을 먼저 살펴보고, 맹두의 좌정과 관련하여 당주제의 의미를 찾아보기로 한다.

### 1) 당주제의 진행

심방이 당주에 모신 맹두 조상을 위하여 지내는 의례를 당주제라고 한다. 심방은 무업활동을 지속하는 내내 당주제를 지내야 한다. 따라서 심방의 생애를 기준으로 당주제를 바라본다면 ‘당주무음’, ‘당주제’, ‘당주지움’의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심방의 생애와 무업활동의 순서에 따른 구분인 셈이다.

‘당주무음’은 심방으로 나서서 맹두를 마련하고 당주에 모시기 위하여 처음으로 지내는 제이다. ‘무음’이라는 말은 제주어 ‘뭇다’로 어떤 것을 꾸며 만든다는 뜻이다. ‘당주설립’과 같은 의미이다. 당주를 설립할 때는 본인이 직접 당주제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흔히 다른 심방이 대신 해주기도 한다. 당주무음은 가장 처음 지내는 당주제라 할 수 있다.<sup>124)</sup>

124) 정공철 심방의 당주무음(당주설립) 사례를 간단히 정리하여 예시로 삼고자 한다. 우선 당주에 제물을 진설한다. 그리고 당주살장이나 군문기 등의 기물을 만들어서 당주를 장식한다. 맹두 가운데 신칼은 신칼치메를 새로 입힌다. 지전 등도 올려서 둔다. 준비를 마치면 본주심방이 배례하고 해당 심방은 앉아서 진행한다. 당주제를 하는 시간과 공간, 연유를 말하고 맹두의 내력도 자세히 언급한다.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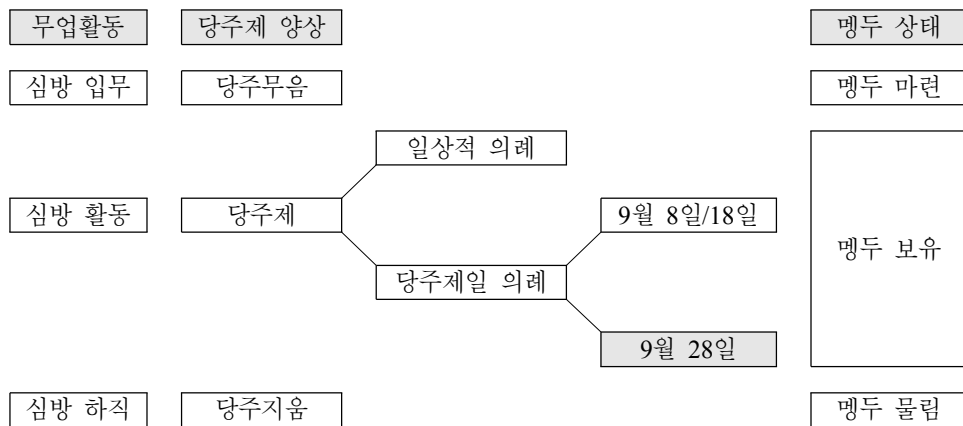
‘당주제’는 심방으로 활동하는 내내 본인이 직접 집에서 지내는 것이다. 이 당주제는 좁은 의미의 당주제인 셈이다. 당주제는 일상적 의례와 당주제일 의례로 나눌 수 있다.

심방이 매일 당주에 잔을 갈아 올리며 향을 피우고 촛불을 켜는 행위를 일상적 의례라 할 수 있다. 그러다가 9월 8일, 18일, 28일에는 당주제일에 드리는 당주제가 되는 것이다. 당주제일 의례는 8일과 18일에 견주어 28일의 제일을 매우 중시한다. 따라서 8일과 18일에는 본인 스스로 간단히 지낸다. 28일에는 당주제를 크게 벌이는데 이날은 동네 단골주민들도 찾아와 부조를 하고 ‘넉들임’과 같은 간단한 비념을 하고 돌아간다. 하지만 현재는 28일의 당주제마저 심방 혼자 간단히 지내는 것으로 거의 변화하였다.

‘당주지움’은 가장 마지막으로 지내는 당주제이다. 심방이 무업을 그만두게 되면 당주에 이를 알리고 당주 자체를 없애니 ‘당주하직’과 같다. 당주하직도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다른 심방이 대신 해줄 수도 있다.<sup>125)</sup> 당주지움은 맹두를 후계자에게 물려주는 일과 관련 있다.

당주제의 구체적인 양상을 정리하면 [그림 4-3]과 같다. 이 가운데 제주도 무속에서 일반적으로 당주제라고 하면 당주제일을 맞아 지내는 의례를 말한다. 특히 좁게는 28일의 당주제를 의미한다.

[그림 4-3] 당주제의 양상



들을 청하여 여러 가지 기원을 드린 다음 본주심방에게 산반음을 해주며 마무리한다. 1시간 40분 정도 걸렸다(2011년 10월 4일(음 9월 8일) / 자택에서 현장조사).  
 125) 당주하직의 두 사례를 제시한다. 첫째, 이중춘 심방이 사망하고 얼마 뒤에 5일 동안 시왕맛이를 중심으로 굿을 하면서 당주하직을 하였다. 당주제는 맹두와 함께 박물관에 기증하였다(2011년 6월 2일~6월 6일 / 자택에서 현장조사). 둘째, 양창보 심방은 정공철 심방에게 맹두를 물려주면서 당주하직을 하였다. 당주로 사용하던 장롱은 정공철 심방에게 물려주었다. 서순실 심방이 앉아서 진행하였다. 1시간 정도 걸렸다(2011년 10월 4일(음 9월 8일) / 자택에서 현장조사).

당주제의 진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인 두 가지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9월 28일에 행하는 당주제를 대상으로 한다. 과거에는 28일의 당주제를 크게 치렀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현재는 심방 대부분 간단히 지내는데 역시 전자와 견주어 볼 때 어떤 의미를 드러내는지 궁금하다.

따라서 과거처럼 크게 벌이는 당주제와 현재 간단히 행하는 당주제를 각각 살펴보기로 한다. 당주제를 크게 지내는 사례가 마침 아직까지 남아 있어 매우 소중하다. 당주제의 진행을 각각 살펴보면 당주제의 의미도 자연 드러날 것이다. 각각의 당주제를 일시, 장소, 제물, 당주제의 참여자, 진행순서로 나누어 정리한다.

A. 제주도 조천읍 김씨(여) 심방의 당주제 [自:본인 진행, 他:다른 심방 진행]

연도	당주제 진행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2007년 11월 7~8일(음력 9월 28~29일)</li> <li>- 장소 : 자택의 당주 앞</li> <li>- 제물 : 처서상, 십육스제상, 산신요왕상, 영가상, 보답상, 할망상, 공깃상</li> <li>- 당주제의 참여자 : 본인(한복) 외 심방 4명 / 마을 단골 및 심방 방문</li> <li>- 진행순서</li> <li style="padding-left: 20px;">&lt;첫째 날&gt;</li> <li style="padding-left: 20px;">삼석울림[自,他]→초감제[自]→초상계/추물공연[他]→단골 녀들임과 산받음[他/교대]</li> <li style="padding-left: 20px;">&lt;둘째 날&gt;</li> <li style="padding-left: 20px;">액맥이[他]→공시풀이[自]→각도비념[他] →선왕풀이/배방선[他]→도진[自]</li> </ul>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2008년 10월 26~27일(음력 9월 28~29일)</li> <li>- 장소 : 자택의 당주 앞</li> <li>- 제물 : 처서상, 십육스제상, 산신요왕상, 영가상, 보답상, 할망상, 공깃상</li> <li>- 당주제의 참여자 : 본인(한복) 외 심방 5인 / 마을 단골 및 심방 방문</li> <li>- 진행순서</li> <li style="padding-left: 20px;">&lt;첫째 날&gt;</li> <li style="padding-left: 20px;">삼석울림[自,他]→초감제[自]→초상계/추물공연[他]→단골 녀들임[他]</li> <li style="padding-left: 20px;">→초공본풀이[他]→단골 녀들임과 산받음[他/교대]</li> <li style="padding-left: 20px;">&lt;둘째 날&gt;</li> <li style="padding-left: 20px;">단골 녀들임과 산받음[他/교대]→체서본풀이[他]→액맥이[他]→공시풀이[自]</li> <li style="padding-left: 20px;">→각도비념[他]→돛제[他], 실명지사궤[他]→영계둘러세움[他]</li> <li style="padding-left: 20px;">→음복(쌀과 고기 분배)→선왕풀이/배방선[他]→도진[自]</li> </ul>

B. 제주도 조천읍 김운수/이용옥 심방의 당주제

- 일시 : 2010년 11월 4일(음력 9월 28일), 오전 10시(16분 소요)
- 장소 : 자택의 당주 앞
- 제물 : <당주> 메, 구운 생선, 계란, 채소(콩나물, 고사리), 과일(사과, 배, 귤), 술, 물  
<당주 앞 제상(역가상)> 상 위에 폐백(한복 또는 무복/시렁목), 지전, 예명지  
폐백 위에 양푼그릇(쌀 가득, 초 3개, 향, 명실, 돈), 삼주잔, 계란
- 당주제의 참여자 : 이용옥(평복)
- 진행순서  
분향→배례→소지원정→액맥이→주잔넘김→제반 걸음→잡식

A와 B의 당주제를 각각 소요시간, 제물차림, 참여자, 진행방식 등으로 정리해본다. A의 사례는 비교적 규모 있게 치르는 것으로, 과거에 행해졌던 방식이라고 한다. B의 사례는 본인이 간단히 지내는 것으로 현재 대부분 심방이 택하는 방식이다.<sup>126)</sup>

첫째, 소요시간에 큰 차이가 있다. A당주제는 2일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는 제차의 진행과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심방에게 필요한 제차와 찾아오는 단골들에게 필요한 제차를 모두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견주어 B당주제에 걸리는 시간은 한 시간도 채 걸리지 않을 정도로 매우 짧다.

A당주제에서 시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단골들을 위한 녀들임과 산받음 제차이다. 첫째 날의 많은 시간을 단골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셈이다. 대개 첫날 늦은 시간까지 단골의 녀들임을 반복하는데, 이튿날 새벽에도 단골이 찾아오면 여전히 계속 이어진다. B당주제는 비념의 형식으로 본인만 지내니 당연한 결과이다.

둘째, 제물차림에도 차이가 있으나 맥락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A당주제는 자택의 당주와 그 앞에 여러 종류의 제상을 마련하여 제물을 진설한다. 집안 영가도 위하고 이른바 일월조상과 조왕이나 칠성 등도 위한다. B당주제는 당주 내부에 제물을 진설하고 당주 앞에 역가상을 놓았다. 부엌에는 조왕을 위하여 술잔을 올렸다.

A당주제는 맹두를 위한 의례이면서도 제상차림을 보면 사실상 당주제 외에 여러 의례가 복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주제이지만 심방 집안의 안택을 위한 의례이기도 하다. 가정신앙도 포함한다. B당주제는 역가를 바치는 당주제이면서 집안 식구들의 액맥이 정도를 겸하는 의례의 성격을 보여준다. 조왕을 포함하였으니 가정신앙의 측면도

126) 김운수와 이용옥은 부부 사이이므로 당주제를 공동으로 지낸다. 부인인 이용옥이 당주제를 지낸다. 김운수는 같은 시간에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사무실의 당주제를 지내야 하기 때문이다.

포함되어 있다.

셋째, 참여자의 범위에 큰 차이가 있다. A당주제에는 본인 외에도 심방 여럿이 소미로 참여하고 있다. 당주제에 찾아오는 동료 심방들도 여럿 있어 때때로 이들이 나서서 단골들의 녀들임을 도와주기도 한다. A당주제에 다른 심방 여럿이 소미로 참여하는 것은 소미로 온 심방의 당주제가 약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소미가 여럿이니 때때로 무악기인 연물도 사용하여 당주제를 진행한다. 또한 당주제에 단골들이 많이 찾아와서 부조를 하고 녀들임과 산받음을 하고 돌아간다. B당주제에는 본인 외에 참여하는 이는 없다. 방문하는 다른 심방도 없다. 당주제에 찾아오는 단골들이 없다.

A당주제에서는 본인과 소미로 온 다른 심방이 적절하게 제차를 나누어 맡아 한다. 2일 동안 진행해야 할 제차가 많으니 서로 나누어 맡는다. 물론 단골들의 액맥이나 산받음은 본인이 주로 한다. 과거처럼 진행하므로 심방과 평소 교류하는 동네 단골들이 당주제를 잊지 않고 돌아본다. 단골들이 다수 찾아오니 당주제에 걸리는 시간도 그만큼 길어지기도 한다. 당주제가 단골관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드러낸다. B당주제는 본인만 홀로 간단하게 하기 때문에 다른 이가 찾아올 수 없기 마련이다.

넷째, 진행방식에도 큰 차이가 있다. A당주제는 ‘앗인굿’의 형식으로 한다. 제차의 구성은 크게 삼석올림→초감제→초상계/추물공연→초공본풀이→단골 녀들임과 산받음→액맥이→공시풀이→각도비념→선왕풀이/배방선→도진이다. 나름대로 굿의 기본적인 형식을 갖추어 진행한다. B당주제는 특정한 형식이라고 말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 분향→배례→소지원정→액맥이→주잔넘김→제반 걸음→잡식이라는 형식은 갖추었지만 지나치게 간소화하여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비념의 형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설을 동반하지 않은 점이 있다. 일단 여기서는 앓인굿의 굿이라는 형식에 견주어 비념 형식과 유사한 것으로 정리해두기로 한다.

A당주제의 진행방식을 보면 2007년과 2008년의 제차에 다소 차이가 있다. 우선 초공본풀이는 2007년에 하려고 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하지 못한 것이다. 초공본풀이는 원래 당주제에서 하는 제차이다. 2008년에 추가된 제차는 체서본풀이와 돛제, 영계돌려세움이다. 몇 년에 한 번씩 추가하여 챙기는 제차들이라고 한다. 체서본풀이와 영계돌려세움은 집안 조상 영가들을 위한 것이다. 돛제는 5년 정도에 한 번씩 하는 제차이다. 단골관에 돛제를 하는 주민들이 있어 심방이 벌어먹었기 때문에 역시 당주제에서도 이를 하여 역가를 바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A당주제와 같은 사례는 현재 제주도 안에서 사실상 자취를 감추었다. A당주제를 하는 김씨 심방의 당주제가 유일한 사례일 것으로 여겨진다. 김씨 심방도 앞으로 간단하게 당주제를 지내고자 한다. 제주도내 심방 대부분 현재 B당주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 당주제는 멥두 조상에 대한 의례인데 적어도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멥두 조상의례가 약화된 것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당주제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 변화양상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 멥두의 좌정과 당주제

당주제는 당주에 모신 멥두 조상에 대한 의례이다. 당주라는 공간과 멥두 조상의 성격을 두루 살펴보면 당주제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초공본풀이에 따르면 삼형제는 ‘어주에 삼녹거리 서강베포땅’에 당주를 마련하였다. 삼형제는 나중에 저승 삼시왕으로 올라가지만 어머니 자지멥왕아기씨와 너사무너도령에게 당주에서 함께 일만제기 삼천기덕을 지키도록 만든다. 일만제기 삼천기덕은 무구 일체를 뜻한다. 즉 당주는 초공본풀이의 공간이 현실 세계에서 심방의 신당(神堂)으로 등장한 것이나 다름없다. 당주는 멥두와 더불어 중요무구를 보관하는 장소이며, 멥두 조상과 함께 자지멥왕아기씨와 너사무너도령까지 존재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저승 삼시왕에 견주면 당주는 이승 삼하늘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심방은 무업조상 멥두의 탄생일을 맞아 당주제를 지낸다. 제일은 9월 8일, 18일, 28일이다. 당주제일이 9월인 점은 초공본풀이와 무업활동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초공본풀이에서 자지멥왕아기씨는 구시월 단풍이 들었을 때 태어났다. 따라서 이름도 ‘이 산 줄이 받고 저 산 줄이 받아 왕대월석 금하늘 노가단풍 자지멥왕아기씨’라고 지은 것이다. 삼형제 역시 9월 초여드레, 열여드레, 스무여드레에 차례로 태어났다. 물론 당주제일은 삼형제의 탄생을 맞아서 하는 것이지만, 어머니와 아들 삼형제가 같은 시기에 탄생한 셈이다. 9월이라는 당주제일에 신화적으로 근거를 부여하였다.

둘째, 심방의 무업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당주제일은 심방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역가를 갠다는 뜻이기도 하다. 마을 신당(神堂)의 제일에 ‘시만곡대제(新萬穀大祭)’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이다. 마을 주민들이 한 해 농사를 마치고 당신에게 의례를 올리듯 심방 역시 한 해의 무업활동에 대하여 감사의례를 올리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 무속에서 무당이 자신의 신당에서 가을철에 진적굿을 지내는 사례와 같은 맥락으로 견줄 수 있다.

물론 3회의 당주제일 가운데 28일의 제일이 특히 중시되고 있다. 심방들도 8일과 18일에는 간단히 지내고 28일에 크게 한다고 말한다. 당주제를 10일마다 크게 지낼 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노릇이니, 나름대로 규모를 갖추어 지내는 당주제는 28일을 택하였다고 본다. 이는 삼형제 가운데 시왕맞이를 맡는 ‘살아살축 삼맹두’의 신화적 의미를 중시한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맹두는 심방의 생업과 관련한 조상이다. 따라서 당주제는 원칙적으로 생업의 풍요를 기원하는 의례라는 의미를 갖는다. 생업의례라는 당주제의 의미가 매우 중요하니 만약 당주제와 일이 겹쳤을 때에 본인이 하지 못하면 대리인을 통하여 당주제를 지낸다. 곳에 참여하는 도중에 당주제일을 당하면 큰심방이 굿을 잠시 중단하고 소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 당주제를 지낼 수 있게 배려한다. 지금은 당주제가 약식으로 변화하였으니 집안 식구들에게 부탁하여 당주제를 대신 지내게 할 수도 있다.<sup>127)</sup>

당주제는 생업 조상인 맹두를 위한 의레이지만, 심방 집안의 안택(安宅) 의례로 범위가 확장되었다. 대부분 심방 집안에서는 별도의 가정신앙 의례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1년에 한 번 정기적인 당주제에서 집안의 안택과 관련한 의례를 겸하여 진행한다. 집안의 조상영가와 일월조상, 그리고 조왕과 칠성 등을 위한 제사를 마련하여 해당 제사를 진행한다. 액막이도 하니 집안의 무사안녕을 위한 의례가 당주제 안에 여럿 포함되어 있는 셈이다.

심방에게 맹두는 원칙적으로 생업과 관련하여 좌정한 일월조상이다. 그런데 실제 행해지는 당주제는 생업과 관련한 의례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한마디로 혈연 조상에 대한 제례(祭禮)를 제외하고는 집안의 안택과 가정신앙 의례가 당주제에 수렴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매 의례를 따로 지내지 않고 당주제에 통합하여 일원화하였다. 심방

127) 실제로 제주시 애월읍 소재 모 굿당에서 굿의 일정과 당주제일이 겹쳤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굿을 시작한 지 3일째 되는 날이 당주제일이었던 것이다. 큰심방은 자신의 맹두를 굿당에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당일애 굿당에서 메를 직접 올렸다. 소미로 온 심방들은 자신의 맹두가 집에 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당주에 메를 올려 달라고 부탁하였다(2010년 11월 3일 현장조사).

집안에서는 멩두를 가장 상위에 놓고 있다는 인식을 엿볼 수 있다.

한편 당주제가 생업의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방은 자연히 자신이 교류하는 단골들을 염두에 두게 된다. 즉 심방은 당주제를 통하여 단골판을 관리한다. 과거에는 당주제를 맞아 심방이 동네 집집마다 떡을 다 돌리며 나눠줬다고 한다. 당주제를 하는 시간도 단골의 편의를 고려한다. 당주제는 심방에 따라 아침부터 해서 저녁에 끝내거나, 아니면 오후 늦게부터 해서 새벽에 끝내기도 한다. 아무튼 농사일에 바쁜 단골들이 참여하기 편하도록 배려하였다.

단골들도 당주제에 오면서 곡식 등으로 부조를 하였고, 이에 심방은 식사를 대접하고 단골의 넉들임과 산반음, 액맥이를 해주었다. 만약 단골 가운데 당주에 ‘신충아기’를 올린 이가 있으면 심방은 그 아이의 수복(壽福)도 함께 빌어준다. 만약 췌동녕을 하여 자·작멩두를 지었다면 쇠를 부조한 단골들은 심방이 소유한 멩두와 일정한 인연을 가진 셈이기도 하다. 본향멩두라면 단골들의 관심이 더욱 클 것이다. 결국 당주제는 심방집의 의례이면서 단골판의 의례이기도 하다.

그리고 보면 당주제가 음력 9월에 3회의 제일로 구성된 것은 단골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는 의례적 장치로 여겨진다. 당주제가 단골판을 관리하는 성격을 참고하면 이 3회의 제일은 많은 단골들의 발길을 분산할 수 있는 근거도 된다. 그러면 단골은 3회의 제일 가운데 적절한 날을 택하여 갈 수 있다. 이는 마을 신당의 의례와 동일한 구조이기도 하다. 일뤼당이나 여드레당 같은 경우 매 7일·8일, 17일·18일, 27일·28일 등으로 제일이 3회로 구성되었는데 당주제 역시 같은 원리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당주제는 28일에 크게 하지만 원리적으로는 단골의 방문 자체는 3회에서 택일하는 것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당주제는 멩두와 심방이라는 1차적인 관계에서 단골까지 이르는 2차적인 관계로 확장되었다.

당주제의 진행방식은 현재 큰 변화를 겪은 상태이다. 과거에 앓인곳으로 하였다가 근래에 들어 비념과 같은 형식으로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비록 앓인곳이었지만 나름대로 굿의 형식을 갖추었다. 만약 안젓소미가 있으면 당주제에 와서 도와주고, 한 가족일 경우 물론 당주제를 함께 지냈다. 그러나 현재 행해지는 당주제는 거의 대부분 심방이 사설도 없이 간단한 비념 방식으로 끝낸다. 물론 초공본풀이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 데에는 심방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따지면 심방과 단골간

의 관계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과거에 크게 했던 당주제는 다분히 단골관리의 목적이 있었다.

단골은 대개 한 마을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연(地緣) 집단이다. 마을의 무속신앙 양상이나 단골 집단이 약화된다면 예전처럼 단골을 관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것이다. 심방도 점차 사라져 메인심방이라 하더라도 해당 마을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마을에 거주한다면 역시 예전처럼 당주제를 지내기 어렵다. 당주제를 크게 벌여 단골집단을 공고히 하기 힘든 상황이 당주제를 비념 형식으로 축소시켰다고 본다.

### 3. 신굿

신굿은 심방의 일생에 걸쳐 3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이를 초신질, 이신질, 삼신질 신굿이라고 한다. 달리 심방이 굿을 하여 벌어먹은 역가(役價)를 바치는 의례라는 뜻에서 초역례(初役禮), 이역례(二役禮), 삼역례(三役禮)라고도 한다. 신굿 가운데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초신질 신굿이라 할 수 있다. 그래야 ‘당당한 하신충’ 행세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신질 신굿을 하지 않고 무업활동을 하면 원칙적으로 다른 심방들이 인정해 주지 않았다.

신굿은 멩두를 소유한 심방에게 한정하여 행해지는 무속의례이다. 신굿은 심방과 멩두가 어떤 상관관계에 놓여 있는지 의례로서 드러낸다. 신굿은 멩두를 통하여 심방이 걷는 신의 길을 바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심방은 무업조상인 멩두를 받들어 모시고, 멩두는 심방을 무속사제자로서 인증하고 신력을 부여한다. 신굿에서 멩두는 무업조상의 신성이 깃든 신체(神體)이다. 여기서는 신굿의 진행을 살펴보고, 멩두의 신성과 관련하여 신굿의 의미를 찾아보기로 한다.

#### 1) 신굿의 진행

신굿의 면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굿의 진행과정을 알아야 한다. 일찍이 신굿을 처음으로 다룬 현용준은 신굿의 구성과 제차를 정리하였다.<sup>128)</sup>

현용준은 신굿의 구성이 큰굿이라는 점을 밝히고 일반 개인집의 큰굿과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하였다. 하나는 신굿의 모든 제차가 이중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당주맞이’와 ‘고분질침’이라는 신굿만의 특수한 제차가 추가된다는 점이다. 전자는 신굿에서 신들의 신통(神統)이 이중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고, 후자

128) 현용준이 정리한 제주도 신굿은 『濟州島 巫俗 研究』, 『제주도 신굿』,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집문당, 2002)』에 수록되어 있다. 내용은 동일하다.

는 두 제차가 신긋의 입무의례를 특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신긋은 시간이 자연 많이 걸리고 하위 제차의 구분도 매우 까다롭게 전개된다.

현용준의 정리는 실제 1981년에 행해진 초신질 신긋의 사례를 바탕으로 하고는 있으나, 신긋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제차구성과 진행과정을 자세하게 정리한 전사 자료집은 아니다. 당주맞이와 고분질침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내용은 알 수 있으나 꼼꼼하고 미세한 실상에 대해서는 온전하게 알기 어렵다는 애로점이 있다. 물론 당시 학계의 연구 형편을 생각한다면 이렇게라도 정리한 보고내용이 있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사실이다. 사진집의 형태로 발간되어 나름대로 소중한 사진정보도 얻을 수 있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신긋 전체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보고서나 전사(轉寫) 자료집은 아직 없는 형편이다. 초신질 신긋을 포함하여 역가를 바치는 일반적인 심방의 신긋에 대한 정확한 자료집도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다. 신긋 자체가 흔한 일이 아닐뿐더러 신긋을 조사하고 촬영하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굿판의 허락도 필요하고 10여 일이 넘게 걸리니 조사자에게도 시간적·경제적으로 힘든 일이다. 설사 조사에 성공하더라도 해당 자료를 꼼꼼히 전사하고 발간하는 것은 매우 벅찬 일이다. 높은 수준의 전사능력을 갖춘 연구자가 여럿이 함께 힘을 모아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신긋 전사물로 기존에 출간된 자료집이 두 권 존재한다. 2001년에 제주전통문화연구소에서 펴낸 『제주도큰굿자료』와 2010년에 역시 같은 곳에서 출간한 『제주큰굿』이다.<sup>129)</sup>

『제주도큰굿자료』는 1994년 동김녕 문순실댁 중당클긋을 전사한 자료집이다. 이 자료집은 최초의 신긋 관련 전사물이기는 하나 후반부에 전사가 누락된 제차들이 있다. 심방의 사설[말명]을 위주로 전사하여 굿판의 연행양상을 자세히 알기 어렵다. 또한 사당클이 아닌 중당클 규모이고 초신질 신긋의 사례가 아니어서 당주맞이 내의 ‘약밥약술’이나 ‘어인타인’ 등의 제차와 고분질침 등의 자료가 없다.

한편 『제주큰굿』은 1986년 신촌리 김윤수 심방집의 신긋을 전사한 자료집이다. 이 자료집은 초신질 신긋의 사례를 조사하고 전사한 최초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sup>130)</sup> 그러나 대단히 아쉽게도 부분적인 전사의 누락이 너무 많아 신긋 제차구성

129) 제주도·제주전통문화연구소, 『제주도큰굿자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전통문화연구소, 『제주큰굿』.  
130) 2010년에 『제주큰굿』이 발간되기 전에 이 굿의 일부 자료가 제주도에서 발간한 『濟州의 民俗 V

의 층위를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 사당클 규모 초신질 신긱의 자료로서 매우 소중한 점은 인정되나, 전체적인 초신질 신긱의 미세한 상황을 알기에는 다소 부족한 한계를 지녔다.

사정이 이러하니 기존에 출간된 두 권의 자료집을 바탕으로 하여 신긱 전체의 자세한 제차구성과 진행양상을 검토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두 권의 자료집을 부분적으로 참고할 수는 있어 다행스럽다. 신긱 연구는 이제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실제적인 자료의 축적과 발간이 아직 완성되지 못한 단계이다. 하물며 심방이 탄생하는 초신질 신긱의 자료 축적과 발간은 더욱 힘든 부분이다.<sup>131)</sup>

신긱의 전체적인 면모에 대한 정확한 보고서와 전사 자료집이 아직 없기 때문에 신긱에 대한 연구 역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신긱 연구는 초신질 신긱, 이신질 신긱, 삼신질 신긱 등의 자료집이 각각 구색을 갖추고 있을 때 가장 조화롭고 풍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동일 심방의 자료라면 더욱 좋겠으나, 그렇지 않더라도 초신질 신긱을 비롯하여 신긱의 적절한 사례마다 꼼꼼한 자료집을 갖출 수 있다면 신긱의 미세한 면모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신긱의 전체적인 제차 구성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상위 제차와 하위 제차가 어떻게 나누어지고 구분되는지 파악하는 일이 요청된다. 신긱의 규모에 따라 제차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탐구도 필요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신긱의 전체적이고 구체적인 제차구성이나 진행과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신긱의 전체적인 면모를 파악할 만한 자료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계를 인정해야 하니 신긱의 전체적인 면모는 자료축적을 더욱 늘리고 해당 자료의 출간이 더불어 이루어질 때를 기다려 적절한 시점을 택하여 차후에 다루기로 한다.<sup>132)</sup> 또한 이 글의 목적은 심방이 본격적으로 무업활동에 나서기 위해 초신질 신긱을 치를 때 심방과 멩두의 관계를 살피는 것이다. 이 글은 신긱 가운데서도 초신질 신

: 民間信仰·社會構造(濟州道, 1998)』에 실린 바 있다.

131) 2011년 10월에 정공철 심방의 초신질 신긱이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에서 열렸다. 이 신긱은 제주KBS가 영상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해진 것이기도 해서 참관인원에 제한을 둔 사실상 비공개 굿이었다. 장차 정공철 심방의 신긱을 전사한 자료집이 간행된다면 신긱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32) 필자는 현재까지 심방집의 큰긱을 10회 가까이 관찰하였다. 심방집의 큰긱은 기본적으로 신긱이다. 하지만 개별 굿마다 그 규모가 다르고, 사정에 따라 진행과정이나 양상이 다를 수 있다. 필자가 관찰한 굿 가운데 굿 전체를 관찰하여 촬영한 경우도 있고, 부분적으로 관찰하여 촬영하거나 녹음한 경우도 있으며, 촬영과 관찰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조사자료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특히 2010년에 초신질 신긱의 사례를 관찰할 기회가 있었으나 해당 심방의 사정과 요청에 의하여 부분적인 관찰만 할 수 있었고 촬영이나 녹음은 하지 못하였다.

곳의 양상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한계와 부족함을 인정하고 좁은 연구범위를 고려하여 서술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신긔 가운데서도 초신질 신긔에 한정하고, 그 안에서도 현용준이 언급한 핵심제차인 당주맛이와 고분질침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일단 『제주도 신긔』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긔의 핵심제차인 당주맛이와 고분질침의 구성을 다시 정리해 보기로 한다.<sup>133)</sup>

(시왕맛이 뒤에)

당주맛이>제물진설(마당/삼시왕상, 차사상, 무업선배 제상 등)

제장설비(제장 입구/삼시왕도군문 설치, 본주심방 문 앞에 꿰어앉아 대기)

당주맛이>연유담음, 상촉권상, 주잔권잔

당주맛이>삼시왕군문 열림, 본주심방 걸어 매어들

당주맛이>약밥약주

당주맛이>어인타인, 산받음

당주맛이>무구 내어줌, 본주심방 정장

당주맛이>단골집 첫 곳

당주맛이>당주에 역가 바침, 품 가름

고분질침>삼시왕질 돌아봄

고분질침>삼시왕질침

고분질침>삼시왕드리 놓음(초공본풀이)

고분질침>삼시왕드리 놓음(초공본풀이)>굽은맹두(무구 당주 제상에 바침, 무구 찾기)

고분질침>삼시왕드리 놓음>췌놀립긔

고분질침>삼시왕드리 매어들

현용준이 보고한 내용을 필자 나름대로 긔의 제차구성 방식으로 정리해 보았다. 이어 핵심제차들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요약하여 논의의 바탕으로 삼고자 한다.

당주맛이는 무업조상들을 맞이하여 대접하고 기원하는 의례이다. 평소 당주제를 통하여 ‘앗인긔’으로 이루어지던 무업조상 맹두에 대한 의례는 신긔에서는 ‘맛이’라는 형식으로 ‘산긔’으로 확대되어 행해진다. 신긔은 매우 많은 제차로 이루어진 방대한 큰긔이지만, 핵심제차가 당주맛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당주제의 긔관형이라는 속성을 내재하고 있는 셈이다. 당주맛이는 초공본풀이의 삼형제가 나중에 삼시왕으로 들어서니 ‘삼시왕맛이’라고도 한다.

133) 현용준·이남덕/글, 김수남/사진, 『제주도 신긔』, 90~96쪽.



당주맛이의 제물진설과 제장설비를 살펴보자. 제주에서 ‘맞이굿’을 할 때는 마당에 나가서 제장을 만든다. 당주맛이 역시 마당에 삼시왕상과 차사상 및 무업선배들의 제상을 차리고, 마당으로 들어오는 입구 쪽에 ‘삼시왕도군문’을 세우고 그 문 앞에 신입무인 본주심방을 꿰어앉게 하여 대기시킨다.<sup>134)</sup> 제물진설과 제장설비를 보면 당주맛이가 무업조상과 본주심방 간의 의례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당주맛이에서도 가장 핵심은 약밥약주(藥飯藥酒)와 어인타인(御印打印)이다. 본주심방이 제상 앞에 꿰어앉으면 삼시왕으로부터 약밥약주가 내렸다고 하면서 제물을 조금씩 떠서 섞은 것을 먹인다. 이어 역시 삼시왕으로부터 어인타인이 내린다고 하면서 멥두 가운데 천문과 상잔을 본주심방의 어깨 위에 올려놓는다. 그런 뒤에 천문과 상잔으로 점을 쳐서 입무의 허가와 훌륭한 심방이 될 것인지를 알아본다. 현용준이 일찍이 통찰한 대로 약밥약주와 어인타인은 무조신의 영력(靈力)이 본주심방에게 내리도록 하는 절차이다. 어인타인의 경우 말 그대로 무조신의 도장을 찍는 셈이다.

삼시왕으로부터 심방이 되는 것을 허가받았으므로 이제는 심방의 무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무구를 얻을 차례이다. 멥두와 무악기인 연물, 무복 등을 하나씩 내어준다고 하고는 소미들이 심방에게 이를 갖추어준다. 비로소 무복을 갖추고 정장한 심방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은 현용준의 보고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심방의 차림새를 갖추고 나면 다음은 심방의 일을 잘 수행할 만한 상태인지 점검하는 절차가 따른다. 이를 ‘예개마을(애개마을)’이라고 한다. 본주심방은 “니나난니 난니야~.”라는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등 심방으로서 얼마나 상태를 갖추었는지 보인다. 예개마을(애개마을)은 심방의 몸짓을 감상하고 무조신과 무업조상 앞에서 얼굴도 보여주고, 심방일을 어느 정도로 할 만한지를 굿판에서 보여주는 절차이다.<sup>135)</sup> 단골집의 첫 굿을 앞두고 행하는 절차이다.

134) 현용준의 보고에 의하면 삼시왕도군문이란 1m 정도의 대나무 두 개를 지면에 꽂아 세우고, 그 가지 끝의 이파리를 서로 엮어 묶은 뒤 기메를 달아맨 것이라고 한다. 성역(聖域)인 제장의 출입구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조금 다른 설명도 들을 수 있다. 당주맛이 제상을 마련하고 신자리를 깔아놓은 뒤 신자리 양 옆으로 시왕기 3개와 멥감기 3개를 서로 교차하여 설치한다고 한다. 신입무인 본주심방은 그 신자리 뒤에 꿰어앉는다는 것이다(2010년 11월 27일 오씨(남) 심방 초신질 신굿 / 제주시 조천읍 소재 굿당에서 고순안 심방 면담조사). 한편 삼시왕도군문은 심방집 큰굿에서 삼시왕상에 설치되는데, 이때는 대나무를 쪼개어 잘 다듬은 가지를 아치형으로 하여 시루떡에 꽂는 형태이다.

135) 예개마을(애개마을)의 양상에 대하여 이용옥의 초공본풀이에 언급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유정성 뜨넘아기, 굿 허레 가쟁 허민, 출려살 거난~, 연반물치메/ 내어주라 진녹색 저고리 내어주라. ……(중략)…… 내어주렌 헤연 이제랑 흐 번 우리 앞이서 몸짓이 좋은가 춤이나 추어보렌 헤연, 예개마을 소리로, ‘니나난니’ 불르멍/ 예개마을로 춤이나 추어보라./ 춤을 추단/ 여사무 삼형제 7라, 울

이어 심방으로서 단골집에 첫 곳을 하러 가는 순서이다. 새로 나선 심방과 소미들이 무구를 들고 단골집에 찾아간다. 미리 약속하여 둔 단골은 재물을 마련하고 곳의 준비를 마쳐둔 상태이다. 심방은 단골집에서 간단히 곳하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이내 소미들과 원래의 곳판으로 돌아온다. 이 절차는 심방이 단골의 곳을 맡아 하며 실제 무업활동을 벌이고 생계를 꾸려가는 모습을 나타낸다.

곳판에 돌아온 심방은 곳을 해서 벌어들인 역가를 당주에 바친다. 조상의 도움으로 무업활동을 할 수 있으니 그에 대한 보답을 해야 한다고 여긴다. 또한 함께 단골집 곳을 진행한 소미들에게 품삯을 나누어준다. 이를 ‘품 가름’이라고 한다. 당주에 역가를 바친다거나 소미들에게 나누어 주는 품 가름 등을 학습시키는 의미가 있다. 곳은 소미들과 더불어 하는 것이지, 심방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확인하는 뜻도 있다.

한편 고분질침은 구부러진 길을 치워 닦아서 바르게 한다는 의미이다. ‘고분—’은 제주어 ‘굽다’에서 나온 것으로 어떤 것이 구부러져 휘어진 상태를 가리킨다. 심방의 무업활동 역시 바르지 못하고 무언가 구부러지고 휘어져서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것이다. 삼시왕에서 유래한 심방의 자격과 곳의 집행에 큰 결함이 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고분질침은 ‘시왕고분연질’이라고도 한다. 고분질침은 당주맛이를 끝내고 난 뒤에 이어서 벌이는 제차이다.<sup>136)</sup>

고분질침에서 가장 핵심적인 제차는 ‘삼시왕질침(당주질침)’과 ‘고분맹두(굽은맹두)’이다. 삼시왕질침을 진행하는 가운데 고분맹두도 이루어진다. 우선 수심방은 삼시왕이 당주로 들어가는 길이 어떻게 되었나 하며 그 길을 돌아보고 깨끗이 치워 닦는다. 질침은 매우 구체적인 연행으로 행해진다. 길을 깨끗이 치우면 마당에서 당주까지 광목천을

랑국 범천왕~, 어서 왕강싱강, 즈직즈직, 좇인석으로 두드러 보렌 허난 즈직즈직허연, 와썩 좇추완/춤은 추어 보난, 야 몸짓도 좋아짓다./ 당당허게 큰심방이로구나>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앞의 책, 162~163쪽. 인용문의 / 표시는 행 나눔을 줄이기 위하여 필자가 삽입하였다. 또한 2010년에 벌어진 오씨(남) 심방 초신질 신곳에서 예개마을의 양상에 대하여 고순안 심방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2010년 11월 27일 / 제주시 조천읍 소재 곳당에서 면담조사).

136) 현용준은 당주맛이가 끝나고 이어 고분질침으로 들어간다고 보고하였다. 그런데 문무병은 『濟州의民俗(V)』(濟州道, 1998)과 『제주큰곳』(제주특별자치도·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10)에서 당주맛이 안에 고분맹두(굽은맹두)가 있다고 보았다. 고분맹두는 고분질침의 핵심제차이니 고분질침 자체가 당주맛이 안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최근 김현선이 「제주 신곳에서의 본풀이와 맞이의 상관성 연구」(미발표 원고, 2011. 9. 24. 경기대학교 대학원 세미나실)라는 글을 통하여 당주맛이와 고분질침의 의례적 제차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였다. 김현선의 문제제기는 신곳의 이해에 필수적인 물음이며 매우 시기적절하고 긴요한 일이었다. 이중춘 심방이 ‘시왕고분연질(즉 고분질침)’에 대하여 스스로 기록하여 남겨놓은 잡기장을 보면 맞이곳 의례의 일반적인 구성을 갖춘 것임을 알 수 있다(2011년 6월, 이중춘 심방 사망 뒤에 자택에서 잡기장 발견). 당주맛이와 고분질침의 제차관계를 면밀히 고찰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신곳의 핵심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본다.

이용하여 삼시왕드리를 깔아놓는다. 이때 무조신의 내력담인 초공본풀이를 부르며, 심방이 모의적으로 재연하는 대목이 군데군데 있다. 이윽고 초공본풀이 내용 가운데 무구의 유래를 말하는 대목이 나오면 차례차례 시왕당클에 바친다.<sup>137)</sup> 비로소 고분멧두에 접어든 것이다.

고분멧두는 무구 분실→가짜 무구 마련 모의→무구 찾기(점쟁이에게 문점하기→문전/세경에게 해결방법 묻기→어머니가 아들인 삼시왕에게 편지→삼시왕의 허가→무구 내어줌)→췌놀림곳으로 구성되었다.

수심방은 무구를 도둑맞아 잃어버리고는 할 일이 없으니 낮잠이나 잔다고 한다. 곁에 있는 소미들이 굿이 낫다며 수심방을 재촉하자 진짜 무구를 잃어버렸기에 유사하게 생긴 물건들을 이용하여 가짜로라도 무구를 만들어보려고 애를 쓴다.<sup>138)</sup> 결국 가짜 무구로는 굿을 할 수 없으니 용한 점쟁이에게 찾아간다. 본주심방이 점쟁이 노릇을 하며 문점이 이루어진다.

점쟁이는 도둑이 문으로 출입하니 문전(門神)에 물어보라고 한다. 수심방이 문신에게 가서 문자 문신은 도둑이 땅을 밟고 왔으니 세경(農神)에게 물어보라고 말한다. 세경은 심방의 그릇된 죄 때문에 삼시왕에서 무구를 몰수한 것이라고 말한다. 심방이 사죄하니 세경은 어머니가 아들인 삼시왕에게 편지를 쓰도록 부탁해 주겠다고 한다. 삼시왕은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할 수 없이 본주심방의 사죄와 역가를 받고 여러 무구를 돌려준다. 삼시왕에서 다시 심방의 자격을 부여한다는 뜻이다. 고분멧두는 황해도 무속 내림곳의 ‘무구 찾기’와 견줄 수 있다.

멧두를 다시 찾은 뒤에는 수심방이 멧두를 담은 전대(요즘에는 큰 양푼그릇)에 본인의 멧두와 본주심방의 멧두를 함께 놓아 춤을 추며 놀리는 ‘췌놀림곳’을 진행한다. ‘췌’는 곧 멧두이다. 이때 사용하는 멧두는 천문과 상잔이다. 수심방의 멧두는 밧공시이고 본주심방의 멧두는 안공시이다. 격렬한 춤을 춘 뒤에 수심방은 당주 앞에서 전대 속의 멧두를 모두 뿌리며 점을 친다. 췌놀림곳에서 산받음의 점괘는 ‘군문’이라야 한다. 심방들은 팔자 굿은 집에서 군문이 나와야 한다고 여긴다.<sup>139)</sup>

137) 현용준은 당주 제상에 바친다고 하였는데, 『제주큰굿』의 자료집에는 시왕당클에 올린다고 하였다. 현용준의 자료에 나타난 신굿을 치른 당사자인 서순실 심방에게 당시 상황을 확인하였는데 시왕당클이 맞다고 하였다. 현용준이 당주 제상이라고 한 것은 오기(誤記)였거나 착각으로 보인다.

138) 『제주큰굿』 자료집에 해당 대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중춘이 남긴 잡기장에도 언급되어 있다.

139) 이에 대해 현용준은 관리나 심방은 관청의 문 또는 신역(神域)의 문을 출입하는 직업이므로 문 속

췌놀림곳이 끝나면 본주심방이 드디어 삼시왕을 업어 매어들이는 순서이다. 삼시왕드리를 몸에 감아서 묶고 춤을 추다가 당주 앞에 가서 꿇어앉고 드리를 풀어 올린다. 무조신을 당주까지 업어 매어들인 셈이다.

## 2) 멩두의 신성과 신긋

신긋의 의미는 신긋의 이중구조와 신긋만의 특수한 제차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초신질 신긋은 새로운 심방이 탄생하는 곳이어서 멩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긋 자체의 특성과 멩두의 관계를 고찰하면 신긋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신긋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중구조의 모습부터 살펴야 한다. 이중구조의 핵심은 시왕맞이와 삼시왕맞이(당주맞이)의 공존이다. 일반 개인집 곳인 ‘ㅅ·가칩긋’에서는 시왕맞이만을 한다. 그러나 신긋인 ‘심방칩긋’에서는 시왕맞이와 삼시왕맞이를 한다. ㅅ·가칩긋이나 심방칩긋에서 하는 시왕맞이는 해당 본주의 일반적인 조상영혼들을 위한 것이다. 이에 견주어 심방칩긋의 삼시왕맞이는 무업조상과 더불어 과거 멩두를 소유한 심방이었던 옛 선생들의 영혼을 위한 것이다. 삼시왕맞이를 함으로써 신긋은 이중구조가 되었다.

ㅅ·가칩긋 : 시왕맞이                    ⇒ 조상영혼                    ⇒ 영계질침  
 심방칩긋 : 시왕맞이+삼시왕맞이 ⇒ 조상영혼+심방영혼   ⇒ 영계질침+선생질침

심방칩긋에서 삼시왕맞이를 하는 이유는 심방들은 죽으면 일반적인 시왕(十王)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삼시왕(三十王)으로 간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팔자를 그르친 이들은 죽어도 삼시왕에 매인 존재들이다. 삼시왕이 심방의 사후(死後) 세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셈이다. 삼형제가 삼시왕으로 좌정하였기 때문에 삼시왕맞이라고 하는데, 이런 의례의 명칭에는 심방의 사후에 대한 인식이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에 가두어진 것이 직업을 유지하는 의미가 되므로 길하다고 정리하였다. 玄容駿, 앞의 책, 432쪽.

삼시왕맞이의 무혼의례(撫魂儀禮) 성격은 시왕맞이와 삼시왕맞이를 연이어 진행하는 방식에서도 알 수 있다. 시왕맞이를 하고 난 뒤 곧바로 삼시왕맞이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혹은 굿판의 사정에 따라 시왕맞이와 삼시왕맞이를 ‘얼러서’ 할 수도 있다. 얼러서 하는 방식은 이어지는 두 의례에서 거듭되는 소제차를 한 번만 하는 경우이다.<sup>140)</sup> 시왕맞이와 삼시왕맞이를 얼러서 할 수 있다는 점은 삼시왕맞이가 시왕맞이처럼 무혼의례(撫魂儀禮)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시왕맞이의 기본적인 성격은 심방영혼들을 위한 무혼의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삼시왕맞이는 고분질침과 더불어 멩두를 모시는 심방의 무업활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초신질 신긋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신긋의 특수한 제차인 삼시왕맞이와 고분질침은 심방이 멩두와 가지는 관계 속에서 의미가 드러난다.

심방과 멩두가 가지는 관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멩두가 신의 길을 바르게 한다는 측면이다. 다른 하나는 멩두가 심방의 무업활동을 인증하는 상징이라는 측면이다.

멩두가 신의 길을 바르게 하는 양상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신의 길이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수심방과 본주심방의 멩두가 서로 질서 있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신긋에서 수심방의 멩두는 ‘밧공시’이고, 본주심방의 멩두는 ‘안공시’이다. 이를 통칭하여 ‘안팎공시’라고 부른다. 안팎공시 멩두의 질서 있는 조화는 산받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긋은 안팎공시의 멩두로 진행한다. 삼시왕맞이 전에는 수심방의 밧공시 멩두가 앞서야 하고, 삼시왕맞이 뒤부터는 본주심방의 안공시 멩두가 앞서야 한다. 말하자면 산받음에서 안팎공시 멩두의 앞서는 순서가 달라야 한다. 해당 멩두는 실제 위치상으로도 다른 멩두보다 앞에 놓여야 한다. 밧공시가 안공시를 이끌어주다가 삼시왕맞이를 기점으로 하여 안공시가 제 자리를 찾는 셈이다. 해당 제차를 진행할 때마다 안팎공시를 명확히 분별해야 하므로 심방집 굿의 산받음은 매우 까다롭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

심방칩긋에서는 수심방과 본주심방의 멩두가 공존하니 자연 독특하고 복잡할 수밖에 없다. 이는 안팎공시의 엄격한 질서를 매우 중시한다는 말이다. 심방칩긋에서 안팎공시의 산받음이 잘못 처리되면 결국 신의 길을 바르게 하지 못한 셈이 된다. 이는 결국

140) 강정식, 「제주무가의 연행양상」, 『2010년 한국구비문화대계 개정증보 현장조사사업단 학술대회 세미나 자료집 : 구비문화의 연행양상』,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71쪽. 제주무가의 대체적인 연행양상에 대하여 정리해 놓고 있어 유용하게 참고할 만하다.

신긋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신긋을 진행하는 심방들은 안팎공시 산반음의 결과를 신중하고 정밀하게 확인하고자 한다. 수심방과 본주심방이 함께 거듭 관찰하고 논의하여 합의를 한다. 신의 길을 바르게 하는 목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신의 길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목적은 심방일을 학습·재학습시키고 심방의 자세와 태도를 교정하는 시도에서도 나타난다. 심시왕맞이와 고분질침을 살펴보면 결국 심방을 만들고 심방일을 학습·재학습시키는 의례라고 할 수 있다. 심시왕맞이에서 심방을 만들고 심방일을 가르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고분멥두를 통하여 심방의 자세와 태도를 올바르게 교정하고자 의도하고 있다. 무업활동의 자격과 조건을 제시한 셈이고, 이를 멥두라는 물질을 통하여 보여준다. 아래의 [그림 4-4]를 살펴보자.

[그림 4-4] 삼시왕맞이와 고분멥두의 양상

구분	심방의 상태	핵심제차	멥두 상태
삼시왕맞이	심방 만들기	약밥약술 어인타인 무구 내어줌, 예개마을	멥두 습득
	심방일 가르치기	단골집 첫 곳 역가바침 품 가름	멥두 사용
고분질침	심방일 가르치기	고분멥두 (무업 태만, 무구 분실, 가짜 무구마련 모의, 무구 찾기 노력)	멥두 분실
	심방 다시 만들기	삼시왕에 사죄, 역가바침 무구 내어줌 췌놀림긋	멥두 재습득

위의 [그림 4-4]를 보면 삼시왕맞이와 고분질침은 심방과 멥두의 관계를 드러내준다. 심방의 상태와 멥두의 상태가 일정한 대응을 이루기 때문이다. 심방을 만드는 데에는 멥두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심방일을 가르치는 것은 멥두의 사용법을 익히는 것과 같다. 조상인 멥두를 분실한 행위는 심방이 될 자격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멥두를 다시 모셔야만 심방으로 거듭 날 수 있다. 심방은 멥두와 가지는 관계에서 존재 이유가 있다고 여기는 인식이다. 여기서는 특히 어인타인과 고분멥두가 중요하다.<sup>141)</sup> 두 제

차 모두 신의 길을 바르게 하는 전환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맹두가 심방의 무업활동을 인증하는 측면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신긋의 의미는 맹두를 통하여 심방으로 나선 이의 무업을 인증하는 것에도 있다. 원칙적으로 신긋을 해야만 무업활동이 공식적으로 인증된다. 신긋에서 신입무인 본주심방을 두고 “당당한 하신중에 올려줍서.”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신긋의 절차를 갖추고 삼시왕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당당하게 무업활동을 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신긋에서 맹두는 이런 삼시왕의 상징으로 드러난다.

무업활동을 인증하는 원리는 역시 초공본풀이에서 찾아야 한다. 신긋의 핵심제차와 초공본풀이는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는데 인증의 원리 역시 초공본풀이에 드러난다. 인증 원리는 두 가지 양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하나는 신화적 인증 원리이고, 다른 하나는 현실적 인증 원리이다. 신화적 인증 원리는 현실적 인증 원리의 바탕이 된다.

신화적 인증 원리는 초공본풀이에서 유정승따님아기가 삼시왕의 허가를 받아 심방이 되었던 곳법을 말한다. 유정승따님아기는 육간제비를 주운 뒤부터 안맹(眼盲)과 더불어 신병을 앓고는 결국 팔자를 그려쳐 심방이 된다. 그런 유정승따님아기는 삼시왕이 만든 곳법에 따라 여러 절차를 치르고 심방이 되는 것이다. 그 양상이 비교적 자세히 드러나는 초공본풀이를 택하고 인용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일흔일곱 나는 해에/ 어주에 삼녹거리 서강베포 신전집 앞이 간/ 업대해연 잇이난 삼시왕이  
느린, 어서~, 여사무 삼형제 그라, 강 부정(不淨) 서정 신가영, 들양 오렌 허난 부정(不淨)도  
신가인다./ 서정도 나카인다./ 물명지 전대(水禾紉戰帶)로/ 걸려 들인다./ 질대 장대 내어 놓안  
너비도 재어 보난, 좋앗더라./ 지리에기도 재어 보난 맞아간다./ 그때엔/ 백 근 근량을, 대추낭  
은 은저울로 저우리난, 백 근이 차앗구나에—/ 금인(金印) 맞아간다./ 옥인(玉印), 에인태인(御  
印打印) 감봉수리 맞아간다./ 약밥약술(藥—藥—)내어주라./ 당당한 큰심방이로다./ 내어주엔 그  
거 먹어간다./ 이제라근~, 유정싱 따님아기, 곳 허레 가쟁 허민, 출려살 거난~, 연반물치메/  
내어주라 진녹색 저고리 내어주라./ 남수와단 서단과지 내어주라./ 직냥도포 내어주라./ 청세도

141) 삼시왕맞이의 어인태인, 고분맹두 제차가 초신질 신긋에서만 하는가, 아니면 모든 신긋에서 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심방들마다 이견이 있다. 심방에 따라서 초신질 신긋에서만 해도 된다고 여기는 이가 있고, 초신질·이신질·삼신질 신긋마다 모두 해야 한다고 여기는 이도 있다. 어인태인과 고분맹두는 신긋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제차인데 심방에 따라 이견이 생기는 현상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어쩌면 이들 제차를 맡아서 진행할 만한 큰심방들이 점차 사라지는 양상이 심방사회에 이견이 생기는 데에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다. 어인태인과 고분맹두 등의 제차는 드물게 벌어지는데다가 난이도도 높아서 학습할 기회가 많지 않은 제차이기 때문에 이를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심방이 드문 형편이다. 따라서 심지어 심방에 따라서는 초신질 신긋에서조차 어인태인과 고분맹두를 온전하게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둘 다 하지 않거나, 둘 가운데 하나만 하거나, 제대로 된 순서에서 행하지 않거나 하는 현상이 있다.

~, 어서 다 내어주라/ 홍포관디(紅袍冠帶) 조심띠도 내어주라 이명걸이 내어주라/ 굴송낙도 내어주라 당에 당배 절에 절배, 예산, 신공시, 예산 신베도 내어주라에—/ 내어주난 그거 메 어간다/ 영기나 몸기도/ 내어주렌 혜연 이제랑 혼 번 우리 앞서서 몸짓이 좋은가 춤이나 추 어보렌 혜연, 예게마을 소리로, ‘니나난니’ 불르멍/ 예게마을로 춤이나 추어보라./ 춤을 추단/ 여사무 삼형제ㄱ라, 울랑국 범천왕~, 어서 왕강싱강, 즈직즈직, 좇인석으로 두드러 보렌 허난 즈직즈직허연, 와썩 좇추완/ 춤은 추어 보난, 야 몸짓도 좋아졌다./ 당당허게 큰심방이로구나./ 이제랑 삼신 삼신왕에서/ 아방 주던 개천문도 내어준다 어멍 주던 모옥상잔 내어준다./ 시왕 대번지도 내어준다./ 요령이영 하늘, 옥항도성문 올려오던 천양낙하금정옥술발 내어주엇구나. 이제랑, 울랑국 범천왕도 내어주라/ 대제김은 소제김/ 내어준다./ 삼동막이 서룬 장귀 내어준다./ 열대 자 아강베포, 연물 썩 가렌 혜연 아강베포도 내어준다, 일곱 자는 호롬춤치/ 석 자 오 치~/ 일곱 자/ 석 자 호롬춤치 내어주난, 그거에 멩두(明刀) 담아 앓이고 허연, 여사무 삼형제 소미로 들안 간~, 즈북장제네 집이 간/ 그 곳 ㅁ찬, 그 곳 허연 ㅁ차 앓언 들어오난, 이제 촌레대로, 삼신왕, 어주에 삼녹거리 오란, 놓아가는구나에—/ 열두 금제비 내어 놓안/ ㅁ 딱 ㅁ을 갈란 놓아 두언<sup>142)</sup>

초공본풀이에서 유정승따님아가가 치른 신긋에도 삼시왕맛이의 여러 제차가 그대로 행해졌다. 핵심은 어인타인을 하여 삼시왕으로부터 멩두를 얻은 뒤 단골집에 찾아가 그 멩두로 최초의 ㅁ을 한다는 내용이다. 신화적 신긋은 삼시왕과 유정승따님아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이다. 이로써 삼시왕맛이는 초공본풀이라는 신화적 전거를 보유한 셈이다. 곧 초공본풀이에서 유정승따님아가 행한 신긋은 심방의 무업활동을 인증하는 신화적 원리로 작동한다.

현실적 인증 원리는 초공본풀이의 유정승따님아가가 심방이 되었던 신화의 ㅁ법을 따라 현실 세계의 본주심방도 현실의 ㅁ판에서 심방이 되는 ㅁ법을 말한다. 곧 본주심방이 유정승따님아가가 했던 것을 현실에서 그대로 반복하여 재현하는 것이다. 신화 속에 전개된 삼시왕맛이는 현실 세계에서도 그대로 펼쳐진다. 그 양상이 드러나는 신긋의 대목을 찾아 인용하고 살펴보자.

마흔 한살 서룬 두 살/ 삼시왕에 허— 등장들저 합네다/ 누가 내운 법입네까 어—/ 옛날 옛적에 성진 땅은 황금산/ 외진 땅은 적금산/ 이 산 앞은 밭이 벌고/ 저 산 앞은 줄이 벌어/ 왕대월산금하늘/ 노가단풍 즈지멩왕 애기씨/ 솟아나서/ 황금산 올라가니/ 시왕고븐 연질 내여 내려주니/ 불도땅을 내려서서 으흐—/ 궁(宮)의 아들 삼형제 솟아나니/ 우리 서울 상시관에 가/ 과거 첫째 과거 낙방하고/ 둘째 과거하니/ 어주에삼녹거리/ 서광베포땅에 와/ 과거 돌려두고/

142)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앞의 책, 161~164쪽. 인용문의 / 표시는 필자가 행 나눔을 줄이고자 삽입하였다.



이승광질하여 양반원수 갓으려고/ 저승 삼시왕에 올라 갈 때/ 남천문밖 유정성 딱님애기 일곱 살에 놓고 있으니/ 삼도전거리 놀암시난/ 이거 정승의 딸이로구나/ 파란궁에 육간제비를 채워/ 예순 예닐곱 나던 해에/ 아랫넛에 자부장재 집의 와서/ 문애문점 백의 일 대급올려/ 이른 일곱 나는 해에/ 굿하여 달라하니/ 안팓 큰대 시왕실에 잡히니/ 삼시왕에 들어가니/ 무당서 삼천 권 내여주고/ 어주에삼죽거리 가서/ 삼천기덕(三千器德) 일만제기(一萬祭器) 궁전궁납(巫樂器) 과/ 멩도멩철(明刀:巫占具) 가지고/ 너사무삼형제(樂器의 神) 데리고 굿을 했던 법으로/ 성은 김씨 병술생 마흔 하나/ 하신충 성은 이씨 당죽하님 을미생 서른 두 살에/ 이와 같이 분을 받아/ 서천민원 올려/ 오늘 삼시왕에 약밥약술 타먹으려/ 역가 올리려 하십네다<sup>143)</sup>

위에 인용한 삼시왕맛이의 약밥약술 대목을 살펴보면 초공본풀이에서 유정승따님아가 하였던 법을 그대로 따라 현실 세계의 심방도 신굿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신화 속에 전개된 삼시왕맛이가 현실 세계에서도 그대로 펼쳐진다. 현실적 신굿은 유정승따님아기와 현실의 심방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이다. 물론 여기에는 옛 선생이라고 일컫는 무업동료들도 함께 자리한다. 삼시왕맛이는 현실에서 신화적 사실을 재생(再生)시킨다. 곧 유정승따님아가 행한 굿법을 따라 현실의 심방도 똑같은 방법으로 신굿을 치름으로써 신굿은 심방의 무업활동을 인증하는 현실적 원리로 작동한다.

143) 제주특별자치도·제주전통문화연구소, 앞의 책, 450~452쪽. 인용문의 / 표시는 필자가 행 나눔을 줄이고자 삽입하였다.

#### 4. 공시풀이

공시풀이란 심방이 무업조상들을 대접하고 멧두의 내력을 밝히며 자신의 생애를 말하는 의례이다.<sup>144)</sup> ‘공시’는 멧두 조상을 뜻하니, 결국 공시풀이는 멧두 조상의 풀이이다. 멧두 조상을 모신 공깃상을 앞에 두고 심방이 앉아서 장구를 치면서 구송한다. 이때 당주<sup>ㄷ</sup>·리(신거미연줄)를 앉아 있는 심방 주위에 두르고는 공깃상의 다리에 묶어 맨다. 공시풀이가 멧두의 역사와 같으니 엄숙한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다.

멧두의 역사는 곧 심방의 역사이다. 심방이 멧두를 전승하며 무업에 들어서서 여러 동료 심방들과 무업활동을 전개한 역사가 오롯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심방의 역사에는 생애, 멧두의 전승내력, 입무와 학습과정, 심방의 계보 등 제주도 무속의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 이렇게 공시풀이는 멧두의 의미를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제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직접적인 연구대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여기서는 공시풀이에서 무업조상들을 대접하는 진행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멧두의 역사와 관련하여 공시풀이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 1) 공시풀이의 진행

공시풀이의 진행과정에서 가장 핵심은 무업조상들을 대접하는 부분이다. 무업조상은 초공본풀이의 임정국 대감, 짐진국 부인, 자지멧왕아기씨, 삼형제, 유정승따님아기로부터 시작하였다. 이들은 신화적 무업조상이다. 무업을 창조하고 전승한 존재들이다. 멧두를 제작하고 전승하는 전범을 만들었다. 신화적 무업조상은 모든 심방들에게 공통되는 조상이다.

이에 견주어 현실 세계의 무업조상은 실제 무업활동을 전개하였던 혈연조상, 스승,

144) 공시풀이에 대한 대략적인 개관은 강소진의 「제주도 곳의 ‘공시풀이’ 고찰 : 이용옥 심방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제14집, 한국무속학회, 2007)를 참고.

동료 등이다. 이들은 멩두를 지속적으로 전승하면서 무업활동을 전개하였다. 현실적 무업조상은 해당 심방들마다 그 범위에 차이가 생긴다.

신화적 무업조상이 모든 심방에게 공통된 사항이므로 사실 공시풀이에서는 현실적 무업조상의 양상을 살피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다. 한 개인 심방의 무업활동에 관련 있는 멩두의 내력과 심방의 계보가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혼인관계, 교류양상, 제주도 전역의 메인심방 전승양상 등도 언급된다. 따라서 실제 공시풀이 자료를 대상으로 무업조상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분석할 자료는 김윤수와 이용옥 심방의 공시풀이다.<sup>145)</sup> 아래의 인용을 살펴보자. 원문자를 부기한 이들이 심방이었다.

#### A. 안공시(본주심방) 조상

##### A-1. 김윤수

###### A-1-1. 김윤수 조상

그 두에랑/ 신의성방들/ 안공시로는/ 글이랑 전득헛네까./ 밥이랑 유전헛네까. ....(중략).....  
①증조(曾祖) 하르바님부터/ 좋은 전성(前生) 그리쳤수다. ....(중략)..... 받은 잔 일부 혼 잔  
헛서./ 윤씨 할마님/ ②큰아바지/ ③큰어머니/ ④문씨 큰어머니/ 아이구 이번인 문씨 큰어머니  
공을 들봐일봐 못 갓안/ 질도 치어 드리젠 허염수다./ 일부 혼 잔 잔 받읍서./ 그 두에랑/ ⑤  
셋아바지 ⑥셋어머니 흥씨 어머님네/ ⑦말젯아바지 ⑧말젯어머니/ 큰족은아바지 어머님네/ 당  
진 부모 아바지 ⑨어머님네/ 아이고 ⑩큰스춘 아지바님, 설우시던 ⑪윤주 아지바님네도/ 이  
아시 몸 받은 신공시로/ 양씨 삼촌 몸을 받은 신공시로/ 싱하여리 복죽잔 잔 받읍서./ 그 두  
에라근/ 외진(外便) 조상님네/ ⑫외진하르바님 ⑬할마님 ⑭외삼촌님네/ 일부 혼 잔 잔 받읍서./  
⑮족은하르바님 ⑯족은할마님네 이 조상 모산 땡겨났수다./ 일부 혼 잔 잔 받읍서.

###### A-1-2. 김윤수 본메 조상

이 조상 유래전득 헛옵기는/ 고씨 어머님 신길로 유래전득 되엿수다. ....(중략)..... ①어머  
님도 일부 혼 잔 잔을 받아삽서./ 어머님아/ 당주 삼시왕 앞으로 질을 땡았수다./ 옛(故) 선성  
(先生) 오는 덜로 땡기고 신의성방들 땡기는 질 앞질 발봐줍서./ 일부 혼 잔 헛서./ 이 조상  
본메 놓기는/ ②내팻굴 고씨 선성 ③조친관 안씨 선성님네/ 몸에 몸을 받은 조상 본메 놓안  
지엿수다./ 일부 혼 잔 잔 받읍서.

##### A-2. 이용옥

###### A-2-1. 이용옥 봉근멩두(육간제비) 조상

당춧하님 뒤으로도 ①육간제비/ 아홉 술(歲) 나는 해에 정월(正月) 초사흘날/ 봉가근 이 조  
상으로 해여근 간장 썩고 술(肉) 썩으멍/ 땡겻수다. 일부 혼 잔 헛서./ 봉가부난 선생연질 모

145) 강소전, 위의 논문, 181~191쪽 자료 참고.

룹니다.

**A-2-2. 이용옥 조상**

①아버지 몸 받던 조상님도 일부 혼 잔 협서./ 아버지도 일부 혼 잔 받읍서./ 외진 조상님네 ②외진 하르바님/ ③외할마님네 정씨 한씨 할마님네/ ④큰외삼촌 부배간(夫婦間) 셋삼촌님/ 설우시던 ⑤죽은삼촌님 .....(중략)..... 신공시로 일부 혼 잔 받읍서./ 몸 받던 조상은 저 조케 남편/ 제주도청(濟州道廳)으로 간 기증(寄贈) 허엿수다./ ⑥정씨 하르바님 ⑦신씨 할마님네/ 일부 혼 잔 받읍서./ ⑧연춘이 오라바님네/ ⑨상원이 오빠네 ⑩연옥이 성님네/ 일부 혼 잔 받읍서./ 어느 선생 읍건/ 이 조상 멧 십년 스십년(四十年) 오르도록 모상 땡기던 ⑪대섬 삼촌님네/ ⑫만권이 삼촌님네영/ 설운 ⑬이모님네 일부 혼 잔 협서./ ⑭어머님 몸 받던 조상은 교육(教育) 저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 갖습네다. 짚은 궁(宮) 들엿건 얹은 궁(宮)에 내 놀리명 일부 혼 잔 협서.

**B. 밧공시(수심방) 조상**

**B-1. 수심방(양창보)**

①양씨 삼촌 몸을 받은 조상/ 부모 조상님네 심방 정시 아니우다. 이 아들 놓은 연줄 불러/ 일부 혼 잔 협서./ 몸 받은 조상님네/ 일부 혼 잔 혜영/ 신의성방네 집의 오라근/ 이 기도 혜영 가는 길에 다 편안허게 시겨줍서.

**B-2. 소미**

**B-2-1. 김윤보**

김씨 아지바님/ ①몸을 받은 조상/ ②처부모(妻父母) 아버지 ③어머님네/ 일부 혼 잔 협서.

**B-2-2. 한씨(남)**

한씨 아지바님/ 강씨 형님 몸을 받은 조상님은/ ①할마님/ 삼불도(三佛道) 할마님네/ 몸을 받은 일월조상님네/ 아버지네 ②어머님네/ 처부모 아버지/ 건이(權威) 나던 ③처부모 큰아버지/ 강씨 삼촌님도/ 아이고 살아시민 이 조케네 집이 요 곳 허엄젠 허민/ 우선이나 문져 오랑 아장 하간 거 시겨주고 헐 거/ 안팓신공시로 일부 혼 잔 협서.

**B-2-3. 정씨(남)**

정씨 아지바님/ ①몸을 받은 조상 옛 선성님네/ 일부 혼 잔 협서.

**B-2-4. 강씨(여)**

강씨 형제간/ 몸 받은 조상님네/ ①친정 외하르바님 할마님 ②외삼촌 ③어머니 이모님네 잔 받읍서.

**C. 옛 선생**

**C-1. 옛 선생**

끝이 엿수다./ ①초성질 발라준 진씨로 몸을 받은 조상 옛 선성/ ②김씨 동생 몸 받은 조상 현씨일월/ ③요왕(龍王) 영개(靈駕) 상우 오라바님/ ④현씨 선성 오씨 현씨 선성님네/ 일부 혼

잔 잔 받읍서./ ⑤신씨 동생도 이거 오란 멧 날 며칠/ 고생 해염수다./ 몸 받은 조상님네영 부모 아버지 어머님/ 일부 혼 잔 잔 받읍서./ 무형문화재 71호/ 당주전에 ⑥내팻골 고씨선생 몸 받은 조상님/ ⑦금릉 이씨 할마님/ 몸을 받던 조상님/ ⑧외진 조상 몸 받던 조상님/ 일부 혼 잔 잔 받읍서./ ⑨박씨 선성 ⑩강씨 아지바님네/ 일부 혼 잔 협서./ ⑪숙모님 몸 받은 조상님네/ 잔 받읍서./ 다 이 믱을 ⑫대홀/ 놀던 선성님네/ 저 ⑬와산 가면/ 덩애 할마님네/ 일부 혼 잔 잔 받읍서./ ⑭선홀이라 갑택이 선성님네 영배아버지 어머님네/ 일부 혼 잔 잔 받읍서./ 너 이새끼인가 기엔 험디다. 양 안팻신공시로 일부 혼 잔 들주점에 상하여리 잔 받읍서./ 함덕 내려사난/ ⑮알동네도 총군이 선성님네/ ⑯수낭굴도 짐씨 선성/ 일부 혼 잔 잔 받읍서./ ⑰고씨 삼춘님네도 일부 혼 잔 잔 받읍서./ ⑱정드남 믱들도 김씨 선성님네/ 김씨아지망 몸 받은 조상님네/ 일부 혼 잔 잔 받읍서./ 저/ ⑲조천도 안씨 선성님네/ 큰아시 죽은아시 ⑳정씨 하르바님/ ㉑안씨 할마님네/ 일부 혼 잔 잔 받읍서./ 신촌도 들어사난 ㉒큰물은 김씨선성/ ㉓정씨 하르방 ㉔신씨할망 ㉕만택이 삼춘님네/ 일부 혼 잔 협서./ 삼양도 들어사면/ ㉖가물개 양씨 부모님네/ 일부 혼 잔 협서./ ㉗영수 아지바님네도 안팻신공시로 잔 받읍서./ 그 두에랑/ ㉘화북 강씨 이모부님네/ ㉙이모님네/ 강씨 선성님네/ 일부 혼 잔 협서./ 제주시는 ㉚내팻골 고씨 선성/ ㉛목은성도 고래이원/ ㉜가물개 이원시님네도 잔 받읍서./ ㉝셋할마님네영/ 아이고 ㉞상옥이 삼춘네영 일부 혼 잔 협서./ ㉟문성남이 오라바님네/ 잔 받읍서./ 어느 선성 읍건/ 신의아이 선생연질 다 모릅네다./

## C-2. 당배 절배 매여오던 옛 선생

이씨, 당배 절배 매여오던/ 선성님네/ 일부 혼 잔 잔 받읍서./ 올라사민 ①봉아름도 김씨 고씨 선성님네/ 잔 받읍서./ 저 ②무두내로 다 맵기던 강씨 선성님네영/ ③오생이 삼춘님네 범선이네/ 잔 받읍서./ 노늘도 들어사난/ 혼 대(代) 두 대 스물 두 대/ 감봉주대허던 ④김씨 선성님네/ 일부 혼 잔 협서./ ⑤방건이네 잔 받읍서./ 나 부모 아는 선생들만 읍서. ⑥신금년이 삼춘님네/ ⑦신대인이 오라바님네영/ 물론 선생이사 어떻 읍네까/ 잔 받읍서. ....(중략)..... 저 동복도 가난/ ⑧박씨 삼춘님도 일부 혼 잔 협서./ ⑨김녕골 이씨 선성 ⑩강씨 사둔님네 한씨 사둔님네 ⑪순실이 몸 받은 조상님네/ 일부 혼 잔 잔 받읍서./ 저 ⑫한동도 가난 강씨 삼춘님네/ ⑬허씨 선성님네/ 잔 받읍서./ ⑭행원도 이씨 삼춘 몸 받은 조상 하다 섭섭히 생각맵서. 조상님네 섭섭히게 생각허지 말앙 일부 혼 잔/ 잔이읍고/ 팽대도 들어사민/ ⑮곽씨146) 삼춘 몸 받은 조상님네/ ⑯금옥이 어머님네도 일부 혼 잔 협서./ ⑰우리 사무실에 회원(會員) 일동 몸 받은 부모 조상 옛 선성님네 다 일부 혼 잔 협서./ ⑱정의(旌義) 가도 천저금저 대선성(大先生)/ 대정(大靜) 가도 천저금저 대선성(大先生)/ 면공원에 면황수에 도공원에 도황수에/ 아이고 입춘(立春)드는 날 관덕정(觀德亭)에서 입춘춘경 메구월일석/ 벌려오던 선성님네 일부 혼 잔 협서.

위의 인용한 무업조상은 크게 안공시인 본주심방 조상, 밧공시인 수심방 조상, 옛 선생 등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심방칩곳에서 행해진 공시풀이 사례이기 때문이다. 심방칩곳에는 안팻공시 멩두가 있으므로 대접해야 할 무업조상의 범위가 매우 넓어지

146) 박씨라고 해야 할 것을 잘못 적었다.

게 된다. 스·가칩굿일 경우에는 굿하러 온 수심방의 무업조상만 대접하면 되니 심방칩굿 보다는 범위가 한결 줄어들는다. 인용한 무업조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해보기로 한다.

A는 안공시로 본주심방인 김윤수와 이용옥의 조상들이다. A-1-1와 A-2-2는 김윤수와 이용옥의 친가와 외가에서 무업을 하였던 혈연조상이다. 앞서 기술한 제3장 4절 3항에서 언급한 가계도를 참고하면 이해하기가 수월하다.<sup>147)</sup>

A-1-2은 김윤수가 모시는 멥두의 본메 조상이다. 본메 잇인 ㅈ·작멥두이니 본메로 삼은 원멥두의 내력을 밝히는 것이다. 본메를 놓았기 때문에 본메 조상 역시 공시풀이에 서 대접을 받는 무업조상이 된다. 본메로 인하여 원멥두와 ㅈ·작멥두가 서로 연결되었다. 멥두를 소유하였던 심방들도 서로 관계를 맺은 것이다.

A-2-1은 이용옥 육간제비 조상 내력이다. 육간제비 자체는 멥두가 아니지만, 앞서 제3장에서 봉근멥두의 유형으로 다룬 바 있다. 따라서 육간제비 조상의 자세한 내력은 알 수 없지만 이용옥의 무업조상으로 대접하는 것이다.

B는 밧공시로 수심방의 무업 조상이다. 정확히 말하면 B-1의 양창보 심방의 조상이 밧공시이다. 굿을 맡아서 자신의 멥두를 굿판에 가지고 왔기 때문이다. 신굿에서 사용하는 멥두는 안팎공시 멥두 뿐이다.

B-2(B-2-1, B-2-2, B-2-3, B-2-4)는 굿판에 함께 와서 굿을 진행하는 소미들의 무업 조상이다. 소미들은 굿판에 올 때 자신의 멥두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 수심방의 멥두로 굿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시풀이를 할 때에는 굿판에 함께 참여하는 소미들의 무업조상들도 모두 언급하여 대접을 한다. 소미들은 멥두를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명확하게 밧공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는 밧공시의 범주에 놓고 함께 다루기로 한다.

C는 과거에 무업활동을 전개하였던 옛 선생들이다. C-1이 일반적인 옛 선생에 대하여 언급하였다면, C-2는 특정 마을의 신당을 맡았던 메인심방들을 언급하는 것이다.

옛 선생들은 스승, 제자, 동료들이었던 존재이다. 혈연관계의 조상도 포함하여 언급된다. 공시풀이를 하는 심방이 입무한 뒤 무업을 익히고 무업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147) 인용문에 언급된 조상을 가계도와 대응시켜 보자. <A-1-1> ①증조하르바님=김정호, ②큰아버지=김천년, ③큰어머니=장씨, ④문씨 큰어머니=문옥선, ⑤셋아버지=김만년, ⑥셋어머니=정씨, ⑦말젯아버지=김백년, ⑧말젯어머니=김순복, ⑨어머님네=홍명화, ⑩큰스촌 아지바님=김윤보, ⑪윤주 아지바님네=김윤조, ⑫외진하르바님=홍씨, ⑬할마님=안씨, ⑭외삼촌님=홍명관, ⑮족은하르바님=김신천, ⑯족은할마님=정씨 / <A-2-2> ①아버지=이문홍, ②외진 하르바님=김성용, ③외할마님=정인, ④큰외삼촌 부배간=김두병·고씨, ⑤족은삼촌님=김만보, ⑥정씨 하르바님=정두삼, ⑦신씨 할마님=정두삼의 부인, ⑧연춘이 오라바님=김연춘, ⑨상원이 오빠=김상원 ⑩연옥이 성님=김연옥, ⑪대삼 삼촌님(안첸소미/여), ⑫만권이 삼촌님=(김씨/남), ⑬이모님=김국화, ⑭어머님=김명월

만났던 심방들이다. 무업활동과 관련한 가르침을 받았기에 옛 선생인 셈이다.

옛 선생으로 언급하는 범위는 실제 교류를 하였던 이들이 중심이 된다. 하지만 교류가 없었더라도 제주도 안에서 활발히 활동하였던 각지의 심방들이나 유명한 심방들은 언급하게 된다. 한편 사실 A와 B의 무업조상들도 모두 옛 선생이다. A와 B를 안팎공시의 무업조상으로 구분하여 살폈기 때문에 C는 좁은 의미의 옛 선생이 되는 셈이다.

무업조상을 언급하고 대접하는 일은 심방의 연유와도 관련 된다. 심방의 연유는 생애 이야기이다. 즉 신병을 앓은 뒤 신의 소명을 받아들이고 심방이 되어 무업을 전개하는 과정이다. 당연히 그 과정에 함께 한 무업조상들이 심방의 생애사를 구성하기 마련이다. 위의 사례처럼 오랫동안 무업을 전승한 심방 가계일수록 수많은 심방들의 생애가 중첩되어 나타난다.

## 2) 멩두의 역사와 공시풀이

공시풀이의 핵심적 의미는 멩두의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초공본풀이가 멩두를 창조한 신의 이야기라면, 공시풀이는 멩두를 전승한 인간의 이야기이다. 공시풀이는 곧 멩두를 통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맺어지거나 연결된 심방 조상들의 역사이다.

공시풀이는 삼시왕으로부터 유정승따님아기를 거쳐 옛 선생과 본인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팔자 그르침’의 신성계보(神聖系譜)라 할 수 있다. 이 신성계보는 소명(召命)을 받은 이들이 서로 연결된 것이다. 팔자를 그르쳐야 하는 소명은 무업의 조상과 자손 모두에게 적용되었다. 삼시왕, 유정승따님아기, 옛 선생은 멩두 조상이다. 본인 자신은 멩두의 자손이다. 이들은 모두 팔자를 그르치고 조상과 자손이라는 하나의 근원을 형성하였다. 신성계보는 ‘몸 받은 조상’임을 뜻한다.

공시풀이는 제주도 곳곳의 심방들이 서로 교류하고 함께 무업활동을 전개한 역사를 증언하는 이른바 ‘심방질’의 역사계보(歷史系譜)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역사계보는 멩두의 전승을 중심으로 무업활동의 교류로서 맺어진 심방들의 계보나 마찬가지로이다. 옛 선생들은 이미 고향을 떠났지만 현실 심방에 의해서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되새기며 복원된다. 다양한 이들이 멩두의 내력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역사계보는 ‘조상 모

산 땀겨놔수다.’에서 드러난다.

공시풀이에서 드러나는 팔자 그르침의 신성계보는 신의 소명을 받드는 점에서 신성역사(神聖歷史)이다. 또한 심방질의 역사계보는 실제 삶을 살았던 이들의 내력이라는 점에서 현실역사(現實歷史)이다. 멩두의 내력은 신성역사와 현실역사로 구성되었다.

멩두역사 : 신성역사(신성계보)+현실역사(역사계보)

—신성역사 : 삼시왕 …… 유정승따남아기 …… 옛 선생 …… 본인 ⇨ 신의 소명

—현실역사 : …… 옛 선생 …… 본인 ⇨ 멩두의 전승과 교류

한편 공시풀이는 심방의 개인역사(個人歷史)이자 집단역사(集團歷史)이기도 하다. 한 개인 심방의 생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 집단의 생애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집단의 범위는 통시적 또는 공시적으로 형성된 무업동료를 모두 포함한다. 심방 가계일 경우 그 특징이 더욱 잘 드러난다.

개인역사	⇨	집단역사
개인		개인+개인+……………+개인+개인
생애사		공시풀이

이러한 개인과 집단의 생애이야기는 모두 입으로 전승하는 구비역사(口碑歷史)의 특징을 보여준다. 배타적으로 혈연계보만 한정하여 전승하는 족보(族譜)와 같은 기록역사(記錄歷史)와는 전승경로가 다르다. 다양한 유래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멩두라는 동일한 조상을 공유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나중이라도 멩두의 전승과 관련하여 얼마든지 새로운 구성원이 추가될 수 있는 개방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매번 곳을 할 때마다 이들의 역사는 구비전승 된다.

그런가 하면 멩두를 무구라는 물질로 바라보면 곧 멩두를 전승한 물질역사(物質歷史)라고도 말할 수 있다. 멩두의 제작과 전승과정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물질역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는 전승주체들 사이에 일정한 의사소통과 합의가 있었다. 단순히 물질의 전승만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다. 멩두의 경로가 곧 무업의 역사인 셈이다.

공시풀이에서 언급된 많은 현실적 무업조상들을 보면 심방들이 하나의 ‘심방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심방공동체의 표상은 멩두이다. 공시상에 멩



두를 모셔놓고 그 앞에서 멩두의 역사 속에 담긴 많은 심방들의 내력에 대하여 말한다.

심방공동체는 멩두를 모시는 신앙공동체이다. 누구나 신화적 무업조상을 공유하고 자신에게 고유한 현실적 무업조상을 추가한다. 또한 심방공동체는 현실적으로 필요해서 생긴 생업공동체이다. 동일한 생업을 공유하고 협력하기 위하여 조직되었다. 더불어 심방공동체는 지식공동체이기도 하다. 무업에 대한 끊임없는 학습과 지식전승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멩두의 풀이가 곧 심방의 풀이이자, 제주도 무속의 풀이인 셈이다.

## 제5장 제주도 심방의 멧두가 지닌 의의

### 1. 심방의 탄생과 심방공동체의 형성

멧두가 지닌 의의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점은 하나의 심방을 탄생시키는 결정적 요소라는 것이다. 멧두 자체로 인하여 입무할 수도 있고, 입무하기 위하여 멧두를 마련하기 때문이다. 멧두가 심방의 무업조상이자 핵심무구이니 당연한 일이다. 멧두가 없는 이는 심방이라고 할 수 없다. 멧두를 모시면서 비로소 심방으로 거듭난다.

제주도 심방이라면 누구나 멧두를 조상으로 모시기 때문에 심방들은 동료집단이라 할 수 있는 심방공동체를 형성하였다. 멧두가 조상인데 견주어 모든 심방들은 멧두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심방들의 공동체는 무업활동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무업을 익히고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멧두의 속성과 전승양상을 살펴보면 제주도 심방이 어떻게 탄생하고 또한 어떻게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다. 곧 멧두는 심방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따라서 이를 제주도 심방의 멧두가 지닌 가장 핵심적 의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1) 심방의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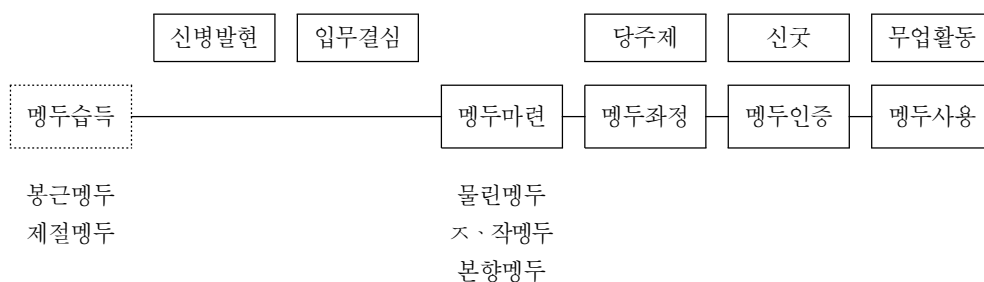
멧두는 한 사람이 심방으로 거듭 나는 데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멧두로 인하여 무업에 들어서는 이도 있을뿐더러, 그렇지 않더라도 심방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멧두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멧두는 무업조상의 영력이 내재한 무구라고 인식되는 것이니 심방의 무업활동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심방은 멧두를 조상으로 모시고 신앙의 상징

으로 삼는다.

어떤 한 사람이 결국 심방으로 나서기까지 몇 단계의 과정을 자연스레 거친다. 본인 스스로 팔자를 그르쳐야 한다는 소명을 인식하고 심방이 되기로 결심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그 뒤 주위 심방들을 따라 다니며 고향에서 여러 심부름을 하고 서서히 작은 제차들을 조금씩 익혀 고향을 배워간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 무업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사정이 되면 무업조상인 멧두를 마련해야 할 시점에 이른다. 주위를 둘러보아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 멧두를 마련한다.

멧두를 마련하면 당주를 설립하면서 첫 당주제를 치른다. 하지만 멧두를 소유하고 당주를 설립하였다고 하여 곧 심방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심방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신긔이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신긔은 신질(신의 길)을 바르게 하는 곳이다. 신긔 가운데 초신질을 바르게 하는 신긔은 심방이 되는 마지막 절차이자 대내외에 알리는 공인 행사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초신질 신긔을 치러야 비로소 심방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멧두를 마련하고 당주를 설립하고 신긔까지 치른 뒤에는 본격적으로 무업활동에 나설 수 있는 당당한 자격이 생긴다. 새로운 심방으로 나서기 위한 여러 조건을 두루 갖추었기 때문이다. 여러 조건 가운데 멧두의 존재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이다. 아래의 [그림 5-1]에서 심방이 탄생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림 5-1] 심방의 탄생 과정



심방이라면 누구나 소유해야 하는 멧두는 어떻게 심방의 조상으로 자리매김 하는가에 대해서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제2장의 멧두 전승의 기원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멧두가 조상이니까 모신다는 논리와 모시니까 조상이라는 논리를 재점검해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멧두에 내재한 무업조상의 성격을 다시 살펴본다.

멧두의 무업조상은 이른바 ‘보편조상’과 ‘개별조상’으로 나눌 수 있다. 보편보상은 심

방이라면 누구나 모시는 조상이다. 곧 삼시왕과 유정승따님아기이다. 보편조상은 초공 본풀이의 신화적 무업조상이다. 이에 견주어 개별조상은 심방마다 개별적으로 모시는 조상이다. 말하자면 옛 선생이다. 개별조상은 현실 세계에서 무업활동을 하였던 심방조상이다. 멩두의 무업조상은 보편조상과 개별조상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멩두라는 물질에서 서로 공존하고 있다.

다만 개별조상인 옛 선생은 더 세분하여 살필 수 있다. 옛 선생 가운데는 심방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조상들이 있다. 보편적인 옛 선생은 심방 대부분이 공유하는 제주도의 유명한 심방들이거나 각 마을을 담당한 메인심방들이다. 곳에서는 ‘건이나 던(권위가 높던) 옛 선생’과 ‘당배 절배 메던 옛 선생’하는 식으로 언급된다. 여기에 각각 심방 처지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는 개별적인 옛 선생 조상들이 있다. 즉 한 개인 심방의 혈연 심방조상 영혼과 동료 심방조상 영혼이다. 개별조상 안에서도 보편적인 옛 선생과 개별적인 옛 선생들로 구분할 수는 있으나, 심방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공유하는 보편조상과는 차원이 다르다.

<멩두 무업조상의 결합>

$$\begin{array}{ccc}
 \text{보편조상} & + & \text{개별조상} \\
 \text{삼시왕+유정승따님아기} & & \text{옛 선생} \\
 & & (\text{보편 옛 선생}+\text{개별 옛 선생})
 \end{array}$$

멩두 무업조상의 결합원리는 ‘중심두기’와 ‘덧붙이기’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보편적인 조상을 중심에 두고 개별조상을 덧붙이는 방식이다. 이 결합원리는 곧 멩두의 내력을 구성하는 원리이기도 하다. 그 양상을 살펴보자.

일단 모든 심방의 멩두에 보편조상을 중심에 두어 일원적으로 통일시킨다. 모든 멩두마다 동일한 보편조상이 내재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동일한 속성을 공유한다. 즉 보편조상을 공유하는 것이다. 모든 멩두는 동일한 보편조상을 모시기 때문에 어떤 멩두라 하더라도 후대에 전승시킬 수 있는 강력한 근거로 삼을 수 있다. 그러기에 심방들은 멩두 물림을 할 때 폐쇄적인 경로를 고집하지 않고 개방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모든 멩두는 보편조상을 통하여 하나의 동일한 멩두가 되기 때문이다. 멩두는 하나이자 여럿이고, 곧 여럿이자 하나인 셈이다.

여기에 각각의 심방마다 고유한 개별조상을 보편조상 뒤에 순차적으로 덧붙인다. 개

별조상은 보편조상을 모시고 실제 무업활동을 하였던 존재이다. 이들은 보편조상의 자손이므로 보편조상에 덧붙을 수 있다. 개별조상 덧붙이기는 멩두를 전승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덧붙이기가 이루어질 때마다 개별조상의 내력과 전승경로가 추가적으로 각인된다. 거꾸로 말하면 개별조상들의 내력을 기억시킬 수 있는 현실적 장치인 셈이다. 이는 곧 현실 세계의 멩두의 역사이자 심방의 역사이다. 실질적인 멩두 물림의 양상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모든 멩두는 개별조상을 덧붙이면서 해당 멩두를 전승하였던 심방들을 하나로 연결시킨다. 심방은 하나이자 여럿이며, 곧 여럿이자 하나인 셈이다.

<멩두 무업조상의 결합원리와 멩두내력의 구성>

무업조상의 결합원리 :	중심두기(공유)	+	덧붙이기(개별)
멩두내력의 구성 :	보편조상	+	개별조상
	(삼시왕+유정승따님아기)		(개별조상+.....+개별조상)

멩두는 어떻게 심방의 조상으로 자리매김 하는가 하는 문제의 단서는 보편조상과 개별조상의 결합에서 찾을 수 있다. 보편조상은 멩두 전승의 근거가 되므로, ‘조상이니까 모신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한다. 개별조상은 멩두 전승의 결과이므로 ‘모시니까 조상이다’라는 논리를 가진다. 보편조상의 외피 속에서 개별조상은 멩두 물림을 통하여 자신들도 조상으로 자리매김 한다.

하나의 심방이 탄생하는 과정에는 보편조상과 개별조상의 결합이 있다. 멩두의 보편조상은 초공본풀이라는 강력한 신화적 전거를 동반하여 무업활동의 신성을 부여한다. 멩두의 개별조상은 한 사람을 실제 무업으로 이끄는 존재이다. 입무 동기를 부여하고 무업을 전수시킨다.

## 2) 심방공동체의 형성

한 사람이 심방으로 나서서 무업활동을 시작하였다면 혼자서 굿판을 이끌어 갈 수는 없다. 무업에 갓 들어선 새로운 심방은 무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동료집단인 심방공동체

에 들어가야 한다. 이미 초신질 신긋을 치르는 과정에서 선후배 동료 심방들에게 한 차례 정식으로 통과의례를 거친 만큼 심방공동체로 편입하는 과정도 자연스럽게 전개된다. 그만큼 신긋은 심방임을 공식화하는 절차이며 심방공동체로 편입을 인증하는 의례이기도 하다.

심방들은 심방공동체의 원형을 역시 초공본풀이에서 찾고 있다. 초공본풀이는 멧두와 심방의 근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신화이다. 심방공동체의 형성 내력 역시 빠질 수 없다. 따라서 심방공동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초공본풀이에 나타난 사항을 살펴볼 수 없다. 초공본풀이에는 굿을 하기 위하여 여럿이 결합하는 내용이 두 차례에 걸쳐 나타난다. 먼저 아래의 인용을 살펴보자.

죽성주 상시당 어주웨 삼녹거리 내려산— 보난/ 너사무너도령 삼형제가 길 여피서 [말] 앓아들서 비세(悲鳥)ㄴ찌 울업구나. 아이구 설운 아기덜 돌아다놓고, “느네 얼굴을 보난 느네 팔자나 삼형제나 팔자나 우리 삼형제 팔제가, 똑ㄴ똥 팔제 닳다. 우리 팔제동간은 유학(幼學) 성제(兄弟)라 허는 게, 너네 삼형제허고 우리 삼형제 허곡, 우리 서로 육항렬(六行列) 멧영 형제를 멧게.” 형제를 메영 앓이난, “본메가 엇이민 아이 웬다.” [소리] 경 해연~, 초고비 이고 비 [말] 삼고비 연양 육고비를 마련헤여, 심방칩이 육고비 꺼경 당주(堂柱)에 올린덴헛디다—./ [소리] 이리허여 두고/ 어~, [말] 육항렬(六行列)에 유자남(柚子木)도 비고, 텡자남 비연, 신전 짐을 지엇구나. 삼천전제석궁 어궁또를 딱— 설연헤여 어머니 췌 풀령 이디 앓일 자리로구나. 우리 앓일 자리도 마련허게. 당주 삼시왕도 마련허고, 연당 알— 너사무너도령도 앓일 디 딱 [소리] 다 마련헤여 두고/ 육항렬(六行列)이 신산꽃 도올랑근/ 먹사오기, 췌사오기 비어다, 췌동 불랑, [말] 올랑국, 돌췌 동은 범천왕, 잇체 동은 데제깁, 너췌 동은 소리 좋은 삼동메기 [소리] 살—장귀를 설연허여/ 삼형제가 육항렬(六行列)을 앓양, [소리] 초चे~ 울려/ 초궁 하늘, 이체~ 울려 이궁 하늘, 삼체 울령, 삼궁— 하늘/ 드리울리고 네울령, “신가심을 열령 어머니 췌 풀려 나옵서~.” [말] 불공을 하도 디러가난 즈식이 효성으로 어머니 췌 풀려 나오란, 아이고 어멍은 아길 보저. 아기는 어멍 보저. 부모즈식이 일부, 고운 얼굴 친연 상봉을 헤엇 십네다.<sup>148)</sup>

위의 인용은 삼형제와 너사무너도령 삼형제의 결합을 보여준다. 최초의 굿을 진행했던 존재들이다. 삼형제는 깊은 궁에 갇힌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굿을 해야 하는데, 이때 너사무너도령 삼형제를 만나게 된다. 삼형제와 너사무너도령 삼형제는 같은 팔자임을 인식하고 서로 의형제를 맺는다. 이들은 함께 무구를 마련하고 굿을 하여 결국 어

148) 허남춘 외, 『양창보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127~128쪽. 인용문의 / 표시는 행 나눔을 줄이기 위하여 필자가 삽입하였다.

머니를 살려냈다. 굿을 한 뒤 삼형제는 저승 삼시왕으로 좌정하고, 너사무녀도령 삼형제는 자지멩왕아기씨와 함께 당주집을 지키며 무악기를 담당한다.

한편 초공본풀이에는 두 번째 결합도 나타난다. 역시 굿을 하기 위한 협력이었다. 그런데 그 주체에 다소 변화가 생긴다. 삼형제가 저승 삼시왕으로 들어선 뒤 유정승따님 아기가 굿을 하게 되면서 두 번째 결합이 생긴다. 아래의 인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영 허난, “아이구 기영 협서.” 유부인(柳婦人)이 들어가젠 허난, [소리] 너사무녀도령 삼형제를 돌아왔고/ 기메 선성 불러당, 기메 설련허고/ 당번 선성 불러단 당번 설연한다./ 자리 선성 불러다 자리도 설연허고, 떡, 밥, 술, 레기 문—딱 즐려노완, 삼시왕을 맡아나고 맡아든 것이, 이거 멧 칠 런사 웨신디 모르쿠다.<sup>149)</sup>

일천기덕 삼만제기 궁전궁납을 내여주니, 제석궁(帝釋宮)에 신소미(神小巫) 엇어, 북선성(鼓先生)은 조만소니, 장귀선성(杖鼓先生) 멩칠광대, 대영선성 외랑쟁이, 설채선성 징내손이, 기메 선성 ㄴ·ㄹ메선성 떡(餅) 선성, 제물(祭物)선성, 술선성 이태백이(李太白), 보답선성 문선왕(文宣王) 마련해야 두일뵈 열나을 전새남을 흥·와 유전승(柳政丞)ㄷ·님아기 이른일곱 대천국 저울러 좋은 전승팔자·(前生八字) 그르쳐 읊던 초공난산국 불리공입네다.<sup>150)</sup>

위의 인용은 유정승따님아기와 너사무녀도령 삼형제를 중심으로 굿관에 두루 관련된 이들의 결합을 보여준다. 유정승따님아기는 삼시왕으로부터 입무의 허가를 받고 드디어 굿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유정승따님아기와 함께 굿을 하는 이들은 너사무녀도령 삼형제를 비롯하여 굿관에 두루 관련된 존재들이다.

너사무녀도령은 삼시왕으로 들어선 삼형제와 이미 굿을 함께 한 존재인데 최초의 심방인 유정승따님아기와도 결합한다. 무악기를 담당하고 당주를 지키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현실의 굿관에서 두루 필요한 존재들이 등장한다. 기메, 떡, 제물, 보답 등은 굿관에서 쓰이는 여러 물건이며 결국 이들을 준비하고 제차에 따라 알맞게 사용하는 이들은 굿관에 함께 한 소미들이다. 이 부분은 현실의 굿관 양상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모습이다. 두 번째 결합은 최초의 인간 심방이 굿을 하면서 형성된 것이다.

초공본풀이에 나타나는 원형을 두고 ‘신화공동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심방들은 초공본풀이에서 유래한 법으로 현실의 굿관이 이루어진다고 여긴다. 신화공동체의 두 가지 양상을 [표 5-1]로 정리해 본다.

149) 허난준 외, 위의 책, 131~132쪽. 인용문의 / 표시는 행 나눔을 줄이기 위하여 필자가 삽입하였다.  
150) 玄睿駿, 『濟州島巫俗資料事典』, 175~176쪽.

[표 5-1] 초공본풀이의 신화공동체

신화공동체	공동체의 구성	공동체의 역할	
		삼형제	굿
삼시왕의 심방공동체	삼시왕 + 너사무너도령	삼형제	굿
		너사무너도령	무악기
최초 심방의 심방공동체	유정승따님아기 + 너사무너도령 + 여러 선생	유정승따님아기	굿
		너사무너도령	무악기
		여러 선생	굿판의 보조도구

초공본풀이에서 심방공동체를 이루는 핵심 존재는 너사무너도령이다.<sup>151)</sup> 너사무너도령 형제의 수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개 세 명으로 인식할 수 있다. 너사무너도령은 삼형제 혹은 유정승따님아기와 함께 연물을 맡아 굿을 하는 존재이다. 기본적인 연물은 북, 설췌, 대양이니 너사무너도령이 삼형제로 등장하는 것은 여러모로 순리에 맞는 일이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소미의 숫자가 바로 너사무너도령의 형제구성이 되는 셈이다.

너사무너도령의 성격은 신화에 등장하는 최초의 소미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너사무너도령은 초공본풀이에서 삼형제 또는 유정승따님아기를 도와 실질적으로 굿을 함께 하는 존재이다. 너사무너도령은 어머니인 자지멩왕아기씨와 함께 당주를 지키며 삼

151) 너사무너도령에 대해 현재까지 채록된 자료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제주 서남부 지역에서 채록된 초공본풀이에는 너사무너도령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거나 아주 미약한 편이다. 그러나 제주 북부 지역의 초공본풀이에서는 너사무너도령이 삼형제뿐만 아니라 유정승따님아기와 긴밀히 연결되어 나타난다. 무악기를 맡는 역할도 분명히 드러나 있다.

구연자	신명(神名)	형제	등장	역할	유정승따님아기와 결합
박봉춘	너삼의아달너도령	1 (?)	자지멩왕아기씨가 포태를 하고 부모에게 쫓겨나 황금산주자대사를 찾아가는 대목	황금산주자대사의 명에 따라 길 잃은 자지멩왕아기씨를 인도	-
김명운	-	-	-	-	-
김병효	-	-	-	-	-
안사인	너사메 아드·르 너도령 (너사메너도령)	1	삼형제가 굿을 하여 어머니를 살리려 하는 대목	삼형제와 의형제를 맺음 (맥락상 함께 굿을 함)	○ (맥락 추정)
고대중	너사무너도령	3	자지멩왕아기씨가 집에서 쫓겨나 황금산을 찾아가는 대목 / 삼형제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황금산을 찾아가는 대목	자지멩왕아기씨의 길을 인도 / 삼형제의 길을 인도	○
문정봉	도령	4	유씨부인이 자지멩왕으로부터 연물을 받아 심복장자의 집에 굿을 하러 가기 전 대목	유씨부인대선생을 만나 연물을 맡고 심부름을 하며 함께 도와 굿을 함	○
양장보	너사무너도령	3	삼형제가 굿을 하여 어머니를 살리려 하는 대목	삼형제와 의형제를 맺고 함께 도와 굿을 함	○
이중춘	너사무	3	삼형제가 아버지가 있는 황금산을 찾아가는 대목	유정승따님아기에게 너사무 삼형제와 함께 굿을 하게 함	○
이용옥	여사무	3	삼형제가 아버지가 있는 황금산을 찾아가는 대목	삼형제와 의형제를 맺고 함께 도와 굿을 함	○



천기덕 일만제기를 관리한다. 그들의 주된 역할은 무악기인 연물을 담당하는 것이다. 연물은 소미들이 담당하는 것이니 너사무너도령은 곧 신화에 등장하는 최초의 소미인 셈이다. 굿을 하는 심방과 심방을 보조하는 소미의 원형이 제시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너사무너도령의 중요성이 크다 보니 삼형제와 의형제를 맺었다고 인식하고 그 증거로써 육고비를 제작하여 당주에 걸어두기까지 한다.

초공본풀이의 신화공동체는 현실 세계 심방공동체의 원형이 된다. 현실의 심방들도 서로 협력하여 굿을 진행한다. 수심방과 소미는 다양한 제차를 나누어 맡는다. 수심방은 초감제와 그 밖의 중요한 제차를 맡고, 소미는 개별 맞이굿이나 하위 제차를 맡는다. 어떤 제차를 맡아 직접 굿을 하는 심방이 있으면 다른 이들은 무악기인 ‘연물’을 연주하고 해당 제차에 따르는 보조적인 행위를 담당하는 것이다. 굿을 하는 제장(祭場)은 여러 장식물과 제물을 설치할 뿐만 아니라 때때로 공간을 이동하거나 변형해야 하니 역시 혼자 담당하기는 어렵다.

심방공동체가 형성된 요인으로 가장 현실적인 점은 제주도 무속에서 심방과 악사가 각각 전문적으로 분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심방은 역시 심방으로 활동하는 이들을 소미로 데리고 간다. 소미는 기본적으로 연물을 맡지만 언제든지 수심방의 계획에 따라서 번갈아가며 해당 제차를 맡아 굿을 진행한다. 소미는 오직 무악기만을 담당하지 않는다. 굿판의 여러 심부름 등도 도맡는다. 아래에서 수심방과 소미가 어떻게 굿을 진행하는지 살펴보자.

< 『동북 정병춘택 시왕맞이』에서 시왕맞이 제차 진행과 담당자>

초감제(수심방 서순실) → 방광침(소미 이중춘) → 추물공연(소미 강순선) → 체서본풀이(소미 강순선) → 석살림(수심방 서순실) → 나까시리 놀림(소미 고복자) → 지장본풀이(소미 고복자) → 군병지사킴(소미 고복자)<sup>152)</sup>

위의 사례를 보면 수심방과 소미가 적절히 제차를 나누어 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심방이 초감제를 한 뒤 여러 소미들이 고루 하위 제차를 맡는다. 심방은 굿만 하고 소미는 연물만을 맡는 것이 아니다. 물론 한 심방이 굿을 진행할 때 소미들은 연물과 심부름을 맡아준다.

요컨대 심방과 악사가 분화되지 않은 이유는 심방과 소미가 모두 제차를 맡아 굿을

152) 강정식·강소진·송정희, 앞의 책, 시왕맞이 제차진행 참고.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굿·리’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세부적으로 하위 제차가 많으니 굿판에 참여하는 이는 일단 모두 굿을 할 줄 아는 심방이어야 수월하다. 심방과 악사를 각각 따로 하여 조직을 꾸리기는 인적이나 비용적 측면에서 무리일 수밖에 없다.

물론 제주에서 전문적인 악사 집단이 형성되지 못한 점도 원인이기는 하다. 그러나 무악기인 연물이 비교적 단출한 구성이고 타악기의 연주라는 측면에서 고급 전문 악사 집단이 없다 하여 큰 애로를 느끼지는 않았다. 어찌 보면 이러한 굿판의 사정에 맞게 연물 구성과 연주법을 고수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현실 세계의 심방공동체가 형성된 요인으로 가장 근원적인 점은 심방들이 모두 멩두라는 동일한 무업조상을 모시기 때문이다. 좁게 말하면 멩두의 보편조상을 공유하는 것이다. 심방에 따라서 일부 개별조상도 공유할 수도 있다. 심방공동체는 멩두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공동체(信仰共同體)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심방들이 동일한 무업조상을 모시니 이들은 모두 신성을 공유한다. 심방마다 무업능력에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무업조상의 신성은 누구에게나 존재한다. 서로 우열을 건줄 수 없고 멩두 조상 앞에서 하나의 자손일 뿐이다. 굿판에 참여한 심방들은 모두 공깃상에 놓인 큰심방의 멩두 한 벌로 굿을 하고 산을 받는다. 또한 당굿인 경우 참여하는 단골이 매우 많아 산받음을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 메인심방은 소미들에게 자신의 멩두를 지참하여 오라고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산받음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메인심방의 멩두로 하는 산받음이 원칙이지만, 모든 멩두는 무업조상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런 변형적인 방식도 가능한 것이다.

동일한 무업조상이니 동일한 ‘굿법’을 낳았다고 할 수 있다. 제주도내에서 심방들은 모두 동일한 굿법으로 굿을 한다. 물론 제주도내에서도 지역마다 굿법에 다소 미세한 편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른바 동촌굿(동촌식), 서촌굿(서촌식)이라거나 목안굿(목안식), 정의굿(정의식), 대정굿(대정식)이라는 구분을 두고 있지만, 전체적인 양상을 고려하면 크게 두드러진 차이점은 없다. 굿법이 같으니 함께 굿을 할 수 있고 더욱 심방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 심방들은 신굿 같은 경험을 통하여 굿법을 지속적으로 학습한다. 무업조상의 공유가 보편적 굿법을 형성하는데도 근원이 된 셈이다.

## 2. 제주도 무속의 역사성 확인과 다원적 전승양상 증명

제주도 멥두의 역사는 심방의 역사이며, 나아가서 제주도 무속의 역사이기도 하다. 따라서 멥두의 역사를 바탕으로 심방의 역사 또한 마땅히 검토해야 한다. 멥두와 심방의 역사적 연원이 어떠한 지 파악하면 제주도 무속의 역사성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즉 멥두의 역사를 밝혀 제주도 무속을 이해하는 의의가 있다.

멥두의 역사는 심방에게는 멥두 전승의 역사이기도 하다. 오래 지속된 멥두 전승은 곧 심방의 무업활동의 역사를 파악하게 해준다. 심방은 단지 멥두를 물리는 것만으로 무업을 하는 게 아니다. 멥두를 전승하면서 무업활동과 관련한 일체를 통합적으로 전승하기 때문이다. 멥두는 다원적 차원에서 전승되는 셈이다. 멥두의 다원적 전승양상은 그만큼 제주도 무속도 다양한 차원에서 전승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의의가 있다.

### 1) 제주도 무속의 역사성 확인

제주도 무속에서 멥두 자체의 역사는 문헌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최소한 약 400~500년 정도 되었다고 앞서 밝힌 바 있다. 멥두는 심방과 분리할 수 없는 요소이니 심방에 대한 역사적 기록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멥두의 역사는 곧 심방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멥두와 심방의 역사를 두루 살펴보면 제주도 무속의 역사성을 가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주도 심방의 역사에 대한 검토는 심방이라는 명칭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멥두와 견주어 심방의 역사적 기원을 살피고자 하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심방은 제주도에서 활동하는 무당 남녀노소를 통틀어 부르는 명칭으로 알려져 있다. 제주도 심방의 어원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밝혀진 바 없다.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은 무격의 칭호 가운데 ‘神房(Shin pang)’은 남무와 여무에도

사용하며, 이는 ‘僧房(Sung pang)’ 즉 절에서 나온 명칭이라 생각한다고 하였다. ‘神’이라는 발음은 ‘僧’이라는 발음에 가깝고 이 명칭이 사용되는 지방(함북, 제주도 등)에서는 무술이 절 또는 승려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고, 무속은 절의 승에 의해 전파되었다고 하는 전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된다는 것이다. 또한 ‘尋房’은 ‘神房’이 변한 것이라고 하였다. 제주도에서는 ‘神房’이 통칭이라고 적어 놓았다.<sup>153)</sup> 무라야마는 제주도 심방을 두고 ‘神房’이라는 한자로 처음 표기한 셈이다.

한편 이에 대해 석주명은 제주도에서 쓰이는 말은 ‘신방’이 아니고 분명 ‘심방’이고, 무라야마가 함북에서 쓰인다고 하는 ‘신방’이 함북 어느 지방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하면서 무라야마의 견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sup>154)</sup>

아키바 다카시(秋葉隆)는 1931년에 발표한 「조선의 무칭에 관하여」라는 글에서 심방의 어원에 대해 오스트야크사모에드어의 Somberi-gum(주술자)이 Sumban(주술한다)에서 나왔다고 하니 이것이 Simban과 음운이 유사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고민하기도 하였다.<sup>155)</sup> 아키바는 그러면서도 『朝鮮 巫俗의 研究』에서는 순방(神房)이라고 표기하며 무라야마처럼 ‘神房’이라는 한자를 받아들이고 있다.<sup>156)</sup>

진성기는 심방을 ‘심’과 ‘방’으로 나누어 ‘심’은 ‘잡는다’는 뜻의 제주어이고 ‘방’은 사람에게 붙는 존칭대명사의 어미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심방은 ‘신령을 붙잡는 이’라는 것에서 파생되어 결국 ‘신령을 만나는 이’ 또는 ‘신령을 찾는 이(尋房)’라는 뜻이라고 하였다.<sup>157)</sup>

현용준은 심방의 어원이 한자어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심방이 굿을 할 때 부르는 무가에 ‘신의 성방’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神의 刑房’에서 ‘형방’이 구개음화하여 ‘성방’으로 변한 것이라고 보았다. 신의 형전(刑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관리와 같은 직능자가 심방이라는 관념에서 나온 말일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심방은 이런 ‘신의 형방’의 준 말인 ‘신방’이 자음동화하여 ‘심방’으로 발음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 것이다.<sup>158)</sup> 현용준의 견해는 결국 심방을 한자어 신방(神房)으로 보는 것으로, 현

153) 村山智順, 『朝鮮の巫覡』, 1972년 學文閣에서 발간한 영인본의 23쪽, 25쪽, 31쪽.

154) 石宙明, 『濟州島方言集』, 520쪽.

155) 아키바 다카시 지음/심우성·박해순 옮김, 「조선의 무칭巫稱에 관하여」, 『춤추는 무당과 춤추지 않는 무당』, 한울, 2000, 49~50쪽.

156) 赤松智城·秋葉隆 지음/沈雨晟 옮김, 『朝鮮巫俗의 研究(下)』, 동문선, 1991, 39쪽.

157) 진성기, 『濟州島巫俗論考 : 南國의 巫俗』, 제주민속연구소, 1993, 74~75쪽.

158) 玄容駿, 『濟州島 巫俗 研究』, 41쪽.

재 학계에서는 이를 통설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조선시대 초기 15세기의 문헌인 『月印釋譜』와 『楞嚴經諺解』에서 한글 표기로 이루어진 심방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다. 『月印釋譜』는 세조 5년(1459), 『楞嚴經諺解』의 목판본은 세조 8년(1462)에 간행한 것으로 여겨지는 책이다. 아래의 인용을 살펴 보자.

< 『月印釋譜』 제23 >

其五百十二

아비平生애 六波羅蜜을 흘씩 天宮에 快樂으로 보니  
어미平生애 심방긔쑤 즐길씩 天宮에 묻 어더보니<sup>159)</sup>

< 『楞嚴經諺解』 제8 >

巫는 겨집 심방이오 祝는 男人 심방이라<sup>160)</sup>

두 자료의 원문을 확인하면 한글 고유어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표기된 글자에도 모두 한글을 병기하였다. 따라서 심방이라는 표기는 자연스럽게 한글 고유어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月印釋譜』와 『楞嚴經諺解』에 나타난 이 심방이라는 단어는 무속의례를 행하는 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알 수 있다.

심방이라는 고유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선행연구의 고민을 다시 보게 된다. 무라야마가 신방(神房)이나 심방(尋房)이라고 표기한 것은 부적절하게 보인다. 아키바도 어원을 고민하였지만 특별한 언급이 없는 채로 결국 신방이라는 한자어를 택하기에 이르렀다.

현용준의 견해 역시 고유어 심방의 존재를 생각한다면 굳이 신의 형방(신의 성방)에서 어원을 추론할 근거가 약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신의 형방의 줄임말로 신방을 설정한 것도 설득력이 약하다. 신의 형방은 제주도 무속에서 함께 사용하는 ‘신의 아이’와 같은 쓰임새이다. 만약 줄이고자 한다면 ‘형방(성방)’ 그 자체로 될 것이라고 보며, 신의 아이 역시 그냥 ‘아이’가 될 것이다. 말하자면 심방은 신의 성방이나 신

159)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역주 월인석보』 제23,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9, 99쪽. 영인 자료는 같은 책 105~106쪽 참고. 해석은 다음과 같다. <기오백십이/ 아비가 평생에 육바라밀을 하기에 하늘궁전에 쾌락으로 보이니/ 어미가 평생에 심방긔만 즐기기에 천궁에서 못 찾아보니>

16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역주 능엄경언해』 제7·8,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7, 139~140쪽. 영인 자료는 같은 책 107쪽 참고. 해석은 다음과 같다. <‘무’는 여자 무당이고, ‘축’은 남자 무당이다>

의 아이와는 쓰임새가 다른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제주도에서 심방이 누구나 일상에서 부르는 표현인데 견주어 신의 성방이나 신의 아이는 의례에서 심방 스스로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신의 성방이라는 말은 한국 본토의 일부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난다.<sup>161)</sup>

요컨대 심방은 그 자체로 무당을 이르는 말이라고 보아야 한다. 15세기의 고유어 심방이 한국의 토착어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수입된 외래어인지 가늠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月印釋譜』와 『楞嚴經諺解』의 표기를 생각하면 최소한 15세기에 무당을 뜻하는 심방이라는 명칭이 존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심방이라는 명칭의 역사가 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月印釋譜』와 『楞嚴經諺解』의 발간 주체를 생각하면 이들 문헌에 기록된 심방은 당시에 통용되던 보편적 명칭일 가능성이 높다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sup>162)</sup>

사정이 이러하니 현재 제주도에 존재하는 심방이라는 명칭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심방이 제주도의 무당만을 가리키는 지역적 명칭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심방이 당시의 보편적인 명칭에서 비롯된 것인지 명확히 알 수는 없다. 무라야마는 함경북도와 제주도에서 신방이라고 썼다고 하는데 15세기의 고어가 함경북도나 제주도 같은 가장 변방 지역에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말하기 쉽지 않다. 석주명의 지적처럼 함경북도 어디인지도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주 지역에서 사용하는 심방이 고어의 전승인지도 단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도에 존재하는 심방이라는 명칭이 단순히 제주도만의 산물이 아니라 한국 무속의 역사 속에서 형성되었을 개연성을 확인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조선전기 무당의 호칭에서 제주의 심방과 관련한 단서를 추가적으로 찾을 수 있다. 제주에서 여자 심방을 높여 부를 때 여자의 성씨에 붙여서 ‘택이’라고 부른다. 만약 성이 고(高) 씨라면 ‘고택이’라고 부르는 셈이다. 무라야마가 제주도에서 여무에게 ‘德’이라는 호칭이 있다고 기록하였는데 아마 이를 두고 언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sup>163)</sup>

그런데 이 택이라는 명칭이 조선전기 여자 무당의 명칭과 유사한 점이 있다. 조선전기 여자 무당의 경우 ‘內隱德’, ‘甘德’, ‘黔德’, ‘貴德’처럼 이름의 끝에 ‘德’字를 붙이기

161) 전라남도 진도 셋김곳의 무가에서 “장안바다 건너가서 김씨망제 신에성방 술법받아 환생극락 가옵 사네.”라는 자료를 찾을 수 있다. 황루시 글/임원순 사진, 『진도셋김곳』, 화산문화, 2001, 173쪽.

162) 1610년에 간행된 『梁琴新譜』를 비롯한 고악보에 ‘심방곡(心方曲)’이라는 노래가 있어 ‘심방(心方)’이라는 표현이 눈에 띈다. 심방곡이 무가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있어 그 유래가 궁금한 측면이 있다.

163) 村山智順, 앞의 책, 1972년 學文閣의 영인본 31쪽.

도 하였다고 한다.<sup>164)</sup> 제주에서는 성에 붙이는데 견주어 이름의 끝에 붙는 것이 다르지만 참고할 만한 사항이라 하겠다. 더불어 제주의 호적중초(戶籍中草)에 다른 지역의 호적에서 확인되지 않는 ‘(姓)德’이 나타나는데, 하층 상민층 부녀자의 칭호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의미는 단정할 수 없다고 하는 기존의 연구가 있었다.<sup>165)</sup> 호적중초의 기록은 제주 여무의 존칭인 텍이를 이르는 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심방이 지위가 낮은 신분으로 격하된 상태였으니 호적중초에는 하층의 명칭으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여러 문헌에 나타난 제주도 심방의 역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제주도의 심방과 관련한 명칭의 역사가 깊다는 것이 증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무속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생각된다. 제주도 심방의 역사는 문헌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최소한 조선 전기인 15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또한 제주도 심방의 유래를 명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분명 한국 무속과 일정한 연관성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심방과 멥두의 역사는 모두 적어도 조선 전기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 무속과 깊은 연관성 속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 2) 제주도 무속의 다원적 전승양상 증명

제주도 무속의 역사가 깊다는 것은 그만큼 무속이 지속적으로 전승되었다는 말이기도 하다. 심방도 멥두의 전승을 통하여 무업활동의 역사를 꾸준히 이어갔다. 멥두의 전승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즉 멥두 속성의 전승, 멥두 물림의 전승, 멥두 체계의 전승이다. 이 세 가지 차원의 전승이 심방의 무업활동과 어떻게 결합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멥두 속성의 전승이다. 멥두의 속성은 무업조상과 무구로 멥두 자체의 가장 본질적인 사항이다. 이는 무업조상과 무구를 동일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멥두 속성의 전승은 무업조상과 무구의 관계를 살피는 일이다.

164) 민정희, 「朝鮮前期 巫堂의 呼稱과 種類」, 『역사민속학』 10집, 한국역사민속학회, 2000, 72쪽.

165) 김동진, 「18-19世紀 濟州島의 身分構造 研究」,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72쪽.

무업조상과 무구의 관계는 ‘드러내기’, ‘보여주기’, ‘말하기’로 정리할 수 있다. 드러내기는 무업조상의 실존을 무구를 통하여 드러내는 것이다. 멩두는 곧 신체이기 때문이다. 보여주기는 무업조상의 내력을 무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말하기는 무업조상의 판단을 무구를 통하여 전달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정밀히 구분하여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차에 따라 각각 그 양상이 두드러진 것들을 찾을 수 있다.

드러내기에 가장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어인타인이라 할 만하다. 어인타인에서 멩두를 신입무의 어깨에 올려놓아 도장을 찍는 행위를 통하여 무업조상은 신입무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 멩두가 신입무의 어깨에 놓임으로써 신이 신입무의 어깨에 존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한 무업조상을 제작하고 당주에 좌정시키는 멩두고사와 당주제도 무업조상이 무구를 통하여 드러나는 의례이다. 초공본풀이 역시 공깃상에 놓인 멩두의 무업조상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제차로 생각할 수 있다. 드러내기와 관련한 제차들은 비교적 엄숙하고 진지한 태도로 행해진다.

보여주기에 가장 적절하게 대응할 만한 것은 초공질침이나 당주질침(삼시왕질침)에서 초공본풀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연하는 부분이다. 연극적 행동과 대화를 수반하여 무업조상의 내력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초공질침에서 초공본풀이를 풀면서 이른바 ‘췌ㄷ·리’를 놓으며 함께 한 심방들에게 초공본풀이의 의미를 묻는 문답(問答)은 보여주기의 매우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sup>166)</sup> ‘젯북제맞이굿’도 삼형제와 너사무

166) 췌ㄷ·리는 굿판에 존재하는 멩두를 모두 모아서 여러 가지로 조합하여 어떤 특정한 모양을 만든 뒤 굿판에 함께 하는 다른 심방들에게 그 모양의 의미를 묻는 일종의 문답 행위이다. 예를 들어 산대를 세운 뒤 조금 떨어진 곳에 산대를 향하여 신갈 하나를 놓으면 이는 삼형제가 과거를 보는 과정에서 화살로 연추문을 맞히는 장면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췌ㄷ·리는 초공맞이의 초공질침에서 초공본풀이를 풀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췌ㄷ·리는 현재 실제 굿판에서 거의 잊혀지고 있는 제차로 보인다. 필자도 실제 굿판에서 관찰할 기회가 없었다. 췌ㄷ·리의 구체적 사례가 보고된 자료도 없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은 김윤수와 이용옥 심방이 제보한 내용이다. 현재 상황으로는 일부 큰심방들이 제보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는 과정에 있다. 다만 최근 발간된 자료에서 췌ㄷ·리로 보이는 내용이 있어 참고할 수 있다. 구체적인 현장자료는 아니지만 인용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그 굿을 행 들어가는데 초이공맞이날 초공질을 치젠 나산 “줄이 벌어갑니다. 발이 벌어갑니다.” 막 허는 중에 ..... (중략)..... 초공본에 딱 들어가니깐 “심방, 잠깐.” 영 허는 거라. “무사 마썸?” “앗야.” 떡 앞이니까 이제는 큰심방덜은 쪽허게 앓았는데 “이런 때는 서로 베우고 듣고 심방침이는 이렇게 해야 굿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멩두가 네 벌인데 네 벌 쪽 풀어놔가지고 노가단풍아가기 탄생대부떠 딱 뒤희가지고 이제는 그 산판으로 그 산을 뭉넨 곶야. 그런 일이 있어. 산을 뺑 무어들어가가지고 딱 허니깐 “심방, 일어서주. 이제 초공질 다 처셔. 이 보단 더 처.” 그러니까 그 양테옥이가 나 압을 쪽 갈아놔. 가로막아분 거라. 해면(解明)을 해준 거지. 날 늦을 시겨준 거지. 그 굿허당 저것덜 안티 췌피 당허카부텐 양테옥이는 그것을 캄푸라치 해가지고 이제는 걸 둘러친 거지. “이제랑 옷 벗어부러. 초공질 다 처시난.”(허남춘 외, 앞의 책, 47~48쪽)>. 한편 기존의 연구 가운데 김현선이 멩두 ‘예숙젹기’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한 내용이 있다(「제주도 巫具 ‘삼멩두’와 ‘울쇠’의 전승적 연구」, 119쪽). 이 멩두 예숙젹기가 췌ㄷ·리인 셈이다. 그런데 췌ㄷ·리 혹은 멩두 예숙젹기가 어떤 제차에서 하는 것인지 아직 불분명한 점이 있다. 초공질침과 당주질침에서 모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초공질침



너도령의 결연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보여주기의 사례이다. 보여주기와 관련한 제차들은 아무래도 극적이고 시각적이다. 굿관의 사람들과 소통하며 진행하는 면이 있다.

말하기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산받음과 ‘분부사뵐’이다. 산받음에서는 굿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든 과정마다 무업조상이 판단하여 말하는 셈이다. 심방은 제차마다 산받음의 결과를 일일이 확인하여 적절하게 행동해야 한다. 또한 심방은 굿을 의뢰한 단골의 기원사항에 대하여 무업조상이 판단한 결과를 잘 전달해야 한다. 분부사뵐을 통해서 조상의 말을 심방이 대신하여 전한다. 말하기와 관련한 제차들은 굿관의 성격이나 현장 상황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맹두 속성의 전승은 무업조상과 무구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적절히 구현해야 하기 때문에 심방의 무업활동 측면에서는 ‘지식전승(知識傳承)’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무업활동 전반에 걸쳐 무업조상과 무구라는 맹두의 속성을 해당 의례와 제차에 맞게 사용하는 무업의 지식을 쌓아야 하는 것이다. 굿법을 익히고 적절히 실행하는 심방의 능력과 연결된다. 말하자면 맹두의 의미와 사용법과 관련한 지식전승이다.

둘째, 맹두 물림의 전승이다. 맹두 물림은 심방의 입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적이다. 하지만 심방의 사정에 따라서는 이미 맹두를 모시고 무업을 하고 있는 상태여도 조상을 추가적으로 물려받을 수도 있다. 맹두 물림이 지속적으로 전승된 것은 그만큼 맹두를 소유한 심방이 지속적으로 교체되었다는 말이기도 하다. 대부분 심방이 사망하거나 무업을 그만둠으로써 맹두의 소유자가 교체된다. 새로운 후계자가 나타나 해당 맹두가 이전되는 것이다.

맹두 물림은 물려주는 이와 물려받는 이 사이에 일정한 합의를 동반한다. 이러한 맹두 물림에는 일정한 목적이 있고, 그 결과로 얻는 효과가 있다. 맹두를 물려주는 이는 맹두의 유기를 막고 조상의례를 기대할 수 있다. 맹두를 물려받는 이는 맹두를 얻고 일정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맹두 물림의 전승은 심방의 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 때문에 심방의 무업활동 측면에서는 ‘기반전승(基盤傳承)’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앞으로 무업활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기반을 닦는 것과 관련이 깊다. 조상과 무구를 마련하는 것부터 시

---

에서만 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점이 있다. 그리고 췌드·리의 시작과 마무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아직 확인하기 힘들다. 췌드·리가 사실상 거의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현장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작하여 무업을 익히고, 일정한 범위의 재산과 단골판의 승계까지 종합적으로 관련되는 일이다.

셋째, 멩두 체계의 전승이다. 멩두는 제주도 무속을 이루는 요소의 하나이다. 무속은 종교적 특성을 가진 생활문화이다. 따라서 무속은 여러 생활문화의 표현방법을 수반한다. 멩두는 물질 그 자체로만 전승되는 것이 아니고 무속의 전반적인 체계 속에서 전승된다고 할 수 있다.

장철수는 생활문화는 행위, 물질, 언어로 표현되며 이러한 표현매체가 일정한 규칙을 갖고 결합되어 지속적인 유형을 보일 때 각각 행위전승(behavioral traditions), 물질전승(material traditions), 언어전승(verbal traditions)이라고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행위, 물질, 언어는 표현방법인 동시에 전승수단이라고 하였다.<sup>167)</sup>

장철수가 말한 행위, 물질, 언어의 세 가지 틀은 멩두와 심방의 전체적인 관계를 살피는데도 매우 적절하게 쓰일 수 있는 개념이라고 여겨진다. 제주도 무속이라는 생활문화와 심방이라는 그 문화의 주체를 두루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업활동이라는 행위(행위전승)와 멩두라는 물질(물질전승), 초공본풀이와 공시풀이라는 언어(언어전승)가 서로 정교하게 맞물리는 점이 드러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멩두의 전승은 멩두를 중심으로 하는 행위, 물질, 언어의 체계를 전승하는 것과 같다.

멩두의 체계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것은 멩두의 신성이다. 행위(행위전승)는 멩두를 무업조상을 하여 벌이는 종교의례이다. 언어(언어전승)는 멩두의 종교적 신성을 말하는 신화이자 구비역사이다. 행위와 언어에 내재한 관념은 멩두라는 물질을 통하여 구현된다. 무구로써 멩두 역시 종교적 신물(神物)인 것이다. 멩두의 체계가 서로 맞물리며 무속이라는 종교문화의 일부를 형성한다.

멩두 체계의 전승은 종교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 때문에 심방의 무업활동 측면에서는 ‘신앙전승(信仰傳承)’이라고 할 수 있다. 멩두의 전승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이는 심방이 무속의 사제자임을 명확하게 드러내준다. 더불어 신앙전승은 심방과 단골의 소통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

멩두의 속성, 물림, 체계의 전승이 심방의 무업활동과 관련하여 다원적으로 전승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다원적 전승은 통시적 측면과 공시적 측면에서 두루 이루어진 것이다. 즉 멩두의 역사성과 사회성이 동시에 반영되는 셈이다. 또한 멩두의 다원적

167) 장철수, 『한국 민속학의 체계적 접근』, 민속원, 2000, 31~32쪽.

전승은 곧 심방과 제주도 무속의 전승양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맹두가 제주도 심방과 무속을 이해하는 핵심 고리로 의의가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할 수 있다.

## 제6장 결론

이 논문은 제주도 심방의 멥두에 대하여 기원, 전승, 의례를 중심으로 종합적 실상을 밝힌 것이다. 멥두는 심방의 무업조상이자 핵심무구이다. 멥두는 심방이 절대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이다. 따라서 멥두를 정리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은 심방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 나아가 제주도 무속의 근본 요소가 무엇인지 깨닫게 만들고 특별한 위상을 점검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멥두에 대한 입체적이고 종합적 연구가 요청되었다. 그동안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멥두의 중요성과 가치를 주목하여 제주도 무속에 대한 연구관점을 새롭게 명확하게 전환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 논문은 제주도 심방의 멥두에 대하여 구성과 기원, 유형과 전승양상, 관련 의례의 전개양상, 멥두의 의의 등의 순서로 전개하여 살펴보았다. 멥두가 제주도 심방과 무속을 해명하는 근본요소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착안하고, 멥두를 중심으로 일관되게 논의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다. 조상과 무구, 심방의 입무와 성무, 신화적 내력, 역사적 내력 등 멥두가 지니는 여러 측면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양상을 파악하는 것을 중시하였다. 그 결과 멥두에 대한 착안과 증명이 단순한 작업이 아니고 심방을 둘러싼 여러 측면을 하나로 귀결시키는 핵심적인 고리가 된다는 점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었다.

이 논문을 전개하기 위하여 먼저 멥두가 신칼, 산판(천문, 상잔, 산대), 요령으로 구성되었고 각각의 요소가 가지는 의미, 기능, 역할 등의 전체적인 개관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멥두의 기원, 전승, 의례를 중심에 두고 입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멥두의 기원은 역사적 측면과 신화적 측면에서 모두 찾을 수 있었다. 이는 멥두가 물질전승 하면서도 그 내력이 구비전승 되고 있기 때문이다. 멥두가 무업조상을 표상하는 신성 무구이기 때문에 멥두의 기원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멥두의 역사적 기원은 문헌자료를 기준으로 최소한 조선전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신칼이나 요령이 한국 무속의 무구와 유사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

면 멧두는 고대무구의 자취를 갖춘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멧두의 역사성은 그만큼 한국 무속과 관련성도 드러내 주었다. 그동안 멧두의 역사적 기원은 신화적 측면에 견주어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하였는데 이 논문에서 조금이나마 멧두에 대한 문헌자료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여긴다.

멧두의 신화적 기원은 초공본풀이를 바탕으로 멧두 명칭, 멧두 제작, 멧두 전승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초공본풀이가 무업조상의 기원을 설명한다는 단순하고 평면적인 주장을 벗어나 멧두를 중심에 놓고 명칭, 제작, 전승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신명(神名)과 무구명(巫具名)의 상호 관련성, 현실에서 본메 놓는 법의 유래, 유정승따님아기 내력담의 존재 이유 등이 새롭게 조명되었다고 생각한다. 초공본풀이의 서사 자체에 매몰되지 않고 신화적 기원이 현실의 멧두를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는지 밝히기 위해 노력하였다.

멧두의 전승에 대한 고찰은 먼저 멧두의 유형을 파악하여 정리한 뒤 멧두의 유형과 심방의 입무가 가지는 상관성을 찾아보았다. 그 다음에는 멧두의 전승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이러한 전승이 심방의 무업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였다. 이는 멧두 물질전승의 면모를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서는 다양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그 자세한 실상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멧두의 유형은 심방이 멧두를 마련하는 양상에 따라 물린멧두, ㅈ·작멧두, 봉근멧두, 제절멧두, 본향멧두라고 하여 다섯 유형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멧두의 유형 가운데는 전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물린멧두가 가장 이상적이고 보편적이다. 멧두의 유형은 심방사회에서 인식하는 용어를 그대로 살림으로써 현장성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멧두를 유형화하고 각각의 특성을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연구와 다른 차별성을 드러내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멧두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멧두를 유형별로 검토하니 곧 심방의 입무양상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마련되었다. 심방의 입무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병과 세습이 멧두와 일정한 관련을 보이고 있었다. 심방은 멧두로 인하여 입무하기도 하고, 입무하기 위하여 멧두를 마련하기 때문이다. 심방 대부분 신병을 앓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아무래도 봉근멧두와 제절멧두 같은 유형에서는 신병과 큰 관련을 보였다. 본향멧두 유형은 특히 심방의 세습 입무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멧두를 통해서 심방 입무의 내막도 찾을 수 있었다.

멥두의 전승양상은 멥두 물림과 멥두 관리로 나누어 살폈다. 멥두 물림이 현재로 이어지는 전승이라면, 멥두 관리는 미래로 이어질 전승을 대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측면의 양상을 모두 살피면 멥두의 전체적인 전승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멥두 물림은 멥두의 유형별로 나누어 살폈다. 실제 멥두 물림에는 멥두의 여러 유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전승양상의 면모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대표적인 유형을 중심으로 살폈다. 이 가운데 물린멥두의 물림이 가장 이상적인 유형이다. ㅈ·작 멥두, 봉근멥두, 제절멥두는 결국 이를 얻은 심방에 의하여 물린멥두로 전환되어 멥두 물림의 역사를 이어간다. 본향멥두는 속성상 물린멥두의 물림으로 나타난다. 멥두의 물림은 개방적인 양상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당시 상황에서 적절한 멥두를 물려주고 받는 것이다. 멥두 물림에는 당사자들의 일정한 합의가 따른다. 이 논문에서는 멥두 물림의 사례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그 의미를 밝힘으로써 실제 멥두 물림 현상에 내재한 이면(裏面)을 드러낼 수 있었다. 멥두 물림은 단순히 무구를 전승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진 행위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멥두 관리는 심방이 멥두를 잘 모시고 나중에 다시 전승을 대비하는 행위이다. 멥두는 심방이 평소에 당주에 모셔 보관한다. 당주는 고향에 마련하였는데 이는 제주에서 조상신을 모시는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멥두 역시 심방의 조상신이기 때문이다. 멥두 관리에는 멥두 합침, 멥두 보수, 멥두 기증 등의 측면도 있다. 멥두는 당주에 그대로 모셔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대상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무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파손된 멥두를 보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밖에도 복수의 멥두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멥두를 합치는 행위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공공기관과 같은 데에 멥두를 기증하는 행위는 달라진 시대상황을 심방집단이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이다.

멥두의 전승이 궁극적으로 심방의 무업활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피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멥두는 분명한 전승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전승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니 이를 뚜렷이 드러냄으로써 멥두 전승이 엄연한 사회적 행위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멥두를 전승하는 목적은 무업조상을 모시고 핵심무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심방의 자격을 갖추는 행위이기도 하다. 멥두를 전승하여 얻는 효과로 심방의 경제기반 마련과 멥두 내력에 따른 심방의 권위 확보를 들었다. 이는 심방의 무업활동 기반을 다지는 행위이기도 하다. 이밖에 심방 가계의 멥두 전승양상을 가능한 대로 재

구성하고 제시하여 멩두 전승의 실제 양상을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한편 멩두와 관련한 의례의 전개양상을 살펴 조상, 무구, 심방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멩두의 의미와 역할이 두드러지는 대표적인 의례로 멩두고사, 당주제, 신굿, 공시풀이를 택하여 그 진행양상을 우선 검토하고 의미를 찾으려고 하였다. 그 결과 멩두의 제작과 멩두고사, 멩두의 좌정과 당주제, 멩두의 신성과 신굿, 멩두의 역사와 공시풀이 등이 서로 각별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여러 의례 가운데 특히 신굿과 공시풀이의 중요성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신굿은 멩두의 신성을 바탕으로 심방을 공인하는 절차이다. 신의 길을 바르게 하고 심방의 무업활동을 인증하기 때문이다. 신굿의 제차 가운데서도 당주맞이(삼시왕맞이)와 고분질침(시왕고분연질)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조상의 신체인 멩두를 이용하여 어인타인을 찍음으로써 심방은 입무의 허가를 얻는다. 고분질침에서는 고분멩두를 통하여 굿법의 준엄함과 심방으로서 자세를 끊임없이 자각하게 된다. 또한 공시풀이는 조상의 내력을 기억하고 복원하는 절차이다. 기존 연구는 공시풀이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공시풀이를 중시하고 입체적 면모를 밝히고자 노력하였다. 공시풀이는 멩두의 전승 과정에서 각인된 실제 개인 심방 조상영혼들의 역사이자 제주도 심방공동체의 역사이기도 하다.

멩두와 관련한 의례에서 심방은 멩두를 통하여 조상과 무구의 신성과 영력을 얻고 무업활동을 학습하며 심방공동체의 내력을 공유한다. 그리고 보면 멩두의 기원, 전승, 의례의 다양한 측면은 심방에게 멩두가 어떻게 조상과 무구로서 역할을 하는지 다각도로 밝혀주는 통로가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멩두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한 결과 멩두가 가지는 의의를 두 가지로 추출할 수 있었다. 즉 하나는 심방의 탄생과 심방공동체의 형성이라는 의의이고, 다른 하나는 제주도 무속의 역사성 확인과 다원적 전승양상 증명이라는 의의를 파악할 수 있었다.

멩두는 심방의 입무, 성무, 무업활동 전반을 관통하는 요소이고 결국 한 사람을 심방으로 거듭나게 한다. 심방들은 누구나 이런 멩두를 공유하기 때문에 심방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신화적 조상인 보편조상을 공유하고 역사적 조상인 개별조상을 추가함으로써 심방과 심방공동체의 역사를 지속시켰다. 그 자세한 내력은 곧 멩두의 내력이 되었다. 멩두는 조상이니까 모시는 것이면서도, 모시니까 조상이 되는 구조를 형

성한 것이다. 멥두의 기원과 전승이 절묘하게 결합되었다. 나아가 모든 심방에게 동일한 멥두는 동일한 궂법을 낳아 심방공동체의 무업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전승시킬 수 있었다고 보았다.

멥두는 제주도 무속의 역사성을 확인하고 다원적 전승양상을 증명하는 의의도 가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멥두는 심방이나 제주도 무속과 분리할 수 없는 요소이다. 심방의 명칭을 중심으로 살핀 결과 심방의 역사성도 깊고 한국 무속과 관련성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심방의 무업활동에 있어서 멥두 전승의 의미를 속성, 물림, 체계의 차원에서 찾아보았다. 그 결과 멥두 속성의 전승은 지식전승, 멥두 물림의 전승은 기반 전승, 체계의 전승은 신앙전승이라고 파악할 수 있었다. 멥두의 다원적 전승은 멥두의 역사성과 사회성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이 논문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도 남아 있다. 예를 들어 멥두의 전승양상에서 단골판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리가 더욱 필요하다. 멥두 전승의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하는 것이 녹록치 않아 단골판의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다루는 데에 제약이 있었다. 또한 초신질 신긔의 실제 사례를 충분히 현장조사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제대로 규모를 갖추고 진행하는 초신질 신긔의 전승현장은 갈수록 매우 보기 힘들어지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니 어인타인과 고분멥두 등의 특정 제차에 대한 접근은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례 현장이 사라지고 있으나 앞으로 집중적인 조사와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한 차원 높은 연구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제주도 멥두를 출발점으로 하여 장차 국내외 사례와 견주어 보다 넓은 범위에서 검토할 필요성도 있다. 한국 무속과 동아시아의 무구에서 멥두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꼼꼼한 비교가 필요하다. 이는 제주도 멥두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자료>

- 강정식·강소전·송정희, 『동북 정병춘택 시왕맞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 국립문화재연구소,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巫具 : 서울시·경기도·강원도』, 민속원, 2005.
- 국립문화재연구소,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巫具 : 전라남도·전라북도·제주도』, 민속원, 2008.
- 국립문화재연구소,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巫具 : 충청도』, 민속원, 2005.
-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의 가정신앙 : 제주도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 김현선·현용준·강정식,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6.
- 南濟州郡·濟州大學校博物館, 『南濟州郡의 文化遺蹟』, 南濟州郡·濟州大學校博物館, 1996.
- 문무병, 『바람의 축제 칠머리당 영등굿』, 황금알, 2005.
-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 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濟州道編)』,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74.
-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濟州島 巫俗』,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90.
- 北濟州郡·濟州大學校博物館, 『北濟州郡의 文化遺蹟(II)』, 北濟州郡·濟州大學校博物館, 1998.
- 서울대학교 濟州學友會, 『濟州神堂의 內容 및 現況調査 報告書』, 서울대학교 濟州學友會, 1973.
- 石宙明, 『濟州島方言集』, 제주문화, 2008.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역주 능엄경언해』 제7·8,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7.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역주 월인석보』 제23,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9.
- 이형상 지음/이상규·오창명 역주, 『남환박물』, 푸른역사, 2009.
- 李衡祥, 『耽羅巡歷圖』, 제주시, 2000.
-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風俗巫音(上·下)』,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94.
-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이용옥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9.
- 濟州道 教育委員會, 『耽羅文獻集』, 濟州道 教育委員會, 1976.
- 濟州道, 『濟州의 民俗』 V, 濟州道, 1998.
- 제주도·제주전통문화연구소, 『제주도큰굿자료』, 제주도·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01.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전통문화연구소, 『제주큰굿』, 제주특별자치도·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10.
- 秦聖麒,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苑, 1991.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耽羅巡歷圖·南宮博物』,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허남춘 외, 『통정대부 사헌부 장령 변경봉 문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현용준, 『민속사진집 靈』, 도서출판 각, 2004.  
 玄容駿, 『濟州島巫俗資料事典』, 新丘文化社, 1980.  
 현용준·현승환, 『제주도 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7.

<단행본>

김인회·최종민/글, 김수남/사진, 『황해도 내림굿』, 열화당, 1983.  
 金泰坤 외, 『한국의 점복』, 민속苑, 1995.  
 善生永助, 『生活狀態調査—濟州』, 朝鮮總督府, 昭和 4년(『韓國 近代 民俗·人類學資料 大系 12』, 민속苑, 2008, 영인본).  
 손진태 저/최광식 역, 『조선상고문화의 연구 : 조선고대의 종교학적·토속학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물관, 2002.  
 아키바 다카시 지음·심우성/박해순 옮김, 『춤추는 무당과 춤추지 않는 무당』, 한울, 2000.  
 李能和 著·李在崑 譯, 『조선무속고』, 東文選, 2002.  
 李杜鉉, 『韓國巫俗과 演戲』,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장주근, 『한국신화의 민속학적 연구』, 집문당, 1995.  
 장주근, 『한국의 향토신앙』, 을유문화사, 1998.  
 장철수, 『한국 민속학의 체계적 접근』, 민속원, 2000.  
 赤松智城·秋葉隆 지음/沈雨晟 옮김, 『朝鮮巫俗의 研究(上/下)』, 東文選, 1991.  
 濟州市·耽羅巡歷圖研究會, 『耽羅巡歷圖研究論叢』, 濟州市·耽羅巡歷圖研究會, 2000.  
 秦聖麒, 『濟州島巫俗論考 : 南國의 巫俗』, 濟州民俗研究所, 1993.  
 村山智順, 『朝鮮의 巫覡』, 朝鮮總督府, 1932(學文閣, 1972, 영인본).  
 秋葉隆 著·崔吉城 譯, 『朝鮮 巫俗의 現地研究』, 啓明大學校 出版部, 1987.  
 한국무속학회, 『서울굿의 이해』, 민속원, 2007.  
 한국무속학회, 『한국무속의 강신무와 세습무 유형구분의 문제』, 민속원, 2006.  
 한국무속학회, 『황해도 굿의 이해』, 민속원, 2008.  
 허남춘, 『제주도 본풀이와 주변 신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1.  
 현용준,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1.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玄容駿, 『濟州島 巫俗 研究』, 集文堂, 1986.  
 현용준·이남덕/글 김수남/사진, 『제주도 신굿』, 열화당, 1989.  
 황루시 글/임원순 사진, 『진도씻김굿』, 화산문화, 2001.  
 M. A. 차플리카 지음·이필영 옮김, 『시베리아의 샤머니즘』, 탐구당, 1994.

M. 엘리아데 著·이윤기 譯, 『샤머니즘 : 고대적 접신술』, 까치, 2001.

<논문>

강소전, 「심방 관련 조상신본풀이의 형성과 전승」, 『耽羅文化』 36호,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2010.

강소전, 「제주도 굿의 ‘공시풀이’ 고찰 : 이용옥 심방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제14집, 한국무속학회, 2007.

강소전, 「제주도 굿의 무구(巫具) ‘기메’에 대한 고찰 :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기능보유자 김윤수 심방의 기메 제작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제13집, 한국무속학회, 2006.

강소전, 「제주도 잠수굿 연구 :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 동김녕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강영경, 「고대 한국무속의 역사적 전개」, 『한국무속학』 10집, 한국무속학회, 2005.

강정식, 「제주도 당굿과 경제」, 『比較民俗學』 27집, 比較民俗學會, 2004.

강정식,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전승과 변이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강정식, 「제주무가의 연행양상」, 『2010년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 현장조사사업단 학술대회 세미나 자료집 : 구비문학의 연행양상』,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10.

강지희, 「제주도 심방(神房)의 특성에 관한 연구 : 입무의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김동규, 「강신무·세습무 유형론에 대한 일고찰 : 강신체험 및 강신무의 세습성 주장에 대한 상징론적 이해」, 『한국무속학』 8집, 한국무속학회, 2004.

김동전, 「18·19世紀 濟州島의 身分構造 研究」, 檀國大學校 大學院 박사학위논문, 1995.

김명자, 「무당과 ‘신부리」」, 『한국무속학』 5집, 한국무속학회, 2002.

김태곤, 「한국 무계의 분화변천 : 강신무계와 세습사제무계의 분화원인을 중심으로」, 『韓國民俗學』 창간호, 民俗學會, 1969.

김현선, 「무속과 정치 : 쇄걸립, 쇄내림, 사제계승권을 중심으로 해서」, 『比較民俗學』 26집, 比較民俗學會, 2004.

김현선, 「제주도 굿의 구조와 원리」, 『한국무속학』 제14집, 한국무속학회, 2007.

김현선, 「제주도 ‘초공본풀이’의 영웅신화적 면모 : 구조분석, 입무의례, 신화적 성격 규명을 중심으로」, 『세계의 영웅신화』, 동방미디어, 2002.

김현선, 「제주도 巫具 ‘삼뎡두’와 ‘울쇠’의 전승적 연구」, 『생활문화연구』 6집, 국립민속박물관, 2002.

김현선, 「제주도 무구 ‘울쇠’의 성격과 의의」, 『민속학연구』 12집, 국립민속박물관, 2003.

- 김헌선, 「제주도와 유구의 무조신화 비교연구」, 『민속학연구』 10집, 국립민속박물관, 2002.
- 김헌선, 「제주도와 충승의 내림곳과 본풀이 비교연구」, 『比較民俗學』 35집, 比較民俗學會, 2008.
- 문무병, 「제주도 무조신화(巫祖神話)와 신긋」, 『비교문화연구』 제5호,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1999.
- 문봉순, 「심방의 입무의례 연구 : <초공본풀이>와 신긋의 관계를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민정희, 「朝鮮前期 巫堂의 呼稱과 種類」, 『역사민속학』 10집, 한국역사민속학회, 2000.
- 박일영, 「지혜의 체험과 전승 : 신앙공동체를 기준으로 본 무당의 유형과 역할」, 『한국무속학』 9집, 한국무속학회, 2005.
- 박호원, 「고려 무속신앙의 전개와 그 내용」, 『민속학연구』 창간호, 국립민속박물관, 1990.
- 서영대, 「고려시대 ‘巫’ 관계 자료」, 『比較民俗學』 9집, 比較民俗學會, 1992.
- 서영대, 「한국 고대의 종교직능자」, 『한국고대사연구』 12권, 한국고대사학회, 1997.
- 손태도, 「강신무와 세습무 : 세습무 유지의 한 조건으로서의 경기 이남 무부(巫夫) 집단의 세습」, 『한국무속학』 8집, 한국무속학회, 2004.
- 양종승, 「강신무·세습무 유형론에 따른 무속연구 검토 : 김태곤·최길성론을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8집, 한국무속학회, 2004.
- 양종승, 「무당 귀물(鬼物) 연구 : 『삼국유사』의 삼부인(三符印)과 무당의 거울·칼·방울을 중심으로」, 『생활문화연구』 2집, 국립민속박물관, 2001.
- 양종승, 「무당 문서(文書)를 통해 본 무당사회의 전통」, 『한국의 민속과 문화』 4집,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1.
- 양종승, 「무당문화의 전통 : 강신무당 전승고」, 『比較民俗學』 12집, 比較民俗學會, 1995.
- 양종승, 「무당의 신병과 신들림」, 『한국무속학』 2집, 한국무속학회, 2000.
- 이경엽, 「세습무 사례를 통해 살펴본 강신무·세습무의 구분 검토 : 전라도 당골과 점쟁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7집, 한국무속학회, 2003.
- 이상언, 「韓國 巫 名稱의 語義」, 『韓國民俗學』 16집, 한국민속학회, 1983.
- 이수자, 「제주도 무속과 신화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 이용범, 「강신무·세습무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무속학』 7집, 한국무속학회, 2003.
- 이용범, 「한국 무당의 유형 구분에 대한 고찰 : 강신무와 세습무의 구분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27집, 한국종교학회, 2002.
- 이용범, 「한국 무속에 있어서 조상의 위치」, 『샤머니즘연구』 4집, 한국샤머니즘학회, 2002.
- 이용범, 「韓國 巫俗의 神觀에 대한 연구 : 서울 지역 재수굿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조성운, 「19세기 제주도의 국가의례」, 『耽羅文化』 16호,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96.

- 조성윤, 「정치와 종교 : 조선시대의 유교의례」, 『사회와 역사』 53호, 한국사회사학회, 1998.
- 조성윤·박찬식,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지배체제와 주민의 신앙」, 『耽羅文化』 19호,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98.
- 최길성, 「무당(당골)의 신분세습과 무업계승」, 『韓國民俗學』 10집, 한국민속학회, 1977.
- 최길성, 「제주도 심방에 대하여」, 『濟州島研究』 6집, 濟州島研究會, 1989.
- 최길성, 「한국 무속의 엑스타시 변천고」, 『아세아연구』 34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69.
- 최길성, 「한국 샤머니즘의 기원과 특징」, 『한국문화인류학』 22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90.
- 최진아, 「무속의 물질문화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허남춘, 「제주 서사무가와 한국 신화의 관련성 고찰」, 『耽羅文化』 21호,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2000.
- 현용준, 「成巫過程 : 濟州島巫俗의 比較研究(Ⅱ)」, 『國文學報』 5집, 濟州大學 國語國文學會, 1973.
- 현용준, 「神房과 샤만」, 『韓國民俗學』 6집, 民俗學會, 1973.
- 현용준, 「제주도 무신의 형성」, 『耽羅文化』 창간호,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82.
- 현용준, 「제주도 신화와 의례형식에서 본 문화의 계통」, 『耽羅文化』 13호,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93.
- 현용준, 「제주도민의 신앙체제와 무속」, 『濟州島研究』 6집, 濟州島研究會, 1989.
- 현용준, 「濟州島 巫覡의 職能者로서의 性格」, 『金載元博士回甲記念論叢』, 金載元博士回甲記念論叢編輯委員會, 1969.
- 홍태한, 「강신무의 사례로 본 강신무와 세습무의 유형 구분」, 『한국무속학』 7집, 한국무속학회, 2003.

## Abstract

A Study on *Simbang* Shaman's Tools, *Mengdu*, on Jeju Island  
— Focused on the Origin, Hereditary Transmission, and Ritual Exorcisms —

Kang, So-jeon

Department of Interdisciplinary Postgraduate Program in Koreanolog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The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shaman rituals focused on the origin, succession, and ritual exorcisms. *Mengdu* is the key tools, or called *Josang*, which normally means ancestors, but it also means the tools for shaman exorcism, because the tools are normally bequeathed to an hereditary successor.

Understanding that *Mengdu* tools are the basic essentials to explain *Simbang* Jeju native shamans and shamanism, the study strived to keep the focus on *Mengdu* throughout the discussion. *Mengdu* reflects various aspects of shamanism to include, *Josang* and the bequeathed shaman tools, *Ipmu*, entering into shaman profession as a beginner and *Seongmu*, becoming the established shaman, the mythic origin, and historic origin. Hence, the study paid attention to understanding of the phenomena that the various aspects of *Mengdu* combine organically. It is not a simple task to focus on *Mengdu* to explain shamanism and shamans and trying to examine their roles and relationships. However, the result clearly revealed that *Mengdu* is the key to put all aspects into one conclusion.

The study also reviewed *Mengdu* of *Simbang* Jeju native shamans in the aspects to include, the composition and the origin, the types of *Mengdu* and succession, related procedure of ritual performance, the significance of *Mengdu*, in a sequential order. First, the introductory part of the study identified the components of *Mengdu*, which consists of *Sin-kal* (the paper-ribboned knives), *Sanpan* (A set of tools for Jeju's shamanic divination) composed of *Cheonmun* brass coins, like old Korean *yeopjeon* coins, *Sangjan* cups, and a *Sandae* dish, and a rainbow-ribboned bell called 'Yoryeong.' The overview of the meanings, functions, and roles of each tool were also summarized.

The study concluded with the results from the review and research in the process of the introductory study. The historic origin of *Mengdu* can be at least the early days of the Joseon Dynasty. The Jeju shaman *Sin-kal* knives and *Yoryeong* bells have a similar shape to the ordinary Korean traditional ones, which leads to a safe assumption that Jeju *Mengdu* inherited the trace of the ancient shaman tools. The relationship with Korean shamanism was clear.

To review the mythic origin, the study reviewed each of the names, production, and succession of *Mengdu* based on *Chogongbonpuri* mythic shaman exorcism. The revealed results shed new ligh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mes of deities and the names of shaman ritual tools, the origin of the rule to put the *Bonme* marks, the background reason of the story about the baby daughter of *Jeongseung* (senior minister) of the *Yu* clan, which is pronounced as *Yujeongseung-ttanim-agyi*.

The type of *Mengdu* is divided into five types based on how *Simbang* shamans prepare the tools. The five groups consist of *Mulin-mengdu*, *Jojak-mengdu*, *Bonggeun-mengdu*, *Jejeol-mengdu*, and *Bonhyang-mengdu*. The study revealed that there were various types of *Mengdu* tools existed. The review by type of *Mengdu* provided a clue to understand the procedure of a beginner *Simbang*. There was a certain consisten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ype of *Mengdu* and the type of initiation disease, or called spiritual possession, and hereditary succession from the shaman mother to a beginner shaman. *Bonggeun-mengdu* and *Jejeol-mengdu* showed a

greater relationship with *Mengdu*, while *Bonghyang-mengdo* takes a significant role in the succession practice.

The process of passing *Mengdu* down to the beginner shaman was reviewed by type of *Mengdu*. *Munlin-mengdu* fit most ideally to the process of *Ipmun* passing the tool to the new shaman. *Jojak-mengdu*, *Bonggeun-mengdu*, and *Jejeol-mengdu* also become a *Mulin-mengdu* as the *simbang* who received them from the shaman mother passes them to her heir, continuing the history of the shaman practice. *Bonhyang-mengdu* appears as *Mulin-mengdu* in essence. The *Mengdu* passing process was fairly open. The shaman mother and the heir relationship is decided with a mutual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Mengdu* was kept with respect by the *simbang* shaman who received the tools because they have to be passed down to the next successor. They are kept in *Dangju*, a designated place to keep all spiritual objects, which was usually a shed or called *Gopang* in the Jeju dialect. It is related to the custom of Jeju's ancestor worship. The maintenance of *Mengdu* includes combining the tools together, repairing, and donating the tools, which proves that *Mengdu* tools are the objects to be stored and kept for a shaman rite. Instead, they were the objects for proactive management depending on situation.

The study looked into another important aspect of *Mengdu*, review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engdu* and the shaman practices of *simbang* shamans. The purpose of passing down *Mengdu* to new comers is to worship the shaman ancestors, or called *Mueop-josang*, and to secure key shaman tools, which are also the qualifications to become a *simbang*. Receiving *Mengdu* was beneficial in two aspects, an economic base and heightened status as *simbang*. Therefore, *Mengdu* management was part of *simbangs'* job to strengthen their base as shaman profession.

The study also reviewed the process of shaman rites involving *Mengdu*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with *Josang*, the shaman mythic ancestors, *Mugu*, the shaman tools, and *simbang*, the shamans. The results reveal that there are special relationships between production of *Mengdu* and *Mengdu-gosa* ritual, the ceremonial sitting of



*Mengdu* and *Dangjuje* rite, the divinity of *Mengdu* and the *sin-gut* shaman exorcism, and the history of *Mengdu* and *Gongsipuri* rite in which *simbangs* narrate the history of *Mengdu*, their shaman ancestors, and their duties. The *Sin-gut* and *Gongsipuri* are particularly important. A *Sin-gut* is a process of official acknowledgement of the *simbang* who provides the rite based on the divinity of *Mengdu*. *Gongsipuri* is a process of remembering and recovering the shaman ancestral history. Therefore, *Gongsipuri* is actually the history of the spirits of each *simbang*'s ancestors that are identified and assigned in the process of *Mengdu* succession. It is also the history of the *simbang* community of Jeju.

Finally, the study summarized the significance of *Mengdu* in two aspects. The first one is the birth of *simbang* as a shaman and the formation of the *simbang* community. The other one is confirmation of the historic value of Jeju's shamanism and verification of multifaceted styles of succession. *Mengdu*, as the element that penetrates the entire aspects of *simbangs*' shaman activities, takes an important role to make a person to be born as *simbang* shaman. *Mengdu* shaman ritual tools were shared by all shamans, which became the base for the formation of the *simbang* community. In addition, the study also identified that the succession of *Mengdu*'s attributes is knowledge succession, the physical succession of *Mengdu* is passing the shaman base to the heir, and the structural succession is for religious succession. The multifaceted succession of *Mengdu* can be understood through the recognition of the historical and social aspects of *Mengdu*.

Key words: Simbang, Mengdu, Sin-Kal, Sanpan, Cheonmun, Sangjan, Sandae, Yoryeong, Mueop-josang, Mugu, Chogongbonpuri, Mulin-mengdu, Jojak-mengdu, Bonggeun-mengdu, Jejeol-mengdu, Bonhyang-mengdu, Dangju, Mengdu-gosa, Dangjuje, Sin-gut, Simbang Community